

檀君

箕子

衛滿

四郡

二府

三韓

三國

高麗

東史纂要

一

정본

請求 古951.
 番號 6328c
 登錄 34359
 番號

著者名

書名 東史纂要一

所屬	帶出者姓名	貸出日	返納 豫定日	返納日

請求
番號

登錄
番號

著者

書名

國會圖書館

동사찬요(東史纂要) 오운(吳澣)

조선 중기의 문신 오운(吳澣 : 1540~1617)이 지은 역사책.

8 권 8 책. 1606 년(선조 39)에 완성했다. 유성룡(柳成龍)이 왕에게 바쳐 유림의 표준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1609 년(광해군 1)에 경주에서 간행했으나 1614 년에 한백겸(韓百謙)의 충고로 지리지를 첨가하고, 고려말의 은자들도 추가하여 개찬했다.

권 1 상에서 권 2 상까지는 본기로 단군조선·기자조선·사군·이부·삼한·삼국기·신라기·고려기 등을 <동국통감>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술했다. 권 2 하에서 권 7까지는 열전으로 삼국명신전·신라충의전·여제의 열전·고려명신전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별록으로 반적 권흥의 전을 실고 있다. 이 책은 단군을 개국시조로 보면서 기자(箕子)를 우리나라 풍교의 시작으로 인식하던 전대의 이원적 역사인식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근의 <동국사략>에 의거한 신라 위주의 삼국사 서술로 고구려·백제의 기사는 신라 왕 밑에 부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애국충신 열전을 많이 수록했다. 본기 중에는 선유와 사가의 평론을 반영한 점이 특이하다. 삼한의 위치에 관해서는 먼저 한백겸의 비판에 대해 실고 그뒤에 한백겸의 삼한설을 따로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오운(吳澣)

본관은 고창. 자는 태원(太源), 호는 죽유(竹牖)·죽계(竹溪). 할아버지는 언의(彦毅)이며, 아버지는 수정(守貞)이다. 조식(曹植)·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유성룡(柳成龍)·정구(鄭逵) 등과 교유했다.

1566 년(명종 21) 별시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의 학유·학정·박사·전적·직강 등을 역임했다.

1583 년(선조 16) 경원부 아산보의 추장 변호가 난을 일으키자 북도조전장으로 나가 공을 세웠다. 그뒤 충주목사 겸 편수관을 거쳐 성균관사성을 지낸 뒤 1589 년 광주목사로 나갔다가 파직되었다.

1592 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재우의 의병을 도와서 군량과 전마를 대고 자신의 가노 7, 8 명을 데리고 참가했다. 그때 마침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을 만나 그의 소모관이 되었으며, 그 공으로 그해 7 월에 승문원판교에 특진되었다. 1593 년 상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합천군수가 되었다.

1597 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합천 부근의 왜적을 물리쳐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명나라 장수 진린(陳璘)의 접반사가 되었다. 그뒤 의흥위사과·첨지중추부사·장례원판결사 등을

역임했으며, 1601년 벼슬을 사퇴하고 영주로 돌아와 <주역>과 <주자대전> 등을 즐겨 읽으며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1616년(광해군 8) 공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상소문을 올려 <주자대전>의 진강을 왕에게 요청했다. 그는 특히 주자를 존경해 주자서 중에서 우국충정의 뜻이 담긴 소차를 뽑아 <주자문록 朱子文錄> 3책을 만들었다. 또한 <퇴계선생문집>을 김경(金勤) 등과 더불어 간행하고, <동사찬요 東史纂要>를 저술했다. 그가 편찬한 사서는 사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주 이산서원을 이간하는 데 앞장섰으며, 영주 성재산에 산천서당을 건립했다.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영주 산천서원, 남계 세덕사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죽유문집>이 있다.

죽유(竹) 오운(1540~1617)은 조선 중기 문신(文臣)이자 학자였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달리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退溪) 이황과 남명(南冥) 조식, 두 선생의 문하에 동시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취하며 자신의 학문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란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고, 지식인들이 중국만 숭상하던 분위기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역저 '동사찬요(東史纂要)'를 편찬·간행하기도 했다.

'죽유는 평생 아래의 아전들과 귀를 대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점이 다른 사람들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다. 또 자기를 굽혀서 귀한 사람을 받들지 않았다. 아침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았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죽유를 가까이서 보아왔던 선비의 평이다.

◆퇴계와 남명, 양대 석학의 가르침 받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의령으로 이거해 살았고 만년에는 경북 영주로 옮겨 머물던 죽유는 19세 때 남명의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고, 25세 때는 퇴계의 제자가 되었다. 남명의 제자가 먼저 된 것으로 전하나, 죽유에게 퇴계는 처고모부이고 조모의 종제이므로 어릴 적부터 퇴계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죽유가 영향을 받은 것도 퇴계가 먼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죽유는 퇴계와 남명 양문을 출입했지만, 학문적으로는 퇴계의 영향을 더 받았다. 이급(李緝)이 '죽유집' 서문에서 죽유에 대해 '뇌룡정 앞에서 출발해 암서헌 마당에서 졸업했다'고 표현했듯이, 학문의 입문은 남명에게 해서 최종적으로 퇴계에게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죽유는 퇴계를 존송(尊崇)하여 "그 도덕과 문장은 태산북두(泰山北斗)와 같아 이 세상의 모범이다. 주자 이후 제일인자"라고 했다.

퇴계와 남명 양문을 출입한 제자들은 대부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양문을 출입했던 데 비해, 죽유는 청년시절부터 두 사람이 별세할 때까지 계속 출입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이 죽유에게 내린 사제문(賜祭文)에서 '도학은 퇴계를 존모하고 학문은 남명을 으뜸으로

삼았다(道慕退陶 學宗山海)고 했다. 죽유의 학문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죽유의 제자이자 사위인 조형도(趙亨道)는 '산해의 마루에 오르고 퇴계의 방에 들어갔다(升山海堂 入退溪室)'고 표현했다.

죽유는 이처럼 두 석학의 학문적 훈도 속에서 남다른 학자로 성장해 큰 성취를 얻었다.

죽유가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했으면서도 절조를 지켜 물러나기를 좋아하고 주자학을 중시하며 저술을 많이 한 점은 퇴계의 영향이었고, 성격이 강직하여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벼슬살이를 탐탁잖게 여기며 국난을 당해 창의했다는 점 등은 남명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죽유는 양문을 출입하면서 문하의 많은 제자들과 사귀었는데 학봉(鶴峯) 김성일, 한강(寒岡) 정구, 서애(西厓) 류성룡, 소고(嘯皋) 박승임, 망우당(忘憂堂) 곽재우 등은 대표적 인물이다.

◆ 새로운 지평의 역사서 '동사찬요' 저술

사학에 조예가 깊었던 죽유는 기전체(紀傳體)와 편년체(編年體)를 절충한 동사찬요를 저술, 생전에 간행했다. 동국통감, 삼국사절요,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을 참고해 단군부터 고려 공양왕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죽유는 영주에서 은거생활 중이던 1606년 67세의 나이에 동사찬요를 저술했다. 죽유는 처음에는 7권으로 엮었으며, 서애 류성룡이 이를 보고 크게 찬탄하고는 한 본(本)을 선조에게 봉진했다. 선조는 유림의 표준이 될 만하다는 하교를 내렸다.

이 동사찬요의 출현으로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라는 역사지리서를 저술하게 되었던 만큼, 동사찬요의 편찬(編纂)과 개찬(改纂)은 우리나라 학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정·보완한 개찬본 완성은 75세 때인 1614년의 일이다. 한백겸은 '동사찬요'를 정독한 뒤 "죽유의 사서 저작이 사체(史體)를 얻었다"고 칭찬했다.

죽유가 동사찬요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우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역사는 잘 알면서 우리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풍조를 바로잡고, 옛 사실을 밝혀 당시의 일을 해석하는데 거울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을 명신과 반흉 등으로 구분해 권선징악을 도모하려했고, 또한 그 당시까지 나와 있던 사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특히 이 책 가운데 '지리지(地理志)'는 고대 인문지리서로 가치가 크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 '지리지'는 신라 위주로 된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해 삼국의 지리지를 따로 편찬했다. 그리고 당시 지명을 중국식 지명이 아니라 원래 군현의 명칭 그대로 편찬했다. 이는 고구려가 통치했던 요동지방을 우리 영토로 인식한, 새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해 나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수정본을 통해 단군이나 기자의 강역을 확대하거나 그 위상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동사찬요' 편찬은 역사를 통해 도학적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죽유는 글씨 또한 명필이었다. 그는 왕희지의 글씨를 배웠는데, 특히 초서에 능했다. 최흥벽(崔興璧)은 죽유 글씨에 대해 '수경(瘦勁)이 고고(高古)하여 마치 키 큰 소나무나 늙은 회나무가 껍질은 다 벗겨지고 뼈만 남은 것 같다(瘦勁高古 如長松老檜 皮盡而骨露)'고 평했다.

◆망우당 광재우를 도우며 임란 의병활동

임란 발발 이후 최초로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망우당 광재우가 초반에 경상감사 김수와 경상병사 조대곤에게 토적(討賊)으로 몰리면서 휘하의 장병들이 다 흩어져버렸다. 망우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때 모두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숨어지내려고 했다. 이 때 망우당이 의령 가례(嘉禮) 마을을 지나다가 죽유를 만나게 되었다. 죽유는 망우당이 창의한 일을 칭찬하며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용 말과 노비 8명을 내어 주었다. 죽유는 인근 마을의 선비들에게 권유해 장정들을 내놓게 하고는 망우당을 다시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자신은 망우당 밑에서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아 의병활동을 도왔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망우당은 향촌의 선비에 불과했지만, 죽유는 이미 정 3품까지 오른 고관이었고 나이도 12세나 더 많았다. 그런데도 그 휘하에서 수병장(收兵將)을 맡아 망우당을 도운 점은 죽유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처가의 재산까지 동원해 의병활동을 도왔다.

또 학봉 김성일이 의령에 초유사(招諭使)로 부임해 왔으나, 안동 출신이라 의령 지역의 사족들과 유대관계도 없고 지리에도 어두웠다. 죽유는 이처럼 지역 사정에 생소하던 학봉을 도와 지역의 사족들과 연계시켜주고 지리적 상황을 안내하며 초유사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죽유는 다시 호남을 공격하던 왜적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군을 곳곳에서 격파하는 전공을 올렸고, 도원수 권율이 이런 사실에 대해 포상할 것을 요청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기도 했다.

죽유는 1600년 이후에는 영주에 머물면서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다. 영주는 장인의 전장(田莊)이 있던 곳으로, 그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별장을 마련해 두었다. 영주에 머물며 '퇴계집'을 편찬한 데 이어, 진성이씨 족보인 '도산보(陶山譜)'의 편찬을 주도하며 서문을 쓰기도 했다.

■'죽유 불천위'이야기

종부가 목숨 걸고 지킨 감실 보물급 문화재로 보존돼 와

죽유 불천위 신주에는 가슴 아픈 일화가 서려 있다. 현재 죽유종택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야산 아래에 있다. 이 죽유종택은 독립만세운동을 모의한 곳이고, 6.25 전쟁 때는 북한 인민군본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종택은 1920년 대홍수 때 이건한 것으로, 그 전에는 현 종택에서 조금 떨어진 쌍림면 매촌리에 있었다.

당시 수해 때 죽유 15세 종손인 오용원씨(1965년생)의 증조모가 아기를 업은 채 불천위 신주 감실을 안고 마을 앞 송림천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내를 건너다 아기와 신주를 모신 감실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결국 아기는 물살에 떠내려가버리게 되고 감실만 안고 건너게 되었다.

죽유 불천위 신주와 감실은 이처럼 종부가 목숨 걸고 지킨 덕분에 홍수 후 이건한 지금의 죽유종택 사당에 다시 봉안될 수 있었다. 죽유 신주 감실은 매우 정교하고 훌륭해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 감실은 10여년 전에 유물관에 보관하고, 새로 모조품을 만들어 대체했다.

죽유 불천위 제사(기일은 음력 3월 3일)는 기일 초저녁에 지낸다. 3년 전 종손이 종회를 열어 문중 어른을 설득해 변경했다. 종손은 "제사를 마치면 밤 10시경이 되는데, 참석한 제관들이 모두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시간 변경 후 참석하는 제관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종손은 불천위 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오운 약력

△1540년 함안 출생 △1566년 문과 급제 △1580년 성균관 전적, 정선군수 △1588년 성균관 사성
△1593년 상주목사 △1595년 합천군수 △1611년 주자문록(朱子文錄) 완성 △1614년 동사찬요 개찬
△1617년 영주에서 별세

東都遺俗

以六月望浴東流水因為禳飲謂之流飲宴

見金克已集

蓋南處容法卦界昔日延容初見況未恒碧波中貝齒頰有歌在月常肩生紫袖舞青尺然容見定意
思倍以此方虛缺令人縮髻于後命曰北髻唐王五年善禱法家新髻擁嵯峨人北人南去幾何渠地翻

成卷四塞信申簇、晚山多
申日第澹曰我因埋坤多怡於卦界、民蒙福田之利故至今謂福為只祿

處旁施于字惠帝主以女妻之妻美甚疫神希之在至竊共之宿處客自外來見復二人歌曰東為期月良
夜八仲遊行如可入良汝復矣見昆脚為仲四是良只二盼隱吾下於此古二勝隱誰支下焉古本美吾
下是如馬於逸奪良此乙何如為理吉時疫神現形跪前曰吾是妾之妻女今知之矣台不見奴心誓言今已後
見畫之形密不入其門矣因生國門帖處客之形以俾和
性氏之姓以生命氏由守別



余使龍蛇亂雜采尋跡窮考思見東史攬古於今隣有友借其家
 藏三國史節要及東國通鑑因得覽閱自吾東方有國之後君德之昏
 明賢邪之消長興亡之殊跡交隣之失得可鑒可戒者視他史尤為
 切近而老昏且病過眼輒忘竊自慨然思欲賸寫展玩則三韓
 以上又敵無徵悉紀以下記載汗漫輒不自揆就其中而撮其要至
 於三國以後名臣言行隨手抄列旋念善惡俱存功懲斯備乃
 拈出叛賊權兇之尤者別錄于下庶幾親賢考實霜冰知戒第
 恨史蹟殘缺耳目私陋蚌珠有遺愚自或混初非要旨具眼祇
 欲私便記臆不意傳播士友備諸梓而印布世也抑又思之於之
 編錄詳於傳而畧於紀未考完書今既刊行則有所未盡竄改
 增修不獲已也茲敢更就原史自新羅祖甲子至高麗恭讓
 壬子甲子四百四十九年間事蹟刪冗節畧纂成君王紀自始至今
 三撰三改積功粗完乃刊去前刻第一卷以今撰紀依刻義獨目
 例今作上中下四卷進刻而并之篇首畧叙顛末于後極知僭臨
 規者愆之萬曆甲子年甲寅五月癸丑年陽吳澧謹識

子史
 子史
 子史
 子史



海東高僧傳曰釋法空新史第二十三法興王也名原宋智證元子母后帝夫人王身長七尺寬厚愛人乃神乃
聖彰信北民三年龍現楊井中四年始置兵部七年頒不律令始制百官朱紫之袂即位以來每欲興佛法羣臣喋喋口
舌王難之然念阿道之至歛乃曰羣臣曰聖祖味鄒豎而道肇宣佛教大功未集而崩能仁化過而不行朕甚痛焉
當大立如蓋重興像設其克遂先王之烈其如卿等何大臣奏謂等諫曰近者年不登民不安加以隣兵犯境師旅未
息美暇勞民作復作世用之屋武王樹左右台信歎曰官人以此不遠功承大賢陰陽不序黎民未安故臣下逆而不
誰能以妙法之術曉諭迷者乎久矣者至十六年與有內史舍人朴厥賜或云與次較或云居次較年于六匪也
人秉心塞刺志義見之事欲助洪殷密美曰陛下若欲興佛教臣請偽傳王命於有司曰王欲初佛事如此則羣臣
必諫當即下勅曰朕亡生令今誰矯命耶彼等當劾臣罪若可其美彼當服矣王曰彼既頑傲雖殺卿何朕曰大
聖之教天神所奉若斬也居常有天地之異若果有愛誰敢違傲王曰本欲興利除害反賊志臣可無傷乎曰
殺身成仁人臣大節况佛日恒明皇國念永命之日猶生之年也王大加嗟賞曰汝是布衣志懷錦繡乃其傲謂
深結洪誓遂傳宣曰初寺於天鏡林執事者奉勅興功迨居果面折廷諍王曰朕不出命禍乃昌言乃固為
之若行此法奉國者若有益於經濟惟矯國令何罪於是大合羣臣問之僉曰今見僧徒立皇殿毀朕議論奇
誕而非帝道若為從之恐有後悔臣等雖死不敢奉詔謂當曰今羣臣之言非也夫有非常之人而後非常
之事吾聞佛教淵奧不可不行且豈在安知鴻鵠之志哉王曰衆人之言卒不可破汝獨異言不可兩遂遂下吏
將誅謂苦天誓曰我為法就刑庶興義利佛若有神吾死當有異乎及斬其頭飛至金剛山頂諸岳白
乳位所處湧出高數十丈日色昏黑天雨妝花地大震動人乃士庶咸皆上畏天及下悔舍人室法漫令
相向奉表而哭遂奉遺體營葬金剛山禮也于是羣臣盟曰自今而後奉佛由僧有流也照明神強之
君子曰大聖應千百年之運仁者於祥義者於瑞美不志乎天地巨乎日月動乎鬼神而況於人乎夫其自信
於道則天地不游為不志慈功業成而業貴度也故苟有大教則輕泰山於鴻毛壯哉游其死何笑是年下令禁
殺生按國史及古諸傳高僧而述二十一年伐木天鏡林欲立禱舍瑤地石柱礎石舍就及階墜果是往苦指授舊基棟梁之用
皆出山林工既告畢王延位為佛改名法堂念三衣尾鉢志行高遠慈悲一切因名其寺曰大王興輪寺以
大五所住故也寺新興初寺之晚王妃亦奉佛為此丘危僅承興寺亦自是啓興大事王以之溢曰法非虛
美也繼後每丁賜假忘日設舍於興輪寺以追其遠及太宗王時寺輔金良國信向聖方捨二女曰花

東史纂要卷之一

檀君朝鮮

東方有九種夷初無君長有神人降于太白山檀木下國人立為君國
號朝鮮時唐堯子五年戊辰歲也初都平壤後徙白岳是為檀君
至商武丁八年乙未入阿斯達山為神古紀享壽千四十年此說可疑前輩謂于四十八年者乃檀氏傳世歷年之數
非檀君壽此說有理也太白山即妙香山阿斯達山
文化縣九月山白岳即此山也

箕子朝鮮

箕子東來
距今三十一
十八年

周武王伐付封箕子于朝鮮都平壤教民禮義田蚕織作設禁八條
相殺以當時候殺相傷以穀償相盜者男沒入為其家奴女為婢款
自賤者入五十萬雖免為民猶俗著之嫁娶無所售是以其民終不相

盜無門戶之閉婦人貞信不淫辟飲食以遺豆有仁賢之化其後孫朝

鮮侯見周衰而燕自稱王欲興兵代燕以尊周大夫禮諫而止及秦并

天下四代孫否畏秦遂服屬於秦其子準立二十餘年盧縮為燕

王準與燕以涇水為界燕人衛滿亡命家黨渡涇水求居西界

賜以圭封之百里滿誘以黨材眾遂襲準之浮海南奔按遷史漢興

至涇水為界衛滿亡命渡涇水云則以鴨綠江為涇水矣又唐書平壤城南涯
涇水則今之大同江也又高麗史以平山府楮灘為涇江則國內自有三涇水而古今的知

檀君
箕子

箕子
箕子
箕子
箕子

箕子

者則獨大
同江也

史氏按范曄曰箕子違衰殷之運避地朝鮮施八條之約使人知禁
邑無淫盜門不夜扃柔謹為風道義存焉省間教條而用信義
其得聖賢作法之原矣○涵虛子按周史云昔箕子率中國五千人
入朝鮮其詩書禮樂巫陰陽卜筮之流百工技藝皆從而泐焉
故曰半禹殷人渡遼水是也既至朝鮮言語不能通譯而知之教
以詩書使知中國禮樂之制父子君親之道始行五常之禮始備
教以百工技藝巫陰陽卜筮之術始有為制以田蚕八條之教
逾年而民自化崇信義而篤儒術釀成中國之風教以勿尚兵
鬪謂一日之亂十年不定生民塗炭不能安其業故以德服強暴
隣國皆慕其義而相親之誓為中國之藩邦衣冠制度悉同
乎中國各代之制故曰詩書禮樂之邦仁義之國也而箕子始之

衛滿朝鮮

衛滿既逐其準據王儉城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滿得以兵
財侵降亭皂真蕃臨屯皆未服屬方數十里傳子至孫右渠
可誘漢人滋多武帝遣使諭右渠終不肯奉詔殺漢使元封

三韓 二府 四郡 衛滿

三年帝遣樓船將軍楊僕浮渤海左將軍荀彘出遼東討之右渠

拒之兵久不渡帝遣濟南太守公孫遂往征之得以便宣從事朝

鮮相路人等謀殺右渠降漢遂定朝鮮為四郡

王儉宅也

四郡

漢武帝討右渠遂定朝鮮地為樂浪臨屯玄菟真蕃四郡樂浪郡

治朝鮮縣臨屯郡治東曉縣玄菟郡治沃沮城真蕃郡治雲縣郡

樂浪今平壤玄菟古朝鮮地去遼州東北三十里明帝策玄菟城今瀋陽沿東北八十里有貴德州或謂古玄菟郡今撫順十戶所是東南到鴨綠江七百里東曉今江陵東沃沮今咸鏡地

二府

漢昭帝始元五年以朝鮮旧地平郡玄菟等郡為平州都督府臨屯樂

浪等郡為東府都督府

三韓 馬韓 辰韓 弁韓

其準既為衛滿所攻棄平其左右官人入海居韓地金馬郡自辨

韓王其民土著種植知蚕桑各有長帥散在山海間無城郭有爰

襄等國凡五十餘國摠十餘萬戶居處作土屋草室其戶向上俗不

馬韓古國
今二千百十
年

重金銀錦罽而貴櫻珠用以歸髮垂耳男子衣帛袍履草屨性勇悍謹呼善用弓楯矛櫓

史氏按周武王已而封箕子于朝鮮都平壤相繼歷九百餘年至西
十代孫召常昭皇二十六年庚辰畏秦服屬否死子準立二十九年漢
惠帝戊申燕人衛滿亡命聚黨攻之準浮海而南至金馬郡都
之稍馬韓統五十餘國歷四郡二府之時傳世亦二百年至百涓始
祖二十七年已已為涓耶滅其氏相傳統前後蓋千有餘年夫
其傳世之久至於如此豈無自而然哉

辰韓在馬韓之東秦之亡人避役入韓韓割東界以其之立城柵言
語有類秦人或謂之秦韓常用馬韓人作主雖世世相承不能自立
地宜五穀俗饒蚕桑嫁娶禮俗男女有別行者讓路

并韓不知其始祖屬於辰韓辰并二國各統十國又有諸小別
邑各有渠帥有已抵國等合二十四國大國四五十家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史氏按三國郡都七十餘國之名見於陳壽三國志者以此必非鑿
空造語而東史不傳今不得考其所在

權近曰三韓之說互有不同然朝鮮王準避衛滿之亂浮海而南
開國號馬韓至百濟溫祚立遂并之今之益州有古城至今人稍
為其準城則馬韓之為百濟無疑矣辰韓新羅始祖赫居世
所起之地新唐書曰百韓在樂浪之地又曰平壤古漢之樂浪郡
則辰韓之為新羅并韓之為高句麗亦無可疑後漢書以為并韓
在南辰韓在東馬韓在西其謂并韓在南者蓋自漢界遼東
之地而云耳非謂并韓在辰馬二韓之南也崔致遠因謂馬韓麗
也并韓百濟也誤矣

○按輿地勝覽馬韓為高句麗辰韓為新羅并韓為百濟崔
致遠已有定論此非致遠創為之說自三國初相傳之說也金富
軾地理志亦以致遠之論為是至其中葉始有以金馬山在百
濟之境平邨山在高句麗之境平其并聲相近遂疑馬韓為
百濟并韓為高句麗然未有倡言指之者及權近修東國史
畧乃斬然以馬韓為百濟并韓為高句麗近乃近世大儒而
亦為是論以錯亂予載已定之說未知何謂也後漢書載并
辰在辰韓之南亦與倭接又曰并辰與辰韓雜居衣服居處

言語風俗同不曰并韓而曰并辰是雖懸聞之稻亦可以知二韓之相隣附也唐書所云并韓苗裔在樂浪地者蓋言并韓之系出自樂浪耳近引以為證而乃去苗裔二字直云并韓在樂浪之地何也故謹因致遠曰說以京畿忠清黃海等道係于馬韓旧域以全羅道係于并韓旧域之詳見勝覽○按高麗太祖說弓商曰大王欲王朝靡甫慎并韓之地莫如先興松岳之地云則以句悉為并韓非權近創說又通鑑唐太宗紀百濟下小註云百濟之國馬韓之屬也則百濟之為馬韓亦有所據又按本史百濟遣使馬韓告遷都定疆域北至涇河南限熊川又馬韓王遣使責百濟王曰王初渡河無所容足吾割東北百里之地與之云云則馬韓之為全界地地史無疑而勝覽斷以全界道係并韓下不知有何明證吾東方文獻無徵三韓之稱辨非如小小郡縣沿革之比而尚不知其地論說紛紜

三国紀 新羅 高句麗 百濟

按三国昇時位均躋敵故三国史節要及東國通鑑編年於上分註於下法資沿通鑑綱目也今是編只纂其大要而已既難於編年近得刊本東國史畧起自新羅始祖下至高句麗寶藏王共間七百餘年事蹟君王薨立渾無標題通書長編殊無史家法例愚病之謹依權近所撰史畧以新史先起後滅為提頭附麗於其間竊比曾先之十九史畧南

北朝之例云

始祖即位
非全千九
百六十三年

〔新羅始祖〕元年

漢宣帝五鳳元年甲子

夏四月丙辰始祖朴赫居世

鄉言王也

立先是

朝鮮遺民令居東海濱山谷為六村

曰關川楊山曰突山高墟曰嶺山珍支曰茂山大樹曰金山加里曰明活山高耶是

謂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望楊山麓薙井林間有馬嘶洎見得大卵

剖有嬰兒養之岐嶷夙成六部異之共立為君年十三號居西千國

號徐羅伐

一作徐伐

以朴為姓以而剖之卵似執

俗謂執為朴○新羅其地東南至大海西至智異山

業至漢江

權近曰孔子刪詩書斷自唐虞蓋以唐虞以前世道鴻荒難可

盡信也唐虞以降中國載籍已無可恠之事矣三國始祖之生俱

共漢並時安有若是其可恠者乎非獨始祖為然閔英之生

脫解之出亦皆恠而不常豈非厥初海隅之地有生之衆淳朴

無知間有一為說說者舉皆僞而神之以傳後世也

史氏按新羅本史其居稱居西千者一居西千辰亥王或云

呼貴人之稱也次次雄者一次次雄或云慈克方言巫蓋神

而敬畏之稱也尼師今者十六齒理之稱麻立千者四以其

振表位之稱至二十一世智證王三年始稱王而定國號曰

新羅始祖

新羅自赫居世至于照智二十一代之間君未嘗稱王國未有定號

崔致遠年代曆皆稱王金富載三國史因曰史而直書權近作史

畧從致遠年代曆皆以王書之蓋欲變而尊名號也今亦依致

遠權近之例自始祖以下皆稱而國號以新羅冠之

立闕英為妃初龍見於闕英并右脇生妃有賢行能內輔人謂之二聖○并

韓以國未降○築京城號金城○高句麗始祖高朱蒙立漢元帝建昭二年甲申

先是扶餘王金蛙扶餘王解夾婁老無子祭山川求嗣所御鳥至鯤闕見大石相對而淚轉石有小兒金色蛙形王喜而養之名金蛙及長立為太子後其相阿蘭弗曰夢天帝謂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濱地有迦葉原安五穀可都遂劾王移都國號東扶餘其旧都有人自稱天帝子解慕漱耒

都焉及解夫婁蔓全蛙嗣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白一作伯優渤水在令寧遼府問之曰我是河伯

之女柳花與諸弟出遊解慕漱誘入熊心中鴨綠室中秘之即往不

返父母責我無媒而從人遂謫於此蛙異之坐於室中為日影所照因

有娠生一卵蛙棄之犬豕不食牛馬避之鳥覆翼之欲剖之不能還

其母柳花後卒於東扶餘置暖處有男子破殼而出骨表英奇

甫七歲自作弓矢射之發無不中技餘俗善射為朱蒙故名之

蛙有七子其技能皆不及朱蒙是欲殺之朱蒙乃共烏伊摩難

陝父等三人行至淹沸水欲渡無梁祝曰我是天帝子河伯外甥

陝父等三人行至淹沸水欲渡無梁祝曰我是天帝子河伯外甥

朱蒙即位
距今二千九
百四三年

今日逃難追者垂及索何於是魚鼈成橋得渡橋解追騎不及
至毛屯谷遇麻衣衲衣水藻衣三人俱至卒本扶餘沸流水上都而
國號高句麗因高姓降松壤國在沸流水上滅并人國在太白山東北沃沮
一名置溝婁南接挹婁高句麗其地東至大海南至漢江北至遼河小淹
沸水在鴨綠江東也朱蒙所都一云紇升骨今平安道所川郡也傳朱蒙而都
卒本川今即有城號紇骨水沸沸流者然按金富軾燕老漢書云遼東屬縣
有無慮則固禮北鎮匡巫門也蓋於其下置匡州云堯距洛陽東北四千里屬
三縣高句麗是其一也朱蒙而都卒本川者蓋漢言堯之界遼東京之東北欽
則所川非卒本明矣又挾高句麗居遼東北後世漸東遷于浪水之側其地多
入于渤海靺鞨浪水今平壤大因江見雁製詩註挾婁在不咸山北東瀆○新羅
營宮室於金州渠浪人侵新羅見夜戶不扃露積被野相謂守

謂有道之國吾儕潛師襲之無異於盜片因退○新羅遣鄒公

鄒公本倭人而以鄒渡海而未故號焉聘於馬韓王韓讓之鄒公對曰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天時和倉庾充實人民敬讓辰韓并韓棠浪倭人無不畏

懷而猶謙虛遣下臣修聘可謂過於禮矣而及怒劫之何而韓王

歎殺之左右諫乃聽還明年馬韓王卒或說羅王曰西韓王前辱

我使今當其喪征之其國不足平也王曰幸人之灾不仁也遣使吊

慰○高句麗收祖朱蒙薨在位十九年踰東明王太子類利立漢鴻嘉二年壬寅

初朱蒙托扶餘娶禮氏有娠王既去乃生類利有奇節喜彈丸嘗出遊彈雀中沒歸益婦罵曰此兒無父只頑如此類利慙復以泥丸彈塞

新羅始祖
白麗始祖

温祚即位
匪全十九
百二十四年

之故問其母曰我父何人今何在母曰汝父非常人不容於國南奔開國方行詔喜曰有遺物藏於七嶺七谷石上松下得此者乃吾兒也魏利遍索山谷不得一日聞柱礎間若有聲就見碑石有七核自解曰七嶺七谷者七核也石上松者柱也乃搜柱下得斷釘一段行至卒本見王以釘連王出所藏釘合之果驗為嗣至是立

○百濟始祖高温祚三漢鴻嘉三年癸卯初朱蒙逃難至卒本技餘其王

無子妻以女未幾王薨朱蒙嗣生二子長曰沸流次曰温祚及魏利

為太子二人恐不容遂共烏干馬藜等十人南行至漢山登負兒

嶽望可居之地沸流居彌鄒忽今仁川府温祚都河南慰禮城今

山縣以十臣為輔國禘十渚沸流以彌鄒土濕水鹹不得安居未見

慰禮都邑既定人民安泰慙恚死其臣民皆悌慰禮改國號

曰百濟系其高句麗同出技餘故以技餘為代百濟其地東至智異山西南至大海

北至漢江一云百濟收祖以沮江為界百濟立東明毛廟○百濟患韎

鞞連歲未侵以族父乙吾有智識為右輔委以兵事韎鞞在不咸山北古

甬慎代其業沃祖相極小有不利加鐵取為鏃即今野人二國並被其晨○高句麗王謂羣臣曰鮮卑恃險

為我國患能制者重賞之技芬收曰鮮卑險固之國人勇而愚難

以力圖易以謀屈宜及間佯曰國小兵弱鮮卑易我必不為佞臣矣

其隙率精兵從間道王使羸兵軍城南佯敗走彼必空城進之

臣以精兵入其城王勇騎挾擊之此韓信攻趙之策王從之鮮卑

羅始祖
麗瑤瑞王
百洛始祖

果開門進之拔芬收走入城鮮卑聖之輕奔拔芬收當関拒戰
斬殺甚多王舉旗鳴鼓而示鮮卑首尾受敵計窟力屈降
遂為虜國王賞拔芬收食邑辭曰此王之德臣何功焉王乃賜
黃金三十斤良馬一匹○百洛遣使馬韓告遷都定疆域也至
沮河南限熊川西窟大海東極走壤片立城闕於漢山移慰禮
民宗之十四年徙都焉○東沃沮遣使新羅獻良馬二十匹曰寡
君聞南漢有聖人出遣臣未獻東沃沮在高句麗蓋馬山東之濱大海北接挹婁拔餘南接濊貊人性
首直強勇武帝滅朝鮮以其地為玄菟郡即今咸鏡道○百洛始祖十七年立国母廟

權近曰有国家者必立宗廟以祀其先禮也国母自當配食於禰
不宜別立廟而祀之也魯隱別為仲子立廟春秋譏之今百洛既
立東明之廟而為国母別立其廟何哉借曰禮無二廟而類利之
母既配東明故温祚不得不為其母別立廟則東明之廟在高
句麗百洛以高句麗為宗国不得別祀東明當如夔子之不
祀祝融其鬻熊也若自別為宗以立東明之廟則不當配以
他国之母而別祀其母也温祚於此胥矣之矣

高句麗郊豕送王使託利斯早進得之斬其脚筋王怒曰祭天

高句麗史卷一

之性豈可傷也遂坑殺二人

權近曰祭天於郊天子之禮也高句麗以慕甫下國僭行其禮天豈受之哉郊豕之還至于再三天亦不受之意明天者理之所在而神不歆非禮麗王乃敢非義化分僭行天子之禮又以一豕之故遂殺二人以是事天反所以欺天也

高句麗王二十二年冬徙都國內築尉那巖城先是高句麗郊承運王命掌牲薛支追之至國內尉那巖得之還見王百臣至尉那巖見其山水深險地宜五穀又多麋鹿魚鼈若移都可免兵革之患於是徙都王出田五日不返大輔陝父諫曰王新移都邑民不安堵宜攷之德政而不念此馳聘田獵久而不返若不改過自新臣恐政荒民散王聞之震怒罷陝父職陝父奔南韓○新羅二龍見於金城井中暴雷雨震城南門○新羅王赫店世

薨

在位六年

越

七年

王

妃

閔

英

薨

葬

蛇

陵

太子

南

解

五

蹄

王性沉厚多智畧即位而稱元

漢元始四年甲子

史氏按國君嗣立踰年改元乃禮之正若改元於薨年則是一年之內國有二君也漢儒惑於書序之文乃以湯崩踰月為

太甲元年蕪氏以為崩年改元乱世事也胡氏蔡氏亦辨之已
詳富軒反以漢儒之說為是何也權近史畧改曰史踰年稱
元庶幾得春秋之義然三国史上下千載間編年紀事例以
蕪年為元今若捨曰史從史畧則其紀事類狀格失實
故因曰史書之

〔南解王〕三年春正月立始祖廟○百滑王宮井水暴溢漢城人家馬
生牛一首二身日者曰井溢者大王渤興之兆牛一首二身者并隣國之

應也王喜遂有併吞辰馬之心○新羅王以長女妻昔脫解脫解

本多波那國人國在倭國東北一千里初其國王娶女國王女有娠七年夫

老嫗繩之間積有兒養之以未時有鵲隨鳴身長九尺風神秀朗智識

過人業漁釣養嫗無怠色嫗曰子骨相非常人宜子學立功名遂

專精學問兼通地理望楊山下乾公宅為吉地計取而居南解

王聞其賢妻以女為大輔妾以軍國政事○高句麗王賜太子解

明死初王遷都解明不肯從留古都有力好勇黃龍國王遣使

賜強弓解明對使者膏折之曰非予有力弓自不勁并黃龍王

慙麗王聞之怒遣人謂解明曰吾遷都欲安民汝不隨恃強力

羅南解王
麗琉瑞王
洛始祖

結怨隣國於子道何乃賜劔死或止之曰安知非詐乎太子曰
嚮黃龍王遺以強弓我怒其輕我國折之不意見責於父父
命可逃乎乃往礪津原以槍插地走馬觸槍而死禮葬立廟
號其地槍原○百渚王二十七年馬韓園山錦峴二城降先是百
渚立熊川柵馬韓王遣使責曰王初渡河無所容足吾割東土
百之地_里早之其待王不為不厚宜思有以報之今以國完民聚謂
我莫共敵大設城池侵犯我封疆北義何王慙遂毀之馬韓
漸弱勢不能久百渚王陽出獵潛師襲之遂并其家惟二城
不下至是降馬韓亡○扶餘王帶素遣使讓高句麗王曰我先
王共先君東明相好而乃誘我臣僚逃至于南以立國夫國有大
小人有長幼以小事大禮也以幼事長順也今王能禮順事我
天必佑之不然欲保社稷難矣王自以立國日淺民孱兵弱示
屈以圖後效報曰寡人僻在海隅未聞禮義今承大王之教敢
不惟命王子無恤尚幼聞王失對自見拔餘使者曰我先祖
生而神異賢且多才大王謚諸父王辱先祖以牧馬先祖見
幾而出今大王不念先愆但恃兵強輕蔑我邦請使者歸

新羅南解王
句麗大武神王
百濟始祖

報大王今有累卵於此若大王不毀其卵則吾將事之不然則吾
帶素聞之徧問羣下莫有對者有老嫗對曰累卵者危也
不毀者安也其意若曰王不知自危而欲人之事已不如易危以
安而自理也○王莽始建國四年發高句麗兵伐胡高句麗不欲行
迫遣之皆出塞因侵遼西殺太守田譚莽怒遣嚴尤佗
之降封麗王為下句麗侯於是侵漢邊地愈甚○拔餘侵
高句麗王使子無恤禦之無恤設奇伏于山谷拔餘直至
鶴盤嶺下伏發佗之拔餘軍大敗棄兵釜山無恤縱兵盡
殺之○倭侵掠新羅邊郡新羅發六部勁兵千人以禦而之
樂浪棄虛攻金城甚急夜有流星墜營賊懼而退屯於閼
井上造石堆二十而去追者見石堆知賊衆乃止○高句麗麗王
利薨號琉璃瑠明王在位三十七年太子無恤立聰慧雄傑有大畧
漢五鳳元年戊寅三年立東明王在○拔餘人得赤烏一頭二身獻其王
帶素或曰烏本黑變而赤又一頭二身并一國之徵王其無高句
麗子帶素喜送高句麗無示或者之言王報曰黑者北方
之色今變而為南方之色又赤烏瑞物也君得而不有送於

我兩國存亡未可知也帶素悔○百濟築王大壇祀天地○高
句麗王攻扶餘道遇一人身長九尺目有光拜曰臣是北溟人恠
由竊聞大王伐扶餘臣請從行取扶餘王頭王悅許之進軍
於扶餘國南解鞍休卒扶餘王自平衆出戰策馬突前陷
泥淖恠由拔劍直進斬王頭扶餘人猶不屈圍麗兵數重忽
大霧七日王從間道潛軍夜出既還國引咎自責吊死囚
疾國人感悅恠由疾革王親臨存問及卒命有司葬北
溟山陽以時祀之○扶餘王帶素之弟自立為王王金桂季子也都昌思水獬曷思王
○百濟右輔乙音卒以解婁代之解婁本扶餘人神武淵奧年過
七十奮力不憊○新羅王南解薨在位二十二年王遺命吾死後甫朴首
二性以年長嗣位及薨太子儒理讓脫解曰神咒非庸人
所堪吾聞聖智人多齒試以解嚙之儒理齒理多乃立之號
尼師今漢更始二年甲申

儒理王○

日者曰鴻鴈民之衆也將有遠人未投

者乎已而南沃沮二千餘家至斧壤納款○高句麗王九年伐蓋
馬國以其地為郡縣勾茶國王聞蓋馬滅懼平國未降高句

麗之地浸廣○百濟始祖溫祚薨在位四十六年太子多婁立漢建武四年○

高句麗王十年漢遼東太守將兵未伐左輔乙豆智以計退

師詔在豆智傳○新羅王巡國內見一老嫗凍餒將死王曰予以

眈躬居上不能養民使老幼至於此極賜衣及食命有司存

問鰥寡孤獨老病者賑之隣國之民聞而未耒者衆民俗歡康

昭作兜平歌以誦之○百濟東部屹于其鞬鞞戰於馬首山

西克之殺獲甚衆王賞屹于馬十匹祖五百石○新羅王改六

部之名各賜姓李崔孫鄭裴薛中分六部為二使王女二人

名平部內女子自秋七月既望早集大部庭績麻夜分罷至

八月十五考切多少負者置酒食以謝勝者相共歌舞作百越

謔嘉俳負家一女子起舞歎曰會蘓會蘓其音哀雅後人

因其舞作歌名會蘓曲○新羅設官置十七等一百伊代倉二日

四曰波珍倉五日大阿倉皆授真骨王族也六曰阿倉七日吉倉八曰沙倉九

日級代倉十日大奈麻十一曰奈麻十二曰大舍十三曰舍知十四曰吉士十五曰大島十六

新羅儒理王
句麗大武神王
百濟多婁王

而能改善莫大焉引坐為友仇都等感愧不復為惡王聞之曰
教素不用嚴威能以智懲惡可謂賢矣○高句麗襲樂浪
降之先是王子好童遊於沃沮樂浪竟而奇其相遂同婦妻
以女泉浪有鼓角自鳴則敵兵至好童將還潛謂女曰若能入
武庫割鼓面角口則我以禮迎之女如其言以報好童好童悌
幼王襲泉浪兵至城下泉浪始知鼓角皆破遂殺女出降○
高句麗王子好童自殺好童側室子也容兒羨好王愛之王元
妃恐奪嫡譖好童無禮於妾王疑之或勅自釋曰我若自
釋是顯母之惡貽父之憂遂伏劍死

金富軾曰今王信譖言殺愛子其不仁不足道矣而好童
不得無罪何則予之見責於其父也宜若正之於聲小
杖則受大杖則走烟不陷父於不義好童不知出此而死非其
罪可謂執於小謹而昧於大義其公子申生以璧言耶

百濟下令卅郡收作稻田○高句麗襲樂浪滅之樂浪人五千

投新羅○駕洛國收祖

今金

金首露立

漢建武大年年壬寅新羅
儒理五十九年○初駕洛

有和力干汝力干等九人各為酋長無君臣位辨率其民稷飲望見龜
峯有異氣且聞空中語就得金楹開視之有六金卵不日皆化為男

奇偉長大眾皆驚異推立怡生者為主因全卯姓金氏以始見名首露路國
辨大駕洛又稱伽倻餘五人各為五伽倻主曰阿羅伽倻古寧伽倻大伽倻星山
伽倻小伽倻伽倻洛後改稱金官國東至黃山江東北至伽倻山西南際大海西
界智異山首露路王立七年戊申阿踰陀國公主浮海而至王初為妃是為許氏
阿羅今咸安古寧今咸昌大伽倻今高天星山今星州小伽倻今固城
○漢武建武二十年帝遣兵渡海伐衆

浪取其地為郡縣薩水以北屬漢○高句麗王無恤薨在位二十七年

大武神王太子解憂年初國人立王弟解邑朱建武二十一年甲辰立五年而薨

王嘗田於國中見石窟謂左右曰吾死必葬於此及薨從遺

命葬石窟稱閩中王太子解憂立建武二十四年暴戾不仁不恤國事坐

必藉人卧必枕之人或動搖輒殺之臣有諫者射之民怨天怒災

異不絕在位六年而杜魯刺之葬於墓本原因以為稱國人迎琉

璃王孫官立之是為太祖王建武二十九年癸丑官生而能視幼而岐嶷年七岁

太后垂簾聽政○高句麗伐東沃沮取其地為邑於是拓境東

至滄海南至薩水○新羅儒理薨在位三十四年昔脫解從遺命漢中元二

年丁巳

權近日自夏后氏以來有國家者必傳其子不惟夏後世爭奪

之亂也所以重宗社也傳之異姓則謂之革命而祖庙不血食矣

儒理從父亂命而卒傳之脫解其不識輕重甚天若日雖傳

新羅儒理王

白麗閩中王

慕本王

百濟多婁王

異姓祖廟尚存則神固不享非類矣其可謂之血食乎若以堯舜禪讓為言則堯舜之禪讓以天下為公為天下得人也南解之傳子

壻以國家為私安敢藉以為言哉

子甲

〔脫解王〕姓昔氏以範公為大輔八年押百洛攻新羅西鄙蛙山狗

壤等城新羅發奇兵俘走之自是連歲未侵互相攻取○新羅

王夜聞金城西俗林間有鷄拜遣範公視之有小金櫝掛樹梢

白鷄鳴于下範公遂告王取櫝開之有小男兒王喜養為子名

闕智小兒之稱出於金櫝姓金氏改俗林為鷄林因以為國號○

新羅以宗戚朴氏分理卅縣號卅主郡主○百洛王多婁蒙

在位十五年太子已婁立漢章建初二年丁丑○新羅王脫解薨在位十四年儒理王第二

子娑娑立漢建初五年庚辰

〔娑娑王〕下令曰今倉廩空匱戎寇不堅利宜勸農桑鍊兵

革又令繕葺城壘以備不虞分遣十人廩察卅郡不勤職事

田野多荒者逐之又問高年賜穀境內大有年行者不齎糧

○加耶兵連歲侵新羅南鄙王親率勇士五十出戰破之又

欲舉兵伐加耶加耶國王遣使謝乃止○新羅二十二年春築

城于金城東南號月城或號在城周二千三百步杖首移居新城○音汰伐國與悉直谷國爭強詣新羅請波王難之謂首露王年老多智以問之首露立波以所爭地屬音汁伐國王命六部以饗首露五部皆以伊滄擯之惟漢祇部以位卑者擯之首露怒命奴殺漢祇部主保齊而歸收逃依音汁伐王使人索其奴不送王怒以兵伐音汁伐國其主與眾自降○高句麗侵掠遼東六縣太守耿夔出兵拒之麗軍大敗○新羅大水民飢發使十道開倉賑之○新羅蝗害穀王遍祭山川以祈之蝗滅有年○新羅王婆娑

薨

在立三

太子祇摩立

漢永初六年壬子

〔祇摩王〕四年王伐加耶國師渡黃山河加耶伏兵殺圍王數重王奮

仔波圍而退○高句麗王卒六年麗共濊貊

濊貊本朝鮮之地南婁辰驛並共高句麗沃沮相接東窮大海

西至身浪漢武帝元朔五年穢君南閭畔朝鮮卒于高句麗人謂遼東以其地為滄海郡故年戶罷建武中封為縣候歲時朝貢其言語法俗與高句麗同人性愚慙以嗜欲為滿今襲漢玄菟攻華麗城越三年春漢幽州刺史馮煥

羅脫解王

婆娑王

祇摩王

麗太祖王
淪已婁王

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詛等將兵侵高句麗仔殺濊貊渠帥盡獲兵仗財物王乃遣弟遂成詐降願兵據險以遮大軍潛遣兵攻玄菟遼東二郡焚其城郭殺獲二千餘人王與解早兵又侵

遼太守蔡諷與戰敗績○高句麗王以其弟遂成統軍國事

史以按魯隱公命羽父帥師終致鐘巫之變莊公以慶父主兵卒

召武圍之禍麗王老耄親弟遂成位長百僚專擅威福有今將

之心又使之統軍國重事以長其惡竟付之神咒愛子大臣旋被

誅戮禍延宗社由不能辨之早謹於微也其得免鐘巫武圍之

禍幸矣

新羅王十三年甲子九月晦日有食之○高句麗以沛者穆度婁為左輔

高福章為右輔其遂成參政事度婁後知遂成有異心稱疾不

仕○百濟王已婁薨在位五十二年王志識宏遠不留心細務子蓋婁立漢永

建三年○新羅王祇摩薨在位二十三年王無子儒理長子遠聖立漢陽嘉三年甲戌

〔逸聖王〕鞞鞞燒新羅長嶺五柵侵掠不止新羅旋立柵以防之○

高句麗遂成遊獵無度其弟伯固切諫不聽○高句麗九都地

震王夢一豹斷虎尾占者曰虎者百獸之長豹者同類而小者也

意者王之類族殆有謀殺大王之後者乎王不悅問高福章對曰

你不善則吉變為凶作善則災返為福大王憂國愛民雖有小

異庸何傷乎後遂成出獵謂左右曰王老吾齒亦暮不可坐待

願為我計之皆曰惟命有人曰王子有不遜之言而左右不能直

諫可謂姦且諛矣吾欲直言可乎遂成曰可曰今王賢明由

外無異心子雖有功卒羣不逞之徒謀歛所之雖愚者猶知不

可若王子改圖易慮王知王子孝順必有揖讓之心不然則禍

將及也遂成不說左右曰此人妄言禍福若不殺恐漏言致悔

遂成從之高福章言於王曰遂成將反請先誅之王不從又

諫不聽乃禪位退老別宮稱為太祖大王在位九十四年遂成五年七

十六漢本初元年丙戌殺福章及太祖元子語在福章傳

史氏曰福章為時右輔當炳幾先圖難於其易為大於其

細可也當九都地震或者占夢之時為福章計者盡言

極諫王必悔悟矣而顧乃泛言福善禍淫之說諂辭以說

之使王無復有疑後雖請誅吁亦晚矣

新羅王聖薨在位二十一年王置政事堂令卅郡修隄防闢田野禁

民用金銀珠玉長子阿達羅立漢永興二年甲午

阿達羅王王身長七尺豐準有奇相○二年阿淦吉宣謀叛

事賞奔百濟新羅王秘書請之不從王怒出師伐之百濟諸城

羅達聖王

阿達羅王

麗次木王

淦蓋婁王

堅守羅兵糧盡乃故

金富軾曰春秋時宮僕未奔魯季文子曰見有禮於其君者
事之如孝子之養父母也見無禮於其君者誅之如鷹鷂之
逐鳥雀也今吉宣亦奸賊之人百淪王納而匿之是掩賊為藏
者也由是失隣國之和使民困於兵革其不明甚矣

新羅王三年開鷄立嶺路四年置迎日縣東海濱有人夫曰迎鳥妻
曰細鳥一日迎鳥採藻海濱

忽漂至日本小島為王細鳥又漂至其國立為妃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曰迎
鳥細鳥月之精合本故有斯咎於是置迎日縣

五年開竹嶺路○高句麗前王薨壽百十
九歲高句麗明臨谷夫弒其君

遂成在位二
十年立王弟伯固漢
乙巳初伯固避遂成遜于山谷及遂成被

弒左輔崗支留與羣臣議迎伯固請立伯固三讓而後即位年七

十七號遂成次大王下令大赦國人歡呼初答夫之難遂成太子鄒安

逃竄山谷至是詣闕請罪王賜徇山瀨婁頭谷二所封為讓國君

以答夫為國相陞為沛者

權近曰君臣之分猶天壤然弒逆之賊無彼此一也故春秋之法國

君有為弒逆者而立而不能討其賊則是亦其聞乎故而不免首

惡之名今答夫弒遂成而立伯固伯固徒知之為有德而不思

弑君之為當討及罷任之是舉國君臣皆為弑逆之黨三綱淪
而人紀滅矣

百濟王蓋婁薨在位三十九年子肖古立漢延熹九年丙午百濟潛師襲破新羅中

鄙二城虜男女二千新羅命吉倉興宣領兵二萬代之百濟俱還

俘乞和○漢熹平元年玄菟郡太守耿臨以大兵欲攻高句麗王問

羣臣戰守孰便眾曰漢兵恃眾輕我若不出戰以我為怯必散

未請出師御之谷天曰不然漢以強兵遠圖其鋒不可當且兵眾

者空戰兵小者宜守今漢人千里轉輸不能持久若我深溝高壘清

野待之不過旬月其勢必敗我以精兵薄之可以得志王然之嬰城

固守漢人攻之不克士卒飢窘引還谷夫車千騎追戰大敗之匹

馬不返王大說賜谷夫食邑○高句麗王伯固薨在位十五年號新大王

太子男丑立漢光和二安表雄偉莅事聽新寬德得中○新羅何

達羅王薨在位三無嗣國人立脫解王孫伐休漢中平元

伐休王占風雲預知水旱豐儉又能知人邪正謂之聖王巡卅

郡規風俗下令無作土木之事以集農時○新羅仇道昔百濟戰

狗壤勝之殺獲五百餘級結而百濟龍名新羅西境圓山鄉百濟

洛肖古王

兵保退將軍仇道追至蛙山滑兵還任大敗之王以仇道失策貶為
岳谷城主以辭至為左軍主○高句麗沛者於畀留評者左可
慮等謀叛伏誅二人皆以外戚執國柄多行不義國人惡憤王
怒欲誅之左可慮等叛聚眾攻王都王徵歲內兵討平之
王既誅左可慮等遂下令曰近者官以寵授位非德進毒流
百姓動我王家此寡人不明之過也汝四鄰其各刊賢良在下者
於是共舉東都晏留王徵之妻以國政晏留言於王薦乙巴
素語在巴素傳王謂晏留曰向非子孫不能得巴素片拜
大使者○高句麗立賧貸法初王出敗路見哭者問之對曰臣貧
窶常以傭力養母今歲不登無幣於傭不得升斗之食以是哭
王曰孤為民父母使民至於此極孤之罪也給衣食以存撫之何
命內外兩司訪鰥寡孤獨老病貧乏者賑恤之又令每歲自
三月至七月出官穀以賑貸百姓稍家口多少至冬還輸以為恒
式內外大悅○震新羅宮南大樹又震金城東門是歲新羅

王作休薨

在位十三年

奈解立

代休第之子伊買之子也國人以太孫助貢尚幼奈解稍長立之漢建安元年丙子

〔奈解王〕容儀雄偉有俊才新羅自正月不雨至四月王即位日

乃兩百姓歡慶○中國大亂漢人避亂投高句麗者甚多○高句麗

王男武薨在位十九年 號故國川于后矯遺命立王弟延優漢建安二年丁丑

王薨后秘不發喪夜洩王弟發歧弟曰王無後子宜嗣之發歧曰

婦人夜行禮乎后慙便洩延優延優迎入飲之后遂共延優入宮

習者矯遺命立之發憤怒遂以兵圍王宮知事不洩奔遼東清

師於太守公孫度討延優延優命其弟扇復將兵禦之於歧

石克自刎死延優立前王妃于氏為后○駕洛國王首露薨新羅

奈解王四年○壽百五十八歲 子居登立○百濟攻新羅腰車城拔之殺其

城主百濟連歲未侵新羅命王子利音將六部精兵二千伐百

濟破汝規城仍以利音為伊代倉兼知內外兵馬事○高句麗

王立王子如菟為太子先是郊丞逸掌者進之至酒桶村有一女

年于許美而豔遇承執之王聞而異之微行幸其女于后聞而妬

陰遣兵士殺之女男服而逃兵士追及之女曰殺我王命予今妾

有娠殺妾可也殺王子可乎兵士不敢害王乃復幸女家問沙

有娠是誰之子對曰平生不共兄弟因席况敢近異姓男子乎乃

生男始因郊丞而得命名郊菟至是立為太子改名憂位居○

新羅奈解王

高麗山上王

百濟肖古王

高句麗王十三年移都丸都○百濟王肖古薨在位四十九年元子仇首立

漢建安十九年甲午身長七尺儀威秀異○韓鞠圍百縣赤洙城城主固拒

賊退王率勁騎八百追之戰於沙道城下大破之設二柵於城側

添兵戍之○漢平州人夏瑤以千餘家投高句麗○百濟兵圍

新羅倭山城王親率兵佯破之○百濟侵新羅牛頭鎮新羅

伊伐倉忠萱逆戰見敗賍為鎮王以連珍為伊伐倉兼知馬

馬事○高句麗王延優薨在位三十一年薨太子夏位居立魏明帝太和元

年丁未性寬仁王后欲弑王心候王出遊截王路鬣王還曰馬無鬣可

憐又令侍者進食陽覆羹於衣亦不怒○新羅王奈解薨在位

三十一年塔助賁立代休太子骨正之子魏太和四年庚戌

助賁王身長大義儀表臨事明新國人畏之以伊倉昔于老為大

將軍討破甘文國以其地為郡倭寇新羅東邊于老戰于沙道

乘風縱火焚戰艦賁赴水死盡于老奈解王子○百濟王仇首薨在位二十一年

國人立肖古王母弟古爾魏青龍二年甲寅○百濟王獵海島手射鹿罟

權近曰蒐狩之禮所以為民除害也然其好生愛物之心亦

而不忍故制為禮制使不致過焉易曰王用三驅失前禽

禮曰天子不合圍諸侯不掩羣大夫不麇射士不覆巢蓋不欲
並包而多取也以御則逐禽左者蓋不欲詭而多獲也以射則
天子殺下大倖諸侯殺下小倖亦不欲久攻而多殺也諸王以
君國之尊曠屏庶政越風濤之險觸嚙繁之危多殺不
忌誇而射御之能侈然自肆而不知其為非仁心也夫吁人
不可以無仁心也大夫士亦不可多取况人君子傳曰馳騁田獵
令人心芥狂可不戒哉

吳王孫權遣胡衛通和于高句麗王斬其首傳首於魏又遣
使如魏賀改元遣兵助司馬懿討公孫淵○新羅王十五年

子

以伊倉于老為舒弗郎兼知兵馬事高句麗侵新羅止邊于
老將兵出俘不克退保馬頭柵時天寒于老躬行勞問手燒
薪煖之士卒感喜如挾纊○魏正始七年遣肅州刺史毋丘儉
將萬兵出玄菟侵高句麗王將步騎二萬逆戰於沸流水
上敗之又再戰於梁貊谷又敗之前後斬獲六千餘級王諸謂
將曰魏之大兵反不如我小兵魏之名將命在我掌握乃以鐵
騎五千進俘之儉為方陣死戰麗軍大潰死者萬八千餘人

新羅助貢王

百濟仇首王

百濟仇首王

古爾王

以王餘哲奔鴨綠原母丘儉攻陷九都城屠之王奔南沃沮語
在密友細由傳初薨人得未見王侵叛中國救諫不從嘆曰立見
此地將生蓬蒿遂不食死儉令諸軍不壞其墓不伐其樹得
其妻子皆放遣之薨王以九都狂亂不可復都移都平壤城○

新羅王助賁薨

在位十八年

母弟沾解立

魏正始八年丁卯

沾解王封父骨正為立神葛文王

新羅稱世封王皆稱葛文

金富軾曰漢宣帝即位有司奏為人後者為之子故降其父
母不得祭尊祖之義也是以帝所生父稱親諡曰悼母曰悼
后此諸侯王此合經義為萬世法故後漢光武采英京法而
行之新羅自王親入德大統之君無不追王其父非特如此而
已封其外舅者亦有之此非禮固不可為法也

高句麗王憂位居薨

在位二十二年

弟東川王太子然弗立

魏正始九年戊辰

儀

表俊爽有智畧東川之薨國人懷德莫不哀傷近臣欲自殺
以殉者及葬至墓自死者甚多國人伐柴以覆其屍遂名其
地曰柴原○新羅于老討滅沙梁伐國沙伐云○倭寇新羅殺
于老語在于老傳○高句麗王殺夫人貫那初貫那顏名佳

麗髮長九尺王愛之將立為小后王后椽氏恐其專寵言於王曰妾

聞西魏求長髮購千金者我先王不致禮於中國被兵出奔殆喪

宗社今王遣一箇行李以進長髮美人則彼必欣悅無復侵伐

王默然貫那俱反誣后於王後王出獵還貫那將革夷迎哭

曰后欲以此盛妾投諸海願大王賜妾微命得返於家王知又

詐怒曰汝要入海乎遂感革夷投之西海○高句麗王毘于杜訥

谷魏將尉遲楷未伐王間精騎五千戰於梁貊谷敗之斬首

八千餘級○百濟改官制置佐六平曰內臣掌宣帥事內頭掌軍藏事
內法掌禮儀事衛士掌宿衛事朝廷掌刑獄

事兵官掌外兵馬事已並一品又置連平思平德平并平奈平將德苑德

國德李德對德又督武督佐軍振威克虞以上自二品下至十六品令六品以上服紫

以銀花飾冠十二品以上服緋十六品以上服青王服紫大服紫大神袍青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革履○百濟遣使新羅請和不

從○新羅王沾解冕在位十五年金味鄒立魏景元二年辛巳

味鄒王姓金氏 關智七世孫也助貢王妻 以女王燕苑無嗣國人立之追封父仇道為葛又王○百濟

立化賦法凡官人受射及盜者三倍徵贖禁錮終身○新羅自

春至夏不雨王會羣臣訪刑政得失又遣使五人問民疾苦○高

句麗王然弗莖在位二十三年號中川王太子藻盧立晉泰始六年庚寅性聰悟而仁

國人愛之○高句麗王患肅慎侵害遵民思得奇謀畧異才

新羅沾解王 味鄒王 句麗中川王 百濟古爾王

堪將帥者回羣臣皆曰王弟達買可堪於是遣達買代之拔檀盧
遷六百餘家於扶餘南降部落六七所以為附庸王大悅封達買為皆國

君知內外兵馬事○新羅王味鄒冕在位二十三年昔儒禮立晉太康五年甲辰

儒禮王助賁王長子也○高句麗王葉盧誘殺其弟逸友素勃初入詐稱

病涉温湯其黨類斫鼻無節出言悖逆王偏拜相呂之令武士執而

殺之○百濟王古爾覽在位五十三子賁稽立晉太康七年丙午身長大志氣雄傑○

高句麗王葉盧薨號西川在位二十三年太子相夫立晉元康二年壬子王叔父安國居邊

買有大功業國人倚重王多猜忌惡而殺之國人無不涕泣相吊○新

羅王患倭人婁犯邊城民不安居欲與百濟共伐之引權諫曰○新

羅新羅兵深入燕慕容廆侵高句麗至古國原亦西川王塚役者有暴死亦聞墮

日本請和解兵內有樂拜懇有神乃退先是王廆避兵往新城追者將及新城穿

刑白馬以盟之埋馬於生之按應神之十二年即佛禮北部小兄高奴子以五百騎迎王遇廆軍俘敗之王喜加爵大兄賜

食邑至是王患慕容婁侵回羣臣倉助利乃薦高奴子為新

城太守奴子善政有威拜慕容廆不復來侵○伊西古國今清道郡攻

新羅金城甚急新羅禦之不能克忽有異兵大至皆珥竹葉助

羅軍伴破之竟不知所故人或見其竹葉如萬積於味鄒王陵

安鼎福東史綱

目按金東源世藻

樣上錄曰日本龜

在天東四面大海

外兵不入但見其

年代記倭皇立

神之二十二年新

羅兵八明石浦去

大段才百里赤間

關之東有一丘臨倭

人指之曰此即白馬

墳新羅兵深入

日本請和解兵

事也出東史通

前國人謂先王以異兵陰助因弗陵仲長○百濟王責禧為猶兵所害

在位十三年子汾西立晉元康八年戊午初而聰慧儀表英挺○新羅王賜印規署調

二人爵印規買縣於市署調以穀買之而還忽有鳥攬縣隨印

規家規取故市謂署調曰鳥墮汝縣於吾家今還汝署調曰

鳥攬縣其汝天也吾何受焉印觀曰然則還汝穀署調曰君

與汝市已百穀已屬汝固辭不受二人相讓并棄於市而印掌

市官以聞王并賜爵○新羅王儒禮薨在位十五年基臨立助賁王孫

年八

〔基臨王〕新羅其倭國交聘王巡北列忽遼安問高年及貧窮

者賜穀有差至牛頭州瞻望祭太白山泉浪帶方兩國未服○

高句麗自春至秋不雨民飢相食王齊國內男女修宮室倉助利

諫曰天災荐至黎庶流難此誠畏天憂民恐懼修省之時也

大王曾是不思驅飢餓之人寇土木之役甚乖為民父母之意

况隣有強敵若乘弊而未其如社稷何王怒曰君者民所瞻

望宮室不壯麗無以示威重今國相欲諷寡人以于百姓之

譽乎助利曰君不恤民非仁也臣不諫君非忠也臣承之國相

羅儒禮王

基臨王

麗烽上王

濟責稽王

汾西王

不敢不言豈敢干饗王笑曰國相欲為百姓死耶助利知王不悅退
其羣臣謀廢之遣祖弗蕭友等訪乙弗初王謂其弟咄固有二心
殺之咄固子乙弗遜於野王求殺之不得乙弗就傭水室村人陰年
家陰年役之苦乙弗不堪乃去販鹽下鴨綠江富村家備嘗艱
楚形容枯槁人不知為王孫也蕭友等物色之就拜曰今國王無道
國老羣臣鼓

優福據北漢州叛王齊兵討之○高句麗王乙弗薨在美川

在太子斯由立改名釗晉咸和六年辛卯王如卒本祀始祖廟賑百姓老

病者○高句麗遣使如晉○高句麗王十二年修葺九都城秋八

月移居九都是年冬燕王慕容皝自將勁兵四萬以慕容翰

慕容霸為前鋒攻陷九都城麗王單騎走入斷熊谷燕

不美川王慕容載其尸虜王母王妃男女五萬餘口毀宮室燒

都城而還先是麗王數侵燕境因致燕王積憤謀臣獻策

大兵奄至一敗至此遣弟稱臣貢珍異子叔乃還其父尸猶留

其母為質麗王移居平壤東黃城城在東京○百濟王比流薨

在位四契王立晉建元二年甲辰天資剛勇善騎射○倭遣使

新羅請昏不報倭移書交絕○百濟契王薨在位三年近肖古立永

和三年丙午○此流第子 躰兒奇偉有遠識○倭寇新羅圍金城急伊伐倉康

世閉門不出待其師老食盡將退勁騎追仔走之○高句麗王遣

使于燕納貢修貢請其母燕王雋許之封王樂浪公如故○新

羅王訖解薨在位四十七年王無嗣金奈勿立永和十二年丙辰

東史纂要卷之三

新羅紀

〔奈勿王〕味鄰王弟末仇之子也 母金氏北金氏亦味鄰王女也

權近曰魯公之取吳晉侯之四姬君子譏之若新羅則不止取

同姓亦及於葑功之親人道大敗矣

新羅發使撫回鰥寡孤獨賜穀人三斛孝悌異行者賜爵

一級○新羅王九年甲子倭兵大至王造草偶人為疑兵仗勇士一

子於芥峴倭人直進伏芥掩仔殺之幾盡○秦王猛伐燕破之

太傅慕容評奔高句麗王執送於秦○高句麗婁侵百濟

敗北○百濟王卑粲精兵攻高句麗平壤城麗王釗力戰拒之中

流矢薨在位四十二年號故國原王太子丘夫立身長有雄畧晉咸安元年辛未

羅訖解王

奈勿王

麗美王

故國原王

洛比流王

契王

晉皇

○百濟王二十六年移都漢山遣使朝晉○高句麗王二年秦王符
堅送浮屠慎道及佛像佛經于高句麗高句麗佛法始此○
百濟禿山城主率三百人投新羅王納之分居六部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約為兄弟今王納我叛民甚乖和親之意請還之答
曰民無常心懷則未數則去王不患民之不懷而責寡人乎百濟
不復言○百濟以高興為博士百濟自開國未有文字至是始有
書記○高句麗攻百濟北鄙水谷城陷之又將大舉兵報之以
年究不果

權近曰父母之讐不共戴天苟不復讐枕苫寢戈無時而已
焉百濟攻殺麗王釗其子丘夫徒位惟以頒律令創佛寺為
事未嘗奮起兵及是年秋攻陷水谷蓋庶幾於復讐矣
惜不能必復而遂已也

百濟王近省古麗在位三太子近仇首立晉康寧三年先是高句麗侵

百濟王遣太子近仇首拒之至半乞壤將戰有斯祀者本百濟人

誤傷國馬蹄俱罪奔高句麗至是未告太子曰彼雖多可驍

勇惟赤旗若先破之其餘自潰太子從之進俘大破之追奔

至小谷城將軍莫古解諫曰知足不辱知止不殆今耶得多矣何必求

多太子善之積石為識其地有巖石罅若馬蹄者至今稱為太

子馬跡兩國互相攻伐連歲未已○高句麗遣使朝秦○新羅

遣魏頭如秦貢方物符堅問曰卿言海東之事與古不同何耶

對曰時代变革名號改易中國亦然今焉得同○百濟王近仇首

菟在位十年元子枕流立晉太元九年甲申遣使朝番胡僧摩羅難陀自晉

至百濟王迎致宮內禮敬焉百濟佛法始此○高句麗王丘夫

菟在位十年無嗣弟伊連立太元九年王出兵四萬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燕慕容容農將兵攻麗復遼東玄菟二郡○

百濟王枕流在位二年弟辰斯立太元十年王強勇聰慧多智畧發

國內人年十五以上設閑防自青木嶺北拒八神城西至于海○百濟

命嘉謨伐高句麗拔都坤城虜二百人王以嘉謨為兵官佐平

王獮於狗原七日乃返修宮室穿地造山植異卉養奇禽○高

句麗王伊連菟在位九年菟故國壤太子談德立太元十七年壬辰王雄偉個儻

率兵四萬攻陷百濟北鄙石峴等十餘城漢水北諸部落多

沒焉又攻拔百濟閑彌城○百濟王辰斯田於狗原任旬不返

新羅奈勿王

白肅小獸林王

故國壤王

廣開土王

百濟近仇首

枕流王
辰斯王

薨於行宮

在位八年

阿莘立

大元十七年。志氣豪邁好鷹馬。○倭兵圍新

羅金城五日王命閉門固守伺賊退勇騎二百步平于要路夾侍

大敗之○百濟王憤因彌城為高句麗所奪以其舅真武為左將

將兵一萬伐高句麗武親矢石身先士卒城垂拔以糧道不絕引還

○高句麗築國南七城以備百濟百濟左軍真武等伐高句麗

王拒戰於湫水百濟軍大敗死者八千人冬十月濟王欲雪湫水之

恥以兵七千過漢水次青木嶺下會大雪士卒多凍死回軍自是

兵連禍結民甚苦之多奔新羅○百濟其倭倭好遣太子聘支

為貢○

權近曰世子君之儲副其重係乎宗社不可以輕出者也曹伯

使世子射姑末朝於魯君子諷之朝且不可况出貢乎百濟王

以世子映出貢于倭則是輕其國本而棄之非類之地也苟能修

德行政強於自治以通隣好倭人雖暴何畏焉乃不能然以

千里畏人汲汲焉欲徒其好出貢世猶虔若小夷之事中國

而不知恥焉哀微甚矣何以為國乎

燕王盛以麗王遣使而禮慢自將三萬兵以驃騎大將慕容

熙為前鋒拔高句麗新城南疆二城拓地七百餘里徙五千餘戶

而還○新羅王柰勿菟在位四十七年嗣子勿弱國人立實聖晉元興元年

智裔孫伊滄
大西之子

實聖王明達有遠識王常恨柰勿王實已於高句麗思欲釋憾

遣其子末斯欣賞于倭以末斯品為舒弗耶委以軍國事○百濟

白氣自王宮西起如匹練○百濟王阿莘菟在位十四年太子腆支立晉

輒有諫詞以情最熙元年乙巳腆支實倭國仲弟訓解損國政以待太子還季弟碟禮

托長慮以首安北古殺訓解自立腆支聞王訃請歸國倭王以兵衛送至國界依

人樓質為氣者所宜且措浩大半引用沃土古粉皆當時料未海島國人殺碟禮迎立為王○新羅王聞倭人置營於對馬

有法蓋金軍戰既島鍊兵峙糧謀將襲之欲先艾未芥併破之舒弗耶未斯品

與鄭和常妙法為仇挫沮國人非據之臣聞兵凶戰危况涉巨浸以代人脫或失利悔不可追石名

志務為調緩之依險設闕未則禦之伺便出仔此而謂致人而不致於人策之

文弱以自售故記三國史列進取而設上也王從之○高句麗王十七年遣使出燕且敘宗族出燕王雲

遣侍御史李拔之雲祖父高和本高句麗支庶任燕自謂高

白麗廣開王刑國故而世絕而述陽之裔苗以高為氏雲深阮有局量厚更希言時人咸以為愚

百濟阿莘王杜惟馮跋奇而友之慕容室之為太子也雲以武藝給事東宮拜

腆支王杜視敵或過焉今未斯品之言吾未敢必質其不然也北金氏之史其沒造之傍往而見學者

卷二

侍御即襲破慕容會軍寶子之賜性慕容氏封夕陽公燕王熙
之葬符氏也跋詣雲謀之雲懼曰吾嬰疾歷年卿等所知與圖
之跋逼曰慕容世襄河間暴虐逆亂天常百姓思亂此天亡之
時必本高氏名家何能為它養子機運難擾予載一時公烏得辭
拔而出雲曰卿今興建大事累見推逼所以徘徊非為身也宗
惟不德不足以濟蒸元身跋等強之雲即天王位復性高氏
改元正始○高句麗王諱浣菟狶廣開土在位二十二年太子巨璉立是為
長壽王義熙九年癸丑○新羅土舍山崩水湧高三丈○新羅訥祇弒其
君宗聖在位十一年丁巳自立狶麻立干義熙十三年初宗聖王怨奈勿王貢已
於麗欲害其子以報之密招麗人之素相善者殺訥祇令訥祇
逆麗人見而奇之告其故訥祇恐王殺之

訥祇王

奈勿王子

軟良卅干朴壇上如高句麗共王弟卜好未又謀還

未斯欣如倭死之語在壇上傳○百濟王腆支冕在位六年長子久

爾辛立

宋高祖永初元年庚申

○新羅王八年甲子養老於南堂王親執食賜

穀帛有差○百濟王久爾辛冕

在位八年

長子毗有立

宋元嘉四年丁卯

○高

高麗王十五年移都平壤○百濟遣使朝宋宋遣使冊受前王腆
支爵稱○百濟遣使新羅請和又送良馬白鷹新羅以黃金明
珠報聘○高句麗王遣使朝魏且請國諱世祖嘉其誠款使
錄世界及諱以與之遣使封王爵○高句麗王二十二年殺燕王弘
初燕王馮弘患叔被魏侵國日蹙密遣使乞投于高句麗
王遣將葛盧等將兵救萬阻燕使至和龍迎燕王弘至遼
東王遣使勞之曰龍城王馮君爰通野次士馬勞乎弘慙怒稱
制讓之王處之平郡尋徙北豐弘素侮高句麗政刑賞罰如在
其國王乃奪其侍人取其太子王仁為首弘怒之遣使北宋上
表求迎宋太祖遣王白駒等迎之并令高句麗資送王不款弘南
徙遣將孫漱高仇等殺弘于北豐并其子孫十餘人白駒以所領
七千兵掩討殺仇擒漱王白駒等專殺執送之太祖下白駒等
獄而已原之○新羅教民車牛之法○倭寇新羅圍金城十日糧
盡乃歸王欲出兵追之左右諫不聽追戰獨山東大敗將士死者
過半王蒼皇乘馬登山賊圍王叔重忽昏寤不辨咫尺賊謂
有陰助乃退○百濟王毗有薨在位二十九年長子餘慶立是為蓋鹵

新羅訥祇王

高麗長壽王

百濟金甬王

毗有王

王

宋孝建二年乙未

○春新羅地震金城南門毀秋王訥祇薨

在位四年

長子慈悲

立

宋大明二年戊戌

慈悲王二年倭船百餘艘襲新羅東邊進圍月城四面矢石如雨
王固守賊將退出兵仔敗之追至海口賊溺死者過半○新羅王納其
季父末斯欣女為妃○高句麗連歲遣使朝魏貢獻倍前其報
賜亦加焉○百濟王遣使朝魏上表畧曰臣立國東極豺狼隔路雖
世承靈化莫由奉藩瞻望雲闕馳情因極謹遣駙馬都尉弗斯
候長史餘禮等克達天庭宣暢臣志臣共高句麗源出枝餘世
篤曰歎其祖釗輕齊隣好親平士家陵殘臣境臣祖復整旅
雷邁應機馳仔梟斬釗首自角已未莫敢南顧自馮氏救終醜
類漸風遂見陵逼措怨連禍三十餘載今璉罪盈惡積民庶
尙唯是滅亡之期假手之秋也天威一舉有征無戰臣雖不敏志歎
畢力帝遣使者即安回詔畧曰朕君臨四海統御羣生今宇內
清八表故義卿共高句麗不睦兵交累載難結荒違使兼申
胥之誠固有楚越之急乃應展義扶微乘機電平但以高句
麗稱藩先朝供職日久於彼雖有自昔之譽於國未有犯令

之愆卿使命始通便求致伐尋討事會理亦未周又詔璉護送
安等至西白雉璉不令東過於是安等皆還後從東萊浮海
賜百濟王璉書褒美安等至海濱遇風竟不達而還百濟王
以上表乞師於魏不從惡之遂絕朝貢○新羅王十八年移居明
活城○高句麗王巨璉自將攻百濟殺其王餘慶初麗王陰求可
以間百濟者浮屠道琳應募偽得罪亡入百濟聞王好博奕璉
門告曰臣甚願入抄王臣與碁果國手遂信昵之恨相見之晚琳
一日從容言曰大王之國四面山河天設之險四隣莫敢覬覦王當
以崇高之勢富有之業竦人之視聽而城郭不修宮室不葺耳
先王骸骨權殞露地百姓居廬屢毀河流臣竊為大王不
取也王曰諾盡發國人悉土築城宮室樓臺窮極壯麗作石
槨葬父骨緣河樹堰東自蛇坵北至崇山倉庫盈竭人民
窮困琳逃還告麗王王喜平兵三萬伐百濟圍王都王以數十
騎出城西走為傑婁萬年等二本滄人
獲罪奔麗追及傳送害之王在位三
十年
初百濟王子文周臨變遵父命避亂南行以存宗祀乞兵新羅
比還城破麗兵已退即王位宋元徽三
年乙卯性柔少斷然亦愛民移都

新羅慈悲王
白麗長壽王
百濟蓋鹵王

熊津○耽羅國獻方物于百濟國在南海中古無人物有三神人從地湧出長日良及諸狗犢五穀種遂分婁居焉始播五穀養狗犢日就富庶耽羅或稱耽牟羅○百濟兵官佐平解仇弒其君文周在位

三初解仇畜無君之心王不能制伺王出獵使盜弒之太子三斤立宋昇明元年丁巳

十三解仇與燕信聚眾掘大豆城叛王命德率真老帥精兵五萬討誅

解仇燕信奔高句麗收其妻子斬於市○新羅有人家甚貧衣百

結時人因號百結先生慕榮啓期之為人常以琴自隨凡喜怒悲

歡不平之事必於琴宣之歲將暮隣里舂粟其妻聞杵聲曰人皆

有粟可舂我獨無何以卒歲先生仰天歎曰夫死生有命富貴在

天其來也不可拒其往也不可追汝何傷乎乃鼓琴作杵聲以慰

之世傳為確樂○新羅王慈悲亮在位二十三年長子炤智立昇明三年巳未

炤智王○百濟王三斤薨在位三年文周王弟昆支之子牟大立是為東城

王昇明三年○高句麗與靺鞨攻取新羅孤鳴等七城新羅與百濟加耶

援兵追俘破之斬首千餘級○新羅王六年甲子高句麗侵新羅北邊

羅軍與百濟合俘大破之○高句麗遣使朝魏魏以高句麗方強置

諸國使邸齊第一麗次之○新羅始置郵驛帑肆○新羅王妃及內

殿焚修僧伏誅春正月十五日王幸天泉亭有鳥啣書來鳴得女

書外面云開見二人死不用一人死王曰其其二人死孰若一人死日官奏云

一人者王也王聞視之書曰射禁匣王入宮射之果內殿焚修僧其王

妃潛通者也妃共僧皆伏誅自是國俗每歲是日以糲飯祭鳥又

以龍能興雨馬能服勞有功於人猪鼠耗穀有害於人每於歲首

辰午夜子曰設祭祈禳禁百事相共遊樂謂之慎日○新羅王移居

月城百濟民飢亡入新羅者六百餘家○高句麗長壽王薨在任七十九年太

孫羅雲立是謂文咨王齊永明元年○扶餘王以國降高句麗○新羅其

高句麗戰薩水原不克退保太牙城麗兵圍之百濟遣兵三千

解圍○高句麗兵圍百濟雉壤城百濟請救於新羅王命將

救之麗眾潰○高句麗攻新羅牛山城羅將宗竹佯敗之兩國

連年相攻○百濟大旱民飢相食羣臣請發倉賑救王不聽漢山

人乞高句麗者二千濟王起臨流閣穿池置園養奇禽諫臣

抗疏不報恐有復諫者閉宮門○新羅王納捺已郡吟榮女初王

幸郡郡人波路敵其女碧花艷美王不納後屢至其第幸之

路見老嫗問曰國人以王為何如王嫗曰衆以為聖妾獨疑之王

幸波路女屢微服而行夫龍為魚服漁者所制今王不自慎重

羅炤智王

麗文咨王

濟三竹王

東城王

卷二

此而為聖孰非聖子王大勳潛逆其女納宮中是年冬王薨在位二十三年再

從智大略立是謂智證王齊永元二年庚辰

智證王奈勿王曾孫○百濟均加弒其王年大在位二十三年子餘隆立齊中興元年辛巳是為

武寧王討均加誅之○新羅禁殉葬前此王薨殉以男女各五人至是

禁焉命廿郡主勸農始用牛耕○新羅王四年從羣臣議始定國

以新史為日新吳新者德業日新制喪服法定國內廿郡縣始命有司臧

網史四方者此正所謂史讀之末以字冰制舟楫之利○百濟立二柵於高木城南又築長嶺城以備鞞鞞

兵傳者也新濟修堤堰驅內外遊食者啟農○高句麗百濟皆遣使朝梁○于

如其訓義為神為東只讀如弗其山國降新羅納土貢國在溟州正東海島名鬱陵地方百里恃險不

義為原為野為眼伊滄異斯夫為何瑟羅州江陵軍主乃以計服○高句麗襲取百

地林斯只徐耶徐徐那伐徐只湑加弗及圓山城虜男女一千餘口百濟王帥三千騎禦戰麗人見軍

伐者皆同語而移易之不設陣百濟王出奇急仔大破之○新羅王智大略薨在位十五年

寓者其稱雜林新羅諡諡智詮法始此子原宗立是為法興王梁天監十三年甲午

者後始林而轉而林之訓讀如守弗法興王始置兵部令人○高句麗文咨王薨在位二十九年太子興安立

知亦同一語其村斯盧新盧者為安臧王天監十八年已亥○新羅須律令始制百官公服○高句麗百濟遣

送只那之音而訛者也使朝梁受冊封○新羅遣使朝梁○百濟武寧王薨在位二十三年子明

為難林基臨改
標立是為聖王 梁普通四年 ○新羅王十五年始行佛法 初訥祇王時沙明墨胡子自高句麗至一善師郡人毛禮

為新吳皆不曉 作虛室以居之至始智王時有僧阿道者其徒亦未毛禮家往往有信奉者至是王欲興佛
吏讀移寫之例 教羣臣皆曰僧徒議論說異若從之恐有後悔近臣異次頓拜曰佛法淵奧不可不信王以

西安云者耳 出東 為異言下更將誅之異次頓曰佛若有神吾死必有異 及斬血從新處湧色白如乳眾怯之不復毀佛 ○高句麗安藏王薨 在位十五年

異次 遺事姓朴 弟宝延立是為安原王 梁中大通三年辛亥 ○駕洛国王金仇衡降于新羅 法興王十九年

駕洛亡 自始祖首露歷居登麻品居叱彌伊尸品生知 ○新羅始稱年號曰建元 自國初行中國年號至是中國分裂故也

羅法興王薨 在位十七年 弟立宗之子多麥宗立是為真興王 梁大同八年庚申

真興王 年七歲大后攝政選童男容儀端正者辨風月主求善士為

徒以勵孝悌忠信以異斯夫拜兵部令掌内外兵馬事 ○新羅王五

年甲創興輪寺許度人為僧尼廣興佛刹 ○高句麗安原王薨 在位十五年

太子平成立是為陽原王 梁大同十年 ○新羅王從異斯父之請命大阿含

金居恭夫等集文士修撰國史 ○梁遣使送佛舍利於新羅王使

百官迎於興輪寺前路 ○百濟王不知梁有候景之亂遣使朝梁使

者至見城闕殘毀辨泣於端門外見者莫不洒淚景聞之大怒執

囚之反景平得還 ○高句麗遣使朝北齊 冊封麗王 ○新羅遣將

居恭夫伴取高句麗十郡居恭夫柰勿王五世孫少有志志初為

百濟武寧王 聖王

僧入高句麗覘強弱聞法師惠亮開堂說經遂詣聽。一日講亮問曰
汝從何來因握手蜜言曰見汝容兒非常其殆有心乎老僧不敏
亦能識子恐子見執宜速返。亮夫將還亮曰汝燕領鷹視必為
將帥他日無貽我害。亮夫與之相誓而未仕。至波珍倉至是王命
亮夫及仇珍等八將與百濟兵攻高句麗百濟先破平壤居亮
夫等取竹嶺以外高麗以內十郡於是亮率其徒見道左遂與之
俱來見於王王以為僧統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伽耶樂師
于勤知國將亂携樂咒投新羅王置之國原命法知階古萬德

等學樂

伽耶王嘉瑟法唐樂部等製土絃琴命于勤造十三曲名曰伽耶又
有云琴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人不知鼓之之法因相王山岳頗
改其制以奏有玄鶴來舞名玄鶴琴又王室高者不地理山學琴五十年三傳至貴
金亦入地理山不出之恐琴道不傳以允興為南原守俾傳其業允興遣安長等
二人致禮學之傳其所秘飄風等三曲
安長傳子克宗曲有平調羽調傳世

力仔殺之先是百濟欲共新羅謀伐高句麗羅王不從高句麗感之
遂與羅通好百濟王怨之親率兵攻管山城武力領新州兵赴
戰裨將都力仔殺濟王乘勝大克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二百人
匹馬無返者百濟謚王曰聖在位三十二年子昌立是為威德王梁承聖三年甲戌○
新羅以國原忠為小京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以宗之○高句

麗陽原王薨

在位十五年

太子陽城立是為平原王

陳永定三年巳卯

○新羅王命異

斯夫討滅大伽耶是役斯多舍者柰勿王七世孫也年十六為國仙願

其徒千餘人請從軍遂滅其國師還策功舍為最王償以良田及

所虜三百口舍分其田與戰士生口放為良人無一留者國人美之

舍始其武官約

為死友及死哭慟七日亦卒年十七

○新羅黃龍寺威鑄丈六像

銅三萬五千斤鑿金百二兩初黃龍見其地王因舍新

官為寺有平居者畫老松於驛鳥雀往三飛入踏踏而落後畫久色漫寺僧丹青補之鳥雀不復至

○新羅王賜白雲際厚金

闡三爵初有二達官家同里閑一時生男女男曰白雲女曰際厚二家

約為婚媾白雲十五而旨際厚父母欲改聘于茂榛太守李佺平際

厚密詔白雲曰生同一辰約為夫婦久矣父母改日國新違命則為不

孝故茂榛則死生在我子有信義尋我於茂榛際厚既故謂佺

平曰婚姻人道之始請涓吉為禮佺平從之白雲尋至茂榛際厚

出從俱潛行山谷忽遇俠客所掠去白雲之徒金闡勇士善騎射追

殺俠客奪際厚以還事聞王曰三人信義可尚賜爵○新羅置花

卽初君臣患無以知人欲使類聚羣遊規其行義取美男粒歸

之名花卽或道義相磨或歌樂相悅歲日既久邪正自見擇而用

之○新羅真興王薨

在位三十七年

王幼年卽位惟勤奉佛末年剃髮被

新羅真興王
勿蕭平原王
百濟威德王

僧衣自糶法雲子金輪立陳大建八年丙申是為真智王

(真智王)以金居恭夫為上大等委以軍國事○百濟侵新羅西鄙新

羅命伊飡世宗佯破於善北斬獲三千七百級○高句麗百濟遣使

朝後周○新羅遣使朝陳○新羅王薨在位四年太子銅輪之子伯淨立

陳大建十一年己亥是為真平王生有奇相志識沉毅明達

(真平王)始置位和府般府署調府令禮部令○高句麗移都

長安城平原王二十八年也○高句麗百濟遣朝隋或朝陳○新羅星隕如雨

○新羅有大世者奈勿王之後也必有方外志與僧淡水言曰在此

山谷間以終一生則何異池魚籠鳥吾將航海以至吳越尋師訪

道若神仙可學則飄然乘風於沃寥之表子能從我乎淡水不

肯有仇忝者耿介有志大世與之遊南山寺忽落葉泛庭潦大

世謂仇忝曰吾欲共君西遊今各取一葉為舟以規行之先後俄

而大世之葉在前大世笑曰吾其行乎仇忝曰予亦男兒也遂自

南海乘舟共去後不知其所往○新羅王十一年秋國西大水漂沒

人戶三萬三百六十死者二百餘人發使賑之○隋既平陳戰艦一

艘漂至耽牟羅將還道徑百濟王厚送仍遣使奉表賀平

陳隋王善之下詔廢美○高句麗王聞陳凶大惧治兵積穀為拒守

之計隋王重書責之王惶恐將奉表陳謝而不果○高句麗平泉王

薨在位三年太子元立隋開皇十一年庚戌是為嬰陽王○高句麗辛靺鞨之衆萬餘侵

遼西營州總管韋冲仔走之隋王聞而大怒命漢王諒王世積將水

陸三十萬兵來伐出臨渝因值水潦軍餉不繼東萊水兵亦遭風漂

沒師還死者八九麗王亦惧遣使謝罪於是帝罷兵待之如初○

百濟王聞隋有遼東之役遣使奉表請為鄉導隋下詔曰高元畏

朕故罪朕已赦之不可致代麗王恨之屢侵百濟○百濟威德王薨

在位四十五年第二子李明立隋開皇十八年戊午立二年薨是為惠王長子宣立開皇十九年己未

下令禁殺生放民家鷹鷄漁獵之具○高句麗命太學博士李

文真修國史○百濟王宣薨在位三年謚曰法于璋立隋開皇二十年庚申是為武王

風儀英偉志氣雄傑○新羅王二十六年押府南川州復置北漢

山州○新羅王惠高句麗屢侵封場遣使如隋請師帝許之先

百濟請討高句麗時帝幸突厥可汗啓民帳見麗使在啓民所黃門侍郎裴矩

說帝取高句麗帝從之敕牛弘宣旨曰朕以啓民誠心奉國親至其帳明年當往

涿郡王安早未苟或不朝將將往巡爾王俱不從大業七年辛未夏帝親征至涿郡四方皆兵

集左右軍總一百十三萬三千八百人號二百萬其餽輸者倍之八年

新羅真智王

真平王

百濟嬰陽王

法王

武王

卷二

正四下詔罪責高句麗帝親授節度連營漸進首尾相銜鼓角相
聞旌旗互九百六十里近古出師之盛未之有也二月帝御師至遼水
臨水為大陣麗兵阻水拒守隋兵不得濟帝命造浮橋以渡大戰
于東岸麗兵大敗死者萬計進圍遼東城麗人嬰城固守初諸
將之東下也帝戒之曰凡軍事皆須奏聞待報無得專擅城將陷
城中人輒言請降諸將馳奏比報至城中守禦亦備隨出拒戰如
此者再三帝終不悟三月帝幸遼東城南召諸將詰責之曰公等皆
不願我未今我未此欲視公等所為斬公輩耳諸將皆戰惧失色
高句麗諸城堅守不下大將軍耒護兒帥江淮水軍舳艫數百里
浮海先進入自涇水去平壤六十里遇麗軍進擊大破之乘勝直造
城下麗將伏兵於郭內出戰偏敗護兒逐入城後兵俘掠無復
部伍伏發大敗護兒董兒士卒還者數千人初大將軍宇文述
于仲文等共諸將分出九道皆會於鴨綠水西人馬皆給百日糧
又齎衣資戎具重莫能勝士卒皆於幕下掘抗埋之終及中路
糧已將盡高句麗王遣大臣乙支文德詣其營詐降畢竟隋軍
大敗惟衛文昇一軍獨全帝大怒鎖繫述等七月癸卯引還

是行也惟拔高句麗武厲邏置遼東郡及通定鎮而已九年春
帝欲復伐高句麗詔徵天下兵集涿郡帝謂侍臣曰高句麗少虜
侮慢上國今拔海移山猶望克果况此虜子光祿大夫郭榮諫不
聽夏胃帝渡遼命諸將進攻遼東聽以便宜從事飛樓撞
雲梯地道四面俱進晝夜不息高句麗應變拒之二十餘日不拔
主死者甚衆客會楊玄感反書至帝大惧夜密召諸將引軍
還軍資光械積北山十年帝欲復伐下詔畧曰黃帝五土戰
成湯二十七紘盧莽小盜高祖尚且親戎隗囂餘燼光武猶自登
壇豈不欲除暴止戈勞而後逸者哉三月辛涿郡親御戎服禡
祭黃帝叛斬軍饗鼓七月次懷遠鎮時天下已亂所徵兵多不
至高句麗亦困弊自惧乞降因送斛斯政帝大悅班師徵王入朝
竟不從○高句麗嬰陽王薨在位二十九年異母弟建武立是為榮留
王唐武德元年戊寅○三国皆遣使朝唐新羅使至高祖親勞問之遣常
侍庾文素報聘賜重書錦綵三百段○高句麗遣使朝唐帝
感隋末戰士多陷於高句麗賜王詔書在此高句麗人等已令
追括遣送彼處所有此國人者王可放還於是高句麗悉換

新羅真平王
白麗榮留王
百濟武王

隋人未還者萬餘送之帝大喜○武德七年帝遣使三國冊封三國
王○新羅遣使朝唐因訟高句麗梗路使不得朝○百濟遣使如

唐訟高句麗梗路○百濟侵新羅西鄙拔二城又欲大舉兵出屯熊

津新羅告急於唐百濟聞之乃止百濟王遣姪福信朝唐帝以

羅濟

世讐故相侵伐賜百濟王重書責諭百濟因奉表陳謝外雖順

服內實相仇如故○新羅大飢沙梁宮諸舍人盜分倉穀有劔

君者獨不受曰苟非其義雖千金豈可動心退詣近即諸舍人恐言

漏欲殺劔君而召之劔君欲往近即曰胡不自於有司曰畏我死而

抵人罪而不忍也曰盍逃乎曰彼曲我直而反自逃非丈夫也遂往

被毒死○新羅遣將任末里舒玄等攻高句麗狼臂城麗兵逆

俘之羅軍失利無復圖志時舒玄子庾信為中幢主語舒玄曰庾

信平生以忠孝自期臨戰不可不勇跨馬突陣斬其將諸軍乘勝

城遂陷○高句麗築長城東自扶餘城東南至海千有餘里

凡十六年乃畢○新羅遣使北唐獻二美女魏徵以為不宜受上喜

曰彼林邑獻鸚鵡猶言苦寒思婦况二女遠別親戚予付使者敝

之○新羅真平王薨在位五十四年王無子國人以長女德曼寬仁明敏立

為主是為善德主

唐貞觀六年壬辰

善德主

唐帝賜牡丹花圖並花子真乎主以示德曼德曼曰此花絕艷而畫無蜂蝶必無香種其子果如其言一說王見畫花笑曰此花妖艷富貴畫無蜂蝶必不香

帝遺此豈朕以女人為王耶有微意 創芬皇寺○百濟興王寺成窟極壯麗王每親詣行香

又鑿池宮南引水注之築島嶼擬海上仙山王每幸臣僚遊泗泚河北

浦四岸巖石錯立間以名花異草王醉必鼓琴自歌令從者舞之時稱

大玉浦○唐遣使持節冊命新羅女主為柱國樂浪公新羅王

權近曰天道陽剛而陰柔人道男尊而女卑男正位乎外女位正乎

內人君無後當求宗室之賢以正儲副之位此古今之通義也新

羅王無子愛其女德曼而欲立之羣臣乃探先君之邪志而立其

女其亂常甚矣苟有明天子在上當正其名遣使責讓擇賢

君可也若以遐方難回中國則置之度外亦可也顧以太宗之英明

不能正名以定陰陽男女之分而乃遣使錫命冊女子為樂浪公新

羅王夫公其王皆王國君民之稱豈加陰柔之身是則尊卑之辨

綱常之重太宗自毀而盡棄之矣未幾遂致武氏僭竊之禍濁

亂天常唐之宗支夷滅殆盡宗自太宗此肇而啓之矣

新羅宮西玉門池蝦蟆大集主謂左右曰蝦蟆怒目兵士之相也吾聞

新羅善德主

白麗榮留王

百濟武王

西南邊谷有名玉門者意有隣兵至其谷子乃命將軍闕川往撲

之果百濟兵甲騎五百襲獨山城至玉門谷解鞍休士園川突至

掩俘盡殺之主喜賜絹二百匹○新羅七重城南大石自移三十

五步○三国俱遣子弟入唐請入國學○高句麗日無光三日○百

濟武王薨杜位四年太子慈義立貞觀十五年義慈幼有孝友之行時稱海

東曾子○高句麗太子桓權朝唐帝遣職方郎中陳大德報之

大德所至城邑託覘山水遊歷殆遍悉得山川道里險易及還

備陳句麗虛實帝於是始有東征之意○百濟王親率兵取新

羅國西獮猴等四十餘城又與高句麗謀欲取党項城以絕朝

唐之路羅主告急於唐○高句麗蓋蘇文弒其建武杜位二十五年立王

姪臧是為宝藏王貞觀十七年○新羅主欲伐百濟以報大野之役遣

伊滄金春秋乞師於高句麗初大野之敗品釋死之其妻金氏

亦死即春秋之女春秋倚柱立終日不瞬言曰嗟呼大丈夫不能

滅讐國子乃詣王曰請奉使高句麗乞師報怨將行謂庾信

曰春秋其君為王股肱休戚同之若我不還君何處之庾信曰

若然僕之馬蹄必交踐於兩王之庭矣春秋遂其庚信誓曰

以愚料之六旬當還過此無再見之理行至代買縣縣人長斯智賜
青布三百步既入麗王素聞春秋名嚴兵衛而見之春秋曰今百
濟無道侵軼我疆場寡君願仗大國之威一雪之使下臣致命於
下執事王謂曰麻峴竹嶺本我國之地若還兵可出春秋對曰
臣奉君命來乞師大王無意救患而劫行人以敗地臣有死而已王
怒囚之春秋以其青布賂王寵臣道解道解語春秋曰子亦嘗
聞龜兔之說乎昔東海龍女病心醫言得兔肝則可療也然海
中無兔龍王患之有一龜曰吾能得之遂登陸見兔言海中有一
兔清泉白石茂林桂菓寒暑不能到鷹隼不能侵爾若得
至可以安居無患因負兔行三里顧謂兔曰今龍女病須兔肝為
藥故不憚勞負汝未耳兔曰噫吾神之後能出五臟洗而納之曰者
小覺心煩遂出肝洗之暫置岩石之底聞爾甘言徑來肝尚在彼
若敢取肝汝得而求吾雖無肝尚活豈不兩相宜哉龜信之乃還
終上岸兔既入草中謂龜曰愚卦汝也豈有無肝而生者乎龜回
默而去春秋喻其意移書於王曰二嶺本大國地分臣得敗國而不
請寡君還地者有如皦日春秋既六旬不返庚信請王將伐高句麗

新羅善德王
白麗寶藏王
百濟義慈王

募兵三十吾聞見危致命臨亂忘身夫入致死當百人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則可以橫行天下今隣國無道國相見繫志士仁人
齧心之秋也遂請王以行庚信已渡漢江麗諜者奔告王遂厚禮春
秋而赦之春秋出境謂送者曰國家疆理非使臣所得專向其大
王書云者因追死耳○新羅王遣使如唐上言百濟共高句麗將大
舉來伐願乞偏師以存救授帝賜高句麗王重書諭以戢兵蓋蘓
文不奉詔帝又遣蔣儼諭旨蓋蘓文脅使者囚之窟室中而已蘓
文貢白金楮遂良曰蓋蘓文弑其君九夷所不容今將討之而納
其金此卻鼻之類也不可受帝從之帝自將伐之十八年十月至
洛陽前宜卅刺史鄭天濤已致仕帝以其嘗從煬帝伐高句麗
白問之對曰遼東道遠糧轉艱阻東夷善守城不可猝下帝曰
今日非隋之比公但聽之以張亮及李世勣為大總管水陸分道
兩軍集於幽州帝手詔諭天下以高句麗蓋蘓文弑主虐民今
巡幸幽薊罪問遼碣布告必勝之道又詔新羅百濟奚契丹
分道併之十九年春三月帝發定州親佩弓矢手結雨衣於鞍
後世勣潛師逾遼水至玄菟高句麗城邑大駭皆閉門自守

副總管江夏王道宗將兵千至新城攻蓋牟城拔之以其地為蓋

卅張亮帥舟師自東萊渡海襲畢畢一作卑斯城城陷男女八千口沒

焉世勣攻遼東城麗王發新城國內城步騎四萬救遼東唐兵

敗衄道宗收散卒世勣引兵助戰晝夜不息旬有二日帝引精兵

會之圍其城鼓噪舞振天地麗軍力戰不克死者萬餘人見虜

四萬口糧五十萬石以其城為遼州世勣進攻白巖城城主孫代音

請降世勣欲戰帝曰從兵殺人而虜其妻孥朕而不忍臨水設帳

受降以甘城為巖州是戰也新羅人薛扇頭為左武衛果毅深

入疾鬪而死功為一等帝泣然曰中國人尚畏死顧望不前而外國人

為吾死事何以報之脫御衣覆之贈大將軍以禮葬之扇頭在新羅嘗語親友曰

國家用人論骨品苟非其族雖有鴻材不能自振我願西遊中華奮不世三畧進

立非常之功簪紳劬佩出入天子之庭足矣真平王四十二年隨海舶入唐

攻安市城凡六旬終不得拔勅班師詔在安市城主傳二十年春帝還

京師謂李靖曰吾以天下之眾困於小夷何也靖曰此道宗所解帝顧

道宗俱陳在駐蹕時乘虛取平壤之策帝悵然曰當時忽忽吾

不省也○高句麗東明王母塑像泣血三日○新羅大臣毗曇廉宗

新羅善德王
百濟義慈王

百濟義慈王

星落月城毗曇等謂士卒曰吾聞落星之下必有流血此殆女主敗衄
之兆士卒呼吼舞振天地主恐俱庚信見主曰吉凶無常惟人所召故討
以赤雀公魯以獲麟衰高祖以雉雖興鄭公以龍圖昌故知德勝於妖
則星辰變異不足畏也請王勿憂乃造偶人抱火載於風剪而颺之若
上天然翌日使人傳言於路曰昨夜星落還上使賊軍疑焉又刑白馬祭
於落星之地呪曰今毗曇等以臣而謀君自下而犯上此謂亂臣賊子人臣所
同疾天地所不容今天若無意於此而又見星恠此臣所疑惑而不
喻者也惟天之威從之欲善善惡惡無作臣羞於是督諸將平
奮俘之毗曇等敗走伏誅○新羅休瞻星堂○新羅主婁在位十
六年
主知幾三事見畫花知無香聞蛙知兵預言死期真平王母身國敵
之女勝曼立貞觀二十
年丁未是為真德主

(真德主)長七尺垂手過膝○帝後伐高句麗以牛進達李世勸為將
攻南蘇石城等城拔之○帝詔大將軍薛萬徹以襄行方副之渡
海俘高句麗○高句麗羣獍渡河西走羣狼向西行言不絕○新
羅主遣伊飡金春秋及其子文汪如唐帝見春秋儀表英偉厚
待之仍賜御製溫湯及晉祠二碑文並新撰晉書又呂燕見問曰

卿有所懷乎春秋奏曰弊國僻在海隅服事天朝積有歲年而百濟
強猾屢肆侵陵往年大舉深入攻陷數十城以塞朝覲之路陛下不
借天威剪除凶逆則弊邑梯航迭職無復望矣帝深然之乃勅
將軍蕚定方帥師二十萬征百濟春秋又請改章服以從華制於是
內出珍服賜春秋春秋願留文汪以備宿衛還至海上遇高句麗
邏兵從者溫君解高冠大衣坐於船上邏兵以為春秋殺之
春秋乘小船得免王嘉君解贈大阿食賞以子孫○新羅始依
華制為冠服○新羅主遣金春秋法敏北唐告破百濟高宗永徽
元年百濟將殷相攻陷新羅
七城金庾信仔破之斬殷相 主又自製太平頌織錦為衣以獻其辭曰大
葉巍巍皇啟昌止戈戎衣定修文德百王統天崇雨施利物體含章深仁諧
日用撫運邁時康藩瓊何赫、鉦鼓何煌、外夷違命者剪覆被天殃淳
風凝幽顯遐通競呈祥四時和玉燭七耀巡萬才惟徽降宰輔 ○新羅始行
惟帝任忠良五三成一德昭我唐家皇

唐永徽年號新羅自法興王二十三年始稱年號連歲改元至貞觀

二十二年新羅使邯帙許如唐帝勅問新羅臣事大朝何以別稱

年號帙許對曰天朝不曾頒正朔自先祖私有紀年若大朝有命

小國又何敢焉帝然之至是始行唐號○新羅真德主薨在位

羣臣奉金春秋為王春秋三讓而後即位永徽五年甲寅

新羅真德主
白麗寶藏王
百濟義慈王

(太宗王)

真智王子伊
養龍春之子

○唐國新羅王薨為舉哀遣使吊祭贈爵又遣使冊新羅王王命強首製謝表遣使賜恩○高句麗與百濟靺鞨連兵侵新羅北境取三十三城王遣使救援於唐○新羅金庾信攻百濟刀比川城克之先是彼倉未坤被虜於百濟為佐平任子家奴後逃故庚信知其可用令反間於任子以庚信言告曰兩國存亡不可先知若子國亡則子依於我我國亡則我依於子任子嘿然後數月任子曰若之前言已悉之可故報庚信未坤還告百濟事甚悉於是並吞之謀愈急○高句麗王都爾鐵○新羅東土舍山地燃三年而滅北巖崩碎為米食之如陳倉米○百濟有眾狝入王宮○高句麗九虎入城○百濟宮中槐樹鳴拜如人哭夜鬼哭宮南路○新羅上大等金剛卒以金庾信代之○百濟王都井水赤如血西海濱羣魚死百姓食不能盡泗泚河水赤如血蝦蟆萬枚集於樹上都市人相驚走有僵仆死者亡失財物無筭又有犬如野鹿至泗泚河岸向王宮而吠者王都羣犬聚於路或哭或吠者又有鬼入宮中大呼百濟亡百濟亡即入地中王使人掘之深得一龜背有文曰百濟同日輪新羅如月新王問之巫解曰日月輪者滿也滿則虧如月新者未滿也未

新羅太宗王
白麗寶藏王
百濟義慈王

滿則漸盈王殺之○百濟王二十年唐以藕定方為神丘道行軍大總管
金仁回副之帥水陸兵十三萬伐百濟勅新羅王為行軍總管為之拜
援王親率金庚信真珠天存等出師次南川藕定方等自萊州海
海舶艫千里軍于德勿島軍勢甚盛王遣法敏庚信等率精兵五
萬應之七月唐羅兵過白江炭峴直趨都城乘勝薄城百濟王知不
免其太子孝平左右夜遁保熊津城已而詣定方降諸城皆下百濟
亡語在庚信成忠階伯等傳新羅王大置酒勞將士王與定方坐
堂上坐義慈於堂下使行酒百濟羣臣莫不嗚咽流涕九月定方
以義慈及太子孝王子恭陰漢大臣將士八十八人百姓二萬二千八百
七人渡海還唐分置熊津馬韓東明金連德安五都督府命郎
將劉仁願留鎮泗泚城百濟餘兵據南嶺樹柵屯聚遺眾叛應
者二千餘城帝遣中郎將王文度為熊津都督撫安餘眾文度死
又以劉仁軌代之定方以慈義見帝帝慰藉定方且曰何不因而伐
新羅定方曰新羅其君仁而愛民又臣忠以事國下事上如父兄雖
小不可謀也

初唐人滅百濟謀侵新羅王白犀臣問計有多美者敵策曰令我卒

日斯言有理請從之王曰唐人為我滅敵而反與之戰之戰天又佑我即庚信曰犬雖畏
其主蹄其脚則及噬之豈可遇難而不救自底於亡乎唐人知有備乃還

義慈病死帝贈爵詔葬孫皓陳叔寶墓側並豎碑

右百濟始祖溫祚王以前漢成帝鴻嘉三年癸卯都慰禮城國

雅十濟後改百濟乙卯移都漢山近肖古王卒未移都北漢山文

固王乙卯移都熊津聖王戊午移都泗泚泚一作此國雅南扶餘至

義慈王二年庚申唐高宗顯慶五年唐將蘇定方與新羅

金庾信合兵大敗之而百濟亡合三王共六百七十八年漢山全廣

漢山北漢山今漢陽近肖古王取高句麗南平壤城
移都焉今京都能熊津今公州泗泚今扶餘

史氏按始祖乃以東明之胤為太子所忌俱不見容逃難奔竄間

閑崎嶇至河南建邦設都雖萬事草創而尚能嚴兵固守禦

禦浪鞞鞞吞馬韓而滅之又嚴抗高句麗敵新羅成昇足之勢

以基七百年之業非豪傑之主能然乎多婁作稻田賑窮民優

禮大臣有人君之度然備釁新羅爭小城數十年之間兵革

不息已婁修好新羅得交隣之義蓋婁雖史稱恭順納叛

臣而失隣和誣小民而亂其妻何足道哉肖古仇首歷年雖長

無事可稱肖古喜遊畋未免禽荒之失然賑貧乏復相調

定官制錮賦吏交修隣好是足多者責稽汾西以千乘之尊

不自慎重或死於敵兵或墮於賊手悲夫比流久在民間和民疾苦作
其即位賑窮請之史稱寬慈愛人庶夫而四十年之間突變屢見
飢饉荐至民不聊生何哉契王在位終二年但比流代汾西而立其
終也傳汾西之子契王契王代比流而立其終也傳比流之子近肖古
尚有遊讓之風近肖古其高句麗失和至殺其王挑怨速禍世為
讐敵兩國之間干戈爛熳而不已近仇首在位十年粗保其國枕流
始言佛法迎胡僧創寺度僧欲以敷福逾年而薨佛不足信明矣
辰斯喜土木甘遊畋侵宮室池沼以畜珍奇玩物表志田於狗原或
旬或月卒死行宮惜哉阿莘窳兵黷武殆無虛歲民困兵革多奔
敵國輕負國本於島夷幾不得嗣腴支久負於外王薨國有內亂返
而得國何只幸也久爾卒傳之毗有毗有傳之蓋鹵蓋鹵驕奢昏暗
詰上國欲伐強隣信敵間親昵戲玩大興功役惟宮室臺榭是崇
是歸至於雩土築城緣河樹堰伐石作榭分盡悴倉廩告匱尚
不知墮於敵國之術國勢魚爛而敵兵奄至噬臍無及身死人手尚
誰咎哉傳曰國不自伐而後人伐之蓋鹵之謂矣文周嗣緒正卧薪嘗
膽之秋而優游不斷受制強臣身且不保三行以童稚之年能命將

討賊復君父之讐使神人之憤是可稱也而享年不長惜哉東城當國
凶歎民飢不救起臨流閣極其壯麗遊宴自恣閉宮門拒諫臣荒
于遊畋久而不返為賊臣所害武寧誅苟加得誅賊之義然失子民
之道不能勞耒安集為敵國歐民前史稱仁慈寬厚耶何聖王初
立能斷大事國人稱聖逮至末年其新羅謀伐高句麗不得其志昔
曰好發奮兵遂死鋒鏑真所謂一朝之念止其身者也威德雖無
德政享國悠久惠王即位二年而薨法王繼緒崇信佛教禁屠畜
殺放鷹鷂焚漁獵之具創寺度僧蓋欲延祚也而踰年乃薨
多見其惑也武王恃強驕驕侵掠新羅殆無寧歲干戈迭侵
流屍蔽野唐皇詔諭戢兵外雖陳謝而內寀不然晚年穿宮南
池起聖海樓遊泗水河盤樂急傲惟日不足國之不亡幸矣義慈
之為太子也事親以孝其兄弟以友及其即位慮囚原罪只為政粗
足可規但只圖於大體無深謀遠畧不知新羅唇齒之勢安與
干戈謀欲吞噬今年棄一城明年棄一城席累勝之威驕氣遽
溢視新羅為堯中之物欲取之心囂然未已違帝詔無釋紛之
心結高麗佞朝貢之路猶且淫酗耽樂杜絕忠諫天怒於上

屢出災異丁寧謹告而猶不省悟晏然自肆不能保炭峴白
江之險唐兵一至而社稷丘墟扶餘氏不祀忽諸悲夫

高句麗遣將共靺鞨合軍攻新羅述川城不克移攻北漢山城列
拋車飛石所當障屋輒壞城主冬陀川多設兵機卒城內男女
二千八百人激勵死守凡二十餘日糧盡疲力至誠告天忽大星
落於麗營又有震雷之變麗將疑懼解圍而去新羅王擢冬

陀川為大柰麻○夏六月新羅太宗王薨

在位八年
壽五十九太子法敏立

朔元年
辛酉

太宗統三韓時和歲豐布一匹直租三十石或五十石民謂

聖代妃文明王后金氏庾信之妹也

初妃姊室姬多登西兄山頂坐旋
遊徧國內覺其妃言妃戰曰願買

兄今因共錦裙為直後春秋時庚信躡
幸近請往綴之因偕往置酒喚室姬未
守妃乃進綴細妃美而艷春秋悅之
遂生男曰法敏仁問文汪老且智鏡愷元

新羅文武王

句麗寶藏王

東史纂要卷之二

東史纂要

卷之二

東吳真系要卷之二

新羅紀

文武王

諱法敏

帝遣穩空方領水陸三十五道兵伐高句麗詢於羅王

帥洪將軍伐王移書空方還報曰我受命討賊涉海千里蟻舟徘徊已

踰月而王之援兵不至糧又不繼王其圖之王問羣臣皆以深入難之廣信

曰臣受國命重寄死不辭難今日是老臣盡節之日當赴敵以副

將軍意於是其金仁問等九將率兵載米粗二萬四千餘石

赴平壤冰雪凝澌車馬僵仆廣信冒險前驅眾皆出死力僅達廣信

欲先報定方而難只人白麾下步騎監裂起激以忠義遂共仇近等

十五人冒矢石至唐營以定方謝書還往回得兩日會帝有征班師廣

信亦還悉兵欲留伴之廣信以鼓係牛腰桴係牛尾使揮伴有拜

又積柴草燃之使烟火不絕示若屯宿然夜半潛行悉兵覺而追之

廣信拒戰甚勇得發諸幢將士分伴破之斬虜餘彼虜五千餘人

得兵械投矛師還論功廣信言於王授裂起近仇沙殮△百階武

新羅文武王

高句麗寶璽

睿質倭者

西北部皆應圍劉仁願於熊津城帝詔以即將劉仁執將

王文度軍發討羅兵救仁願仁軌甚羅兵合什之福侯釋圍退保任存
 城福侯殺道瑗并其眾以其規城險絕加兵守之仁軌夜督新羅
 兵薄城斬殺八百餘人遂通社羅饒道仁願奏請益兵執遣將
 軍孫仁師率兵四十萬就熊津以益仁願之眾社羅王率金庚
 信等二十人將兵之令勢士氣大振共仔肉流城豐脫身走奔高
 句悉王子忠勝等帥其眾及助戰倭人皆降獨逢受侯據任
 存城城險糧多攻之三旬不下有常之者百濟西部人驍毅有謀
 畧常慈義之敗其左右十餘人與去嘯合通以依任存山自固不
 旬日遂復二百餘城其列郡相如據險以應福侯至是帝遣使
 誘降仁軌待以赤心詔用其謀取任存城悉平之

乞切會被人誣其殺係
 傲死人皆哀其枉

○新羅王四年甲下教國中男女之服並同中國

帝之入唐為燕然
 道大德管伴突厥

○新羅王與勅使劉仁願熊津都督扶餘隆因盟于熊津之利

其契詞劉仁軌之辭也勅
 山詔命其書於社羅宗庙

仁軌領新羅使者及百濟聘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隆畏眾攜散亦敗京師後唐以隆為帶方郡王遣啟

回安輯餘眾隆畏新羅不敢入回國寄沈高句悉死○高句悉

泉蓋魏文死子男生代為莫難支魏其弟男建殺男生之子獻

忠自為莫難支討男生男生之保國由城遣子獻誠于唐求內附
○高句肅王二十七年唐以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劉仁軌
郝處俊副之徵兵於新羅伐高句肅薛仁貴為前鋒拔拔
餘城拔餘川中四十餘城皆請降侍御史賈言忠奉使自遼
東還帝問軍事對曰必克昔先帝問罪所以不得志者虜未有
釁也諺曰軍無媒中道回今男生兄弟鬪狠考其鄉導虜之
情偏私盡知之將忠士勇故曰必克且高句肅秘記曰不及九百
年當有八十大將滅之高氏自漢有國今九疑七百年勣年八十虜
仍荐飢地震裂狼狐入城蚡穴於門人心危駭是行不存孔夫
勣進拔大行城諸城降者相繼新羅仁問天存等願一美等
七郡兵先赴虜瑒王雋奔令諸道總管願共送之以金欵純
仁問等將秋七月王次漢城州兵凡二十萬與唐軍合圍平壤城
月餘男建閉門拒守以軍事委浮屠信城信城密遣人詣
勣為內應開門勣縱兵登城遂拔之男建自刺不死王城降
高句肅遂亡李勣以王城及子福男德男大昆等二十餘萬還
京師李勣將入京帝命先以王城等獻既陵具軍容奏凱歌

新羅文武王
高麗寶藏王

獻于太祖男建法黔州分高句肅五部百七十六州李九二萬餘戶為九都督府甲子丹百縣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大將軍山輝仁貴留鎮撫之移三萬八千三百戶於江淮之南及山南東西諸州空曠之地留其貧弱者使守安東

右高句肅自收祖東明王高朱蒙年二十歲以漢元帝建昭

元年甲申都卒本技餘國魏高句肅在位十九年瑠璃王

癸亥移都國內城山上王癸亥移都九都東川王丁未移都

平壤故國原王辛日浚都九都癸卯移都平壤東黃城

長壽王丁卯移都平壤城平原王丙午移都長安城室

藏王戊辰唐高宗總章元年庚兵全新羅兵攻拔平

壤而亡合二十人王共七百五年國內城在鴨綠以北安市城或云九都城在鴨綠之東北遼東之東南東黃

城在今西京木覓山中又平壤亦謂之長安

史以按收祖以英雄之資見忌於金蛙諸子逃難至卒本披草

萊建邦國未遭制作然威德日盛故附亦窮降松壤亦靺鞨

取於人滅沃沮雄據一方俯視三韓何成功之易也瑠璃以遺

腹托他國又承襲難夫幸而得嗣降鮮卑滅梁貊闢國

浸廣然憤小罪而誅二臣惡好勇而殺太子是可歎也夫武
英明雄武拔旌申於微賤委豆智以軍國仇都以貪鄙被
斥教以^素智能見褒征蓋馬滅宋浪扶餘奔竄而自避勾荼
畏威而未降恢拓土宇國勢愈昌獨惜予信婦人之惑有子
如好童之賢而尚不自明以至於死跡其行事其晉獻之流
乎閔中方喪宴樂遊畋享年不永慕本暴戾不仁戕殺
諫臣其得善終難矣太祖享國九十餘年毫荒倦勤付
托夫人禍及忠臣愛子雖有闕土強國之功何足道哉次
大以寵弟窺伺大鬼稜有年紀及嗣位尚不悛心姿行
誅殺天道好還其及也宜矣新大逃難出亡國人悌心推
戴立之宜先明答天弑逆之罪以伸大義也而德其援立
之功及寵任之故因以英明之資奮有為之志誅權姦
訪遺逸聘巴素於草澤擢為國相推誠委任又賞札
者誠哀世未有之盛也然後嗣石定死由未冷于犯淫穢
濁託房闈山上烝于犯得國瀆亂天倫所可道也言之醜也
東川天性寬仁有人君之量奈何復忠臣之諫侵犯上國

驟勝輒驕及其敗竄身狼狽幾於亡國予中川雖無德可稱
而能辨寵姬之誣殺之不疑何其斯也西川禦甫慎拔檀盧
諸部震懼晚年猜忌推刃同氣烽上閔恨尤甚殺叔及
弟復諫自恣峻宇離牆民困虐政卒及於禍美川早避
荒野備嘗艱險宜有德慧術智矣而無德可稱徒以
侵化上國為事故國原值慕容之變奔敗鼠竄母妻見
虜父尸亦芥郭城宮室焚蕩殆盡旄倪珍寶輪掠無
遺幾不保社稷至於屈膝稱臣納貢修貢是宜卧薪
嘗膽之時也顧乃忘我仇讐噬我脣齒搆謬百指血
染敵鋒惜哉小獸林立大學教子弟似可共為為而惑
於異端邪說邀秦僧創佛宇奉之彌謹為東韓佞佛
之始主故國壞侵強隣擾中國干戈糜爛猶且事佛求福
福未獲而遽天惑於厲罔土雄偉有奇才能戰勝攻取長
壽享年愈長國富兵強文咨安臧安原皆中村庸主陽
原武略不競國步日蹙平原遇旱而惧停無用之費捐不
急之務勸農桑賑貧乏有足多者嬰陽而即位有志

安民然不知畏天事天之義黨鞅鞅侵上國隋文帝命將
未討舉國震恐宜効頓悔罪之不暇方且伐新羅侵百濟
喜兵樂禍復致煬帝罪討之孔百萬之兵渡遼碣涉滌
水搏巢覆穴不朝則夕不有文德之應喪玄感之內叛則
國之存亡未可知也榮留昏愚暗弱賊臣竊文有今將之心
而不能辨之於早駟致堅冰之禍欲以弱制強幾又不審禍
不旋踵寶藏為蕪文而立權移於下政不已出國皆蕪文
之國民皆蕪文之民專擅自恣窮兇極惡違帝詔囚王人
罪逆貫盈唐宗赫怒親將六師討之雖駐蹕之役不得
志而還高麗國勢亦岌平殆於是雖蕪文之罪惡而亦室
蕪不君之為也厥后太宗之憾不釋頻年命將出討將欲
再刊此正君臣協力圖存之時也而主昏於上臣虐於下奢侈
無度國事日非蕪文諸子自相魚肉至於詔中國為鄉道可
雖以高宗中材之主遣一老將一孔滅之如摧枯拉朽高氏
七百年之宗社一朝丘墟悲夫

文武王

九年己巳

唐摠章二年

王會羣臣下教平定兩國大赦國內○十年

唐咸亨元年 ○高句麗大兄劔牟岑欲圖興復收合殘民至湞江殺
唐官人向新羅行至西海見故宗室安勝迎致漢城立為君
遣使請附王處之國西金馬渚帝遣大將軍高侃發兵討之
安勝殺劔牟岑奉表王遣使冊安勝為高句麗王 後封報德王
妻以外妹
○王分遣諸將討百濟品日文忠等取十三城天存竹旨等取
七城文穎等取十二城 ○倭國更號日本 ○十年王遣將領兵踐
百濟加林田末遂與唐兵戰於石城斬五千三百級 ○唐總管薛
仁貴遣僧琳潤致書於王曰新羅王清風萬里大海三千天命
有期行尊此境奉承機心稍動寤武違城去田也之片竟失
候生之謠兄為逆首弟作忠臣遠分花萼之陰空照相思
之月興言至此良增歎詠先王開府謀敵一國轉輾百城西
畏百濟之侵也警高麗之寇地方千里救處爭鋒蚕也不及桑
時耘人失其疇序年將身慎榆景日侵不懼離海之危遠涉
陽候之險憑心華鏡頓賴天門具陳孤弱明論侵擾情之所
露聽不勝悲太宗文皇帝氣雄天下神王宇宙若盤古之
九變罔巨靈之一掌扶傾救弱日不暇給哀納先君於收而請

文武王

輕車駁馬美衣上藥一日之內頻遇殊私亦既承恩對揚軍事
 契同魚水明於金石鳳輪千里鶴因萬戶留連酒德譙笑
 金除參論兵馬分期拜援一朝大和陸交鋒于時塞草分
 花榆星上英駐蹕之戰文帝親行吊人恤隱義之深也既而
 山海異形日月回薄聖人下武王亦承家嚴葛因依拜坐共
 舉洗兵刷馬咸遵先志數十年外中國疲勞帑藏時用
 瓦礫日給以蒼島之地起黃圖之兵貴於有益貪於無用
 豈不知止恐失先君之信也今強寇已清讐人喪國士馬王
 帛王亦有之當應心齋不移中外相輔昭厥孫謨以燕翼子良史
 之讚豈不休哉今王去安然之基厭守常之策遠乖天命近棄父
 言侮暴天時侵欺隣好一隅之地僻左之陬率戶徵兵連年舉斧
 燭炬輒粟稚子屯田守無而支進不能拒以得裨表以存輔也
 大小不併逆順乖敘亦由持彈而泄暗於枯井之危捕蟬而前不
 知黃雀之難此王之不知量也必其誓河石帶義分冰霜違
 君之命不忠背父之心非孝一身二名何以自寧聞義不從見
 善而輕聽縱橫之說煩耳目之神忽高門之基近鬼瞰之

卷三

賁先君盛業奉而異國內積疑臣外招強陣豈謂智也又高嘉
安勝年尚幼冲遺孽殘邪生人減半自懷去就之疑非堪衿帶之
重仁貴梯般竟翼風帆連旗巡於彼岸矜其曰日傷弓之羽
未忍加兵恃為外援斯何謬也皇帝德澤無涯仁風遠洎爰
同日景照若春華遠聞消息悄然不信爰命下臣耒覘由委
而王不能行人相問牛酒犒師遂便隱甲崔陂藏兵江口蚊行
林薄喘息荒丘潛生自噬之鋒而無相持之氣大軍未出游刃具行
望海浮江魚驚鳥竄夫凡大事者不貪小利杖高節者寄以
英奇必其為風不馴豺狼有顧高將軍之漢騎李謹行之
蕃兵吳楚棹歌击并鬼以四面雲谷方舟而下依險築戍闢地
耕田此王之膏旨也嗚呼昔為忠臣今乃逐臣恨始吉而終凶惡
本同而末異風高氣也葉落年悲馮山遠望有傷懷抱玉機
昭清明風神爽秀故以流蘊之義存於順迪之心血食依時茅苴
不易占休袖祐王之第也嚴鋒之間行人未泯今遣王所部僧琳
潤賚書佇布三王報書愿陳曩時忠勤明且不報○十二年
唐將高侃等攻平壤羅軍大敗大監阿珍舍年七十橫戟突

陣而死是役也庚信子元述為裨將亦歿戰死其佐淡凌輕馬固止
之隨大將微行入京庚信曰元述不惟辱王命而亦負家訓可斬也
王曰元述裨將不可獨施重刑乃赦之元述慚懼不敢見父道於野
○王遣復倉原川等于唐送還被虜將士百七十餘人上乞表罪○
十三年太師發翰金庚信卒年七十九妻金氏太宗第三女有子五
人曰三光元述元貞長耳元聖及庚信卒元述求見母母曰婦人有
三從之義今宜從子甫既不得為子於先君吾焉得為甫母子遂
不見元述慟哭曰為淡陵所誤乃至於此遂入太白山後唐兵未
攻買蘄川城元述歆雪前恥力戰有功以不容於父母不仕終其
身○王遣將領兵般鎮西海其唐兵鞋鞞契丹兵九戰皆克
之斬首二百餘級唐兵溺河死者不可勝數○十四年改用新曆奈
德福入唐學曆術
而選用其法王於宮內穿地造山植花卉養珍禽奇獸○唐
削王爵遣劉仁軌李謹行各兵未討王徧高句麗叛衆又據百
濟故地帝大怒以王弟仁問在京師立以為王策鷄林林大都督
討之劉仁軌李謹行等破我兵於七重城三戰皆克王遣使謝
罪獻方物相屬帝赦之復王官爵仁問至中路還入唐○十五年

文武王

卷三

須百司及卅郡銅印○薛仁貴以宿衛學生風金訓風訓父真珠在

為鄉導未攻泉城將軍文訓等逆戰斬首一千四百級取兵船四十艘

得戰馬一千匹李謹行平兵二十萬屯買肖城我軍俘走之得戰

馬三萬三百八匹既而我軍與唐兵大小十八戰皆克之斬首六千四

十七級得戰馬二百匹○十六年唐儀鳳元年王命僧義相創浮石寺於太白

山○二十一年辛巳唐開耀元年王薨遺詔畧曰太子即位於柩前崩立且山谷遷買人

西陵之里惟圓銅雀之名空帶人力莫渝王薨遺詔代推移吳王世出之墳詎見全覺之徠魏王

便於庫門外庭依西國之式以火燒焚羣臣以遺詔火焚東海口大石上

權近曰葬者藏也臣子之於君父歿則必以禮葬之者由其有

不忍之心也火葬之法出於佛氏其說以焚炙禽獸猶以為罪極

言報應之慘至於人死則必欲焚之其視至親不如禽獸其違

理悖常甚矣新羅羣臣從其亂命而不知為非至於後王

既燒其柩散又骨東海邪說之惑人可勝痛哉

帝遣使冊王○蘇判金欽突波珍倉興元大阿倉真切等謀

叛伏誅

〔神文王〕諱政明字日始○二年壬午唐永淳元年東海中山有一竹畫分

為二夜合局一王使人取之作笛號曰萬波息笛海官朴風清告也時人謂吹此笛風波平○高

句麗王臧卒於邛州唐以臧為遼都督朝鮮王遣歸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臧至遼東謀叛白臧還邛州詔葬頡利

墓左徙其人於河南隴右餘眾散入鞞鞞及突厥高次遂絕○三年

納金欽運女為妃賜聘幣帛十五輦米酒饌具百三十五輦租百五十車○徵報德王安勝賜牲金

○置卅郡於六年百濟曰地○十二年唐嗣聖九年主辰七月王薨太子理洪立

○唐武侯遣使吊祭冊王

(孝昭王)諱理洪母神穆王后金氏○八年東海水赤吾海水自擊聞拜王都○兵

庫鼓角自鳴○十年嗣聖十九年壬寅王薨無子國人立其弟隆基

(聖德王)諱隆基後遜帝諱改興元○二年癸遣使朝唐是後連歲不絕○五年穀不登民多

飢死給租賑之人日三升○十年王親製百官箴示羣臣○封金庾信

妻為夫人歲賜南城租一千石時落髮為尼○十六年太監守忠回自唐上

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畫像命置太學○始造漏刻○十八年開元七年

祀渤海郡王太柝榮卒私謚高王子武藝嗣渤海本粟末鞞鞞即高句麗別種稱榮父乞乞仲象其

徒渡遼水保太白山東仲象死柝榮嗣曉勇善騎射高句麗餘盧楮楮之乃建國自号震且先天下拜為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自是始去鞞鞞之號稱渤海至是死子

武藝嗣亦大土守東土諸夷畏服之遂論周六十七百九十二步○策毛伐郡城以防倭寇

○二十二年開元十一年王獻美女抱貞貞苑帝曰女皆王姑姊妹違親屬別鄉國

神文王
孝昭王
聖德王

卷三

甲
朕不忍留厚賜還之○二十三年拜遣金武勳如唐賀正帝降勅賜王錦袍

金帶練素共二千匹後又請遣子弟入國學詔許之○三十年遣金志良

入唐賀正帝授太僕少卿賜帛六十匹降詔褒嘉賜王綾練五百匹

帛二千五百匹○三十三年帝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遣太僕員外郎

金思庸諭王發兵伴渤海為犄角帝又曰聞曰將金庾信孫允中之

賢為可將遣之仍賜允中金帛於是王命允中等四將帥兵會唐軍

伐渤海會大雪山路阻隘士卒死者過半無功而還王以允中擢為大阿

漚寵遇之王嘗親頓疾之王嘗登月城共從官置酒為樂曰允中共

為左右曰今宗室戚里豈無可人而獨召疏遠之臣臣等竊恠之王曰

今寡人共卿等共享太平庾信之功也君遐棄之非善善及子孫之

義也遂賜絕影山馬一匹○帝賜王白鸚鵡雌雄各一隻及紫羅繡袍

金銀鈿器物瑞文錦五色羅練共三百餘段遣王姪志廉備獻方物

上表謝恩畧曰伏觀瓊文跪被玉匣含九宵之雨露帶五練之鵷鷺辨慧靈禽素
蒼兩妙羅錦練章金銀鈿見之者爛目聞之者驚心微效似奉重恩如岳

○三十六年開元二十五年丁丑王薨王教百官進言歲遣使朝唐問高年賑飢民太

子承慶立
孝成王諱承慶母始德王后○二年庚寅唐帝遣贊善大夫邢疇吊祭前王且冊嗣

王疇將發帝謂曰新羅狝為君子之國頗知書卿演經義使知大國儒教之盛又以國人善棊詔以參軍楊季膺為副國之高手皆出其下疇到國獻道德經

使知

權近曰疇之來也帝稱為博儒宜演經義大國儒教之大盛而疇之所獻于王乃老子道德經也帝以疇誇知儒教之盛又遣善奕者副之何歟晉崇老氏又以棊奕庶事為高致遂使神丹陸沉今玄宗復踰其轍其能免天寶之亂乎

三年王以伊滄信忠為中侍初王在潛邸常與信忠因茗柏樹下謂曰他日我不忘汝汝亦不改貞操所有負者有此柏王即位錄功臣而遺信忠信忠作歌帖於柏樹樹忽枯王恠使審之得歌大驚曰幾忘乎角弓矣乃賜爵柏弓勳○六年唐天寶元年壬午王薨太子憲英立以遺命燒柩於法流寺散骨東海

（景德王）

諱憲英孝成同母弟也王無嗣立為太子

○二年殺京都有牛一產五犢○唐遣使吊

祭仍冊王王遣弟如唐賀正○妖星出中天大如五斗咒浹旬乃滅○六年改執事省中侍為侍中典大等為侍郎又置國學諸業博士助教始置員察一員糾正百官置天文博士一員漏刻博士六員○震真平

孝成王
景德王

王陵○十三年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厚九寸重四萬九千七百八十一斤

○十四年旌孝子向德門

立石紀事號其地孝家里

向德父母年荒飢病濱死向德到髀食之母發灘吮之皆平安事聞王賜租三百斛宅一區口分田

○上大等金思仁以史異屢見上疏極論時政得失王嘉納○十五年

天室十

五年王聞帝在蜀遣使如唐泝江至成都朝貢帝親製十韻詩手

札賜王

詩曰四維分景律萬象含中樞玉帛遍天下梯航啟上都徇懷阻青陸歲人未襲典謨衣冠知奉禮忠信識尊儒謝矣天其鑒賢我德不孤擁旌同作牧聖

賦此生菊益重青志風霜恒不渝來宣和中高麗使臣金富儀將所刻本入汴京示

學士李邕邕以聞帝因宣示兩府及諸學士傳宣曰所上詩真明皇手書嘉歎不已

○十六年置九州分統郡縣改郡縣名

以沙代州為尚州較良州為良州菁州為康州漢州為漢州首若州為朔州河西州為

濱州熊川州為熊州亮州為武州九州所管郡縣無慮四百五十新羅地

理之廣衰斯為極矣○十七年大雷震佛寺十六○改官號○二十二年大奈麻李純常

有寵於王一朝彙官為僧累徵不出創斷俗寺居之聞王好樂詣宮門

極諫王為之停樂引正室論說投日○二十四年

唐永泰元年乙巳

王薨太子乾運立

年八歲母后攝政

○惠恭王

諱乾運母滿月夫人金氏

○二年丙午兩日並出○康州地陷成池水色青黑○三

年三星隕宮庭相併其光如火迸散天狗隕東樓頭如尾三尺許

○四年帝遣使冊王○虎入宮中○一吉倉大恭其弟阿倉大廩叛圍

王宮月餘討平之○六年大阿倉金融叛伏誅○十一年伊倉金隱居謀

叛伏誅○伊食簾相其侍中正門誅叛伏誅○十三年下教百官皆從曰

號○始立五廟味鄒王太宗王文武王並祖稱為五廟一年六祭以味鄒王○十

三年上大等金良相上疏極論時政○菁卅人聖覽養母至孝母病割

股食之及死盡誠襄事王賜租三百石○十五年遣金巖聘日本巖庚

信之後性聰敏好方術入唐宿衛間就師學陰陽家法及還為司天

大博士歷守良康漢三卅所至盡心撫字教以兵法常有蝗虫入界蔽

野巖登山頂焚香祭天忽風雨大作蝗盡死至是聘日本其王欲留之

會唐使高鶴林來相見甚懽以巖為大國所知遣還○金庚信墓誕

風忽起至昭祖陵坐霧暗冥不辨人物若有哭泣悲歎之拜王惧致

祭謝過○十六年唐建中元年庚申伊食志貞聚眾圍王宮上大等金良相與伊

食敬信率兵誅志貞等王與后妃為亂兵所害王幼冲嗣位母后臨

朝及壯淫于拜色戲謔無度綱紀紊亂人心難叛志貞因等作亂良

相自立為王

宣德王諱良相希勿王十世孫○三年壬戌王巡幸漢山州移民戶於湏江鎮○四年

立社稷壇修祀典○五年甲子王欲遜位羣臣三上表諫乃止○六年唐貞元元年

王薨遺詔依佛制燒火散骨東海國人立上大等敬信為王初惠

恭惠王
宣德王

東... 卷三

燕末年叛臣拔扈宣德討叛賊弒惠恭自立敬信共謀及宣德薨無
子羣臣欲立王族子周元周元弟在京北平里會天大雨關川漲不得
渡議者曰君人大位有闕天命固非人謀邪及今日暴雨天其或者
不欲立周元乎今上大等敬信德望素高有人君之度於是眾議
翕然遂立之既而兩止周元退居溟丹○王追王四代

(元聖王) 詳敬信奈勿王十二世孫一吉食孝讓之子 ○二年丙寅遣使朝唐○秋王都民飢出粟

三萬三千二百石賑給之冬又賑粟三萬三千石○大舍武鳥敵兵法

十五卷花鈴圖二卷○四年春始定讀書出身科讀春秋左傳若禮記文選兼明

論諸孝徑為上讀曲禮論諸孝徑者為中讀曲禮孝徑者為下若博五徑三史諸子百家者起擢用之前此但以射選入至是改之 ○六年齊全

卅等七卅人增築碧骨堤○七年伊飡悌恭謀叛仗誅○十五年

貞元十五年王薨遺命燒柩太子俊邕立○時有金生者能書不玷

藝佛好隱居不仕年踰八十猶操筆不休隸行草皆入神宋崇寧中翰林待

詔楊球李革見金生書大腹曰不圖今日得見王右軍真蹟

(昭聖王) 諱俊邕元聖王孫 追王惠忠太子○二年貞元十六年庚辰王薨太子清明立

年十三兵部令彥昇攝政王叔父 ○以梁悅為豆盼小守初悅入唐宿

衛帝幸奉天悅從雜有切帝授右贊善大夫及還王擢用之

哀莊王諱清册 改重熙 ○二年辛巳改五廟之制始祖大王高祖明惠王曾祖元聖王皇祖

文武王 為二廟 ○以彥昇為上大等 ○三年創伽倻山海印寺 ○牛頭卅有石起

立望海寺二塔相侔 ○六年帝遣使告哀且冊王封太后叔氏為太妃

妃奈勿王後金叔明之 女嫌同姓以父名為氏 ○九年定十二道郡邑疆境 ○十年元和四年西兄

山城蓋庫鳴拜如牛 ○彥昇弒其君清明且殺其二弟自立遣使

告哀于唐辭以病薨且請承襲帝遣使冊彥昇為王

憲德王諱彥昇 聖王弟 ○四年壬辰以均貞為侍中 ○五年以伊飡金憲昌

為武珍卅都督又為侍中 ○七年因西卅郡大飢盜賊蜂起發兵討

平之 ○漢山卅唐恩縣有石自移百餘步 ○十一年元和十四年王命將軍

金雄元率甲兵三萬應帝徵兵討唐叛臣李師道 ○泚江南

卅二石相侔 ○十四年王無嗣以母弟秀宗為太子居目池宮時上

大等忠恭坐政事堂注擬請托全至莫能舉措感疾而退召

醫診之曰病在心臟須服龍齒湯遂杜門謝客侍郎祿真請見

門者拒之三復乃見曰伏聞氣體不調得非早朝晚罷蒙犯霧露

之致乎曰未也祿真曰然則公之病不須砭石可一言理之忠恭曰可

得聞乎祿真曰彼梓人之作室也材大者為梁柱者小為椽榱偃

元聖王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

者息者安各所施然後大廈成焉宰相之為政也亦然才巨者置
高位小者授下品內則六官百執事外則方伯郡守朝無闕億皆得
其人然後王政成焉今則不然徇私而滅公為人而擇官愛之雖
不才必進憎之雖有能必斥取舍勞其心是非亂其志不獨害於
國事為之者亦病矣若其當官清白蒞事恪恭杜貨賂之門絕請
托之路黜陟必以由明予奪不以愛憎如是則刑政允穆國家和
平雖日聞公孫之閑置曹參之酒與朋友故旧談笑自樂可也又何
必區區於服餌之間徒自費日廢事為哉忠恭悅謝醫朝王曰臣
聞祿真之言同於藥石豈止飲龍齒湯而已哉因為王誦之王
曰有人如此不可使儲君不知也宜往告太子太子聞之入賀一吉
涼考奉○熊川卅都督憲昌以父周元不得立舉兵叛脅武珍完
之子○西原京雨蟲○十八年唐
山等川郡王遣張雄等討之憲昌自殺○唐
曆二年王薨太子秀宗立
丙午
興德王諱考宗○三年改景微以大河浪金祐徵為侍中○以張保臯為
青海鎮大使保臯少字弓福入唐為徐卅小將後故國告王曰中國
人往往掠吾邊氓願鎮青海以禦之王其卒萬人鎮之是後無

此患

清海鎮在康
津即莞島也

○大廡自唐還得茶子未命植智異山○以金陽為

固城郡太守尋拜中原大尹武卅都督陽少而英傑所臨有政譽太宗

九世孫相宗基父貞
如皆為將相

○七年春夏大旱飢荒盜賊徧起○九年王巡幸固

南卅縣存問耆老孤寡賜穀布有差○下教禁奢僭申冠服之

制○以阿食金均貞為上大等○十一年

唐開成元
年丙辰

春正月辛丑朔日有

食之冬王薨無嗣堂弟均貞堂弟之子悌隆爭立金陽其祐徵

奉均貞為王悌隆黨侍中金明阿食利弘圍王宮均貞遇害

明等立悌隆為王

僖康王

諱悌隆元聖
王孫憲貞子

○二年丁以金明為上大等利弘為侍中○均

貞之子祐徵收餘兵往投青海鎮大使張保皋謀復讐禮徵

良順亦故○三年春正月金明弒王自立○二月金陽募兵士入青海

鎮奉祐徵討金明以兵五千襲武卅降之進次南原遇金明所遣

兵克之祐徵以士卒久勞且還青海鎮休兵○十二月金陽辨乎東

將軍再出兵金亮詢以鵝卅軍未祐徵又遣閻長張弁賂金等

六統兵為將軍容甚盛鼓行而東

興德王

僖康王

神武王

神武王

諱祐徵元聖
王孫均貞子

○元年己未

唐開成
四年

春閏正月金陽等至達伐

丘與金明在戰大克明時在西郊兵士追殺之

羣臣禮葬謚閔哀

語在金陽

傳○四月禮徵等先至清宮禁迎祐徵入即位是役也張保臯分

兵五千授其友鄭年助討之初保臯鄭年皆善戰不相下俱入唐無

敵敵者後保臯還國得鎮既貴失職年飢寒欲就食於保臯

或曰若與保臯素不相能奈何往取死乎年卒往保臯與之飲

極歡飲未卒聞變保臯乃分兵付年執年手泣曰非子不能平禍患

金富軾曰郭汾陽李臨淮俱為朔方節度使安思順牙門都

將文不相能雖同盤飲食常睇相視不交一言及祿山亂詔汾

陽代思順詔臨淮分汾陽半兵東討臨淮入請曰一死固甘免妻

子汾陽趨下執手上堂偶坐曰今國亂主遷非公不能東伐豈

懷私忿耶時泣別相勉以忠義訖平巨盜二公之力知其心不叛

知其材可任然後心不疑兵可分平生積念知其心難也念

必見短知其材亦難也此保臯與汾陽之賢等耳語曰國有

一人其國不亡夫亡國非無人也丁其亡時賢人不用苟能用之一

人足矣宋祁曰嗟乎不以怨毒相甚而先國之憂晉有祁奚

唐有汾陽羅有保臯孰謂夷無人哉

王既立追王祖考封張保臯為感義軍使食宗封三子戶○和弘葉
妻子遁山谷王遣使追殺之秋七月王瘡發背薨在位太子慶膺立
拜保臯鎮海將軍金陽授侍中兼兵部令

文聖王

諱慶齊

○二年庚申以禮徵為上大等義宗為郎中良順為伊滄○

三年一吉滄弘弼謀叛事覺亡入海島○五虎入神宮園○六年甲子春二

日甲寅朔日有食之○七年十二月朔三日並出○八年殺青海鎮大使張

保臯初神武王投青海與保臯約苟得復讐當以卿女配我子至

是王欲納女羣臣諫曰夫婦人之大倫夏以塗山與殷以嫫毘昌周以

褒似滅晉以驪姬亂國之存亡於是乎在可不慎乎今保臯海

島人也納其女可乎王從之保臯怨王據鎮叛將討之慮或不

克武人卅箇長素以壯勇聞未告曰朝廷幸聽臣計當不煩一卒

斬保臯以獻王從之箇長佯叛投青海保臯愛其勇無所疑引

為上客其之飲極歡及醉棄保臯劍斬之後罷其鎮徙其人

於碧骨郡○九年伊滄良順興宗叛伏誅○伊滄金貳大昕等

叛伏誅○十三年阿滄元弘自唐賡佛徑佛牙還王郊迎○十九年

侍中金陽卒追贈舒介翰陪葬於太宗陵○九月王不祿太子

文聖王

卷三

先卒遺詔傳位於叔父誼靖堯誼靖立

唐大中十一年丁丑

(憲安王)

諱設靖

○四年

唐咸通元年庚辰

王會犀臣於臨海殿王族膺廉年十

五預宴王欲觀其志問曰汝為國仙遊學有日得無見善人乎對

曰臣嘗見三人者一勳開子弟也而不先人自下一家富而被服不侈

一勢榮而驕氣不升臣竊以此為善人王嘿然與左右語曰朕閱人

多矣無如膺廉者款以女妻之更置酒從容曰吾有二女惟即

取擇膺廉不獲歸告父母父母曰聞王女容色兄不如弟若不得

已其娶弟乎即徒靴教曰娶兄有三益弟有三損膺廉乃

奏臣不敢自浚惟王命王以長女妻之是為寧花夫人○五年咸通

二年辛巳王堯王無男有女以遺命立膺廉

(景文王)

諱膺廉僖康王孫阿食啓明子

○三年

癸未

納寧花夫人弟為次北爵靴教為

大德賜金百三十兩○五年帝遣使冊王○立子晟為太子晟聰敏喜

讀書一覽輒記○伊食允興與其弟叔興季興謀逆事覺捕

斬夷三族○伊食金銳金鉉等謀叛伏誅○震皇龍寺塔後改

造九層高二十二丈

○十四年伊食近宗謀叛犯闕禁軍出俘之近宗兵敗

追獲輟之○十五年王堯太子晟立

憲康王

諱

○四年

唐乾符五年戊戌

唐遣使冊王王遣使朝唐聞黃巢賊起乃

止○五年王出遊鶴城還至海浦忽雲霧迷路禱于海神用香因

名用雲浦有異人処容者奇形詭服詣王前歌舞從入王京王賜

爵級干又有四人詣駕前歌舞

其歌有地理多都都破等語謂以地理固者多逃都而邑將破故歌以警之時人不知

反以

高瑞○一吉倉信弘謀叛伏誅

○六年王與左右登月上樓見都下屋宇

比櫛歌吹沸騰顧謂侍中敏恭曰孤聞今民間覆屋以瓦不茅茨

炊飯以炭不薪樵有諸對曰自上臨御以來陰陽和風雨順歲登民

足邊境寧謐市井歡樂此皆德聖所致王欣然曰宗賴我卿等

輔佐之力朕何德焉○王燕羣臣於臨海殿王酒酣鼓琴左右各

進歌詞極歡而罷○十年崔致遠捧帝詔還自唐○遣使如唐

賀破黃巢賊○十二年

唐光啓二年丙午

王薨弟晃立

定康王

諱

○二年

王薨無嗣以遺命立女弟曼王病革謂侍中俊

興曰孤不幸無嗣女弟曼天資明銳卿等宜做善德真德故事故

立之

權近日漢雉唐盟皆北晨逞惡謀覆宗國危而後安劉李之

不止幸矣定康將薨藉善德真德故事遺命立曼其臣俊興不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唐史卷三

學學無術勉從亂命以致恣行淫穢羣盜並起國隨以亡可謂君不

君而臣不臣矣

(真聖主)

諱曼 二年 唐文德元年戊申

主素與角干魏弘通至是常入內用事及弘

死潛引年少美丈夫私之授以要職由是佞倖肆志貨賂公行紀綱

解弛時有人譏謗時政榜於朝路或告曰必文人不得志大野隱

者巨仁所為命下獄將刑巨仁憤怨書獄壁

詩曰于公勵哭三年旱鄰衍舍悲五月霜今我出

愁還似古皇天無語但蒼蒼

其夕忽震雷雨電主惧釋之○三年國內卅郡不輸貢

賦府庫虛竭主齊使督之所在盜賊蜂起元宗哀奴等掘沙伐

卅叛○五年唐大順三年弓裔叛于北原弓裔憲安王庶子生時屋上有

素光若虹上層天日官奏曰此兒以重午日生生而有齒且光燄異

常恐將不利於國家王勅中使殺之使者取襁褓中投樓下乳婢

竊奉之手觴眇一目抱而逃竊養之年十餘祝髮辨善宗不拘檢

僧律軒輊有膽氣見國家衰謂乘亂聚眾可以得志投於卅賊

箕萱萱不禮又投北原賊梁吉吉委任以事遂分兵東畧地累

戰輒勝眾至六百與士卒同甘苦眾心畏愛○六年唐景福元年甄萱

拔據完卅山自稱後百濟萱尚卅加恩縣人本姓李父阿慈介

真聖王

以農自活起家為將軍初營生父耕野毋餉之置營林下虎來乳之年
十五自稱甄萱及壯體兒雄奇志氣倜儻入王京赴西南海防戍為裨
將時政亂民飢羣盜蜂起萱潛懷異志嘯聚亡命劫掠州縣
眾至五千遂襲武珍州自立為王猶不敢公然稱之○九年弓裔破
漢州管内鐵國等十餘郡遂挾松岳郡開國稱王以王建為鐵
國郡太守建漢州松岳郡人文隆完字宏大有並吞三韓志駁
韓氏以僖宗乾符四年憲宗王三年丁酉正月丙戌生建于松嶽
南第神光紫氣繞室充庭初而聰明龍顏日角方頤廣額光
度雄深語音洪大寬厚有濟世之量初陰策室於松嶽之南
僧道詵耒憩門外樹下歎曰此地當出聖人陰聞之倒徙出迎相
其登松岳道詵就為一封書授陰曰公明年必得貴子既長可以
共之及期果生建及建年十七道詵復至請見曰足下值百之會
三季養生待必弘濟因告以出師置陣地利天時之法望秩山川

感通保佑之理

道詵性金新羅吳若人史失世系或云太宗太王之孽孫母姜氏
今人遺明珠一顆使吞之遂有娠既育復異凡兒年十五穎悟

夙成兼解技藝遂祝髮度山學者咸以為神聰乃受禪戒於惠徹智藏廓
奄慈悟道無定所至興陽縣白鷄山王龍寺愛其幽勝因葺草堂守宴坐忘言

三十五載遂終焉新羅孝恭
王三年戊午也年七十二

時陰為松岳郡沙滄以郡歸子商說之曰

大王若欲王朝鮮南慎下韓之地莫如先樹松嶽以吾長子建為其高

泣之○十年唐乾寧四年丁巳主薨太子曉立初憲康出儼道見女悅之命載後車

其背曰孫之兄弟骨相異兒背兩骨隆起
真憲康子也立為太子至是立

(孝恭王) 曉二年秋弓裔取涇西道及漢山州三十餘城遂移松岳郡○

四年弓裔遣王連取廣丹忠丹等五郡以建為阿餐弓裔怒新羅嘗南

王畫像拔 七年弓裔遣王連率舟師自西海攻錦城等十餘郡拔之○
鈞仔之

子甲 八年甲弓裔立國號曰摩震紀元武泰設百官宣都鐵國攻取尚

州等三十餘邑○弓裔遣王連黔式等領兵三千與甄萱戰於尚州

沙火鎮克之弓裔以土地益廣士馬漸強意欲並吞新羅自新

羅未附者並皆誅殺○十三年後梁太祖開平三年王連見弓裔日以驕虐常不

樂求聞寄出鎮錦城攻拔光州珍島郡城中望見軍容嚴整自

降建推誠撫士威惠並行敵境龍言服○王嬖賤委不恤政事大

臣殷景諫不從景執其妾殺之○十六年後梁乾化二年壬申王薨無嗣國人

立朴景暉景暉阿達王遠孫大所食入

(神德王) 諱景暉 二年癸弓裔以王建屢著邊功累階為波珍餐魚侍

中以召之於是建位冠百僚然非素志且畏終不樂居位每出入公

門平章國計惟抑情謹慎好賢嫉惡一時人心皆屬建建懼禍及復
求外鎮羅州時弓裔誣權叛亂日殺殺百將相遇害者十有八九其
妻姜氏正色諫之弓裔怒以燒火烈鐵杵撞其陰殺之並其兩兒
○六年玳玉薨太子昇英云

景明王諱昇○二年後梁貞明四年戊寅夏六月泰封諸將立王建為王國號高

麗建嘗多見九層金塔立海中自登其上至是唐高宗王昌謹見一老人買古

鏡日光斜映隱之有細字可讀其畧曰上帝降子旻辰馬先操鷄後搏又曰鴨

二龍見一則箭身青木中一則現形黑金東之云昌謹異而獻之弓裔令物色其人

唯東州渤海寺有鎮星像如其狀且持鏡裔歎異令文人宋合等解之曰辰

馬者辰韓馬韓也青木松謂松岳郡人將為君王也王侍中有王侯之相豈謂是歟

黑金鍤也今所都鐵圍之謂也今主殆終滅於此乎操鷄搏鴨者王公先得鷄

林後收鴨係之意也三人謂王猜忌

嗜殺不可告以京乃說辭告之

裴玄慶申宗諫卜智諫等夜詣建第密謀推戴語在四切臣傳

建拒之甚堅夫人柳氏柳氏貞州人柳天弓之女天弓家甚富邑人稱為長者

太祖嘗為將過貞州息馬古柳下見其女德容因宿其

家以女侍寢後絕不相聞守節為尼太祖召以

為夫人舉義養成是為神惠王后後祔葬王陵在帳中出謂建曰妾聞諸公之

孝恭王

神德王

景明王

全愛堅等八十餘人先是弓裔以青州地饒人多豪傑恐其為變將欲殲之乃召軍人愛堅等械係之○高麗馬軍將軍桓宣吉叛伏誅初宣吉其弟香寔翊戴有功王委以腹心常令宿衛宣吉聽其妻語陰結兵士一日王坐殿上與學士議國政宣吉其其黨五十餘人突入內庭直欲犯之麗王策杖而立厲拜叱之宣吉見王辭色自若疑有伏甲走出衛士追殺之○高麗誅蘓判宗品將軍狄鉄二人俱以姦佞得幸弓裔諧害良善王卽位首誅之○隱士朴儒見高麗王王曰今卿之來如得傳巖滑瀨之士賜冠帶令管機要賜姓王儒初仕弓裔見政亂隱於山谷○高麗下詔定租稅征賦用天下通法弓裔從欲橫斂一項田租稅六碩驛戶賦係三束百姓悉苦流亡王詔改能植願兵鎮撫青州初王以青州多變詔遣將軍○高麗遣馬軍將軍洪儒庚黔弼以兵千五百鎮鎮州備之後聞青州密其百濟通好將叛王遣能植將兵鎮撫不克叛○尚冊帥阿字盖附高麗王命備儀迎之習儀於毬場文武就班廣評即中柳同律與直省官朱瑄劫爭列王聞之曰讓為禮宗敬乃德本今接賓以禮將規履成而同律瑄劫爭列豈敬慎者乎宜並徙邊以彰其罪○高麗設八閩會每歲仲冬於闕庭置輪燈一坐

列香燈四傍又結兩綵棚呈百戲歌舞於前皆新羅故事八國之戒曰不殺生者
偷盜曰不淫洗日不妄語日不飲酒日不坐高大床日不看香華
日不自樂視聽困者閉也謂禁閉八罪不犯也
○三年高麗移都

秘岳改鐵園為東卅置三省六尚書官九寺立市廛辨坊里分五部置

六衛○高麗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兩京塔廟肖像之廢裁者並

令修葺○高麗王追王三代曾祖考元德大王廟號曰祖妣貞和王后祖考

景康大王廟號懿祖妣元昌王后考威武大王
廟號世祖妣威肅王后○高麗城平壤置西京官僚○四年甄萱攻陷大良仇史

二城王求援於高麗麗王遣兵救之萱引退始其麗有隙○五年高

麗王母子武為正胤武母吳氏側微王恐不得立以荀威柘黃袍賜吳

示朴述熙述熙知其意請立為正胤○八年後唐同光二年甲申王薨母弟魏

魯立

(景哀王)諱魏二年後唐同光三年乙酉甄萱取居昌等二十餘城遣使後唐

稱藩唐策萱百洛王○三年契丹連年侵渤海進攻扶餘城渤海

王大誣譟戰敗乞降置之臨潢之西渤海王世子大光顯將軍申

德等率其餘眾奔高麗者數萬戶麗王待之甚厚賜光顯

姓名王德附之宗籍使奉其祀僚佐皆賜爵○甄萱貢子真虎

病死於高麗麗王遣使送其喪萱謂高麗殺之殺王信麗王

景哀王

卷三

十六

曾交貢進軍熊津王命諸城堅壁不出先是萱獻絕影良駒馬

於萱者一匹後聞讖云絕影名馬至百濟亡乃悔之使人請還其馬王笑而

許之時甄萱違盟屢欲並吞之麗王親率兵伐之羅王出兵助

之○四年後唐天祚二年丁亥甄萱入寇陷王都弒王立金傅先是萱攻高麗

近品城今山陽縣燒之進襲高麗府今永川郡羅王告急於麗麗王遣救

兵一萬未至萱倖入都城時王其妃嬪宗戚出遊鮑石亭忽聞

兵至其夫人走匿城南雅宮從宦宮女皆被陷沒萱縱兵大掠逼

王自盡強奪王妃從其下亂其嬪妾立王表弟金傅為王盡取

子女百工兵仗珍寶以故麗王聞之大怒親率精騎五千邀萱於

公山桐敷大戰不利大將申崇譴金樂力戰死之王僅以身免○

甄萱寄書高麗曰昨者新羅國相金雄蘆等將呂足下入京

有同鬻應龜拜是欲鷄披準翼必使生灵塗炭杜櫻丘墟

是用先看祖鞭獨揮韓鉞誓百僚如暎日諭六部以義風不

意奸臣遁逃邦君冕變遂奉景明王之表弟憲康之外孫王効

即尊位再造危邦喪君有君於是平扶足下不詳忠告徒聽流

言百計窺覷多方侵擾尚不能見僕馬首拔僕牛毛各初都

頭索相束手於星陣下月內左相金樂曝骸於美利寺前殺獲后
多追擒不火強羸若以勝負可知而烟者掛弓於平壤之梯飲
馬浪江之水然以前月七日吳越國使班尚書至傳王詔旨知卿其
高麗久通歡好共契隣盟此因實子之兩亡遂失和親之旧好互侵
疆境不戢干戈今專發使臣赴卿本道又移文高麗宜相親比
永孚于休僕義篤尊王情淡事大及聞詔諭即款祇承但
慮足下欲罷不能困而猶圖今錄詔書寄呈請留心詳悉且
銳疆迭億終必貽譏蚌鷓相持亦為兩笑宜速復之為戒無
後悔之自貽焉王答書曰伏以率軺膚使爰致制書尺素好音
兼承教誨捧芝檢而雖增感激聞華牋而難遣慙疑今托回
軒輒敷危社僕仰承天假俯迫人推過叨將帥之權獲赴徑倫
之會頃以三韓厄會九土凶荒黔黎多屬於黃巾田野無非於
赤土庶幾弭風塵之警有以救邦國之灾爰自善隣於焉結好
果見數千里農桑業七八年士卒困眠及至四年維時陽月忽
焉生事至於交兵足下輕敵而直前若螳螂之拒輒終知難
而勇退如蛟子之負山拱手陳辭指天作誓今日之後永世歡

景哀王

和苟或淪盟神其殛矣僕亦尚止干戈之武則不殺之仁遂解重圍
以休疲卒不辭貢子但欲安民此則我有大德於南人也豈謂敵與
未乾完威復作作蜂蠆之毒侵害於生灵虎狼之狂為梗於哉
甸金城窘迫黃屋震驚仗義尊周誰似桓文之伯乘間謀漢
惟首莽卓之女致使王之至尊枉福子於是下尊卑失序上下
同憂以謂非有元輔之忠徒豈得有安於社稷以僕心無區畧
志切尊王將援置於朝廷使扶危於邦國足下見毫厘之利
忘天地之厚恩斬戮君王焚燒宮闕趙蓋卿士虔劉士民姬姜
則取以同車珍寶則奪之相載元惡浮於禁紂不仁甚於鏡巢
僕怨極前天誠深卻日庶效鷹鷂之逐以申犬馬之勤有平
干戈兩更槐柳陸戰則雷馳電行水攻則沸搏龍騰動必成
功孔無虛斧逐尹邵於海岸積甲如山擒鄒祖於邊城伏屍
蔽野燕山郡畔斬舌燠於軍前馬利城邊戮隨吾於毒霧下
拔任存之日刑積等數百人捐軀破青卅之時直心等四五輩授
首相教望旗而潰散京山含璧而投降康卅則自南而東敗
羅府則自西而移屬侵攻若此收復寧遠必期泚水營中

雪張耳子般之恨烏江亭上成漢王一捷之切竟息風波永清
寰海天之取助命將仍故况承吳越王殿下德洽包荒仁漢字
小特出倫於丹禁論豈難於青丘既奉訓諫敢不尊奉若
足下抵承膚旨悉戴凶悻不惟戴上國之仁恩抑亦紹東海
之純緒若不過而能改其北悔不可追

(敬順王)

諱傳文聖
王之裔

二年玃甄萱平勁卒攻拔高麗烏於谷城

殺代卒一千將軍楊志明式等六人出降王命以六人妻子徇諸

軍乘市○四年麗王次古昌郡之瓶山其宣軍戰萱敗走獲

侍郎金溼死者八十餘人以古昌城主金宣平為大匡權幸

本姓
金賜

姓權張吉為大相陞郡為安東府時東方卅郡百十餘城皆降

高麗○高麗王幸西京創置學校以秀才廷黜留為書學

博士○五年王遣使高麗請相見麗王以五十騎往會遂宴臨海

殿酒酣王曰小國不天為甄萱椽表泣然泣下左右莫不嗚咽麗

王留數旬而還王送至穴城麗王初至都人士女私手相慶曰昔

甄氏之末也如逢豺虎今王公之至也如見父母○高麗王流大匡

庚黔弼于鵠島

敬順王

卷三

史氏曰中庸九徑尊賢居一而尊賢之事去誣為先漢光武時人
有上章告馮異權重者帝以章示異仍報曰將軍之於國家
義為君臣恩猶父子何憚何疑由是誣說不行奈何太祖巡
信誣人萋斐之說放逐勳賢竄之鮫鱷之鄉幾不得生乎
雖悔悟復何益哉

高麗西京民家雌鷄化為雄又大風屋瓦皆飛麗王曰昔有邪
臣潛畜異謀其家唯鷄化為雄不俊其惡卒致誅滅吳王劉
漚之時大風毀門拔木漚不知戒亦以覆亡宜各悛心毋及於禍
○七年後唐遣使冊高麗王始行唐行誦○八年高麗王卒于禮
山鎮下令曰予造此新邦勞役瘡痍之民豈予意哉但于戈
未定巡省卅鎮修完城柵男盡在戎婦猶在役不忍勞苦或
逃匿山林或辨詐官府權勢之家又從而陵暴予豈能家
至而日睹宜爾公卿將相諒予愛民之意民有論訴官吏掩
護者以聞○九年後唐清泰二年乙未甄萱子神劔與國相能奧謀幽其
父於金山寺殺其弟金剛自立萱有子十餘人炭第四子金剛欲傳
位凡神劔良劔龍劔能奧
劫神劔作亂逃萱於金山令壯士守之甄萱在金山三日飲醉守卒其季男能又及

嬖妾等奔羅州遣人請見於高麗王遣庚黔弼由海路迎之待以厚禮稱萱為尚父位百僚上○冬十月王以四方土地盡為他國弱勢孤乃其羣下謀降高麗羣議不一王子諫不聽使侍郎金封休賫書請降麗王受書遣使泄報十月王率百僚發王都士庶皆送之香車寶馬連頁三千餘里入開京麗王出郊迓勞館於柳花宮妻以長女樂浪公主王請以臣禮見十一月麗王會百僚曰朕與新羅歃血同盟庶幾兩國永好各保宗社今羅王固請稱臣卿等亦以為可朕心雖愧衆意難違乃受庭見之禮拜金傳為政丞封東浪王食邑八千庄位太子上歲洽祿一子名除國為慶州賜為食邑新羅亡

右新羅昭祖赫居世以漢宣帝五鳳元年甲子都辰韓國號徐伐羅朴昔金三姓相傳智證王矣未定國號新羅太宗王唐甲并百濟文武王戊辰並高句麗朴氏十王昔氏八王金氏三十七王合五十五王共九百九十二年

金富軾曰新羅朴氏昔氏皆自卯生金氏從天入金櫃而降或之乘金車此尤詭恠不可信但原厥初在古者其為已也儉只為人也寬其設官也畧其行事也間以至誠事中國梯航朝聘之使

敬順王

相續不絕常遣子弟造朝而宿衛入學而講習于以龍製聖賢之風
化革鴻荒之俗為禮義之邦又憑王師之威靈平百濟高句麗取其
地郡縣之可謂盛矣而奉浮屠之法不知其弊至使閭里比其塔廟
釋民逃於緇褐兵農浸少而國家日衰則幾何其不亂且亡哉於
是時也加之女據尊位恣行淫穢嬖幸用事羣盜並起及至景
哀荒淫無度共官人左右出遊鮑石亭置酒酣酌甄萱之共碎
至而不覺也共夫門外韓橋市楊頭雜麗華無以異夫若敬慎之
歸命太祖雖非獲已亦可嘉矣乃能封府庫籍郡縣以收之共者
功於朝廷有德於生民甚大昔錢氏以吳越入宋穩子瞻謂之忠
臣今新羅功德過於彼遠矣我太祖北顧衆多其子孫亦繁
衍而顯宗自新羅外孫即位以後繼統者皆共子孫豈非

陰德之報者歟

史氏曰金富賦金傅比之錢氏而謂功德遠過何有所見而然歟
吳越之於宋奉藩述職君臣之分定矣新羅之於高麗其此
不同蓋泰封者新羅之叛賊麗祖泰封之臣也雖泰封既斃死
麗運日昌然新羅之於高麗未嘗屈膝稱藩一朝棄宗社

獻土地北面而朝可乎錢氏則自鏗以黃巢之亂始拋吳越子孫相

承悉五季至宋太宗獻十三舟仍留宿衛以累代藩臣一朝效

慎納土非以諸侯屈已辱身之比也金傳惟賊豈而立衰微

求齊攻王母等同姓子不振新羅三姓相傳步一十年其深仁厚澤足以固結人心若臣

為質齊臣國佐曰不可一戰不勝請再戰

不勝請三戰不勝則况王子論天命人心反覆切諫奈何敬順拒孝子之諫乃以一子

齊國盡子之有也構年祖宗之重兜收千里之糧封稽顙拱手共之他人乎敬順之於

而三以此是公羊傳也穀果則曰一戰不

克法再一不克法三合餘燼背城借一死於社稷可也顧不省悟身為降虜北面

不克法四一不克法五不克法五而後稱臣匍匐進退於虜之闕庭其異於晉愍吳皓者幾希矣

後惟富貴薰炙外孫繁衍安能雪亡國失身之大恥乎如

敬順大節已亡餘不足取富軒比而等之錢氏復何所見而然

耶

史氏按始祖之生異於常人豈蓋天命非人為也當此時最爾三

韓各保一隅徒事干戈互相侵伐無君臣名位之分始祖年方

幼冲為國人推戴其寬厚足以有容其雄偉足以濟民建邦

見四傳三十
冊三十六

設都萊城郭營宮室勅督農桑不伐隣喪使民敘讓至於夜戶
不局倭人感德而不犯下韓舉國而東降葉浪服其有道法沮稱爲
聖人享國六十年之間家給人足民不見兵以基二十年之業其殆天授
乎南解遺命朴者二姓以年長而立新羅氏三姓相傳宗祀於此儒
理泯父亂命卒傳之昔以非貽謨燕翼之也道既解以南解之壻不
當立而立又感鷄林金櫃之說養閔智爲子使新羅重器卒故
於金氏惜也然其終也不傳於子而傳於儒理之子視後世貪天
之位欲傳其子而推刃同氣者何其賢也娑娑節儉愛民功
農桑問高年廉察卅郡屏黜尸素謹天灾恤民隱年穀屢登
可謂守成之良主也祇摩逸聖身而不失阿達羅粗保厥位及薨
無子國人又立昔比之後伐休能占天時又知人邪正奈解睦隣恤
民助直臨事明新沾解不能強國恟於海寇使大臣見殺辱國
甚矣味鄒金閔智之裔繼朴昔之後有得大宝新羅易姓今已
三矣其授受雖未盡得宜然王能留意刑政訪民疾苦務農
桑省徭費有人君之德金氏之興其兆於此乎儒禮基臨皆昔比
之後儒禮之委任重臣基臨之感信隣敵猶足可稱訖解忘

父之讐聽增島夷終受侵辱昔代之祀於斯絕矣索勿亦金氏也
能以武畧自守宗聖嘗負高句麗挾憾於前王欲殺只子而石
快於心其自及也宜矣訥祇夏立新羅以三牲相讓之風至是掃地
慈悲救患禦寇炤智謙恭自守然而晚年魚腹得免豫且之
禍幸矣智證銳意圖理定國號稱王洗累朝因循之陋頌喪
制禁殉葬有足多者法興始崇佛教信之既篤奉之愈謹唱
為齋戒之邪說聳聳斯民為新羅基禍之主又不知春秋大一
統之義僭年行號越禮犯分甚矣真興倣佛又世創興龍皇
龍二寺鑄成女六金身該民膏血且屈千乘之尊為桑門之
行方祀因頂以終其身遂使佛刹半於閭閻齊民盡為緇褐
流禍無窮真聖享年不永真平享國惟長而繼嗣不宣卒
以神光付之女兒之手善德真德皆以陰居尊批鷄司晨邦
家抗捏天厭移德太宗挺生以不世出之資奮大有為之志倚
任良佐言聽計從至誠事大衣冠文物並溢唐制崇獎節義
激勵將士仗天朝之威靈雪百濟世讐雄視高句麗北囊中
之物將取而有之享年不永切業不久惜哉文武以英明之資承

先人之烈請唐兵滅高麗始一韓克成前志何切烈之感也乃何灼
高麗叛眾挾百濟故地得罪於唐幾不自保予神文孝昭聖德僅
能守成孝聖感佛滋甚景聖納忠諫宣冊旆優於孝成惠恭荒
于葬色身且不保宣德躬行不道元聖與聞于故昭聖短祚
哀莊昏弱憲德篡弑禍亂相仍興德不惑左道遇災知惧
猶可稱者僖康得不以正竟為金明所害蓋自神文以降朴敬
淳湎亂賊接踵其禍蔓延至是極矣神武能知討賊復讐之
義義旗一揮而元惡授首撥亂反正人心痛悵羅之國勢幾危
而復振文聖憲安景文憲康之時中外寧謐民物阜成厥極
而衰理固然也定康昏闇後以大咒付之女弟其家法而由未
遠矣真聖淫恣浮於唐墨斷喪邦基新羅氏之亡於茲波
矣自是羣盜崛起乃商叛北原甄豈拋完山生民塗炭疆
宇日蹙孝恭昏弱特寄生之君身神德景明景哀又以朴氏
之遠裔當叔季之衰僅能相繼國事日非為之何哉况當景哀
之時甄豈拔扈侵逼郊畿猶且荒淫遊佚晏然自肆鮪石之樂
方酣而蒼兵奮至君臣被戮官圍見辱言之可謂於邑敬順示

以金氏之後為萱所立天命已去人心已難以區一冊之地生聚國祚
固亦難矣然不能歎死一朝甘為降虜宗社丘墟嗚呼惜哉

東夷真系卷之四

高麗紀

太祖神聖王

諱建字若天姓王氏母韓氏

○十九年丙申

後晉天福元年

王納正千金億廉之女

太祖即位距今九百九年

初金傳之降王待以厚禮使告曰今王以國共寡人為賜大笑願結昏好
傳曰我伯父億廉之女德容雙美可以備內政王納之生子郁是為顯

宗之考安宗○後百濟將軍朴英規請降英規甄萱女婿也密
語其妻曰大王勤勞罕餘年切業垂成一朝禍生蕭牆失地寄人舍

吾君從逆子將何顏見天下之義士乎况聞高麗王公仁厚得民昭
天授也蓋致書慰老君兼及王公以圖將來之福乎妻曰是吾意

也於是遣人致意王喜厚賜使者兼謝英規○甄萱請討賊子
神劔王共萱親率三軍直搗神劔而在虜將軍所康等士卒三千

二百人斬五千七百餘級神劔共二弟及文武官僚降而獲將士悉還
本土收能與因父立子之罪誅之以神劔為人督且啟命乞罪特原之

甄萱憂憊發疽死王入後百濟都城存問將士量才任用軍令

高麗太祖

嚴明秋毫不犯卅縣安堵流良鈞龍鈞尋殺之搜朴英規爵佐丞
金富軾曰新羅救窮羣盜猖起然其劇者乃裔甄萱二人而已乃
裔本新羅之酋而及以宗國為讐因夷滅之至斬先祖之畫像其為
不仁甚矣甄萱起自新羅之民食新羅之祿而包藏禍心幸國之
危侵軼都邑度劉君臣若禽備而草薶之宗天下之元惡大憝
故乃裔見棄於其臣甄萱受禍於其子皆自取之也又誰咎也

王既立三韓欲勵臣子以節義遂自製政誠一卷誡百僚書八篇
頒中外○二十二年西天竺僧素王備威儀法駕迎之○昭行後晉年
號○耽羅國太子末耒朝賜星王王子爵○二十二年佐丞龍吉直
卒直燕山昧谷人有勇畧羅末為本邑將軍見時方亂遂投甄萱
以二子直達金舒及一女為質直知萱無道必亡諭直達以悌附
高麗之意遂共其子英歸耒朝王喜拜大相又以貴戚也妻英舒
萱怒收直達及弟妹烙折股筋○二十三年初定役分田自朝臣至軍士勿論官階
視人性行善惡切勞大小給之有差○改諸卅郡號○二十五年契丹遣使耒遺索駝五十
匹王以契丹常與渤海連和一朝於滅此為無道三國不足遠結為
隣流其使三十人于海島繫索駝萬夫橋下皆餓死

史氏曰交隣國系遠人固封疆謹使命者萬世保國之長策也契丹之失信於渤海何其於我而為渤海報復拒其未使其甚矣而流之海島却其橐駝其天而流之海島致令餓死絕之北仇讐言彼之報我以仇讐無足怪也自是遵響日蹙至成宗其禍燎原迨顯宗乘輿南遷國之不亡如綫其禍已滔天矣下逮高宗其遺種為患孔棘究厥所由皆麗祖待強寇失其道之致然也可勝歎哉

二十六年

後唐天福八年

王呂匡大匡朴述熙親授訓要十條以訓後嗣

其一升國家大業必資諸佛故廟

立寺院後世禁相換棄其二諸寺院道誥占定外禁增創造其三元子不肖者其其次子不肖者與其兄弟中羣下推戴者其四契丹禽獸之國衣冠制度慎勿效其五西京水德調順地脈根本四仲巡駐其六燃燈事佛八閔事天禁後世女臣建自加潤其七從諫遠謫其八車謁以南公卅江外形勢背逆人心亦然彼下卅郎人不宜使在任用事禁因威昏咽其九定制標恤兵卒其十敬所無虞國揭無逸篇十訓之終皆結以中心藏之四字

史氏曰麗祖始三韓創業垂統宜往求古先哲王貽謨燕翼之道

垂憲萬世可也今作訓要其餘凡十而一則曰奉佛二則曰創寺丁寧

及覆于燃燈八閔山水地理之說從諫遠謫輕徭薄賦敬戒無虞

顧居其末欲以此訓後世子孫效尤以為家法惠定以後佛比之禍

日新月異駟致於妖僧遍照而王氏之祀遂絕惜哉

育王不豫疾大漸御神德殿命學士金岳草遺詔有頃而薨宰臣

太祖

王規出宣遺詔太子卽位喪葬園陵依漢魏二文故事悉從儉約遺命也葬頭陵

李齊賢曰太祖規模德量生於中國當不減宋太祖其好生惡殺而信賞必罰推誠功臣而不暇以權創業垂統固宜一揆也

史臣曰太祖御下以寬而賢智效力待人以誠而遠近響應好生之仁出於天性恤民之心存乎至情甄直父子相友則伐而取之全傳軍臣未附則禮以待之以契丹之強而侵滅其國則絕之以防海之弱而安地無梯則撫之屢幸西京以為根本之地也親巡北鄙以連犷悍之俗也草創更始雖未遑於禮樂而其規模遠畧深仁厚澤固已培養五百年之國脉矣

（惠宗義恭王）

諱武字承乾母吳氏

○元年甲辰

後晉出帝開運元年

○二年大臣王規謀立

廣州院君將弒王事覺而王之罪太祖納王規女生一子曰廣州院君規嘗誣王弟堯及昭有異圖王知其誣息遇愈為司天供奉崔知夢奏流星犯紫微國必有賊規一夜伺王睡遣其黨潛入卧內將弒之王覺之一拳卽斃令左右申出不復問一日王達豫崔知夢又奏將有變宜移御王潛徙重光殿規夜帶人穴壁而入寢已空王

知規而論而亦不罪之

史氏曰太祖能駕馭羣雄創大業也而不知規之非人使之居股肱之地付托孤之任惠宗罷德體守文也而知規逆謀拱手謹避高麗五百年君弱臣強之端已兆於此矣

王以長公主妻弟昭公主從母姓稱皇甫氏王聞知夢星變之奏意規謀害堯昭之應乃以長公主妻昭用強其勢

史氏曰取妻不取同性禮也雖百世昏姻不通况至親乎惠宗之以公主妻昭何也太祖不世出之主也有志化俗徇於習俗不能變自是厥後視為象法恬不為異言之醜也

秋九月王薨氣王度恢弘從征百濟有功自徑王規之變多所疑忌喜怒無常羣小並進內外嗟怨弟堯即位知規逆謀密共西京大匡式廉謀反規作將亂式廉引兵入衛寧規于甲申追斬之並誅其黨

史氏原

（定宗文明王）諱堯字義天太祖第二子母劉氏 ○元年丙午後晉開運三年王奉佛舍利步至開國

寺安焉又以穀七萬碩納諸寺院 ○置光軍司初崔光胤以宿貢入晉為契丹所虜以才見用知契丹將侵我為書以報於是選軍三

惠宗
定宗

卷四

二

十萬號光軍光胤彥攝子也○三年後漢乾祐元年始行後漢年號○大臣王式

廉卒式廉太祖從弟也謚威靜○四年王莖死母弟昭受內禪立王信圖讖將移都西京

發丁夫營宮闕抽用京民戶宗之怨讒昏興及莖得夫喜耀

光宗大成王諱昭字日華○元年庚戌後沃乾祐三年春正月大風拔木王問禳災之術

二年司天奏曰莫如修德自是常讀貞觀政要○後周太祖廣順元年始行後周年

號○九年命翰林學士雙北異知貢舉試以詩賦頌及時務策取進

士及第自此又風片興冀周人從冊命使辭又遇而未病留王愛其

才表請為僚屬遂擢用授以文柄倡以浮華之又時詔不愜○命有

司按檢收婢推辨是非收多背其凌上之風大行○十年宋太祖建隆元年庚申定

百官之服○評農書史權信諧大相後弘佐丞王同等謀逆貶之

自是講佞得志收訴其主不說父母固常溢別置假獄無罪被

戮者相繼王猜忌日甚一子由亦自疑阻人畏懼莫敢偶語○十三年

遣使朝宋翌年冬始行宋年號宋冊命使時贊未未贊等在海

者九千人贊禘免○十五年甲司徒朴守卿卒守卿性勇烈多權智事太祖從

征四方功最多為元甫及定宗初削平內難至是三子被謫下獄憂

患而卒○十九年創弘化遊巖三婦寺以僧惠居為國師坦又為

光宗
景宗
成宗

王師王信說多殺內懷疑懼欲消罪惡廣設齋會無賴之家詐為出家以求飽飲列置放生兩禁斬屠殺○二十六年王薨王禮待臣下明於聽斷恤貧弱重儒雅中歲以後信謬多殺好佛奢侈太子即位大赦還流竄效囚係拔淹滯蠲免債減租調毀假獄焚謬書中外大悅

景宗敵和王

諱仲字長民

○元年丙子

宋太宗太平興國元年

宋遣使冊王○遣使如宋賀

即位○放執政王說于外禁擅殺復讐初許先朝被謬人子孫復讐逆相擅殺說託以復讐矯殺太祖子天安府院君於是貶說○北定職散官各品田柴科○三年夏改丞金傳頌謚敬順○五年以崔知夢

為大匡內議令東萊局候食邑一千戶一日知夢奏客星犯帝座願王申戒宿衛未幾王承等謀逆伏誅○六年秋王疾猶留遺詔內禪于堂弟同安君治薨王溫良仁厚不好嬉遊遠厭萬幾沉溺群昵昵

近小人踈遠君子政教衰替○王即位追尊先考廟號戴宗諱地

成宗又懿王

諱治字溫古太祖孫母柳氏

○元年壬午

宋太平興國七年

王以八閔會雜技不徑悉罷

之○改百官號以內設者為史門下廣平省為御史都省○令京官五品以上各上封事論時政得失

上柱國崔承老上書活任承老傳○遣使北宋告嗣位○二年春正月王析穀于園立配以太祖躬耕籍田祀神農配以后稷○始置士牧昭定三

省六曹七等○宋遣使冊王○命取進士臨軒覆試賜姜殷川等及第

殷川即耶贊也

○三年夏命刑官御史李謙宜城鴨綠江岸以為闕城女真以

兵過之虜譙宜而去軍潰不克城還者三之一○四年宋雍熙二年宋將伐契

丹收復燕薊以我共契丹接壤遣使資詔諭以同力盪平之意王始

遲難久乃許齊兵○新定衣服給暇式

斬哀有哀三年給百日期年三十日大功二十日小功十五日德麻七日

○五年下教黑倉賑貸而儲未廣其益米一萬石改名義倉又於諸州

府各置義倉○教曰寡人素慙薄德尚切崇儒今諸州而上學生慮

有思鄉之人皆令從便去留其歸家學生二百七人可賜布二千四百匹

留京學生五十三人亦賜幘頭一百六枚米二百六十五石○昭令十二牧

挈妻子赴任教曰上帝不言列星辰而昭下大君施化藉賢彥以

分方咨爾牧民之官無滯獄訟懋深倉廩賑恤窮民勸課農

桑輕徭薄賦處事公平○遣崔暉王琳如宋入學

後登宣直科受秘書郎還

○六

年內史令崔知夢年幼名聰進性清儉慈和聰敏嗜學博涉徑史

尤精於天文下筮年十八太祖聞其名召使占夢得吉兆曰必將統御三

韓太祖喜改名知夢授供奉常誕征伐及即位入侍禁中以侍顧

問嘗從光宗幸寺被酒失禮貶限傑縣凡十年景宗朝以還授

內議令及王即位加左執事守內史令上表乞骸年八十二謚敏休配享

景宗廟庭○置士牧徑學醫學博士須教曉諭畧曰自昔御極之君經邦之主莫不

習五常而設教資六籍以取規故乃有虞用上下之庠夏后置東西之序殷修兩學周立二膠擇先生而討論命國子以隸習况復保生之理療病為先故乃農神御宇備嘗葉草秦帝焚書不滅醫徑將除百姓之難危要廣十全之方術終日若有螢窓勵志鱣肆明經孝悌有聞醫方足用其州牧縣官具錄薦首

○左補闕李陽上封事其按月令立春前出土牛以示農事之早晚請私故事其儀牲無用牝禁止伐木無鷹舞無卯無聚大衆掩骼埋胔願遍布行春之令教曰李陽而論皆拠典徑宜頒兩京百司

及士牧知州縣○八年春教曰聞朝野士庶之病者未見醫亦無藥物不得瘳者多自今內外文官五品武官四品以上疾病並遣醫賫藥注

治之羣臣上表謝○始置東西北面兵馬使以門下侍中中書令尚書令為判事判事留京兵馬使赴鎮○太學助教宋承演起九等授國子

博士羅卅牧徑學博士全輔仁賜公服一襲米五石教曰二人誘以罷諄合宣文博文之意誨而不倦副寡人勸學之心宜加獎擢用示殊寵○始

營太廟王躬率百官輸材○九年遣使六道訪求孝子順孫義夫節婦有孫順興等十人並令旌表門閭差遣金審言等往賜穀人百碩銀

盃三事彩帛布六十八匹別將趙英起授銀青光祿大夫賜公服一襲銀

三十兩綵二千匹○冬幸西都巡視因河表險急知蔡庶安危儀仗從官

成宗

御膳菓酒皆令減損可過卅郡及驛賜米有差高年及篤疾者並賜布
米○冊姓誦為開寧君○置修書院於西京令諸生抄書史籍而臧之
熙差院官○十年始立社稷○逐鴨綠江外女真於白頭山外居之○十一
年春教曰殷宗徵用胥靡周王登庸魚師故能匡扶社稷經濟邦
家朕內開庠序外置學校猶未致懷寶出衆之士各知無蔽賢防能
之人凡有文才武畧者聽詣闕自舉又教京官五品以上各刊及其德行才
能具疏名下○流郁于泗水縣郁太祖弟八子也僖景宗祀皇甫氏有娠
一日祀宿郁第王知之乃流郁祀還其第德及門胎動攀門前柳免
身而卒祀戴宗女也嘗夢登鵠嶺旋流溢國中盡成銀海卜之曰
生子則王有一國王擇傳烟養其兒乃送于郁兒即詢也○立國子監
給田庄○十二年置常平倉于兩京立牧○立五廟兄弟一行以惠定光
景四王通為一廟附大廟○契丹蕭遜寧侵西鄙詔在徐熙傳○
三年宋淳化二年契丹
聖宗統和三年始行契丹年號遣使奉表如契丹乞還俘口○王親
禱于太廟躋戴宗于五室大赦大酺三日○遣使如宋乞師以報契丹
宋以此鄙甫寧不宜輕動但優禮遣還自是共采絕○十四年改定
官制又定十道曰關內道中京道河南道江南道嶺南道
嶺東道山南道海陽道朔方道滇西道○十五年契丹遣

使冊王○十六年秋王幸東京宴羣臣奇材能異隱滯丘園者令搜訪以聞義夫節婦孝子順孫旌門賜物可過卅縣減今年田租之半遂幸興禮府御大和栳宴羣臣捕大魚於海中王不豫還京都冬十月王疾大漸召姪開寧君誦傳位移御天王寺平章事王融請頒赦王曰死生在天何至釋有罪枉求延命乎遂薨王天資嚴正器宇寬弘立宗社崇節義求賢卹民以移風易俗為務然以光宗之女弘德院君之妻為妃其失大矣

史氏曰配匹之際生民之始萬福之原成宗守文之主至於納妃頗有慙德蓋所謂劉后者於已為堂婦妹諱稱外姓其失也嘗適宗室弘德院君今細為妃其失也尊崇失身者為宗廟主其失三也一舉而三失焉古之明君莫不刑于寡妻以御于家邦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無之成宗雖致少康而後嗣道絕良有以也

惜哉

（穆宗宣讓王）

諱誦字孝仲景宗長子母皇甫氏

○元年戊戌

宋真宗咸平元年契丹復和十六年

大保內史

令徐熙卒○契丹遣使冊王○遣侍郎朱仁紹如宋○四年王欲巡省風俗幸中原府宴羣臣○六年千秋太后皇甫氏其外族金致陽通

穆宗

生子謀為王忌大良君詢逼令為僧出居三角山神穴寺○九年震天

成殿鳴吻○有山湧于耽羅海中山之始出也雲霧晦冥地動如雷七晝夜始開睿山高百餘丈周圍可四十餘里無草木烟氣羃其上

○彗星見○十二年春王不豫召大良院君詢于神穴寺仍徵

西北面巡檢使康北入衛語在崔沆傳○二月己丑大良院君詢即位宋

史記魏從
改正

中祥符二年康北聞徵命行至洞州細人魏從等告曰太后共致陽謀矯命

徵之北惧便還營其李鉉雲等願兵未謀廢立聞己召大良君亦遣

人迎之直入城逼王出寺俄而大良君至即位北遂廢前王誅致陽父子

○康北弑前王于棧城太后遜于黃州臣民莫不痛憤而新王未之

知也

李齊賢曰慶父化禮於魯不韋嫁禍於秦齊桓尸姜怡皇

輟毒何救萬世之恥卦禮宗不戒覆車之轍行閑於初子母俱

罹其殃社稷幾亡惜哉

羅銀臺中樞南院置中臺省以三官機務悉歸之以康北為

中臺使俄為吏部尚書參知政事李鉉雲為中臺副使蔡忠

順為直中臺○罷教坊宮女百人毀園苑亭珍禽奇獸龜魚

之類放之山澤○追王皇考郁廟號安宗○納成宗女為妃○以翰

林學士崔沆為師傅

顯宗元文王諱詢字安世 母皇甫氏

○元年庚戌宋大中神符三年契丹統和二十八年

春二月復燃燈會國俗正月 聖燃燈

二夜成 宗府之○流尚書郎中河拱辰和丹防禦郎中柳宗于遠曼拱辰當滋事

兩界擅行兵俘東女真見敗柳宗擅弄朝女真九十五人於和丹館○秋契

丹遣給事中梁炳大將軍耶律允未問前王之故○以康兆為行營都統

使李鉉雲副之領兵三十萬軍于通丹以備契丹○冬契丹遣使未告

興師參知政事李禮均右僕射王同穎北契丹請和契丹又遣將軍蕭

凝系告親征○復八閩會成宗羅之幾三十年崔沆請濬之○十月契

丹王自將步騎四十萬渡鴨綠江至通州執康兆誅之先是出北通丹

分軍為三階水而陣以鈞車排陣丹兵至合攻之無不摧靡兆逆有輕

敵之心其人殫棊丹兵先鋒俘破三水砦兆聞報不信再告急兆驚起

恍惚若見穆宗立于後叱之曰汝收天伐誰可逃耶兆即脫齋長跪曰

死罪死罪言未訖丹兵已縛兆去諸將佐皆被執乘勝追奔斬首

三萬餘級丹王尚兆不屈問鉉雲對曰兩眼已瞻新日月一心何憶四山川

遂斬兆長驅攻破西京十月辛未王南幸詔在智菴又揚規等傳

○二年春正月乙亥契丹陷京城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丁丑河拱

顯宗

辰高英起至丹營乞班師丹主許之遂留拱辰乙酉丹兵退○丁亥入

羅州乙未回駕二月丁巳次清州○監察御史安鴻漸上言丹兵至長滿

風雷暴作甘岳神祠若有旌旗士馬丹兵惧不敢前昔符晉代表示

聖見八公山草木變為晉兵畏而退去神明所贊古今何殊請令四司

修報祀送之○設燃燈會于行宮是後例以三月望行之○丁卯還京師○王教諸宰

曰諾云危而不持顛而不扶將焉用彼相書曰惟木從繩則正右漢諫

則聖朕自叩鑽服備歷艱危夙夜兢愧思免厥愆懋歸等勉輔不逮

且無面從○遣使契丹謝班師是後使价不絕○三年以崔士威為內

史侍郎平章事崔沆吏部尚書參知政事蔡忠順禮部尚書○禮

官請令中外賀生辰王教曰寡人罕值凶閔永遠供奉每及劬勞之日

益切追感之心忍以悲懷而為慶會兩京諸道進賀一切禁止只置

祝壽道場○契丹詔王親朝遣侍郎田拱之北契丹告王病不能親朝

丹主怒詔取興化通州龍州鐵州郭州龜州等六州○納敬章太子女

為妃敬章戴宗○五年宋大中祥符七年契丹同泰三年夏冒王親禱于齋坊時太廟

未成每值時祭各於本陵遣官行事王曰昔在晉朝大室燒毀杜預

謝熙等奏修嘉德門權安神主以行祭禮今予不德致令清廟挺

災惻愴維溪興營未暇乃款先造木主置于齋坊於是禮官設修齋
坊權安神主始以穆宗祔○中樞使姜師賢請修社稷壇令禮司
議是儀注○遣內史舍人戶徵古如宋獻良馬二十匹仍請改附北曰
帝詔登卅置館待之○冬十月契丹兵大敗而還契丹連歲遣使責
取六城不從至是遣蒲敵烈未侵通卅興化鎮將軍鄭神勇別
將周漢設奇擊俘斬七百餘級溺江死者甚衆○上將軍全訓崔
貞等率諸衛作亂流中樞使張延祐日直皇甫愈義庚戌用兵以
未增置軍額由是百官祿俸不足俞義等建議棄京軍承業田
以充祿俸百官頗不平質又以不得文官常快快至是訓質朴成等十
餘人以奪田激衆怒論諸衛軍士鼓譟闖入禁中傳延祐俞義捶
撻垂死詣闕面訴請除國蠹用快羣情王遂流延祐等罷御史
臺置金吾臺四社三司置都正署令百官常卷以上皆惠文官從
訓等請也

史氏曰顯宗德康北迎王之謀不加殺遂之罪卒以強寇乘輿播遷
亦可自省矣及北南巡羣不逞之徒屢犯行宮皆置而不問為惡者
伍而懲女子全訓崔貞等皆起行伍濫廁諸將以不得文官深

顯宗

快快鬱痛兵向闕鞭撻簪紳陰究既極亂遂已著王宜顯戮以謝
一國可也顧乃脅於虐誅舍默拱手罷御史丘金吾罷三司置都正老
兵廢卒皆兼文職癰疽已^結於心腹幾不可救葉夫嗚乎徒知武夫之
勦殺之臣自顧其職在於殺宗之朝而不知已基禍於今日寧不為顯
宗惜也

六年王倫遊西京誅金訓崖負及其黨十九人語在王可道傳○契丹
遣使又索六城拘留不遣秋再使^遣侵索○契丹未以通州大將軍鄭

神勇等俘殺七百餘級神勇等六人死之自是結契丹兵連禍結○

七年奉太祖梓宮復葬頭陵庚戌之亂移安于真兒山香林寺至是還葬是後戊午丹兵之至又移香林寺十年復葬矣

○遣郭元如宋告契丹連侵^帝以契丹既受盟難於答辭學士錢惟演

草詔畧曰念卿本道固濶軫於懷思曠乃隣封亦久滋於患好而

期輯睦用恭恭蒸帝覽之喜曰雖契丹見之無妨密令館伴張

師德開諭元曰天子一統寰海猶且養卒習戰以滿此方况貴國共

之連境結好息民是遠圖也○以異膺甫徐訥等十二人並為自憲

營官自憲堂柏樹枯死有年復生○復行宋年號○九年^{宋天禧二}

^{開泰}七年西女真木不闌等二百餘戶未投○十年姜邯贊姜民瞻等俘

顯宗

丹兵於龜州大敗之語在師贊傳○鐵利國酋耶沙遣使來獻馬後又請

歸附○宋泉州陳文軌等福州虞璠等二百餘人來獻土物○十一年遣李

作仁奉表以契丹請稱藩初負此故是後遣使不絕○以安西道屯田一

千二百四十結施納玄化寺兩首論之不送○贈崔致遠內史令從祀先

聖廟庭太祖在潛邸遠致貼書有雞林黃葉鵝嶺者松之白謂

密贊祖業功不可忘有是命○十一年中樞使尹徵古卒徵古樹丹守

安縣人性沉重嚴毅美風儀善楷書累為臺省裁浚平允口不

言人短而人畏愛之訃聞者世豈復有斯人嘆惜再三謚莊景○知中

樞使姜民瞻卒文宗初以民瞻任破丹兵俘斬萬級追念其功圖形

閣上○十三年契丹遣使丹王仍賜車服儀物自是復行契丹年號○

十五年押自春旱世王輟膳齋沐立殿庭仰天祝曰寡人有過請即

降罰萬民有過寡人亦當乞垂膏澤以救元三歲大雨○禮部尚

書周衍卒衍宋溫州人穆宗朝隨商舶來蔡忠順知其才奏留之

遂掌制誥王南幸扈從有功性謙恭工文翰文聘辭命多出其手恩

遇無比○西域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獻土物○二十年

已巳宋天聖七年契丹太

年平九春正月子秋太后平葬幽陵

史曰詩曰亂匪降自天生自婦人致陽之構亂康兆之叛逆穆宗之遇害
乘輿之播遷契丹之侵軼皆千秋淫穢不禮之而佛也昔又姜與齊襄
共聞乎故其心齊去其姓氏以誣書之以示貶絕今千秋之誣于黃州
此云姜同去姓氏妄薨書卒者深著大惡不道之罪法春秋王法
之大義也

梁開京羅城姜耶贊請築之。周三百六十步。高二十七尺。廊屋四十九百一十間。○王謂宰相曰女真屢犯邊陲

宜招諭渠帥厚加賞賜此可謂以德懷人也參知政事郭元曰女真人面

獸心其懷之以惠易若震之以威王然之○契丹東京將軍大延琳渤海

太祖榮七代孫叛契丹國號興遼遣使告建國為救援而已引東女真攻契丹

自此路標契丹不通未久興遼亡○二十二年夏四月王薨王性聰悟仁

惠敏於學工詞翰太子欽即位

史臣崔冲曰傳稱天將興之誰能廢之顯宗以懷母貽孽戎臣楷逆

強隣伺釁京闕俱燼乘輿播遷艱否極矣及正之後和珩結好

偃武修文薄賦輕徭登崇俊良修政公平內外底寧由農桑屢

稔可謂中興之主矣

李齊賢曰崔冲之言世所謂命也句踐嘗膽雪耻會稽小白忘莖

遺患於有人君恃有天命縱欲敗度難得必失之故是君子理思亂安思危慎終如始以對天休如顯宗所謂吾無間然者乎

甲戌王薨王平羣臣成服百姓乞冠素服葬後羣臣公除服王釋服○

檢教太師以下侍中天水郡開國侯姜邯贊卒○設國子監試取鄭功志等六人試以賦及六韻十韻詩監試始此○命侍中致仕崔士威首朝

德宗敬康王諱欽字元良母元聖后金氏○元年壬申宋明道元年契丹重熙元年以王可道監修國史李

端平章事皇甫俞義吏部尚書曰制宣麻於家至是集百官宣於

乾德殿○二年命平章事柳詵創置北境關防起自西海濱古國內城

界鴨綠江入海處東跨威遠朔州等十四城抵和丹等三城東傳于海

迤袤千餘里以名為城高厚各三十五尺○三年納顯宗女為妃○宴羣臣於文

德殿勞柳詵等開拓關城之功○秋王寢疾傳位于弟平壤君亨苑王

性剛斷有執居喪盡孝任用旧臣徐訥崔冲王可道黃周亮之儔朝無

欺蔽民安其生

靖宗容惠王諱亨字申始德宗母弟○元年乙亥宋景祐三年契丹重熙四年以崔冲為中樞僕刑部

尚書○契丹素遠城牒興他鎮責其阻絕通好築城堅寨繼乃恐劫

寧德鎮回牒過辭備陳畧曰義安設險有土常規魯國府閔通人漢誠於我無辜有何憑怒細詳未諷似漫戲言○築長

德宗 靖宗

城於西並路松嶺迤東以扼邊寇之衝又城梓田徙民棠之號昌升○二年制以
立夏節進冰初至制今年不早熟其待九月進冰有司奏曰日在並陸而藏
冰西陸而此之歛蒸而啓之藏之也周用之也徧則無愆伏凄苦之灾若於五

日進冰則有乖古法非所以調陰陽也請以立夏進之從之○榑德宗於太

廟

初王問昭穆之制於徐訥黃周亮黃周亮等言顯宗之榑廟也以其弟同昭穆之文
惠定光戴同班為昭景成為穆穆宗為昭而顯宗附於穆廟則二昭二穆皆太祖

之廟而五今榑德宗教過五禩請遷惠定光三宗藏于太祖廟西舜戴進王之王遷祭於
其陵可也劉徵弼言太祖在曾祖行親未盡故惠定光三宗不必遷惟遷戴宗於陵而
榑德宗於次室可矣周亮等言徵弼論親未盡之義亦以一時四禩難於遷毀其言如是
臣聞前典云親過高祖則毀其廟自禰祖曾高以上論親盡未盡非以俯親也惠定光
在從祖行不可比於親祖昔晉鍾雅奏言景皇帝不以伯祖而祭於禩宜除伯祖之文
朝廷從之則從祖不入於廟明矣惠定光戴俱宜遷毀王謂一時而遷四神主意所未安
欲從徵弼議周亮復執前議徵弼惟論四禩遷毀之難不論昭穆之教宗廟之禮因之
大事胡可臆斷若以穆宗為昭則三昭二穆其太祖為六禩非古制也若論派系次第
以顯宗為第一穆次于景成位而降穆宗於其下則公羊所謂罔僖逆祀也徐訥周
亮之奏合於古制然魯國有請侯昭穆之外有文世室武世室惠定光三宗亦不可
遷毀王
從之○三年遣使契丹奏復朝聘從徐訥等議也○女真仇屯高力化二人

與其都領將軍開老爭財毆殺之下輔臣議

侍中徐訥等議曰女真雖是異
類既故化名載版籍今因爭財

毆殺其長罪不可原請論加法侍即黃周亮等議曰此輩雖故化而我藩籬然
人面獸心不懼風教不可加刑且律文云諸化外人同類自相犯者各依本俗法况其
隣里老長已依本俗法出犯人家財物輸開
老京以贖其罪何更論斷王從周亮等議

未相望○立賤者從母法○六年刑部尚書判御史臺事李周佐卒周佐

東京人立朝罕餘年倘儻瓌偉時稱得大臣體○七年兵部奏選軍

別監選取文武官七品以上員子弟除業文赴舉外並充軍伍此維安不忘危
之慮然皆累世勲臣子孫故祖宗以來不許干役況在甲子丙子年間已有禁
制請勿充隊伍從之○九年東女真將軍冬石老沙伊羅等率化外女真
八千人來朝奏云化外人安懷狼戾曾擾邊疆自今願為邊民每候隣寇
動靜以報王嘉之厚賜金帛○城寧朔樹德二鎮東女真將軍烏乙達
等一百四十人來獻馬奏曰我等在貴國之境每慮醜虜來侵今築三城以
防賊路故未謝○十二年王薨弟宗浪君徽受內禪即位王仁孝寬弘
英睿果斷復和契丹以保其國遺命山陵悉從儉約

文宗仁孝王

諱徽字燭出顯宗第三子母元惠太后金氏

○元年丁亥

宋慶曆七年契丹重熙十六年

以崔冲為門下侍中

金令器金元冲侍郎平章事李子洞吏部尚書參知政事○制曰法律明

則刑無枉濫不明罪失輕重今所律令行或多訛舛其令侍中崔冲集諸律

官重加詳校務從允當○契丹遣使冊王○二年設百座道場於會慶

殿旨飯僧一萬於毬庭二萬於外山各寺○契丹遣使賀生辰歲以為常

○三年饗八十上國老庶老男女及義婦節夫孝子慎孫鰥寡孤獨廢

疾于毬庭賜物有差○五年厚賞孝子釋珠釋珠早孤無托為僧刻

木為父母形朝暮定省奉養如平日王曰丁蘭之孝無以加焉命厚賞○

文宗

八年定田制

凡田品不易之地為上一易之地為中再易之地為下其不易山田一結準平田一結一易田准二結再易田准三結

○九年都兵馬

使奏契丹前太后皇帝詔賜鴨江以東為我國封境然或置城橋或置弓口
 欄于漸踰口限今又創立郵亭蚕食我疆曾史所謂無使滋蔓蔓難
 也於是致書東京留守陳其不可冀奏蘇聰悉令毀罷契丹未有允
 請漸加墾田屯富人物○門下侍中李于淵奏天地灾祥每共刑政得失
 相應不可不慎伏見吏部刑部務要辨理而日陵日替稽留未決者多乞
 令二部員僚精覈事理考其人吏勤怠而廢貶之則庶合聖上勤政恤
 刑之意天地休祥可致也○王下制曰德統以來德政不修灾變屢見庶
 憑法力福利邦家其令有司擇地創寺門下省奏自古聖帝明王無有
 創起寺塔以致太平惟崇重法門慎省政教不傷民力則自然宗社
 靈長不允識者曰唐史稱列刹盈衢無救危亡之禍緇衣滿路豈益
 勤王之師國家此舉豈非謬甚○十年創興王寺於德水縣移其縣於陽
 川知中樞崔惟善諫曰我太祖訓要曰國師道誥密山川順逆凡可以
 創造伽藍之地無不為後世嗣王貴戚臣僚無得爭修願字以虧
 地德今殿下承祖宗積累之基奈何罄民財竭民力以供不急之務耶
 王優詔答之○遣侍御史金旦往討東藩賊東藩屢侵邊境旦

文宗

承命往討普衆曰臨敵忘死以身殉國分也我生死在今日三軍感激奮
 勵勇氣自倍破其部落于餘所○王下制分遣使諸州牧郡縣按驗身令
 勤慢百姓苦樂而司以程驛民勇勞於迎送請停之王曰朕惟先代頻
 遣使臣採訪民瘼故宰民者悉務清廉以安民庶近見紀綱弛紊且
 無懲革不勤公事但謀私利里巷多屯索之收田原罕桑麻之勤或地有
 魚鹽梓漆或家有富產賞財皆被侵奪嚴加枷杖傷其性命悽
 寃抱痛無所告陳間有欲正之者又因貴要之囑卒莫敢行蠹民之
 害日益月滋官吏既已如此小民安得聊生朕晨夕孳孳釋其煩弊而
 當軸秉鈞者不以為可何哉今以侍御史李攸績金若珍崔尚安民甫
 閔昌壽為撫問使分遣三道無或阻滯○作長源亭於西江餅嶽
 南道說明堂記云西江邊有君子脚馬明堂之地自太祖復校
 一丙申岁至百二千年就此創構園業延長至是構亭○十年隕石于黃州
 拜如雷州上其石禮司奏曰昔宋有隕石秦有星墜晉唐以降比比有之
 不聞災祥遂還其石○以校勘慶昇相權知直翰林院中書省言昇
 相鐵匠之裔不宜清要職請削之王曰采葑采菲無以下體蓋貴其
 可用者身豈論世系○十一年內史舍人崔尚奏昨伴送丹使王宗巨阮
 夜至金郊驛宗亮見列炬曰郊餞被酒所以犯夜今覲貴朝禮樂

卷四

一似中舉然三詣王府宴必張燈我朝之法惟昏夕許用花燭人臣會客雖至侵
夜不得然燭之臣亦念王者向明而治宜於大昕接見賓客况燈燭亦民膏
血費用太多恐虧儉德昔陳敬仲飲桓公酒辭公大德之命曰臣卜其晝未
卜其夜乞自今宴好之禮只令卜晝辭之禮宜用會朝時從之○王欲於晚
羅及灵巖伐材造船將通於宋門下省言國家結好北朝邊無警急民集
其生若泄此事必生釁隙非永絕契母不宜通使宋朝從之○十三年秋宴八
十以上工部尚書洪楷上將軍何興休于闐門王親勸花酒歡宴盡日仍賜
衣服又賜脯庶老及篤疾男女孝悌義節一十二百八人于毡庭諸州
郡縣亦同日賜脯○制兩京南州郡一家有三子者許一不為僧○十五
年制曰刑政王化所先峻則民殘寬則民慢刑得其中陰陽而風雨慎法
失其宜怨氣積而災眚作虐民酷吏世常有之朕適追訓誥篤信典
刑刑部員吏精擇委任乃自今定制必備三員訊鞫囚徒○十六年圍子
司業杭黃之考試甚濫始行貢闈封緘之法從舍人鄭惟產請也○
以禮城江船一百七艘一年六運龍門倉米于麟龍鐵官郭等州及威遠
鎮以備軍糧○十九年王御文德殿覆試進士侍御史盧旦奏事忤旨
王怒使人曳出脫去公禰符得之平章事崔惟善前奏人臣有罪當付

憲司王怒稍霽然竟罷試貶員外郎○二十年丙午宋治平三年契丹改國號

曰大遼遣使賀○二十年春興王寺成凡二千八百間士年而功畢王欲設齋以

落之徧流全集特設燃燈大會五晝夜自闕庭至寺門徃徠徧連互相

屬輦路左右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觀

佛事之盛曠古未有又造金塔以銀四百二十七斤為裏以金一百四十四斤為表

○二十二年守太史中書令崔冲卒○創南京新宮○王出子照及竄為僧

史氏曰文宗稱稱賢主而溺於異教使照竄二子出家要福田利益其

源一闡子孫視為家法祝髮為僧者寔繁一時名門大族爭慕效之

立嫡立嗣顧為末事其禍皆又宗啓之也

二十五年宋熙寧四年遣侍郎金悌奉表如宋由登卅八貢初宋人黃慎來傳

帝意曰高麗古稱君子之國累世輸款暨後阻絕今聞其國主賢王

遣人來諭王悅喜待還之至是遣歸入貢○二十六年校尉巨身謀廢王立

王弟平壤公基事覺伏誅夷其族○二十七年東女真敗順州都領古

乃化等率眾內附又三火蘭支梯等村蕃長一千二百八十三戶來請附

籍西女真酋長漫豆佛等請依東蕃分置卅郡平虜鎮近境蕃首

等亦願附籍永為藩屏皆從之○遣使如宋謝恩獻方物○二十九年

文宗

卷四

遣使北遼賀天安節○命凡科舉或三四十年闕榜州縣人若登制表述明徑
科給甲七結或百年後登第者給田二十結收牌各一口○三十年創置安興
亭於湖州貞海縣以待宋使從太府少卿李唐鑑請也○三十二年宋元豐元年
遼太平四年
宋遣左諫議大夫安燾起居舍人陳陞贊詔未賜玉衣帶袂段樂器金銀
器王迎詔禮畢太子率羣臣陳賀東西二京東北兩界兵馬使八牧四郡護
皆表賀時其宋使久燾等初至舉國欣慶例贈衣帶鞍馬外亦贈金銀
寶貨米穀雜物無算將還舟不勝載請以所得物件買銀且日減供饌
折價買銀兩使貪嗇國人唾鄙是後兩國使行連歲注未○三十四年東
蕃作亂以中書侍郎文正同知中樞崔頤等將兵三萬出屯定州奮侍大破
之文正等凱還褒切陞職○知太史局事梁冠公奏曰臘日自己未以來
依大宋曆法用戊日按陰陽書云近大寒前後先得辰為臘我國用此久
矣況古史夏曰嘉平殷曰清祀周曰大蜡漢曰臘其稱各異皆以卒歲之
功因備取獸合聚萬物以報百神不宜擅變其法請委有司詳定施
行允之○洪原縣民掘地得黃金一百兩白銀一百兩以獻玉曰天賜也遂
還之○三十七年秋七月王疾篤傳位于太子勳冕玉性聰哲好學善射志
畧宏遠寬仁容衆上事遼宋下交隣國民賴以寧

李奔賢曰顯德靖文父作子述兄終弟及首尾幾八十年可謂盛矣而文
宗躬勤節儉進用賢才愛民恤刑崇學敬老名器不假於非人權威
不移於近昵雖戚里之親無功不賞左右之愛有罪必罰宦官給使不過
不過數十輩冗官省而事簡費用節而國富家給人足時稱太平宋
朝每錫褒賞之命逾比歲講慶壽之禮東倭獻琛北貊受屢故
林完為我朝賢聖之君也獨其從哉縣作僧字俊峻字於宮
闕侔崇壙於國都黃金為塔百物稱是殆將此擬蕭梁而不知
欲成全美者歎息於斯焉

王少有疾居廬哀毀疾益篤冬十月薨于喪次廟稱順宗弟國原
公運承遺命即位○遣侍御史李資仁北遼告喪帝勅不許入京館
詰問二君連逝必有他故資仁對辨均直帝引見慰諭

(宣宗思孝王)

諱連字德天
順宗母弟

○元年甲子

宋元豐七年
遼太康十年

遣遣使慰問祭文宗順

宗○宋遣使吊祭九月宴宋使○冬命以乾明庫平布一千餘匹製衣
袴分賜守邊士卒○二年王屢幸寺院○王欲詣兔堂行祭有司以
無哭位難之王曰禮當從宜減法從而生

史臣曰為臣之道當匡其惡而順其美王未終制其宋使宣臬有司

順宗
宣宗

不以為言至於冕堂乃朝夕臨有司獨以為難何哉

三年王妹積慶宮主適王弟扶餘侯遂先是王弟杰愔愉等諫不可娶
同姓不從

史氏曰聖人制禮不娶同姓所以厚其別也新羅之初習俗鄙野娶堂
涎之親恬不知耻事唐以後漸識禮義知娶同姓之非禮也則乃援吳孟
子之例變性易代敢行非禮甚矣夫高麗家法非特堂涎離婦妹亦
不避三綱不正有夷狄之風皆假外親為性以之而示羣下聞上國奉宗
廟社稷之祀當時羣臣莫之諫正幸而為等慨然論列王不採納
同流於禽獸而不辭也豈不深可惜哉

王弟釋煦還自宋初煦欲入宋求法文宗不許王反即位率門徒二人
潛隨宋高而去宋帝引見待以客禮煦請遊方至吳中諸寺王上表
乞令還國許東還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又奏購書於遼宋日本
至四十卷悉皆刊行○四年秋王幸西京江樓各寺遍歷遊賞○以崔
頤守太尉判吏部事金良鑑守太尉柳浩守司空○五年夏三月不
雨至秋風雨暴作海水漲溢綠江廬舍舟楫漂沒覆敗不可勝計
八月淫風傷禾○六年春發新興倉粟施諸佛寺設齋祈福又親

祀天地山川于毡庭以祈福○夏四月隕霜○置新鑄十三層黃金塔于會慶殿○七年春普濟寺水陸堂火先是嬖人崔士謙入宋求得水陸儀文請王作此堂功未畢而火

史臣曰天其或者警嬖倖帽君微寵于昔梁武帝營同泰寺浮屠甫畢而災天人感應古今也世之惑浮屠之說者可以鑑矣

三月大震電新興倉災困廩鉅萬燒盡瓦焰蔽空而民屋無損者御史臺詰日官曰何不言火災之兆太史丞吳相曰去年火星守天因具報本局知事崔士謙抑而不奏於是黜士謙又罷弘因因清兩寺之

綬○八年門下侍郎平章事柳洪卒洪武人精於春秋左氏傳及百家

秘諒每因家有虞疑寤寐精思引古波策多有中者又造兵車以備不虞○九年春王不祿移御文德殿命內醫進藥忽作詩末句曰葉效得否何敢慮浮生有始豈無終惟

應急切修諸善淨域起昇禮梵雄見者驚恠○參知政事崔思諒卒思諒儀表端雅沉静寡

言秉國鈞主文柄重名一時○十年五月王冕元子昱即位王聰慧恭儉博覽經史然遊幸無度多創寺塔天怒民怨災異屢興

獻宗恭瑒王諱昱母思甫太后李氏○元年乙亥宋紹聖二年春正月戊戌朔風從

乾未日有暈兩傍有慧太史奏元日風從乾未當有憂日有慧紅匡

獻宗

亂諸侯有及者王勿不知修省只引內臣三人討問方書或時習書
畫也○李資義謀叛伏誅初宣宗納思肅太后生王又納侍中李邕
之女元信官主生漢山侯昫資義官主兄也王幼弱不能聽決萬機謀
欲立昫至是聚兵禁中將舉事魏林以熙密知之諭印台輔使上將
軍王國髦率兵入衛令忙古高義和斬資義及其黨崔忠伯等十
七人流李于威等五十餘人于南裔○以印台輔權判吏部事王國髦
權判兵部事國髦病不視事而威振朝廷○冬十月王禪位于叔父魏
林以熙三讓乃即位○以印台輔守太尉門下侍中金上琦守司徒門
下侍郎柳奭守司空○加王子朝鮮以素以下食也其餘宰執驛等
遷官者數百人工商皂隸亦有超授顯職者

與王出家名法雲字法空今按國史及殊異傳分立二傳法古者法詳檢焉
古墳銘碑慨然不能自己是昔山人會食問其故即吾舍人沛日也亦可謂去滋久思滋甚矣按阿達碑法
寔曰蓮窟實為生寺碑又以逆馬凡毛族類克賤故二種銅錫至今執役予遊東都於金剛山欲見

古

951

8328 乙

v. 1

951

v. 1

高麗

東史纂要 二

十四

臣民

請求
番號
古951
6328c
v.2

登錄
番號
34360

著者名

書名

東史纂要

所屬	帶出者姓名	貸出日	返納 豫定日	返納日

請
番
號

登
番
號

著者

書名

國會圖書館

東史纂要卷之三

高麗紀

(肅宗明孝王)

諱顯字天常古諱熙宣宗母弟文宗後之常日後之復興王室者其在肅乎宣宗九年扈駕西京有紫氣騰幕上望氣者以

為王者之符

○元年丙子

宋紹聖三年 遼壽隆二年

春正月下詔御史臺禁奢侈○夏四月御殿

聽朝至日晨中書省奏時當長養時令并違水結為冰降霜殺物夜電暴

至京房易傳曰誅罰絕理厥灾隕霜又云上偏聽下情隔塞失在嚴急

其罰常寒又云興兵妄誅茲謂止法厥灾降霜夏殺五穀頃者幼君瘦

疾母后攝政致使凶人謀亂大行誅戮不遺黨類囚擊之中必有非罪

怨氣塞于天地和氣變為灾沴乞令疑獄未定者促令快正訴告非實

悉令反坐以答天戒王嘉納之○王浚舟東池召宰相侍臣宴飲賦詩

夜分雷雨乃罷○衛尉丞同正金謂碑上書請都南京

其書畧曰道說記云高麗地有

三京松嶽為中京木覓壤為南京平壤為西京十月至二月往中京三月至六月往南京七月至十月往西京則三十六國朝天又云開國後百六十餘年都

木覓壤臣謂今時正巡往新京之期今國家有中京西京而南京闕焉伏望於三角山南木覓北平建立都城以時巡往於是日者文義從南和之

○二年前王薨^{壽十}始設騎錢官使錢三年民貧不能與用命

州縣出米穀許民貿易使知錢利○三年遣使如宋告嗣位○遣使

如遼謝冊封是後兩朝往來使价相望○四年王與王妃元子幸

肅宗



三角山至揚州相宅都之地○五年聞宋帝崩遣使弔慰賀登極○遣郎中李載如遼謝詔諭初遼使王萼見與王寺小鍾歎美曰我朝所未有釋煦曰

吾聞皇帝崇信佛教請以此鍾獻萼曰可煦請鑄金鐘二箇獻于遼帝遂

屬載先奏其意遼以萼奉使安有求索加峻刑令勿獻○六年宋徽宗建中靖

國元年遼天祚帝乾統元年國子監奏文宣王殿左右廊新畫六十一子二十賢請從祀

于釋奠從之○始用銀瓶為貨其制以銀一乍為之像本國地形名關口○王殿吳延寵使宋

還帝賜太平御覽一千卷○崔思謙任懿尹瓘等相南京創地奏臣等

就盧原驛海村龍山等處審視山水不合建都唯三角山面嶽之南山形水

勢符合古文請於主幹中心大脉壬坐丙向隨形建都又中書門下奏新作

南京請據京緯令所說或依山取勢或納水表形先以內從山水形勢東至

大峯南至沙里西至岐峰北至面嶽為界從之○七年東女真酋長盈歌

遣使奉朝盃卽金之穆祖也○夏王率羣臣獻上帝於禁中配以太祖

以讓松虫又散卒五百捕松嶽松虫○宰相邵台輔等奏國學養士

糜費不貲實為民弊中朝之法難以行於我國請罷之不報

史臣曰庠序學校所以昭揭人倫而倍養國脉也故上古以來王室國

都至於閭巷莫不有學雖夷狄之陋未之或稽諸典籍未有以糜費

罷學者今台輔罷學之請雖窮巷庸夫所不敢出諸口者肅宗乃擢直
於論道經邦之位及其三表請老盛稱儒雅不允其請何也肅宗溺於
立已之私恩暗擇相之公義時稱肅宗好文其好之也豈亦玩心於章
句之末而共羣臣賦詩唱和而已耶

幸西京遍遊寺刹泛舟賞宴賦詩唱和與王后祀業興福寺落成○禮部

奏求箕子墳瑩立祠以祭○置京城左右酒務又於街衢兩傍勿論尊

卑各置店舖以興使踐之利○八年東女真太師盈歌遣使來朝有

本國醫者居完顏部善治疾時盈歌感厲有疾盈歌謂醫曰汝能治

此人病則吾當遣汝鄉國其人果愈盈歌如約送之境上醫者還言于

王曰女真居黑水者部族日強兵益精悍王乃通使往來不阻盈歌遣其

族弟料葛報聘王待之厚至十月盈歌又遣使獻土物○九年命門下侍

郎平章事林幹伐東女真于定州城外敗績從邊將李日肅等邀功

請討之議也以尹瓘為東北面行營兵馬都統伐女真○遣遣使冊王○

左僕射政堂文學柳伸卒伸狀貌不踰中人而有膽量少擢高第以清

謹名國家欲移都南京伸獨言其不可凡論國家事悉主忠義時論
多之○遣崔弘嗣鄭文如來弘嗣等泛海忽為颶風所飄舟人無不拊心

회서
장서
고서
민서
한서
대서

肅宗

泣弘嗣神色白若及至來觀者稱其儀度中規○秋七月幸南京○十年
門下侍郎崔思諷以老乞退魏絃廷曰崔公在官吾輩仰如山斗軍國
大事一從其言今若告老吾輩奈何後日曲宴王執其手曰卿若告
退誰與共政對曰致仕例也臣耄艾無能為願得閑以終餘齒許之
○秋八月幸西京王不豫九月還發疾大漸次金郊至長平門外薨于
輦中太子侯即位王幼而聰慧及長孝儉雄毅該覽經史然遊幸
頗數多致民弊

李齊賢曰以漢高知人之明屢欲易太子而不知代王之終為太平
天子封之邊郡唐太宗之賢而不克定嗣卒用昏童乃使凶札
啄其孫迨盡然兩漢四百年臨天下者皆孝文之裔也唐三百年
自中睿迄昭哀皆大帝之後也用此視之天也非人也我文考
十九子而以再興宗國期肅宗於髫鬢之年而由藩候紹大統
智以定亂仁以底平有子有孫繼之繩之以至于今四百餘年斯
豈非天乎

以魏繼廷為門下侍中崔弘嗣李顙並門下侍郎同平章事尹
瓘中書侍郎平章事○御史臺奏今囹圄空虛請書獄空

遜位于順宗退居旧宮永無失德以息甫配便制曰嫡廢之分不可不別更詳禮典諫官復奏曰春秋之義國君即位未逾年者不合列序

昭穆况后妃乎請以思甫配從之○王幸西京御威鳳樓遣尹瓘吳

廷寵伐文直等九城語在瓘傳○三年納給事中李資謙女為妃

○王幸南京還次峰城縣臣侍從置酒議邊事語及庾翼等戰

死位下霑翼等三人於八月戰死吉州○四年右諫議大夫李載上疏曰今軍國多

故黎庶未安數與羣臣宴樂且東蕃攻戰未休屯兵未去詐請

和好國家信之欲遣使告遼還其九城甚不可也○御神鳳門閱

神騎軍是後頗御親閱○吳廷寵與文真戰于吉州敗績○文真

裒弗等未朝會羣臣議還九城○取大學崔敏庸等七人武學

韓子純等八人分祀七齋周易曰麗澤尚書曰待聘毛詩曰緝德周禮曰求仁戴禮曰服膺春秋曰養正武學講藝

○五年宋遣兵部尚書王襄中書舍人張邗昌賡詔宋使見此

詔御筆親製北朝必無如此禮數○王奉太后幸南京遂幸三角

山諸寺○六年饗食庶老及節義孝順男女于宮庭尚書致仕

林成槩柳澤等于閣門王親伯之觀者多感泣成槩懷疏諫

五條皆國家大事平章事致仕金上琦年八十一王欲宴于內殿

帝更名夏國號金

其俗如匈奴無城郭無文字結繩為約東兒能引弓壯皆控弦為勁兵其地西直契丹南直我境故常事契丹及我朝其先

平州僧今俊道入女真居阿之古村或曰平州僧今幸之子克守入初女真居阿之古村娶女真女生子曰克乞太師克乞生活羅活羅多子長曰勃里鉢李曰孟歌孟歌最雄傑得衆心孟歌死勃里鉢長歸雅

東嗣位為雅東辛第而骨打立

○秋八月遼將伐女真遣使請兵會宰樞侍臣武將

議之皆以為可惟拓俊京金富佾富軾韓井閔修以為國家自丁亥戊子

兵亂之後軍民僅得息肩今為他國出自生釁勢端恐將來利害難測

王問至再三卒無定議○冬設八關會王自越庭還至閣門前駐蹕

唱和命倡優歌舞仗內幾至三鼓御史崔贊雜端許載進諫王嘉

納之○十年叅知政事致仕高令臣卒令臣少孤力學善屬文歷仕

中外議論慷慨其政府公卿爭進新法令臣以為祖宗成憲具在何

必改作以清儉自守及卒家無羨財○校書郎良稷自遼東京還時

東京渤海人作亂殺留守蕭保先立供奉官高永昌僭稱皇帝國

號大元建元隆基良稷上表稱臣以國家所遺留守土物贈永昌得

厚報及還匿不奏事覺下獄治之○左遷知制誥崔瀾為春州府

使王幸西京泛舟大同江扈諸臣及西京留守等官侍宴王將

侍臣唱和悅懌瀾上書曰昔唐文宗欲置詩學士宰相奏曰詩

人多輕薄恐撓聖聰文宗乃止帝王當好經術日與儒雅討論

經史咨諏政理安事離叟數與輕薄詞臣吟風嘯月以喪天衷耶王優納
之有一詞臣乘隙曰淪所謂儒雅除臣等別有何人淪短於詩故有
此言王怒黜之是後日與郭輿及詞臣遊宴賦詩唱和○金主阿
打遣阿只來○中書門下奏遣為女真所侵有危亡之勢所稟正朔不可
行自今公私文字宜除去年號但用甲子從之○王字之文公美使宋還
帝賜大晟樂遣李資諒等謝仍下制大晟樂文武舞宜先薦宗廟
以及宴享○作清讌閣于禁中選置學士朝夕講論經籍俄以清
讌閣在禁中學士直宿出入為難又置寶文閣於紅樓下南廊核清
讌閣學士充之加置待制充其選者皆一時豪彥○宴清讌閣謂
學士等曰朕嘗覽貞觀政要太宗曰但使天下太平家給人足雖
無祥瑞可比德於堯舜若百姓不足夷狄內侵縱有芝草鳳凰何異
於桀紂斯言至矣廢幾景行遂命金線朴景仁及寶文閣學士
註解政要以進又命學士等曰投壺古禮也廢已久宋帝所賜其
器極卿等可纂定投壺儀並圖以進○十二月大儺宦者分左右以
求勝廷命諸至
分主之凡倡優雜技外官遊技無不被徵遠近全至旌旗巨路充
亦禁中誅宦叩閭切諫乃命黜其尤怪者四百餘人○契丹前後
五十餘人漢兒五十餘人奚家二百四十餘人熟女真二十三人渤海

睿宗

九十六人來投○十二年宋故和七年遼天慶七年金天寶元年金錄在北邊馳奏金兵攻遼

統軍耶律寧與常孝孫等移牒以來遠抱州二城敢于我遂率其眾

載般百四十艘泛海而遁我兵入其城收兵仗錢穀甚多王大悅改抱

州為義州以鴨江為界直關防百官表賀○金主遣阿只哥等及移

書曰凡大女真全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自我祖考介在一方謂夷丹為大國高麗為父母之邦小心事之契丹無道陵轍我疆場屢加無名之師我蒙

天之祐獲殄滅之惟王許我和親書至大臣極言和親不可御史金富轍

上疏許和便遂不報語在富轍傳○李資諒使宋至汴京帝親

賜宴製詩示之命和資諒即製進鹿鳴嘉會宴賢良仙樂洋之出河房天上賜花頭上艷盤中宣橘袖中

香黃河再報千年瑞祿醕輕浮万壽觴今日陪臣參盛際願歌天保永無忘帝大加稱賞將還密諭曰聞汝

國與女真接壤後歲來朝可拒諭數人來資諒奏曰女真人面獸心

獠中最貪醜不可通上國有宰臣曰女真珍奇雜出高麗素系與

豆市不欲分利他國故沮之不必借高麗可遣一介招致竟交通

致靖康之禍進士權適趙頤金瑞偕資諒還權適等曾於十年入宋赴大學

○十三年重修安和寺窮極奢侈勞費不貲王親設齋五日落

成求書扁額于宋皇帝閉之御書佛殿扁曰能仁之殺命蔡京

書門額以賜之○以金尚礮判閣門事李惟仁為太府卿二人

清直自守所至皆有聲績而未嘗干謁權貴年高未達韓安仁上劄請加擢用以勵具臣故有是命○十四年金主遣使來聘致書遣中書主事曹舜舉聘于金國書有况彼源發于吾土之語金主拒不受○始於國學立養賢庫王甄意儒術置儒學六十人武學十七人選名儒為學官以教導之文風稍振○十五年王命黜赴制科國學生高孝冲下獄王時頗好樂妓玲瓏過雲等以善歌屢承恩賚孝冲作感二女詩以諷之中書舍人鄭克永言於王王不悅孝冲赴舉命黜之下獄胡宗旦上書營救乃釋之

○迎入佛骨于禁中

初王字之使宋還帝以金函盛佛牙頭骨以賜至是置山呼亭

○王常安和寺

順德太后真堂薦酌流浮后李氏資謙之女也初為延德宮主聰慧有寵及薨王屢舉哭臨其葬也親祖于神鳳門外且幸魂堂言諫官不聽是後亦屢幸又微行陵寢○秋遼遣副使蕭遵禮詔以戎孽路阻同仇大順之意○十六年幸安和寺還次李資謙山齋置酒賜資謙推誠佐理功臣師姚郡開國伯○叅知政事致仕朴景仁卒景仁以力學登科三為諫官言論鯁直無所依違○十七年門下侍郎致仕崔弘嗣卒起自寒微性貞介

寡欲朝無黨與居家不言公事妻子未嘗見其戲笑人有贖遺
雖蔬果不受然務苛察見人小過輒不忘○王御紗樓召文臣五
十六人刻燭命賦牡丹詩主簿安寶麟為第一賜緡有差時康日
用以能詩名王巧規其作燭將盡後得一聯云白頭醉翁者殿後
眼明傷老倚欄邊袖其裳伏御溝中王命小宦取視嗟賞不已
曰古人所謂白頭花鈿滿面不如西施半粧○王幸順天館宴宰
樞忽覺背有微腫促駕還宮仍疾革召太子面諭曰予追思所
行得失及慎勿效焉但當稽古聖賢之道奉我太祖之訓不
懈于位永綏庶民命韓安仁取國璽以授薨太子幼王諸弟頗有
覬覦心李資謙奉太子即位

史臣曰睿宗天資明哲嘗在東宮禮接賢士敦行孝悌及即位
宵旰憂勤勵精求治但志存拓境僥倖邊功歆慕華風信用胡
宗旦頗惑其言然知用兵之難棄怨修好使隣境感慕未服
恤鰥寡養耆老開設學校教養生負置清讌寶文兩閣日
與文臣講論六經偃武修文歆以禮讓成俗故韓安仁曰十七
年事業可以貽厥後世信哉

夏五月加李資謙功臣號守太師中書令卽城候詔曰中書令李資謙
太后之父於朕為外祖班次禮數會議聞奏語在金富軾傳○平章
事韓安仁奏睿宗在位十七年事荼毒宜在史冊請依宋朝故事置實
錄編修官制以學士朴昇中鄭克永金富軾充編修官修實錄○冬十二
月李資謙殺中書侍郎韓安仁流文公美鄭克永李永等安仁滿州
人睿宗朝其李永等以潛邸旧恩密近用事凡弟親戚分據要路与
文公美李資謙及崔弘宰俱在樞府外和而內忌安仁奏資謙為上公
不令視事陽尊而陰奪之權會有崔惟迪賂資謙臧獲二十口得除
給事中物議譁然安仁颺言於省中資謙聞之大怒請辦於御史臺
安仁慙恐告休數與公美克永李永等會散侵夜又有崔思全者
以大醫視睿宗背疽不早治被論於安仁輩挾宿憾伺間羣怨交
構譖以安仁公美結黨陰謀將不利於上公資謙遂羅織其罪流
安仁沉殺之公美克永李永等及親姻緣坐流竄者亦多李永安
城郡吏之子勤學登第歷臺閣至是以安仁妹壻坐流珍島聞其
母將歿為婢曰吾內省不疚故忍死以待老母以予故歿為賤隸吾何苟
生乃飲酒一斗憤而死資謙遣術士瘞道傍牛馬不敢踐或病瘡者

睿宗

就禱輒愈資謙敗求子請改葬掘之屍不變贈簽書樞密院事永天資
方直不為權貴所撓然取友不端拓俊京智極延等謀毀士類永皆
與焉

仁宗恭孝王

諱楷字仁表母順德王后李氏

○元年癸卯

宋宣和五年遼保大三
年金太宗天會元年

以金緣判秘

書省事監修國史緣見王幼冲外戚用事懇辭乞退以崔弘宰為門下侍

郎平章事拓俊京吏部尚書參知政事○宋遣禮部侍郎路允迪致

奠吊慰○二年李資謙流崔弘宰于禔地島弘宰善射為擅威福
資謙畏圖已死之○

遣樞密使朴昇中詔諭李資謙釋衰赴朝賜衣帶金幣丹資謙為亮

節翼命功臣願門下尚書都省事判吏兵部西京留守事朝辭國公

王出殿門親傳詔書百官進賀資謙第資謙釋衰赴中書時資謙
居母喪

百官又綴行庭賀是日大雷電以雨○資謙納第三女于王資謙恐他

姓為妃則權寵有所分強請之王不得已從之是日大風雨拔木○三

年資謙又納第四女于王是日又大風雨

史氏曰昔魏公操窺伺漢鼎納三女于帝為貴人宮中動靜無不

先知今資謙之計即操之計資謙曾信圖讖李氏得國之語蓄

無君之心非一朝一夕史氏以資謙納女為懼權寵之分何見事之晚也

五月遣陳淑如金金以國書非表又不稱臣不納○四年宋欽宗靖康元年

春二月內侍帳候金榮錫事安甫麟同知樞密智極延謀誅李資謙

拓俊京不克資謙俊京舉兵犯闕朴昇中子深造自宮澗中出火宮禁宮

闕燒盡殺甫麟極延左僕射洪灌知樞密金縝及侍衛臣僚流金榮遷

王子重興宅西院王恐被害請禪位於資謙資謙未敢發言平章

事李壽賜言於坐中曰上雖有詔李公豈敢如是資謙意遂沮王自

居西院左右皆資謙之黨國事不自聽斷動止皆不自資謙後京威

勢益熾無敢誰何

史臣曰資謙之惡極矣其亡可立而待極延等因人不忍殺除君側之惡

而智小謀淺卒至殺身亂國昔李訓鄭注欲鋤剪宦官而不能克甘

露之變禍及國家其事略同

台百官議事金可否皆言不可獨資謙俊京曰金既暴興滅遼興

宋共我接境不得不事從之○黃霧四塞○日色如血○夏五月李資

謙反王命崔思全拓俊京討之流資謙及妻子支黨朴昇中朴彪等

資謙圖不軌進毒餅中妃密白王以餅投烏烏斃又送毒藥妃捧桃

陽蹶而覆之妃即資謙第四女也王曾共思全謀諭俊京以禍福乃決策俊京

仁宗

在兵部注擬武職王手書小紙密送俊京俊京乃示尚書金珣珣泣曰有省如

此義當死俊京其珣率將校僚吏僚隸入宮奉王出御軍器監台資謙

並妻子拘囚於八關寶斬其將康好高珍守捕支黨子姪並流之○

以拓俊京為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郎平章事李公壽判吏部金珣

戶部尚書皆賜功臣號崔忠全兵部尚書公壽即李壽也○王廢二妃李氏諫官累疏言之

納任氏為妃妃任元數女也妃誕夕其外舅李璋交黃大旗豎於其第旗尾飄紫於宣慶殿鳩尾及屏聘金仁揆子之孝昏夕之孝至門妃暴疾幾死以

實謝遣翌日卜者占病曰勿憂此女貴不可言必為國母時資謙已納兩女聞其言惡之奏

貶元數為開城府使居歲餘其倖多太守廳事棟椽折作大竇黃龍從竇出詰朝

倖詣元數以交賀曰使居家必有異慶又王嘗夕得荏子五升黃葵三升以語拓俊京

俊京解曰荏者任也納任姓后妃之兆也其數五者誕五子之瑞也黃者皇也葵者揆

也皇王執道揆御邦家之瑞也其數三者五子之中三子御國之兆也其語果驗○秋七月宋遣閭門祗候候章啟中孚

等詔諭新承內禪金兵陷逼之故勉率士眾表裏王師以報中國數世之思

侯章又致書於王大畧言姦人啓議開邊使金人猖獗擾我中原告和求收復

有無厭窺伺河北待以秋涼興師討伐乘此之時本國安可坐視願將兵

境上共為掃除王答書畧曰本國自祖先恭事上朝神宗皇帝降使修聘禮

地不責其報而區區之感數之心庶幾一今者伏承宣詔以全人之道方將起兵問罪

也令小國率勵士眾相為表裏奉讀流涕惟金人之怨固嘗臣屬於我國而常以寇

但冀訓勵師徒修整器械待王
師臨壓彼境則弊國敢不盡力
○候章還王附表以聞○九月遣金富軾如宋

賀登極富軾至明州會金兵入汴道樓不得入至明年五月乃還○金遣使來諭

凡遣使往來當循遼旧王踐金使于大明宮遣使報謝一依事遼○十二月李資謙

死於靈光郡○以金仁存為翊聖同德功臣太師門下侍中監修國史上柱國

判吏部事○五年宋高宗建炎元年王幸西京妖僧妙清日者白嵩翰說王設

灌頂道場其術詭誕不可知○王與妃及兩公主幸興福寺遂共御龍舟

宴樂于大同江召宰樞侍臣侍宴○拓俊京恃功跋扈王忌之左正言鄭

知常上疏畧曰五月之事一時之功也二月之事萬世之罪也於是流俊京于

屈墮島○文公美韓安中文公裕鄭克永等召還復職○金遣使來詔

諭趙主父子見俘並宗族四百下餘人差押赴廟及冊命亡宋大宰張邦

昌為大楚皇帝等事○十二月內下侍中金仁存卒○六年宋帝遣刑

部尚書楊應誠齊州防禦使韓衍來宣詔應誠等又劄陳假道迎請

二帝津發使人一行至界上先報知金人以聽可否王答以書畧曰伏聞二

憂憤雖不能應時奔問官守而臣子之心豈遑寧處皇帝初登寶位首遣侍臣欲

令小國津發前去迎請二聖使副一而面諭繼以公牒懇意備至敢不拜命然女真之始

也今居部落未有定主故嘗且屬我國漸致強盛常為邊患近者陷沒大遼侵犯上國
自此兵威益大抑令小國稱臣仍約定禮數一依事遼旧例小國不得已而從之然常疾
我樂率上國如聞使節假道入境必猜疑生事非特如此必報聘為名假道小邦遣
使入朝則我將何辭以拒苟知海道之便則小國之保全雄矣而淮南兩浙沿海之地得

仁宗

東坡志林

乙

慮不慮其窺覲耶應誠等往復不已又答曰上朝先是降詔令小國往諭女真來朝
小國竊女真不可使窺中國富庶不敢奉詔朝廷不以為然遂多才托諭厚賜金帛彼
既知中國虛實窺心一動長驅深入騷擾京師小國共全國疆場相接知情備甚熟
而今使節由此往則彼必由此復禮其東濱大海尤善水戰彼托以復禮審知淮浙形勢萬
一具戰艦浮海而下擊其不意竊恐北苦陸戰南苦水戰首尾受敵為患
必鉅事至於此雖悔可追小國所以不獲奉詔者天地洞鑒不敢歸辭 應誠等

還附表謝遂不受例贈禮物亦不受而去○遣禮部侍郎尹彥頤如宋以
答揚應誠書中之意修表上之彥頤還回詔曰顧孝友之思雖欲伸於已
志然幾微之際亦當盡於人情既諒恭勤毋忘屏衛○幸西京妙清白
壽翰以不經之說眩惑衆人鄭知常亦西京人信之全安洪彝叙李仲
孚大臣文公仁林景清從而和之於是妙清等上言西京林原驛地是陰
陽家所謂大花勢若立宮廟御之則可並天下全國執贄自降三十

六國皆為臣妾遂移林原驛作新宮○七年西京新宮成幸西京御新

宮時或者上表勸王林帝達元○忠州人劉挺弒其父中書門下奏請降冊

為郡王尚左右對曰禮云邾婁疋公時有弒其父者殺其人毀其室洿
其官而止耳降冊為郡非古法也○八年御史臺奏國學養士太多供

給甚費請簡留行修禁成者若干人餘悉出之於是國學諸生詣闕

上書論御史臺王從諤失言○左遷侍御史高唐愈為工部員外
郎初唐愈坐論資謙之黨貶秩復為臺官又論資謙之亂朝臣資

從失節而賣綠苟免者多至宰輔雖聖上寬大掩其疵疾何曾立朝
廷見日月乎王雖是其言不忍盡棄大臣尋擢唐愈為禮部郎中
實集臺職也唐愈改名兆基○禁諸生治莊老學○十年二月遣外員郎
崔惟清等如宋上表曰屬兩聖之遠征既不能奔問官守及大人之繼
照又未得稱慶闕庭終曰上尊周室媿莫進晉伯之前功內屬漢
庭冀不失朝鮮之舊事惟清還回詔畧曰朕省方南國通道
東藩載嘉享上之恭重有規光之請爰即乘輿之所幸以須
信使之未庭顧秋塞馬肥或戒嚴之不暇而春朝舟穩廢利涉以
無虞○八月大雨漂沒人家不可勝數又水湧奉恩寺後山上古井
奔流入學國廳漂沒經史百家文書○平章事崔滋盛知貢舉吏
部侍郎林存同知貢舉出賦題云聖人耐以天下為一家省官奏
按耐古能字今以耐為韻非是請命改試不允因命滋盛更試又
命題云天道不閉而能久省臺又奏禮記云天道不閉而能久鄉
本家語以不閉為不閉者蓋謬誤耳今貢院不考正經而據錯
本請罷滋盛等停今年選舉王命只取經義論可取者二十五
人御史任元濬等請追奪名牌改試不報元濬等退而待罪

仁宗

臺空凡七日又國學生並廖伯等五十人上書請改試不允○十二年春幸西
京移御大花闕駕初發暴風揚塵人馬不能前流星墜_地如斗○國子
司業任完上疏請誅妙清先是同知樞密事林元敦上書請誅妙清
白壽翰等皆不報○六月震西京大花闕乾龍殿

史氏曰仁宗身經李拓之亂宜其動心忍性增益其智識而後為妙

清嬰弄何執清特妖妄賊髡耳其說荒怪完謀既極而天之警益_{仁宗}

者未嘗不惓惓懇至八年之幸始有重興塔之灾九年林原新闕

有鳥跡之怪十年駕至金岩大風晝晦十二年駕至大同江暴風

作惡移御大花闕亦有大風流星之變加以正月繁霜大雷雨_震

復有今日大華乾龍之震天之譴告如是而終不悟賊清既叛

勞民動衆三年而僅平之王雖噬臍尚何及哉

十三年春正月妙清柳昆與分司侍郎趙匡司宰少卿趙昌言

安仲榮等以西京叛命平章事金富軾等討之語在富軾傳

○十四年詔曰昔鄭莊公置姜氏于城穎誓曰不及黃泉無相見

也既而悔之復為母子如初今外舅李氏雖歿而親親之意終不

可忘可贈檢校太史漢陽公妃崔氏封卞韓國大夫人

史氏曰薄昭以舅親殺漢使文帝不忍加誅逼令自殺先儒曰
法者天下之公器惟善持法者親疏如一昭殺漢使若從而赦之
則與成哀之何異哉今資譴潛圖不軌其罪逆覆載所不
容與殺漢使之罪不啻萬萬王反不誅只流于外得保首領
幸矣又加厚爵為恩者何所懲艾乎

十八年門下侍中致仕金若溫卒若溫初名義文侍中良驥之
子性恭儉廉靜歷仕中外所至人便之李資譴秉權喜利者
爭附若溫共資譴堂兄弟而不相比世多其守正○宰臣金富
軾任元敦等與省郎崔梓鄭龍表明上書言時弊十條伏閣三
日皆不報梓等乞罷不出王罷執奏官減諸處內侍別監及內
侍別庫乃台梓等令視事獨襲明以所言不盡從不起○十九年遣
禮部侍郎權迪等如金以農時不納秋再遣○金遣使冊王故事
受冊命必於南郊今使臣宗禮等奉朝廷指揮始於王宮頒詔
○二十二年甲子○宋紹興十年制曰拓俊京雖失為臣之節亦有衛社
之功可授檢校戶部尚書數旬疽發背死于谷州其先谷州吏九城之役有功遂顯○
二十三年冬十二月立春夜天有聲如雷太史占曰立春日天鳴至

仁宗

尊憂且驚○二十四年春正月^王宴金使於大觀殿遂不豫疾篤遣內侍
徒直資謙妻子於仁州又追復拓俊京門下侍郎平章事召還其子
孫官之決金堤郡新築碧骨堤堰皆徒巫言也

史氏曰易曰原始要終故知死生之說仁宗彌留惑於巫卜妖妄
之說求婚於已死之逆鬼而復其妻子施梟於已黜之逆臣而優
加爵命歆活須臾之命不能正終如此其不達死生之理甚矣

二月王疾大漸傳位于太子現遂薨

遺詔喪服
以日易月

史臣金富軾曰仁宗自少多才藝曉音律善書畫喜規畫手不釋
卷或違朝不寐性又儉約所御寢席無黃紬之緣寢衣無綾錦
之飾宮中宦寺不過數人日再視事專以德是安民及金國暴
興排羣議上表稱臣詞臣應制或指北朝為胡狄則瞿然曰安
有臣事大國而慢稱如是耶遂能世結歡盟邊境無虞不幸資
謙恣橫變生官闈身遭幽辱然以外祖之故曲全其生可以見度
量之寬矣

史臣金莘夫曰仁宗幼冲即位宰相韓安仁等不能長慮却顧
使姦兇跋扈盡流三韓祖宗之秦幾於墜地可以鑑矣又惑於

妙清壽翰之說卒致西都之反逆者何也蓋以天性一於慈愛優遊不斷故耳是以典刑未定於丙午之逆類處置不均於西都之反民可不惜哉其不喜遊宴減省宦豎恭儉以飭身誠信以交隣雖古帝王何以加焉

毅宗莊孝王

諱暉字日升母恭睿太后任氏

○元年丁卯

宋紹興十七年金皇統七年

夏四月幸外帝釋

院自是遊幸寺院不可勝紀○臺諫上章言事不報歸第王乃下毬杖于御史臺臺奉詔鎖壽昌宮北門以禁羣小出入王遊北園謂左右曰吾擊毬之技無復試矣已而取毬擊之人莫有及者○取升補試任裕公等五十五人○御西樓觀擊毬自此無月不規○御史臺奏壽昌宮北門嘗奉詔關鎖散員史直武校尉鄭仲夫等擅開出入請下吏王不聽○禁同姓親族相婚○二年金遣使命王落起復冊王○李漢智之用與宋人張喆同謀漢變名稱東方暉通書宋太師秦檜若以伐金為名假道高麗我為內應高麗可圖也之用以其書及高麗地圖附宋商彭寅以獻檜至是宋都綱林大有得書及圖來告囚喆深之用翰之皆服漢之用死獄中喆伏誅○以任元敦守太尉定安公金富執守太保尹彥頤政堂文學高

毅宗

北基中書侍郎平章事○五年門下侍中致仕金富軾卒○三月日有黑
子大如雞卵後十日又如是者再○王將宴侍臣諫議王軾見宦者鄭誠
崇班帶犀指臺員曰此而不彈臺官可謂無目者也御史雜端李綽
并憤然作色令臺吏李份取其帶誠白王王大怒命內侍李成允執份
王不悅罷宴即解所御帶賜誠以誠權知閣門祇候誠王乳媪夫也御史
臺以宦者參朝官無古制爭之不聽臺官復不出王叔誠祇候制
誠怨之嗾鄭壽閔誣告臺官等怨大家諫推大寧侯暉為主按問
無驗黥流壽開○金存中共郎中鄭叔有隙嗾諫議王軾等論叔交
結大寧侯之罪存中鄭誠仍構飛語以聞王亦疑之縉而宰相崔惟
清等率諫官彈奏鄭叔邀致大寧宴樂遊戲又論鄭誠謀陷臺
諫罪皆因叔王並宥之知臺事崔允議直入王所爭之乃流叔于東萊
貶崔惟清南京留守李綽升南海縣令皆叔妹婿也於是存中益一
寵幸○六年宴萬壽亭至曉乃罷先是內侍尹彥文聚怪石築假
山于壽昌宮北園構小亭號萬壽被壁以黃綾窮極奢侈宴將罷
假山頽北鷄鳴○秋七月右諫議大夫申淑等伏閣切諫凡三日乃黜
內侍十四人茶房五人○八年受定科舉法初場迭試論策中場試經義
終場試詩賦國學生考以六行

場

積十四分以上者許直赴終場
不拘其額又除三連卷法

○召平章事崔子英門下省事梁元俊起居

舍人崔婁伯訪問國政

婁伯水原吏尚翦之子年十五父為虎所攬婁伯荷斧跡虎之既食飽卧婁伯直前斫之剗其腹取

父骸以葬威虎肉於瓮埋川中序墓服闋取虎肉盡食之

○十年定安公任厚卒

初名元敦

器宇宏深風彩

嚴重博通經史勤儉清白妙清妖說一時傾信而元數獨擯之人服其

明及判吏部銓注甚公人稱高王即位以太后父令上殿行禮諫官論之遂

封公頤養○十年春正月戊辰朔風自乾來太史奏曰國有憂王懼卜者

榮儀因進穰禱之說王信之命於靈通教天等五寺終歲作佛事又

遍祀遠近神祠使者絡繹且於諸寺皆張法會至限千日萬日財竭民

怨○幸國清寺遂幸敬天寺有司奏行在所狹隘請去史宦王曰史

官記予言動不可暫離○中書侍郎平章事致仕高兆基卒兆

基耽羅人性慷慨涉獵經史尤工五言詩為諫官直言不諱拜平

章事屈節附金存中時議非之○遷太后任氏於晉濟寺流弟大寧

候曝于天安府貶崔惟清為忠州牧使王素信圖讖不友諸弟密

諭諫臣論劾大寧候又恐太后救先遷之○作離宮於關東宮曰

壽德殿曰天寧又以侍中王冲等四人第宅為別宮又毀民家五十餘

區作太平亭亭南鑿池作規瀾亭其北構養貽亭蓋以青瓷南

毅宗

構養和亭蓋以椽又磨玉石築二臺聚怪石作仙山引達水為飛泉
窮極侈麗羣小逢迎民間珍異之物無間遠近運載絡繹○王聞

東海中有羽陵島地廣土肥舊有卅縣可以居民遣溟州道監倉金

柔立徃視柔立回奏島中有大山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餘步向西行一萬三

千餘步向南行一萬五千餘步向北行八千餘步有村居基址七所有
石佛鐵鍾石塔多生柴胡蒿本石南

卓土多若石民不可居遂寢其議○復以鄭誠為閣門祗候王召承宣

李元膺右諫議李公升等督署鄭誠告身守臣諫官不得已署之

獨李知深等數人不署皆左遷誠自是獲參朝列權寵日盛親黨布

列交構譏訐陵轍朝臣侵漁閭巷宦寺亂法莫威於斯繼而申淑

金錫柳公村等上疏極諫○十二年太史監候劉元度奏曰白州免山半

日岡實我國重興之地若營宮廟七年之內可吞北虜遣平章事

崔允議相之還奏曰山朝水順可營宮廟王遣允儀及李元膺等

徵發西海道丁夫催督告成賜闕名重與殿額大和術者私語曰此

道說所謂庚方容虎拳頭掩來之勢創闕於此恐有危亡之患

冬王幸白州御新闕受賀是日天地昏黑大風拔木王頗疑之○

門下侍郎平章事梁元俊卒元俊出自胥吏嘗與諫官論鄭
誠堅不變時議重性清儉純直終始一節門卷蕭然初守光世妻
事姑不謹黜

之使其妻獨選人或譏其不仁○十六年諫官伏閣上疏請罷別官貢獻不聽王惑

信陰陽秘祝之說每於行在集僧道數百人常設齋醮糜費不

貲帑藏虛竭又多作別宮誅求貨財名曰別貢使宦者監頒黃

緣管私時旱荒疫癘道殣相望○諫議李知深等承王命署崔

光鈞告身初官人無比得幸於王生三男九女崔光鈞為無比女

婿超授八品驟拜式目都監錄事士大夫切齒諫官不署苦身

王召諫議李知深給事中朴育和起居注尹麟瞻司諫金孝

純正言梁純精等督署之郎舍畏縮唯唯而退有人嘲曰莫說為

司諫無言是正言口吃為諫議悠悠何所論宦者白善罔南京官奴也王愛之号

養子出入卧内每無比押頗有醜声○冬十二月太白經天四日○幸仁知日齋即慶龍齋

也親製詩一聯云夢裏明聞真吉地扶藜山下別神仙遂廣開增飭

日與嬖伴沉酣不恤國政諫官或請毀之王輒稱夢報以拒之自是

諫者乃止○十七年貶左正言文克謙為晉州報黃州是判官語在克

謙傳○十八年冬十一月陰霧四塞行者失路太史奏五行志霧者

象邪之氣連日不解其國昏亂又曰霧起十步外不見人是謂

晝昏占曰破國今陛下處非其位任非其人明堂久曠而不居

毅宗

東史卷五

天灾可懼而不省移徙無常号令不時故有此異王竟不悟○十

九年金大夫營主遣脫卒攻麟靜二州境內之島執防守別將元尚

等十六人以啟島去麟靜州最近金人乘間樵牧人多居焉兵馬副使金光

中欲復地邀功擅發兵擊之火其房舍仍置防守屯田金主

讓之王乃還其島命撤防守兵馬副使尹麟瞻○王淫于遊宴惟日不足稍

恥削土猶不從命故金將來侵麟瞻秘不奏遇佳境輒構亭臺於是金敦中重修規瀾寺補以祝釐督葺僂民

遍植松杉於寺北童山築壇為御室飾以金碧敦中設宴於西臺

王與宰輔侍臣酣飲盡歡厚賜敦中已而鄭誠祝釐於奉靈寺

饗王供辦遠勝規瀾王醉自吹笙因問知音者左右以及第李

鴻升對即召至前命之吹笙欣然嘆相見之晚遂屬內侍又構

衆美亭於清靈齋南麓亭之南澗野水成池岸上作茅亭鳧

鴈蘆葦宛如江湖之狀又有龍淵寺南石壁臨水削立數仞曰虎

岩亭其側名延福奇花異木列植四隅築堤為湖每當泛舟于

南池石壁也伎樂滿載百戲備呈別令小僮棹歌漁唱互答於

遠浦間沿流上下侵夜忘返其他以勝致名者曰万春亭靈德

亭壽樂堂鮮碧齋玉竿亭橋曰錦花門曰水德風亭水榭

羅絡於山磯不可殫記皆由嬖幸近習如朴懷俊劉莊白善

羅絡於山磯不可殫記皆由嬖幸近習如朴懷俊劉莊白善

淵輩從與媿悅爭奇鬪巧病民傷財凡三年而告成衆羨亭之役也有一卒貪不能自給每食役徒分共一匙一日其妻來餉且曰宜乞所親共之卒曰家貧何以備辦將私於人而得之乎豈竊人所有乎妻曰顏醜誰共私性拙安能盜但剪髮買來耳因示其首卒嗚咽不能食聞者悲之王與宰臣文士如崔哀僂許洪村李復基韓賴及詩僧覺倪輩遊必共之賦詩酣飲無虛日或視水戲於江上或月夜微行於寺院或如南京或遊西都出幸不時日再三移御自朝達曙君臣沉醉扈從將士疲困生嗔鄭仲夫李義方之徒聚首密語曰今日文臣得意醉飽武臣皆飢困是可忍乎遂構兇謀矣○王一日自啟法寺幸玄花寺馳馬至獺嶺茶院從臣皆莫及王獨倚柱謂侍者曰鄭襲明若在吾豈得至此

史氏曰毅宗輕佻無人君之度卽作二十餘年荒淫怠忽習與性成不可救藥幸而追念襲明悔心萌而善端露信乎天理之未泯也苟有忠正之臣開導之不至於終迷惜乎朝臣無有如襲明者能轉移王心使之終及於福悲夫

金遣符寶郎徒單懷貞來賜羊有羊四角樞密使李公升以為

毅宗

瑞獸表賀時人嘲為四角承宣○二十四年春正月朔王受賀於大觀殿

親製臣僚賀表宣示羣臣百官乃表賀上年賀正表亦王代製

史氏曰毅宗親製賀表自讚已德比之堯舜禹湯文武恬不知

愧亦獨何心哉世之稱人主華藻浮靡者必以陳后主隋煬帝

為首然不過與臣下賦詩爭能而已至於自撰表讚德則雖

二主亦未嘗覷然為之毅宗之失於茲甚於陳隋則雖欲免

陳隋之禍敗得乎

二月狼星見于南極西海道按察使朴純嘏以為老人星馳奏王

親醮老人星于內殿忠州副使崔光駒奏前月祭老人星于竹杖

寺其夕壽星見王大喜百官稱賀王宴叅官以上親製樂章

命工歌之結彩棚陳百戲夜分乃罷○王幸延福亭羣臣皆占

所見之物為嘉瑞蓬艾三莖生於亭以為瑞草內侍黃文莊指水

鳥為玄鶴作詩讚之王稱嘆和詩拜國子博士直翰林○水

州民耕田得金一錠狀如龜知州使吳錄之取以獻左右呼萬歲

曰天降金龜聖德之應羣臣皆賀○秋八月王幸普賢院自開

城至東坡驛二十里有招賢院是普賢院舊基俗謂之朝廷況武臣鄭仲夫李義方李高等作亂大

殺毫從文宦宦寺遣兵殺留都文官以王還官語在四兇錄○九月
鄭仲夫李義方李高善放王于巨濟縣太子于珍島殺太孫迎王弟
翼陽公皓即位○遣工部郎中庾應圭如金上表作前王讓弟表略曰
臣纏疾恙漸致衰羸伏在床枕幾委體支臣父先臣國王嘗屬臣
云苟有遜代必先弟及今臣有元子泓少而無慧長且多愆未堪主也矧
復奉藩臣弟皓忠順之德夙勤於君親睦恭之心無懈於朝夕乃權守軍
國事務敢茲上聞冀照下懇

史臣金良鏡曰昔唐明宗時大理少卿康澄上疏言時事曰為國家
者有不足懼者五深可畏者六三辰失行不足懼天象變見不足
懼小人訛言不足懼山崩川竭不足懼水旱蝗虫不足懼賢士藏
匿深可畏廉恥道喪深可畏上下相徇深可畏毀譽亂真深
可畏直言不聞深可畏歐陽公記此言曰凡為國家者可不戒哉
有是哉斯言也夫前君崇奉佛法敬信神祇齋醮之費徵歛無
度區區事佛事神而姦諛若李復基林宗植韓賴為左右檢
壬若鄭誠王光就白子端為內宦阿曲若榮儀金子幾為術士
所幸嬖妾無比主於內希意導志受相妖媚利口紛騰讜

毅宗

言疎絕變生輦轂之間而卒莫之知也此豈懼其所不懼不畏其所畏之然耶且禍亂之初無一人效死遞代之後造偽飾辭如此尤可歎也
東史纂要卷之六

高麗紀

明宗光孝王

諱睦字之旦
毅宗母弟

○元年辛卯

宋乾道七年
大定十一年

李義方殺大將軍韓

順將軍韓恭伸大興史直哉

順等相共言義方李高等擅殺朝臣
害及忠良非義也義方等聞而殺之

○李高共

僧修惠等謀叛伏誅○金遣詢問使完顏靖來賜前王詔曰述前王之遺

囑讓母弟而相傳尚慮未出於誠心是用往頒於詔問王稱前王已避

位出居他所病篤不能就位拜命路又險遠非使者所宜往靖不得見

前王王乃具前王表附靖還○左諫議金莘尹右諫議金甫當左散騎

常侍李紹膺左司諫李應招左正言崔謹等上疏以為前朝宰相

崔允儀諫議李元膺中丞吳中正等署宦官鄭誠告身西海按察

使朴純嘏妄奏老人星見知水州吳輝之妄獻金龜之瑞請皆禁錮

子孫且承宣王之喉舌但出納惟允可也今李俊儀文克謙職兼臺

省居中用事請解兼官允之惟俊儀克謙事不允諫官伏閣力爭俊

儀因醉使巡檢軍辱之王聞之召俊儀慰解因諫官于隍城左遷莘

尹甫當應招讜等改俊儀為衛尉少卿克謙太府少卿○九月辛卯日有
黑子大如桃戊午又如星○宮闕灾鄭仲夫李俊儀李義方等恐有變
閉紫城門不納救火人殺守悉火王出山呼序痛哭庾應圭詣景靈
殿抱五室祖真以出又至中書省出國印○二年五月金遣使冊王○
西北面兵馬使大將軍宋有仁乞解以于學儒代之自庚寅之後北
人橫恣昌州人殺其守愛妓城州人議滅三登縣有不從者殺數
十人鐵州人殺其長格闔而死有仁不能制懼害及己稱疾乞代
學儒亦不能制○三年秋八月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金甫當起
兵於東界討鄭仲夫等謀復前王不克死之語在甫當傳○冬十
月李義敏殺前王于慶州○制三京四都護八牧郡縣館驛之任
並用武人○四年宋淳熙元年金
大定十四年春正月重光弘護敏法弘化等寺僧二千
餘人集城東門門閉乃燒城外人家欲延燒崇仁門入殺義方兄弟義
方知之集府兵斬僧百餘府兵亦多死者遣兵破重光等五六寺李
俊儀止之義方怒不從遂焚其寺取貨財器四俊儀罵義方曰汝
有三大惡放君而弑之取其第宅姪妾一也賈軒太后女弟二也專
擅國政三也義方大怒欲殺之文克謙止之曰以弟殺兄惡莫

明宗

大焉何面目見人乎若吾言不可聽請先殺我義方共克謙善且其弟隣
為克謙女婿故從其言後儀走出義方引劔割其首而卧鄭仲夫曰兄弟
鬪於宮中何理耶欲執後儀殺之仲夫妻聞之使人謂曰義方兄弟
之事於卿何共由是後儀得免○太子納李義方女為妃○秋九月西
京留守趙位寵起兵謀討仲夫義方檄召兩界諸城曰側聞上京重
虜讒曰近北界諸城率多桀驁宜徃攻討兵已大發其可安坐自就
誅戮宜各糾合兵馬速赴西京崑嶺以北四十餘城皆應之獨延州
人玄德秀數位寵罪遂與州將向闕羅拜連呼萬歲閉城固守
位寵移牒延州將拳兵問其不至之罪於是城中推秀主兵馬德秀
遣兵擒費牒者殺之位寵再牒恐以禍福州人頻洶洶德秀用智計
鎮定分兵屯守諸門是後位寵兵屢攻延州德秀再擊破之○遣
平章事尹麟瞻率三軍擊位寵至崑嶺共戰敗績○位寵兵陷和
州兵馬副使崔均死之均時以指揮使在東北路聞副使之命即入和
州營是夜敵兵至即將李瑤開門納之均共兵馬使李儀御史智
仁挺被執罵賊不屈共儀及幕士皆遇害均才學出羣吏幹亦
優未及大用人皆惜之○李義方伏誅○復命尹麟瞻為元帥頗

諸將攻西京麟瞻謂諸將曰我聞招攜者附于內伐叛者披其枝今位寵
腹心在漣州我若先攻西京則在漣州者招誘北人共為犄角我腹背
受敵非計之善也今漣州負恃西都不虞我至宜先攻漣州漣州若
不下北州諸城皆歸順然後率順而攻逆蔑不濟矣遂趣漣州○
五年位寵遣將救漣州官軍從間道掩擊之前後斬二千二百餘級
虜二百八十餘人○夏五月鼓前王憲百官玄冠素服三日命內侍十人護
葬陵曰禧廟號毅宗以位寵奉兵聲
言義方弑君不葬之罪也將軍朴存威使於雲
中道嘗誇衲釜之事至是雲州人應位寵斬之○後軍總管杜景升以漣州
久不下積土城外樹砲攻城拔之於是諸城皆復迎降遂移師攻西京從
麟瞻策圍城使人使之招懷降附○六年公州鳴鶴所民亡伊亡所伊等
嘯聚黨與自稱山行兵馬使攻陷公州命大將軍丁黃載等討之戰不
利○東海水黃濁三日變為血色○夏六月尹麟瞻與兵馬副使杜
景升攻拔西京擒位寵斬之函其首送京師梟示並送位寵妻孥
及俘獲百餘人餘民悉按堵如故

史氏曰弑逆之賊人馮而誅之雖隣國之大夫亦得沐浴而請討况
其一國之臣子乎然則位寵之稱兵討賊烏得謂非義乎而卒
歸於叛國何哉不於金甬當舉義之時併謀協力而顧乃逡巡畏

明宗

縮者有年已死毅廟已弒明宗之位已定然謀動干戈於邦內構譽生事於他國其為計不亦誤乎此所謂所舉者雖義而所舉之時非也

○按史氏之論位寵以舉義不早返巡後時非之以愚現之有不然者古人之言曰名其為賊敵乃可服庚癸羣兇屠戮文士放弒君父窮兇極惡覆載所不容簡冊所未見苟有一二忠義之士輝罪致討則以舉國所共憤之人心豈難於顯戮兇魁而終不克濟事者乎甫當為人亦膽氣有餘而其分部諸道將士徑奉前王舉措疏脫義旗未豎機漏取敗然名正言順成敗非所論也今位寵之始起檄召兩界也乃曰上京重房議討北界諸城大兵已發其可安坐就戮云而無一語為君父討賊復離之義不過為私離激動而已屈嶺以北應之者亦各為身謀僥倖成事而已設使以舉在於毅宗見逐之初應未受回詔之前不過卓叟之計而止賴沛無成可立而待也况皇冊已加王位已定舉國臣奉而乃興念兵馳報怨之檄驅迫脅之眾敢抗王師經年盜據自取叛賊之誅非不宜也宜也烏可以舉義而時非論乎

南賊攻陷禮山殺監務遣大將軍鄭世敵李夫等分左右道往討之○初西北諸城皆赴位寵宣州鄉貢進士房瑞鸞謂其兄孝珍得齡曰今位寵資誘諸城土豪偽署官職我曹亦預其中位寵所謀不止討賊若不改圖恐同惡流醜今欲率先倡義去逆効順州人皆服有郎將義儒受偽署為將軍獨不可孝珍狙射斃之即遣人告義州州人亦殺偽酋景綽等以應從間道贖賊首飛報行營諸城聞之皆罷兵事聞王嘉之賜孝珍瑞鸞爵○七年六月辛卯震太廟○亡伊等來降賜廩粟命御史押送其鄉亡伊等復叛寇黃驪縣又寇鎮州陷牙州秋七月兵馬使鄭世敵捕亡伊等時処盜起義靜二州叛又位寵餘衆五百餘人作亂殺留守判官賊酋金旦亦降復叛西路糧塞金使往來亦由他路我國護行人或多被害初西賊分爲三軍首尾行劫嘗攻焚茲甫二州又屠妙德香山諸寺朝廷遣兵討之屢戰失利大將朴齊儉為兵馬使聞賊飢窘有納款之意遣人招誘諸賊相率來降齊儉執符循之曰汝等皆吾赤子也開倉賑之令處龜連等州使之安業獨中軍行首進國不降率其黨百五十人欲投北蓋齊儉盡擒斬之○王

明宗

御便殿引見東西兩界諸城上長都領等各賜匹段錦衣金帶馬一
匹以平西之後盜賊頻起慮復動搖有此賜識者歎其姑息○鄭仲
夫致仕以宋有仁為門下侍郎卒章事時閔令謨先為中書侍郎平
章事王以有仁武臣使氣又為仲夫壻心憚之班令謨上有仁固讓
有仁嘗請壽德宮居之棟宇壯麗擬於王室○九年九月將軍慶
大升與所善勇士許升謀率死士夜入宮殺李景伯等請王薨禁軍
分捕鄭仲夫及宋有仁父子悉斬之梟首于市語在別錄大升自去
鄭宋以來心不自保招集死士百數十人留養門下號曰都房嘗令
數人潛伺里術偶聞飛語輒囚鞠累起大獄為長枕大被令壯士
輪直于家或自共被以示誠款許升等恃功偃蹇陰養惡小昵
侍東宮寢卧後壁歌吹徹夜大升忌之召升于其第斬之又道殺
牽龍金光立詣闕奏升等欲殺臣圖不軌不暇稟誅王命近臣
慰諭宰相以下賀其第大升稍自安罷兵衛○內嬖明春死王
失拜號哭太后寬譬之曰雖是情鍾不可使聞於重房也然猶嗚
咽不能止親製悼止詩以自慰王資^天屢弱屢更變故動輒驚懼
凡軍國機務皆彊制武臣至如拜色猶不敢自尊及賊臣誅夷

始得溺愛林第內嬖尤寵者純珠明春而已自二人結亡無以遣懷台集
純珠明春反諸嬖所生兒女數十于宮內衣以斑斕載以鳩車嬉戲啼
蹄不類官禁故武臣等皆腹誹咨嗟王德女毅宗不孝弟故至誠事
太后敦睦宗戚召弟僧仲曦侍太后患瘡曦多亂宮女又通公主
穢聲聞外右司諫崔訢上疏諷曦穢行請出之王覽疏大驚曰不
意司諫准間我兄弟遂罷訢自後無敢言者朝臣皆附曦賄賂
公行○十一年詔往年十道察訪使黜陟官多有^吏疵戾其誤被罪罰
者悉原免依舊叙用先是國家遣按察使巡察州縣春秋更代又
遣察訪使黜陟之自仁宗壬戌未遣察訪詔唯委按察不能彈舉
官吏侵漁民多受弊歲戊戌宋有仁李光挺等建議復遣察訪
使官吏坐贓落職者九百九十人悉皆錄籍於是共出銀五十餘斤
賂鄭仲夫求去其籍未果而敗後大賂權貴請去之猶未得至是用
事者指言天譴屢彰訛言浸興皆因冤濫所致下語原之臺閣
無一言○冢宰閔令謨性訥怯少虧操履判兵部李光挺貪頑無
識銓注猥濫郎舍奏舊制文吏散官補外者皆有年限今或一
二年而超受或三十餘年而不調政濫人怨請依年限制韓文俊

明宗

之徒力排其議

史氏曰庚癸以來政敗武夫一二文臣之執國政者動為武夫制于肘復有如今謨之為冢宰光挺之主銓選不滿公議者又安得鎮武夫不遜之心乎郎舍之論蓋以此也當時選法之毀非獨武臣之罪亦文臣執政者之過也

十四年召還李義旼義旼畏慶大升歸慶州屢召不至王懼其為亂遣中使敦諭乃至引見便殿中外皆惜王之柔懦○以鄭邦祐知御史臺事鄭允當為吏部員外郎李居正為左正言邦祐起自雷吏特授臺憲不滿人意允當年少無知其父世祐為兵馬使歛民財貨連獻內府有是拜居正無他才能林氏庇與居正有舊薦之王乃授王用人唯其近習議親署叅官以上封付政曹名曰下批由是奔競成風嬖幸有所請王問得賂幾何及則喜從其請否則遲延時日○十五年春正月甲午日有黑子大如梨二月戊寅如是三月又如星者再○兵部尚書朴純弼大營私第於東宮傍太子告曰朴尚書第為月建方不宜營造臣力不能禁請上禁之王曰朴尚書必不聽我言聞者莫不憤歎○命文臣製瀟湘八景詩做其意摹寫為圖

於園盡與畫工高惟訪李光弼等繪畫物像終日忘倦軍國萬幾不以介懷光弼父寧亦以畫知名嘗入宋徽宗初寧畫本國禮賦江圖徽宗嗟賞曰高麗畫工惟寧者妙手賜

聯額仁宗得宋商所獻畫圖以爲中華奇品召寧誇示寧曰是臣之筆也仁宗不信寧取圖拆粧背果有其姓名

○散員同正盧克清家貧

將賣宅未售因事之外郎其妻受郎中玄德秀白金十斤賣之克清還詣德秀曰予嘗買此家只給九斤耳居數年無所加飾而贏得三斤豈理也請還之德秀曰爾能守義而予獨未耶遂不受克清予平生不爲非義豈可賤買貴賣以贖于貨子若不從即當悉還其直復吾家也德秀不得已受之因謂曰予豈不逮克清者乎遂施銀佛寺聞者莫不歎

息曰末俗競利之時得見如此人耶○六月有侍御史二人與宦官會廣

真寺為流頭飲

國俗以是月十五日沐髮於東流水祓除不祥因會飲號流頭飲

史臣曰商鞅因景監見趙良寒心趙談驂乘爰絲變色是故有志之士羞托宦豎况處臺閣任風憲者而共宦豎宴會雖欲理國得乎昔范純夫為諫官東隣宦官陳衍每至其園亭不敢高拜謂其徒曰范諫議一言到上前吾輩不知死所矣殊異乎今之御史矣

工部尚書咸有一卒有一起自胥吏從軍有功補選軍記事樞密事王冲薦廉吏屬內侍力排巫覡焚毀淫祠平生不事生產其妻曰何慮子孫計吞予早孤無援清苦守節以立門戶兒輩當正直節儉

以俟命耳何戚戚於貧窶乎卒年八十○十六年秘書監崔陟卿卒
陟卿性廉介嘗補京山府判官秩滿還京足不至公卿之門者十餘
年崔允儀判吏部知其清直拜耽羅令以鎮獷俗陟卿興利革弊民
皆安之及還允儀已死居京三年貧不自存將挈家故鄉會耽羅
人苦令尉暴政以反乃曰如得陟卿當釋兵王聞之即除耽羅令
邑人見陟卿皆投戈羅拜按堵如舊凡所至皆有拜績清名勁節
老而不衰初侍郎朴椿齡守完山以聯句選郎童崔陟卿崔均崔松
年遠還其之借勸令純蒙皆為各士時號完山三崔○制曰民
惟邦本本固邦寧比來守令刻剝其民無所畏忌流離日多予甚悼焉
惟爾有司痛徵貪吏如有誅求受賄者雖微重論是後屢下懇惻之
教

史臣權敬中曰經曰其身正不令而行其身不正雖令不從明宗躬桓
靈而口文景詔雖哀痛其如五孽子七嬖招權鬻爵之弊何吏之不悛
民之不寧宜矣

九月辛酉鎮星犯歲太史奏恐有內亂請設佛頂消災道場又於明仁殿
講仁王經以禳之

史臣曰人事失於下天變應於上故日月薄蝕彗孛永流人君遇災當

躬修德責以消禍萌而察候之官專啟事佛禳禱以惑王心宰相臺諫莫有規諫者何哉

以上將軍崔世輔同修國事時有人訐重房曰修國史文克謙直書毅宗被弒事宜令武臣兼之克謙聞之懼密奏於王王不敢違武臣意然以同修國事下制世輔不請而直以史字改之克謙戲世輔曰儒官之為上將軍忝自我始武官之同修國史亦自公始○十七年秋七月晦日有食之是夜工部尚書曹元正上將軍石隣等謀逆亂伏誅初元正在近密貪暴愈甚奪中書省公廨田租文克謙請治其罪章凡五上乃左遷其子英植英迪等元正嚼之石隣者素寒賤庚寅之亂以禁軍助李義方擢郎將逐顯嘗憾西海道按察使康用儒不從其請誣構請罷王不聽隣怒瞋目張拳解帶投地而去王遣內豎勸留又命尚書梁翼京挽袖懇喻然後乃入內殿王溫言慰解隣猶偃蹇不朝日食之夜有賊七十餘人踰垣入宮格殺樞密使梁翼京等發內侍院積燭照之所至輒殺承宣權節平知賊徒無繼者乃出北門到街衢召兵至宮門外謹諜動地賊懼走出西門中郎將高安祐聞變赴關至市橋樓邊見一髡詎為病乞兒卧糞壤中郎收捕有紅燭跋在腰間囚繫鞫問乃曹元正怨文克謙與石隣石冲等謀

明宗

遣其家臣作亂也王命刑部按問具服逮捕曹石等及其黨三十餘人悉誅之○十八年秋七月定張宣豫高和六州大雨漂盡民屋又鎮瀆境內黃虫

黃鼠隨雨而下大損禾稼八月登文宣三州鎮瀆龍津寧仁等諸城大水損

禾漂蕩城郭民死者眾發倉賑之○二十年東光宗紹興元年平章韓文俊

卒文俊性雅正能屬文才名聞世歷宰州郡皆有惠政典選吏兵銓叙平

允三掌禮闈所取多名士七十謝事日共高人韻士逍遙賦詩謚貞懿○

二十一年政堂文學李知命卒知命博覽羣書善詞賦工草隸年十八擢第調

黃州書記居官廉直賑活飢民甚眾為相有古大臣風再掌禮闈若趙

冲韓光衍李奎報俞升旦劉冲基皆其所取世以得人稱之○以杜景升判

吏部監修國史李義叟判兵部金永存知樞密院孫碩王度為樞密副

使碩一日與永存同在院相詬罵如兩虎哮吼同列畏縮後景升與義叟坐省中講事相失

義叟敗畫拳擊柱曰爾有何功位在吾上時人語曰掖院李杜密院孫金有人作詩嘲之曰吾

畏李其杜屹然真宰輔黃閣三四耳拳風一萬古景升目不知書時有一醫題壁自稱玉堂

人有人嘲之曰戰將今為倭國史不妨齏酒作玉堂人聞者齒冷○

二十三年大將軍全存傑自殺時南賊蜂起金沙彌據雲門孝口據草田嘯

聚亡命標掠州縣王命存傑率將軍李至純等討之至純義叟子也義叟

嘗夢紅霓起兩腋頗自負又聞古讖龍孫十二畫受有十八子之語因懷非

望英沙彌孝心等通至純輒泄官軍動靜故以至屢敗存傑念日以法治

之則其父必害我否則賊益熾遂仰藥而免後賊魁詣闕請降金以彌投行營請降斬之又左道兵馬使崔仁擊賊于江陵斬百五十級南路兵馬使擊賊于密城斬獲七十餘級○二十六年將軍崔忠獻獎其弟忠粹發兵誅李義叟大殺朝臣語在權兇錄○二十七年秋九月崔忠獻廢王繼于昌樂宮放太子于江華立平涼公暉先是忠獻與忠粹及朴晉材謀廢立設醮告天天大雷電兩雹暴風拔木毀屋至是日又大雷電

史臣曰自鄭仲夫李義方義叟等弑毅宗竊弄國柄為明宗計當誓心自強少欲討賊而後已若曰力不足則慶天升憤王室之微弱疾強臣之跋扈一朝奉義誅仲夫父子如獐狐兔而義叟奉首鼠竄假息鄉閭此王任用賢良修明紀綱復張王室之秋也王不能然溺於宴安若義叟者特一匹夫遣一介使數其弑君之罪誅而族之可也反加招致驟登爵位使之陵轢王室殺害朝臣賣官鬻獄濁亂朝政其禍慘矣崔忠獻乘機力以起而王反見致逐子孫不保自是權臣相繼執命王室之不止若綴旒者幾百年嗚呼痛哉

崔忠獻奏黜內侍閔滉等七十餘人○以忠獻為靖國功臣三韓大匡上將軍忠粹賜功臣大將軍朴晉材刑部侍郎趙承仁判吏部事奇洪壽

明宗

判兵部事○杜景升卒于紫燕島忠獻欲廢王流景升景升性質直寬厚少文有勇力初為牽龍庚寅之亂武人多劫奪人財景升獨不雅殿門秋毫不犯金甫當位寵之役征戰有功封功臣掌吏部銓注雖內寵權貴莫敢撓之至是憂憤嘔血死

神宗靖孝王諱改暉字至○元年戊午宋慶元四年金承安三年崔忠獻捕私僮萬積等百

餘人投之江萬積等六人樵北山招集奴隸謀曰國家自庚癸以來朱紫多起於賤隸將相寧有種子吾輩安能勞筋骨於筆楚之下諸奴皆然之乃剪紉黃數十銀丁字為識納以甲寅聚與同寺趣秘庭先殺崔忠獻焚其牋籍使三韓無賤人則公卿相可得矣反期奴順貞告變於其主韓忠愈轉告忠獻遂捕萬積等投之江

○員外郎趙通以前王讓位表如金至是還禮而金宣問使孫俱來詰遜位事必欲親見

前王後詔門下侍郎趙永仁曰前王養疾南州計程三十日且至僕曰苟如是不必親

授遂傳詔于王○二年金遣使冊王○冬十月雷俄而有怪氣赤黑從鵠嶺出

彌滿京都咫尺不見人○三年晉州吏鄭方義鄭昌大等聚眾作亂殺素所

仇怨者六百人州牧使李淳中等懼閉閣不出朝廷聞之流淳中遺少

府監趙通等安撫晉州通等畏虐焰但拱手而已時陝州有賊亦橫豪為一

方鉅害晉人共方義仇者往投陝賊請兵欲擊至晉方義出擊破之盡殺

其黨○四年宋嘉泰元年金泰和元年刑部尚書閔湜率湜令謨之子豁達有大度明宗

諸小君招權納賂朝士爭附獨湜不往其弟嗣忠一月請俱往酒酣忽曰虹

沙彌輩敗國家蓋以虹一端接地一端屬天喻小君王子而母賤也○崔忠獻兼

吏兵部尚書御史大夫出入禁闈以兵自衛在私第與吏部員外郎盧瑄

瑄忠獻外戚起中并性巧黠善承迎注擬文武官以奏王領之二部判事但檢閱而已

史臣曰崔忠獻擅廢立作威福權勢日熾王室日微自古君弱臣強未

有甚於此時而當時撰實錄者恐其語洩皆諱而略之史臣之罪也

五年門下侍中趙永仁卒永仁博學善屬文少時魁然有宰相器後配享王

廟○前王薨于昌樂宮王敬美以王禮崔忠獻堅執不可降從桑妃禮太子在江華不得與襄事國人哀之○慶州別抄軍聚

黨攻永州忠獻遣諸將大發兵往擊賊聞之募集唐門山及蔚珍州田賊分為

三軍自稱正國兵馬誘贛州郡數年乃討平之○七年甲子春正月乙丑朔日有黑

子者三日王患背疽忠獻受王命立太子王薨

史臣曰神宗為忠獻所立生殺廢置皆出其手徒擁虛器如木偶人耳惜哉

降東京留守知慶州事陞安東為大都護府忠獻以東京人造新羅復與之言謀逆煽亂安東一心捍禦以全忠義

陞降示勸懲以忠獻守太師同中書門下平章事判兵部御史臺事王以忠獻有權立功不以臣禮待

之常呼為恩門相國○韓惟漢隱于智異山

神宗諱諫字不波世靖宣太后金氏○元年乙丑宋開禧元年金泰和五年賜崔忠獻功臣門下侍

熙宗諱諫字不波世靖宣太后金氏中晉康郡開國侯忠獻作茅亭于南山里第旁蔣瓊松崔頤賦瓊松

詩西制文士皆和李奎報作亭以美之○二年宋開禧二年金泰和六年蒙古太祖元年忠獻奏請

道流配者量移放免幾三百餘人○以忠獻為中書令晉康公忠獻曰公者五等之中書

令人臣之極辭不拜○四年王移御崔瑀第忠獻迎駕獻壽于閣洞之私第諸王宰樞皆

侍宴錦繡絲棚胡漢雜戲寢極侈異不可言狀○詔往年聖考祔廟之日

改定昭穆位序乖矣令宰侍文士據典禮各上封事本朝廟制九室西有新附之主則奉出主安於

本陵二年春祔時忠獻亦宰樞議順宗親盡無嗣當出以神宗祔第九室太祖在西東向

忠顯同為第一昭宣肅同為第二昭仁宗為第三昭文宗為第一穆睿宗為第二穆神宗

為第三穆至是更議衆論紛紜竟不能改

史臣曰漢書云父昭子穆孫復為昭公羊傳曰父為昭子為穆孫從王父則

昭穆之序一定不易矣今國無恒典而隨時變易昭穆之序大紊矣

五年遣上將軍金元傑如金賀即位表曰五馬渡江表晉朝之開新主六龍御極符義

惡其觸寶中書省詰云我聖上龍飛非易之見大人火府監崔甫淳辭也金主兄弟爭位

若晉朝渡江之比何用此語甫淳坐免○九月崔忠獻會賓客設重陽宴使都房

有力者手搏勝者即授校尉隊正以賞之

史臣任翊曰按國家頒政例六月權務政十月大政吏兵判事與諸同寮會

坐功者陞之罪者黜之一陟一黜皆承上命過此雖有所缺未嘗差授凡無

功者予忠獻威傾一國獨專政柄乃以眼前小戲亂其邦憲又因左右所

托或授東班權務之職其頒政無常專恣弄法未有甚於此者矣

召明宗太子璿于江華封漢南公改名貞○七年冬十二月忠獻廢王遷于紫燕島王與王濬明于承慶等謀去忠獻事泄見廢奉立漢南公貞改名

史臣曰是時忠獻執國命已有年矣廣植黨與專擅威福熙宗雖欲有為何以哉為王之計當以正自處任賢使能王室自強雖有跋扈之臣無由肆其惡矣王不知此聽用輕簿之謀欲快一時之忿卒見放黜

噫

康宗元孝王諱祺字大華明宗太子○元年壬申宋嘉建五年金崇慶元年蒙古太祖七年遣使如金

遣使冊王金使完顏惟基故入自儀鳳正門知奏事琴儀往諭曰天子巡

狩自古有之若大國枉躡小國當入自何門惟基答曰天子出入捨中門

而何儀曰然則人臣由正門可乎惟基大服其言乃自入西門○平章事任

湍卒任湍元厚之子性恬淡慈和不以勢位驕人歷事五朝居官勤恪

久掌制誥高文大冊皆出其手四闈文闈所舉皆名士若趙冲李奎報

金敬俞升且其尤者也晚年好佛配享熙廟○二年王薨太子曠受

康宗

鑣詔即位

高宗

高宗安孝王諱曠字大明曰諱曠世元德太后柳氏○元年甲戌宋嘉建七年金貞祐二年蒙古太祖九年○二年崔忠

獻移入別第劍戟兵衛彌滿數里朝士追隨者衆○兵部尚書致仕玄德秀卒德秀鐵面犀骨有膽略意氣自高言笑誇大人或譏之嘗詢安南為政廉明吏民敬畏尤忠淫祀巫覡不得入境○忠獻以李奎報為正言○

三年契丹遺種金山王子金始王子質河朔之民自稱大遼收國王建元天成避蒙兵席捲而東豎黃旗渡江攻掠寧朔闌入義靜雲燕等州皆以妻

子自隨彌滿山野月餘食盡移入唐中道遣上將軍盧元純大將軍金就礪統三軍禦之後軍郎將丁純祐突入賊中斬持毒藥者丹兵奔潰追

斬八十餘級并獲楊水尺一人楊水尺者太祖攻鄆時所離制之遺種也多居唐中道李義

徵貢至樂死忠獻又以紫唐為妾徵貢滋甚水尺等大怨及丹兵丹兵屯延州之開平原

至迎降鄉道水尺本無賞籍逃水草遷徙事敗擲又編柳器販賣

金就礪奮擊大敗之三軍又接戰于渭州敗績將軍李楊升等千餘人死詔

在權兇歸○四年五軍潰于太祖灘大將軍李義儒等皆戰死元帥趙冲等

奔還明年復以趙冲金就礪為兵馬使擊丹賊蒙古元帥哈真遣使戎軍

約同討契丹詔在趙冲金就礪傳○遷太廟神主于太常府太祖世祖梓宮

于奉恩寺後移葬于江華新都至○納熙宗女為妃○崔忠獻殺校尉孫承等

十人承等嘗贖飲於市嘆曰頃與丹兵戰有功無賂不得爵有人告忠獻忠獻遣家兵捕之並其黨百餘人斬之○賜忠獻姓王氏○六年忠獻死○

義州別將韓恂多智等殺其防守將趙宣等以叛自稱元帥署置多官諸
城響應以清川江為界投東真潛引金元帥于哥下令屯義州自屯博州相
為聲援兵馬使金君綏與宣撫使李公老議遣尹忠孝等遣使召恂智恂擁兵赴
禍福責其違盟于哥下悟陽怒即囚忠孝等遣使召恂智恂擁兵赴
之于哥下宴慰並及諸城賊魁甚厚因疏其姓名翼日伏兵設宴酒酣伏發
捕恂智及其黨悉誅之三軍請治諸賊從逆之罪全就礮曰殲厥渠魁負徒

因治大軍所臨如火燎原無辜受禍多矣餘悉不問王以銀酒鬼及苧細布五

百匹米一千石遺于哥下以酬其功○七年平章事趙冲卒○八年蒙古皇太弟

遣著古共等來索土物

獾皮一萬領細細三千匹綿子筋細學二千匹及墨筆紙等雜物又著古共等各出懷中物投王前皆年前所共處細布也遂不赴宴

又怒館待不滿意張弓持杖或射或擊館伴崔珙等奔走出門部下諭將軍金希礮開門入諭其怒稍解蒙台安只女大王遣這可等來王

問羣臣迎接可否皆曰彼眾寡若不迎接必有後患王意欲設備拒不納議未決

卜于太廟這可等未督國贖以金希礮知詩禮有膽略善辭語命為類會使

以待蒙使這可等諾其不迎接希礮曰迎迓之禮與夫國贖等事敢不盡心然君

在都護府手射又先生未可知若生則君之福死則君之一行必見拘留這

可慚服從希礮處分後又蒙稜喜速不花等未將佩弓矢赴宴上殿希礮曰

自兩國交好此俱禮服相見今欲以麋糲赴宴饗如禮何即解之又為東直使

館伴東真使唱曰東君初報暖希碑即對曰北帝已收寒使曰有何意而賦

此句也答曰君以春意唱吾亦以春事和之使不復詰○十二年宋寶慶元年金正大二年

蒙古太祖春蒙古使還渡鴨綠江中途為盜所殺反疑我遂與之絕○十三年

西北面兵馬使金希碑與判官孫襲卿御史宋國瞻議選步騎一萬餘人

分三軍往討石城于哥下遣兵救之希碑等奮擊大敗之石城主率眾出降銜

塊誓天希數于哥下背恩之罪遂還初希碑將發兵密以書告崔瑀及還

有司欲劾希碑與師聞瑀知之遂寢○十四年崔瑀遷前王于喬相殺將軍金

希碑上將軍盧之玉大將軍琴輝等初森亥人崔山甫犯罪而逃更姓名曰周演之以陰陽占術惑眾瑀召其語日親信一日密語瑀曰今王

有失位相公有王侯之相命之而在其可避瑀以語腹心希碑希碑問演之曰果有此流乎演之謂瑀曰前日密語洩恐福及會有人譖瑀曰頃者公有疾盧之玉琴輝希碑等會演之家謀害公奉前

王復位瑀遷前王沉演之之正輝希碑等于海時希碑以巡閱使在羅州捕者至略無愾色口號一絕曰敢報清河百注是東西南北惣安身奈何一朝逢天厭紫陌人蓋碧海希碑本羣山島人以監牧補散員累遷至將軍

美屈儀有智勇通書史○遣及第朴寅聘于日本時倭賊侵掠州縣寅到日本諭以歷

世和好不宜來侵日本誅賊倭遂報和親牒自是邊患稍息○十七年平章事琴

儀卒儀體貌奇癯跪度雄偉少力學善屬文嘗監清道剛直不撓民目為鐵太

守與人面折人多憚之累典貢舉世掃琴學士引年乞退琴暮自娛然諂事

崔忠獻馭歷華要諛英烈○崔瑀弟瑀作亂于洪州知事敗自殺瑀勇而猜暴自洪州心常快快

多行不義闔境苦之瑀及州官禁不聽聚羣不逞作亂殺州副使李文相及判官法曹等勳書召

前將柳松齡金壽延等于諂所乃傳檄傍郡徵兵者援朝廷聞變遣兵馬使蔡松年等討之瑀

知事敗與數十人逃匿石密自剄死按察使全懿捕松壽等皆殺之瑤使懿窮捕餘黨一切處分懿希瑤意誣殺禮山結城等七縣監務又盡殺洪州人嘗往來於瑯者重房劾奏懿擅殺流

○十八年

宋紹定四年金正大年蒙古太宗三年

蒙古元帥撒禮塔來攻咸新鎮副使全佃防守將

軍趙叔昌降叔昌謂蒙人曰我趙元帥冲之子也吾父曾與貴國元帥約為兄弟

乃為書諭諸驥使迎降耶至先呼曰真蒙也宜速出降蒙兵攻鐵州郎將文大

判官李希勳皆拒戰死之王以蔡松年為北界兵馬使以禦又徵諸道兵○

蒙兵攻龜州兵馬使朴屏分道將軍金慶孫隨機死守蒙兵不克乃退語

在屏慶孫傳○蒙兵攻陷龍宣郭黃鳳平等卅長驅而進前鋒到禮成江京

城洵崔瑀以家兵自衛守王城者皆老弱蒙兵分屯京城四門外瑀再遣

御史閔曦郎中宋國瞻犒師結和親時撒禮塔屯安北都護府自稱權皇

帝遣使來王下庭北面以迎蒙使止之王宴慰以金銀紬紵厚贈三元帥反

使者遣淮安公佺于撒禮塔佺遙拜階下撒禮塔核牒曰帝命臣問高

麗殺臣著古共之故仍索馬二萬匹童男女數千人紫羅一萬匹水獺皮

一萬頌於是遣大將軍趙叔昌齎國贖金銀鞍馬借蒙使行上表皇帝辨

殺著古共等事○十九年夏崔瑀薨王遷都江華殺指諭金世冲○秋有

乙酉王設開京丙戌入江華時霖雨彌旬泥濘沒脛人馬僵仆達官及婦女

有跣足負戴者鰥寡孤獨失所號哭○御史臺皂隸李通以開城反

高宗

遣將領三軍討誅之○金九侯射殺蒙古元帥撒禮塔九侯嘗為僧避亂于地

之王嘉其幼授上將軍允侯讓不受改授郎將○二十年命上將軍李子晟誅討龍門倉賊○又遣李子晟

討東京賊崔山李儒等誅之○西京人畢賢甫洪福源等舉城反大將軍鄭

顛死之北界兵馬使閔曦討賊獲賢甫送京腰斬福源逃入蒙古福源唐

京敗後常在蒙古遂為東京總管領高麗軍民凡降附罕餘城皆屬焉議構本國隨兵往來時人為叟主蒙兵歲至皆福源導之也○以李奎報知門

下省事戶部尚書集賢殿大學士時蒙兵壓境屢加徵詰奎報久掌兩制

製陳情書表帝感悟撤兵○二十一年宋端平元年蒙古太侍中金就礪卒○奉

安御衣於南京假闕有僧說識云自扶蘇山分為左稱曰阿思達是古楊州之地若於此地

七月至十月移安舊京十一月至明年三月又安於南京周而復始○蒙兵陷龍岡咸從三登城執其守令○二十三年蒙

官兵渡義州江分屯嘉州及安北府二州之間火氣連天遂遍慈朔龜郭之地

先鋒入黃州至信安守宰多被害餘兵百餘自溫水南下趣車峴至金州

古阜之境又分屯于南京至竹州充斥湖西海隅城邑○二十四年前王茂于

法天精舍廟號○二十五年蒙兵至東京燒皇龍寺塔○冬遣將軍金寶得

御史宋彥琦如蒙古上表乞解兵蒙古遣使賫詔來諭親朝召兵還○

三十三年宋淳祐六年蒙兩毒蟲其出身裏細網剖之如斫隨飲食入人腹中或啼人

古定京元年○晉州副使王諧卒諧少登第拜監察御史守法不撓為晉州吏畏民

懷及遷東都留守老幼涕泣請留遂復舊任沉毅剛正清白有大節其所
計畫皆利於國及卒皆歎曰國之重寶去矣○三十六年崔怡死瑤改名也內外都
房皆歸其子沆家○三十七年樞密副使權守平卒守平性純厚質直有古
人風嘗貧居逸食竄外人卜章漢田及章漢遇赦還守平袖租簿就與之
相讓久之守平竟投簿而去○三十八年守司空左僕射孫抃卒性剛毅長
於吏事剖決如流嘗按慶尚人有弟姊相訟其父臨死奉財產盡共女而共
子者緇衣冠只各二緇鞋各一兩紙一卷而已文契具存未淺抃召二人問曰若父歿時母安
在曰先止若等於時年各幾何曰姊已有家弟方髻抃因諭之曰父母之心
於子均也豈厚於長年有家之女而薄於無母鬻齒之兒耶顧兒所賴者
姊也若遺財與姊等恐其愛之或不至養之或不全耳兒既長則用此紙作
狀服緇衣冠履緇鞋以告官將有能辨者其獨遺四物竟蓋以此弟姊聞
而感悟相對而泣遂中分與之抃以妻孤聯孽不得拜清要妻勸改娶世
族抃不聽○崔沆獻酒饌于王宴諸王宰樞文武官于其第以沆為門下
侍中判吏部御史臺事在寮遙謝○四十年宋寶祐元年蒙古憲宗三年蒙兵渡鴨綠
江大至承寧公綽在蒙軍貽書崔沆諭以太子若安慶公出迎則必退兵沆不
聽蒙古元帥也密遂移兵陷西海道掠山城男女七歲者皆屠之死者四干

高宗

七百餘人連陷東州春州襄州圍忠州充斥遠近候騎至全州王命宰相文武官議却兵之策僉曰莫如太子出降王怒乃遣永安伯僖等致書于也窟也窟時在忠州

得病北還永安伯僖等追至舊京致國贖且乞退兵也窟責云國王出江外迎

吾使則兵可退也遂遣蒙古大等十人來王渡江迎于昇天府新闕蒙古大謂王

曰自大軍入境一日死亡幾千萬人王何惜一身不早出迎使無辜之民肝腦塗地

至於此子自今萬世和好豈不樂哉遂酣飲而去宰相請遣安慶公温乞班師王不

從然知政事崔璘獨奏曰愛子之情無貴賤一也然不幸有死別者殿下何惜一子

乎今民之存者十二三蒙兵不還則民失三農皆投於彼雖守一江華何以為國王

不得已而願之遂遣温借璘以行凡進饋金銀布帛不可勝計府庫皆竭科歛

百官以允其費温至蒙古屯所設宴饗士京城解嚴○四十二年李峴伏誅籍其家

况之瑞之松等五子于海 峴貪婪好殺常為選軍別監多受賄賂 辨殿尚書及使蒙古被

盈為己有銀數箱筭 ○冬蒙古元帥車羅大攻尚州遣門下平章事崔璘如車羅大

屯所請罷兵車羅大言崔沆奉王出陸則兵可罷是歲蒙兵所擄男女無慮

一十萬六千八百餘人殺戮不可勝計所經煨燼自有蒙兵之亂未有甚於此也○

四十二年車羅大屯舊京保定門外又蒙兵五千餘騎到昇天城外京城戒嚴○

崔沆進酒饌于王召太子諸王宴于內殿作樂徹夜時蒙兵壓境賊等相

望王制於權臣強設此宴○以崔瑗為殿中內給事瑗沅婢妻出也○四十二年蒙兵謀攻諸

島遣將軍李廣頌丹師禦之蒙兵南下車羅大永寧公屯潭陽洪福源屯萬陽南

至海隅東至嶺南無不被害○制下諸道被兵凋殘租賦耗以其令州縣其人耕闢

地補經費又令文武三品以下出丁防築梯浦瓦浦裡浦等地為左右屯田鄉國初選州郡鄉吏子弟實

於京謂之其人○金守剛還自蒙古守剛從蒙主入和林城乞罷兵蒙主以不出陸為辭守

剛奏曰譬如獵人逐獸入於窟穴持弓矢當前困獸何從而出又冰雪慘冽土脈閉

塞則草木豈能生武帝嘉之曰汝誠使乎當往兩國之好遂命班師車羅大等

收兵北還○平章事崔璘卒璘使蒙有專對才臨絕妻子自戕泣輩何依而生璘

微笑曰爾輩其為戎乎後俱歿戎兵果如其言○四十四年崔沅死○蒙兵三十餘騎

渡清川江趣龍岡咸從京城戒嚴時蒙兵剽掠州郡往來不絕侯兵入開京至南

京遣將作監李靚請退兵蒙將云去留在車羅大處分宰樞請遣永安公僖贈

車羅大銀瓶一百酒果等物時車羅大屯安北府問曰何為來對曰大人召還

南下兵具禁蹂躪禾穀國王遣臣奉一觴以謝車羅大曰太子到日當退屯

鳳州宰樞請遣太子以活民命王猶未決遣金軌告曰待大軍撤回太子

親朝帝所車羅大許之復遣軾費酒果銀幣戲之以觀其意時內外蕭

然計無所出但祈禱佛神而已○金守剛還自蒙古蒙古主方自將伐宋守

高宗

剛見於行營懇乞回軍許之仍遣使與守剛偕來○遣安慶公提如蒙古○四年
五年柳墩與金仁俊林衍等誅崔瑄復政于王諱在權兇錄○蒙兵侯騎一千入
遂安界屯嘉鄆二州車羅大遣人以帝勅告王曰高麗國如實出降雖雞
犬一無所傷否則攻破水內今國王及太子出降西京則便可回兵王曰予既老病
不可遠行乃遣永安公僖知中樞金寶鼎如車羅大屯所○流樞密使崔
暹于黑山島暹佃儻敢言臨事果斷仁俊聽譖構隙遂啓王流之○金
寶鼎回自蒙軍傳蒙將余愁達語云皇帝以高麗事屬我與車羅大吾
以爾國降否沒去留國王雖不出迎若遣太子迎降軍前即日便回軍是後
使者往復數四而終不出余愁達怒縱兵侵掠○蒙古誅東京總管洪福
初永寧公緝之入質也富於福源新積不平及李柵逃入蒙古依緝一日覘知福源作木偶人埋地
源沉井奏帝驗之福源怨緝妻蒙古皇後也訖于帝帝遣使馳殺福源以改其子茶丘謀陷本
國無所不至○秋車羅大兵復來屯舊京侵掠四到恣行殺擄又散古大王等願兵來屯古
和州之地今永興府龍州人趙暉是州人卓青等與登文州諸城合謀引蒙兵殺東
北面兵馬使慎執平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等於是和州迤北皆
附于蒙古乃置獲城總管府于和州以暉為總管青為千戶是後登和州
叛民引蒙古殺害本國使臣李觀等掠奪國贖處處作亂尋為我兵擊
殲○柳墩誅崔瑄掌銓注專沒機務金承俊自謂功高秩卑心常快快墩

多置甲第權勢日熾門庭如市承俊林衍等諸功臣忌之譖于仁俊以聞于王罷

敬殺敬所善者禹得奎等三人○四十六年宋開慶元年蒙古憲宗九年以蒙兵大至令多官各

陳降守之策衆論紛紜平章事崔滋樞密使金寶鼎曰江都地廣人稀難以

固守出降便○燃燈會宴諸王宰樞王再舉手以示羣臣曰凡赴宴者拍手以

助子樂酒闌王猶樂甚羣臣拍手踊躍汗流被體至暮乃罷

史臣曰國家被兵以來停燃燈宴已六年况今東北盡為賊巢西南浮寄海島

而道殣相望倉廩罄竭王當小心翼翼宵衣旰食猶懼不保慮不及此而

耽樂之征王既衰老視陰愒日固不足責矣當時之侍宴者豈無一二有識

者而拍手助樂無一人諫之何哉

三月王不豫至夏四月病篤移御閣修第承宣李應韶鄭世臣等軍圍奏

啓皆抑而不納閉門圍基擁妓酣飲時議憤之○遣太子使奉表如蒙古

以叅知政事李材等四十人國驢馱馬三百餘匹行○命營假闕於三郎城及

神泥洞從街士曰白勝賢言延基之地也○六月蒙古元帥松吉遣使來毀江都城郭時太子冒大

兩水至東京蒙古元帥松吉大王等奉帝命征高麗已發大兵及見太子聞太

子言駐馬不發乃周者等來毀江都內外城督役甚急城廊摧折聲如疾

雷街童術婦皆為之悲泣時人以謂內外城盡壞必有以也爭買船船價

高宗

湧貴○王薨時太子僕入蒙古大將軍金仁俊初欲立安慶公卒從兩府議奉

太孫謀入大內權監國事

是年五月慈雲寺池赤沫如血核勘姜度云新羅虎景王時大規寺池水赤其年薨今茲王疾殆不瘳乎

史臣曰高宗之世權臣相繼擅執國命女真蒙古遣兵歲侵當時國勢

岌岌予殆哉然王小心守法包羞忍恥敵至則堅城固守退則遣使通

好至遣太子執贄親朝故卒使社稷不殞而傳祚有永

濟州副使金之錫政清如水吏民懷服先是有廢世封者守濟州亦以清

白稱州人曰前有世封後有之錫

濟州曰俗凡男女年十五以上者歲貢豆一斛衛吏數百人亦歲貢馬一匹以故守宰雖貪皆致富或坐贓

汚之錫並錫之選廉吏十人以充衛吏

(元宗順孝王)

諱植字日新曰諱僕母安惠太后柳氏

○元年庚申

庚申定元年蒙古世祖中統元年

太孫以判禮賓寺羅

得璜為濟州副使州人語曰昔遇小盜今遇大盜

前守朱名坐贓免

○太子在京兆府聞

訃服喪三日而除○三月太子還自蒙古即位初憲宗皇帝南征太子自燕京

赴行在憲宗崩阿里字哥阻兵朔野人心慮疑時皇弟忽必烈親兵江南

太子遂南轉間關迎謁於梁楚之郊烏紗幘頭犀鞋象笏眉目如畫周旋可

則皇弟驚喜曰高麗萬里之國唐宗親征而不能服今世子自來此天竟也

與俱至開平府館待有加命達魯花赤東里大康和尚護行歸國

康和尚本晉州

人嘗被虜入中

○遣永安公僖如蒙古賀皇弟即帝位永安公還帝賜王虎

符國印允許表請天事

詔曰衣冠從本國之俗行人惟朝廷所遣餘悉禁絕古京之遺

是後兩

國使蓋相望○四年遣大官署承洪汙詹事府歸事郭王府如日本國請禁賊

船河等還曰龜推海賊乃對馬島倭也徵米

○以李藏用守太傅判兵部事柳敏守大保參

知政事金俊守太尉參知政事判御史臺事

俊即仁俊○五年甲子宋景定五年蒙古至元元年

蒙古遣使諭王入朝會宰樞議皆曰不可李威用獨曰王親則和親否則

饜王從其言定入朝之議○中郎將白勝賢因金俊奏造假關於三郎城

神泥洞親設五星道場則可寢親朝三韓變為震旦大國來朝也王信

之命大將軍趙文柱等創假闕六月移御親設大日王道場于穴口寺○

秋八月王如蒙古命金俊監國李藏用從王入朝十一月乃還語在藏用傳

○七年蒙古聽趙彝言

彝本咸安人初為僧後敍俗數入蒙古能解諸國語以譖毀本國為事

欲通和日本乃遣黑

的殷弘等來令本國為鄉導王命宋君斐金贊與黑的等往日本至巨

濟松邊浦畏風濤而還即令君斐隨黑的如蒙古奏其故又遣黑的偕

君斐來諭書以責王又遣起居舍人潘阜贖蒙古書及國書如日本亦

阻風濤不達而還於是蒙古欲征日本遣脫朶兒等來閱軍額戰艦

仍視日本水道黑山島○以金方慶判禮賓省事北界兵馬使以北界四十餘城請

方慶復來○九年誅金俊夷其族○十年林衍反立安慶公渴廢王幽于別

元宗

東史卷六

三十一

官○西北面兵馬使營吏崔坦韓慎等以誅林行高名舉兵叛○十一月王復位如蒙古命順安候棕監國○十一年林行死林惟茂叛伏誅○王至自蒙古還都舊京○六月將軍裴仲孫盧永禧等率三別抄叛于江華○十二年宦奴崇誦功德等聚其徒謀殺達魯花赤及本國在位者往投珍島賊事覺伏誅隊正宋思均告變命將軍崔文本鞠之俄而祗候辛佐宣見閭巷七八人偶語奪告曰事急矣時日將暮宰樞及承宣重房相顧失色計無所出王遣知樞密李玄原請救於脫朶兒即與洪恭兵等會宰樞捕崇誦等十餘人按問皆服恭兵欲使崇誦等辭連本國因起兵襲取京城脫朶兒執不可於是崇誦等四人棄市餘悉釋之拜思均攝郎將○蒙古遣忻都及史樞等代阿海行徑畧司於鳳州等處營軍屯田用為進取日本之計以絹一萬二千三百五十匹來市農牛於是分遣農務別監於諸道督納農牛農死于黃鳳州○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事覺伏誅其黨天瑞等八人潛投和州趙暉請兵四百餘人猝入襄州執知州事欲脅遷和州王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以去○右副承宣洪子藩奏曰比來不親聽政凡有司章奏一委宦豎中外跛望請復親庶政以慰

輿望王不納時言官與士大夫緘默自保唯子潘讜論如此○金方慶忻都等討珍島大破之語在方慶傳時蒙古兵討珍都者人馬無慮一萬八千鳳州屯田農牛亦不下五六千糧餉一令本國供辦中外皆困民食州木之實○遣世子謀入質于蒙古○達老花赤脫朶兒卒脫朶兒沉重寬厚聽斷明白未嘗枉法及疾作國醫進藥脫朶兒卻之曰我病殆不起若飲此而死則諛構爾國者必曰高麗毒之遂卒國人惜之○蒙古建國號曰大元遣使詔告○十三年世子謀久留燕京以東征事請帝而還國人見世子辮髮胡服皆歎息至有泣下者○置東西學堂以判秘書省事金軌尚書左承宣文烈為別監○大府注簿姜渭贊文習圭等祝髮而逃時大府虛竭官吏雖殫私財以供御亦不免譴責渭贊等不堪其苦辭職不許故逃去內莊宅告匱御供闕一久○十四年西海道戰艦二十七艘至伽倻召島遇大風敗沒南京判官任恂仁卅副使李龜等一百十五人溺死慶尚道戰艦二十七艘亦敗溺○以天變放囚左承宣洪子潘養釋輕囚可也如奴逆主子不孝者得免柰天意何此非修德乃招灾也若欲修德莫如大府首供御之費禁市肆侵割之害王默然○金方慶忻都等討耽羅三別抄賊平之元置達魯

元宗

花赤于耽羅○十五年元遣物管察忽監造戰艦三百艘又令洪恭立監
督徵集諸道工匠役徒三萬五百餘人又發征東兵萬五千人及漕運
東京米二萬碩仍令本國發軍五千助征日本是時驛騎絡繹軍需
工餉固有紀極元遣使齎絹三萬三千一百五十四匹來賀○元遣使來索婦
女一百四十人妻蠻子郎率以還哭聲滿路○五月世子尚帝女忽
都曾揭里迷失公主○六月王不豫薨百官遙尊世子謙為王

史臣曰王之世子也為權臣專國恣行不義蒙兵壓境中外騷然王親

朝上國摧伏權兇跋扈之志又謁世皇于梁楚之郊世皇嘉之世

結舅甥之好使東方之民享百年昇平之樂亦可尚也然其時三別抄

內叛侵掠州郡上國將帥徵求無已足宜宵旰圖治之日也顧乃

溺於宴安以致媵嬙盡其心志閭人專其出納未免洪子潘之

譏惜哉

秋八月王自元謁殯殿服黃袍卽位仍宴冊封使以衣冠子弟嘗從王為禿
曾花者分番宿衛是日忽

赤○九月壬午王詣大行王殯殿始服斬衰麻經率羣臣哭乙酉葬詔

陵釋服

史氏曰元宗之薨在六月間一月而世子以吉服受朝賀宴使臣又

閱月而始服衰三日而釋之其服也何如是其緩其釋也何如彼其急也昔康王以冕服受顧命先儒猶以為失禮今王正當哀痛擗踊之時而其失如此此聖人之懲制於斯大壞及王之薨忠宣當未葬縱情犯禮者亦多其依法所由來漸矣

冬十月金方慶頌諸將與元都元帥忽敦等征日本至一歧島擊倭大敗之語在方慶傳○遣奇蘊如元迎公主王親幸西北面逆之以

胡服同輦入國

時從行宗宰不開刺王責之蒙古俗勑頂至額方其形留髮其以禮入王不聽百官迂于國清寺門前尹

秀元卿等執撲馳馬擊逐禮服者侍從分散

東史纂要卷之三

東史箕叅要卷之四

高麗紀

〔忠烈王〕

諱 昞 古諱 諱 母 順 敬 太后 金 氏

○元年乙亥宋德祐元年元 至元十二年冊公主為元成公主○

大府卿朴楡上疏言我國男女多而尊卑止於一妻其無子者亦不敢畜
 妾異國人來娶妻無定限臣恐人物皆將北流宜令臣僚許娶庶妻隨品降
 殺庶人亦得娶一妻其庶妻所生子皆比適子得仕于朝怨曠以消戶口
 日增疏上有宰相畏妻者寢其議楡嘗言東方屬木木之生數三而成
 數八東方之男寡女多理數然也婦女初聞楡疏論莫不怨懼會
 燈夕楡扈駕行有一嫗指之曰請畜庶妻者彼老乞兒也聞者傳相
 指之街陌之間紅指如束○王及公主幸北山洛山寺自是屢行寺院
 至於出獵遊觀公主無不與焉○罷全羅道摺察使安戩長興府
 使辛佐宣時鷹坊吳淑富等怙勢肆暴戩及佐宣疾之不禮淑富
 等譖王罷之後承宣李汾成言於王曰淑富多行不法戩等不從其
 欲今聽淑富譖罪戩等豈不累聖德王曰予固疑之○禁白衣太史
 局言東方木位也色當尚青而白者金之色也國人自易服多褐
 以白紵之衣木制於金之衆也請禁白色從之○初作宣傳消息

忠烈王

舊制凡命徵求必下宣旨王即位旨宣頻煩州郡疲於迎命李汾成達白小事不足煩宣旨請令承奉宣王旨作書署名紙尾發下諸道

按察守令謂之消息於是消息蜂午卅郡苦之○王問李汾成曰

聞中郎即將以不得臨民之任為憾今欲交差如何對曰武人

有更才知民事者蓋寡如有才兼文武寬猛相濟者無論東

西使之臨民可也王納之庚癸以來權臣柄國始以武官補外及

承宣朴恒掌銓注言於王曰東班必補外然後得授朝官西班循

次以進不必補外至是武官托左右請復之○定朝官服章宰樞

以上玉帶六品以上犀帶七品以下黑帶改定官制○二年改宣旨曰王旨朕曰孤赦

曰宥奏曰呈連魯花赤○僉議府上言內僚微賤者皆以隨從之

勞許通仕路混雜朝班有乖祖宗之制請收成命王怒囚詔文主事

命右正言李仁挺勿視事國制內僚職限南班七品元宗朝始通其

孫訴入臺○王與公主如興王寺公主取黃金塔八內將毀用之王

禁不得但涕泣而已又令忽刺互括大府寺銀八內○置通文館

令禁內學館七品以下年未四十者習漢語文學事金叅○密直副

使崔文本卒文本惟清之後姿魁梧性高倨沉重不苟俯仰有大

曷音

臣體○參文學事俞十遇卒十遇聰敏多機辯為崔怡門客多

受人饋遺言與行違睚眦必報嘗為史官不修史曰當時國事皆

晉陽公所為吾蒙厚恩何敢傳其悉於後世耶○濱州吏金遷

得母於遼陽以歸初高京末遷母與季子德麟被擄於蒙兵時遷年十

五傳聞母死服哀終制後十四年見母書云予在京卅

東家為婢遷痛哭賫白金與本國譯人入北卅得母於軍卒要左家以白

金五兩贖之德麟亦為奴在隣天老家東京總管給厨傅送遷母至濱

卅其夫家行無恙相見為夫婦如初後六年天老之

子携德麟來遷以白金八十六兩贖之同居終孝

節至元奉幣禮畢亡宋幼主後至帝命坐皇太子下有司請方慶

與宋群臣坐次帝曰高麗慕義自來宋力屈乃降何可同也皆下坐

賜方慶金符○僉議府言公主怯冷口及內僚廣占良田受

賜牌不納租稅請收還不聽法作口草言私屬也公主立府置僚因緣

作弊先時公主置密直金使奴牌三百餘

人又以松子入參送江南獲厚利分遣

宦官徵求二物或非地產尼甚苦之

忠烈王營繕是日王暴得疾彌劇宰樞請停營繕縱鷹鷄與王寺

金塔在宮請還之公主皆許王大喜○王核御天孝寺王先行公主

以陪從寡小怒還王不得已亦還公主以杖迎擊之至天孝寺又

以王不待而先入且詬且擊欲還竹坂宮聽幸臣廉承益之言乃

止○內豎梁善等告曰慶昌宮主與其子順安公琮謀令旨

僧呪詛上欲使琮尚公主為王王呂琮親訊宰相詣宮門請釋公主

請王籍其家初元宗愛琮賜貨寶無算至是公主盡取遣使告

于元帝任王處置王廢宮主為庶人流琮海島○四年宋帝昺祥興元年元至十

五年流金方慶于大青島石司議鄭興辭職歸羅卅時李沆禧兄弟

附茶丘醜釀金方慶之罪興恥與同朝乞歸養母王慰諭遣之尋

召還○令境內服元衣冠時宰以下無不開剝唯禁內學館不剝於是學生皆剝○王及公主如元

王上壽于帝帝問官軍騷擾狀命罷忻都茶丘軍合浦鎮戍軍皆還

九月王與公主至自元凡國家故事王奏請除之國人頌德感泣是

後王及公主連年八元或一歲至再○流李沆禧李禧于海島尋殺

之禧恃寵政有不便心爭之內僚請謁皆杜絕其徒劫齒會韋

得儒事起沆禧潛詣茶丘禧亦勸王勿令方慶知國人謂禧兄

弟有二心至是內僚諷王召方慶密議流二人俄聽譖沉于海禧

曰吾以兄故死人皆惜之○新置必閣并以朴恒金周鼎李之氏等為之又以內僚鄭承伍等五人為甲聞色舊制凡國家事宰樞會議令承宣面宗旨而行周鼎建議今宰樞既衆無適諫政宜別置必閣亦委以機務又內僚不可皆令啓事當更擇人為甲聞色自是恒等常會禁中叅決機務歸別廳○五年元至元十六年作新宮于竹坂洞撤民家三百餘戶○用樂祀新殿鷲尾

史臣曰臧文仲祀爰居以金奏夫子謂之不知况用樂以祀巨鷲乎

日本倭人殺元使初帝遣使日本王命古人徐贊及梢工上左等三十餘人導行倭人皆殺之惟上左等四人逃還○遣許瑛于慶尚道

洪子藩于全羅道修造戰艦九百艘冬元遣使督修○十一月癸

丑火星食月伍允孚泣白于王曰火星食月實非常之變非飯

僧事佛所能禳也願慎厥身修以消災變是日放造成役徒允孚

語典法惣郎朴仁澍曰典法何多滯訟耶仁澍曰內旨如雨安得不

滯○六年元使塔納至出嶺站瓮津等縣人告曰吾邑民盡隸

鷹坊子遺貧民何以供億待死而已塔納來責宰相曰東民

獨非天子之赤子乎困苦至此而不之恤朝廷馳一使問之何辭以

忠烈王

對宰相白王王怒請欲回之見信於帝者來管鷹坊趙仁規力

諫公主亦言乃共○王親試文臣取趙簡等九人賜黃牌籍內

侍王親試文臣中者謂殿試門生待遇異常然只試當年登第者

幸僧祖英請不限登第久近並赴將其姪子宜等試稟達王請

拆糊封定科目取十五人以子宜為首餘皆親舊王召

朴恒郭頽改考及榜出趙簡居首皆非祖英所定○七年龍化院

池魚死浮出無數伍允言甲戌年東池有此怪而元宗晏駕請

王修省允言質朴每以灾異切諫王憚之○五月忻都茶立金方慶

等舟師征日本敗績所支兵糧十二萬三千五百六十餘碩已而罷征

東行省○王與公主幸慶尚道按廉閱萱苟容自衛專擅啓事

以媚於王人謂內按廉俄賜王旨別監林貞祀及閱萱帶紅特

人語曰如今邑宰紆朱紵盡是生靈血染成○以昇平府使崔

碩為秘書郎昇平舊俗邑守替還必贈以八馬惟所擇及碩還邑人

例持馬請擇碩笑曰馬能至京足矣何擇為至家以馬歸之吏不受

碩曰吾守汝州吾有牝馬生駒今帶以來是我之貪也汝之不受豈非知我

之貪而以我為貌辭耶並其駒授之自是其弊遂絕州人頌德立

石蹄八馬碑○八年秋王與公主改于忠清道至十月乃還公主渡

臨津怒曰遊改非急務何為引我至此王無以對次安南公主責

尹秀曰此地無鴟鵂何誘王遠來王慙憤露坐於外將軍朴義獲
一鵂來王大悅賜衣時尹秀朴義等導王遊畋世子年九歲忽泣
下曰今茲百姓困窮又當東作父王何為遠獵顧謂朴義曰每
以鷹犬從與吾君者此老狗也○元遣使來修戰艦復征日本也
分遣使于沿海四道董之元又送楮緡三千錠為修艦費本國庾
賙言於帝曰以蠻夷攻蠻夷中國之勢也請令高麗蠻于征日本
備兵糧二十萬碩帝許之禿魯花金忻等謂賙曰汝非黔嚚資
諒之孫耶而欲壞國家如此賙曰汝國王如泥塑佛身尹秀李貞
等剽民所取亦足以備軍糧我欲去左右姦臣復正三韓也重
房調東征軍有撤屋而逃者奪其田以與從軍者遣部夫使于
諸道備兵糧又令諸王百官工商奴隸僧徒出軍糧有差已而帝寢
東征○戊申夜有物赤如火大如斗漸如席隨于順昌宮流星相
繼而殞既而暴風作火起宮中焚蕩無餘王召文昌裕伍允孚曰
嘗言當有火災何以知其然耶對曰天譴章章此猶為小災也○
還

還

十年夏王及公主世子如元九月扈從臣僚一十二百餘人賞幣銀布巨萬計○典法判書

忠烈王 金愔死時貞和院主有寵於王認民為隸民訴于典法司有旨

督令斷與貞和情與同僚知其寃不能違惟郎李行儉死執不可會疾作在告情等遂斷為隸有人夢利刃自天下亂斫司吏更明日瘖疽發背死同僚相繼死惟行儉免○十二年東寧府十戶崔坦來享王

史氏曰賊臣崔坦背本國附胡元割國之半而據之噬主之心信然未已王何不察待仇讎如腹心甘受其享乎

以內豎上將軍金子延為東京副使公主謂王曰予聞東京是王之外家然乎曰然公主曰家奴為邑宰可乎南班人得居中外重任始自何代王曰自元廟始公主曰王真元王之子也王有慙色王留意音律嘗使內豎與伶人鼓樂公主遣人告王曰以絲竹而理國家非所聞也遂罷之○九月王及公主幸南京時木稼未收皆為從騎蹂踐南京副使嚴守安勸王幸三角山文殊窟鑿山開道一方騷然王以守安為能賜三品階○十二年王欲以叅官授一內官左承旨安戲執不可王強之對曰題品銓注豈臣所堪乞擇賢者代之言甚剴切王怒起入內殿隨之啓曰臣罪當罷內豎叅官之命乞須後日王已逾闔顧而厲聲曰可左右皆懼戲退

徐曰殿下許臣矣遂削去擬碟戲典銓注每守正不阿時稱鐵饒
○夏五月王獵于西海道宰相伏閣諫不從後又農月以獵騎二千
五百出畋宰相切諫怒不聽○十三年三月監試試員林貞杞享王
故事掌試者宴賀客近年先誠享王謂之呈品遂為常例○五聞
乃顏叛遣柳庇如元請舉兵助討已而柳庇還言帝已親征乃
顏擒之罷諸路兵命王八賀王召世子八朝全羅道王旨別監權宜
以銀四十斤虎史二十頌助世子行李費世子曰此物皆剝民歛怨恚
還其主○萬戶韓希愈等享王酒酣王起舞自歌王屢於席輒起
舞公主止之不聽○賜尹宣佐等及第國制科舉之目乙科三人丙科
七人同進士二十三人世以同進士官不達人皆惡之宰相蔡仁規子禍
名居同頭王嫌之問於李混加丙科八人置禍其末○十四年知都僉
議司事廉承益免時洪子藩首相承益次之承益得幸兩宮常居
禁中稀至都堂一日子藩先出仁規語承益曰國人謂洪公真宰相
相謂我為老譯謂公為老况我等不預真宰相之目唯當勤朝
衙夕直耳承益即日辭免○禁慶尚道勸農使獻細麻布先
是勸農使蔡謨多歛細麻布獻于王又賂左右權貴及李德

忠烈王

孫薛仁永等為代倍增其數布極細民甚苦之王聞之有是

命○世子以各道勸農使聚斂傷民自王罷之以按察使兼其

任時世子年十四嘗踞內僚元奕膝上奕曰人主不宜聰察殿下

聰明太過宜小寬容世子作色曰汝輩使我癡暗持弄掌上如

軟餅子奕懼○副知密直司事林貞杞死貞杞雖以科第進昧於文學

嘗掌監試不能命題為王旨別監務聚斂權貴驟遷擢至是

彙死時有宰相洪休女寡為尼喜言人短公主欲問民間事令出入卧內公主聞貞杞死有悽愴色尼在側謂曰貞杞之死不足怪也以

血成身其死宜速謂割民血以立其身也公主勃然變色○流前樞密院副使洪文系于海

島時王及公主選良家美女將獻于帝文系之女亦在選中文系賂

權貴圖免未得遂剪其女髮公主聞之大怒囚文系痛加酷刑籍

其家又囚其女問剪髮之故女曰我自剪髮父實不知公主使人

曳髮以鐵鞭亂捶身無完肌終不服辜樞及金方慶等詣殿門營

救不聽流之卒以其女賜蒙古阿古大○十五年元以遼東饑遣使

來索軍糧令羣臣出米有差以船四百八十三艘運米六萬四千碩于

蓋船卅敗者五十餘死者百數十人○王及公主世子如元時彙從

邀功者象增減未定乃以史官無關於事不許彙駕史臣不從

行始此○十六年王及公王世子還帝詔罷東寧府復歸北西北
諸城王拜其摠管韓慎柱文庇為大將軍玄元烈為大僕尹復
置西北路諸城守令○元叛賊乃顏餘黨哈丹兵入東鄙至雙
城陷和州登州殺人為糧遣萬戶印侯御示之王避兵于江華王京
雷守宋坊西京雷守鄭仁卿皆棄城不守於是列鎮守將望風而
遁賊遂踰鐵嶺闌入交州道攻陷楊根又攻原州雉嶽城進士元冲
甲擊敗之自是賊鋒挫銳諸城亦堅守始有輕賊之心元亦遣將軍
薛閣于那蠻等領大軍與我軍合擊哈丹于燕歧正左山下大
敗之追奔至公州伏屍三十餘里溺死者甚多賊騎十餘渡河
而遁復整兵來韓希愈馳馬突入賊陳手扼出最勇士一人
斬其首揭槍以示賊皆褫氣兩國大軍從擊又大敗之哈丹父
子二千餘騎遁去初閣薛于大軍次金嶺驛印侯使奇孝真占之遇
擒曰既曰戰勝又曰不擒何也薛閣于軍令嚴肅秋毫不犯聞賊屯燕
歧併日而行二戰而破皆其力也不受慰宴遂即班師○分遣金忻
韓希愈羅裕于竹田忠清交州等道追捕哈丹餘賊賊五百八十人
降于希愈郎將李茂遇賊于平壤與數十人捨舟登山賊象環山

忠烈王

飛矢如雨茂儂樹立謂軍士曰男兒當死中求生母恐關弓左射
中賊將喉應絃而倒賊中自亂茂等大呼追擊斬馘無算○元船
運江南米十萬碩來賑以世子嘗奏國人征役失農饑饉之故也
遂頒米于七品以下帝意本在賑貧今不先貧富者所得居夏
○十八年春正月復都開京○擢軍金延壽還自元報世子還期
且以世子言白上曰聞歲歉民饑車駕所至供億不貲願上毋出
迎境上况不可父為子屈也其宮僚應出迎者毋得過西普通
王怒曰世子言不當如是

史氏曰父子天性也慈孝之心油然而生而不能已今世子之失言
於王王之加怒於世子實悖於天性以一小釁而嫌隙遽萌明者
已知有後日父子相殘之變矣

五月世子至自元設漿街市施餓者三日○七月遣世子如元賀聖節
一日帝召世子入寢殿問曰謨何書對曰謨通鑑帝曰歷代帝王誰
為賢明對曰漢之高祖唐之太宗帝又問曰漢祖唐宗孰與寡
人對曰臣年少何以知之○王以帝命遣監察御史金有成為
宣諭使直文翰署郭麟為書狀官令護送日本人還其國時

狀書闕人皆計避麟忠直有文章語衆曰事不辭難臣子之義
宰相聞之遂充書狀婦翁崔謁欲謁宰相覆奏麟奮然曰死
一也死國事不猶愈於死妻子手刃遂行日本嘗憾東征皆拘雷
不還二人存歿世不得聞○二十年春正月王與公主在元上年冬世祖
皇帝崩上都迎皇太子即位王請改號羅帝許之改號秋八月
王還○般運米前後三萬五百碩于遼陽先是元為東征運江
南米十萬碩在江華遼瀋皆賦帝詔以五萬碩運賑○二十年
元城宗元遣大將軍劉福和等送錢幣于世子時世子請婚其費不
貞元年貲料歛朝士白金又減慶尚道租稅白金一斤折米三十碩徵求火
急又全羅忠清兩道家抽麻布以軍糧抑買齎一萬四千匹航海
往益都府市楮幣○世子至自元以世子判都僉議密直司事
洪子藩知都僉議司事世子署事于都僉議司及八朝于王女
庶人遮道擁馬上書訟冤馬不得前

史氏曰世子之於君父視膳問安之外皆非所預今忠烈除世子
為都僉議使之署事忠宣以世子奏請除臣僚又受冤民
訴訟父子胥失之卒至忠烈謀欲廢嫡忠宣釐制君父相

夷之禍已形於此由其不通春秋之義也後之為人君者可不戒哉

監察御史許有全被讒囚巡馬所將撻于市無敢救者巡馬指諭

高宗考弓白王曰監察為王耳目糾彈百官今以小人之讒撻于市

人以上為何如王再三譬解得免○二十二年王夜宴于香閣見壁

上唐玄宗夜宴圖謂左右曰寡人雖君小國遊宴安不可及明皇

自是夜以繼日奇巧淫枝無所不至又以羅網于匹至宴日則粧

飾花階久則換之時有梁州妓謫仙來者得幸於王一日內宴唱

歌詞太平曲王變色曰此非能文者不能誰為之耶妓對曰妾之兄

弟金元祥朴允材所製也王喜曰有才如此不可不用遂除元祥通

禮門祇候允材權務○賜前密直閔漬米一百碩王嘗遣內僚高

汝舟令漬製詩漬饋汝舟白酒青菰汝舟還白其清貧故有此賜○

王與公主如元以世子婚期催入觀世子尚晋王甘麻刺女寶塔實憐公主幣用

白馬八十匹又獻太后及晋王各白馬八十一匹晋王將之國帝幸其邸

餞之王侍宴酒酣起舞公主歌之○二十三年元大德元年元刷遼陽路已未

年以後被虜及流民三百五十戶故之○五月乙卯王與公主至自元

時壽寧宮香閣芍藥盛開公主命折一枝把翫良久感泣壬午公
主薨世子自元奔喪殺閣人陶成器等四人又治巫蠱事殺宮人

無比即王幸姬稍得呪詛狀悉斬之國人震懼

史氏日記文王世子曰父在斯為子君在斯為臣以所尊君親親
也今忠宣之為世子也帝元朝之寵輕視本國其奔母喪略無顏
色之戚哭泣之哀而遽收王之宦寺與寵姬而斬之為子則悖為
臣則逆父子相猜終至竄逐為天下笑者皆自取也

二十四年戊戌春正月元遣威寧侯王維詔王傳位於世子從王奏請也明世子自元初還

封王為逸壽王世子諫即位自正月丙午至八月壬申王率百官奉錢上尊號太上王

居德慈宮○王下書徵前司諫李承休語在承休傳○罷政房以翰

林院主選法令學士崔岳等四人及承旨金昇掌銓選○改官制以

執員多議論異同宜多減省又百官名號同上朝宜改者或罷不急之司合於一局官省而易理也以趙仁規為司徒侍中

衆知光政院事洪子藩為左僕射衆知光政院事罷承旨房以出納

委之詞林院○賜詞林學士朴全之吳漢卿侍讀學士李瑱侍講學

士權永紅鞮王常屏左右章詞林院與四學士商確政理手賜酒食

從容盡日或至夜分賜紅燭送至其家○公主遣徹里如元奏趙

忠烈王

附忠宣王

仁規妻呪詛之事帝遣使執仁規及趙妃以故趙妃仁規女也公主妬趙妃專寵怒甚作良吾兒字書

付闕閣不花等將如元達于太后畏吾兒古回鶻也王懼白太上王上王草公主

所慰解之不聽至是有人貼匿名書於宮門云仁規妻事神巫呪詛使王不愛公主

而禮愛其女公主下仁規及其妻與子皆等獄乃遣徹里如元養之元使鞫問

仁規妻極慘酷誣服遂執仁規女皆崔冲紹朴瑄及趙妃以故杖流仁規于安西

冲紹于

鞏昌○都僉議發理柳陞卒陞璪子也咨止可觀事親以孝居勤官以

於聲色化貞利淡如也時禮文散失陞撰新儀甚詳後人遵用之○八月

元遣寧魯兀等來趣國王公主八朝王與公主婚如元上王賤于金郊

酒酣寧魯兀以帝命取國王印授遂壽王幸壽昌宮受帝詔復位寧魯

兀之來十日而國人不知有此語○下左司諫秋適獄時闈人黃石良黃

緣用事與適有怨譖之王怒即令械囚巡馬所押者欲由徑行適

曰凡有罪者皆改有司未有枷鎖于王所者吾當行官道使國人見

之何必效兒婦掩面李巷字○復舊官制○二十五年萬戶印侯金

忻等擅發兵執萬戶韓希愈等十餘人初印侯與希愈有宿怨謀

傾軋之會僧日英構誣語希愈等謀不軌侯等聞之擅發兵執希愈

及上將軍李英柱等十餘人告行省左承哈散曰希愈等將殺侯忻

挾王竄海島哈散密令審驗知其妄策已執希愈請與王訊之鞠

希愈凡八日竟不服惟英柱仁儉誣服日英逃候忻與其黨將如元

詐帝王使承旨金深雷之不從流希愈英柱于海島餘皆杖之○王
 押昵羣小嗜好宴樂偉臣吳祁金元祥內僚石天補等務以聲色
 容悅選中外官妓及巫女善歌舞者籍置宮中衣羅綺載馬尾
 笠別作一隊教以新聲天補輩各私名妓日夜歌舞之喪慢無復君臣
 之禮其歌曰三藏寺裏點燈去有社主方執吾平倘此言方出寺外謂上
 座方是汝語又云有蛇含龍尾聞過太山岑萬人各一語斟酌在君心
 ○以中贊宋玠監修國史安珣修國史閔漬同修國史○二十六年
 上洛公金方慶卒年八十九○閻里吉思欲革本國奴婢之法王上表云我始
 祖垂誠後嗣凡此賤類其種有別若許從良必通仕路謀亂國家由是
 小邦之法八世戶籍不干賤類然後乃得筮仁凡為賤類永勿許為
 良伏望仍舊俾從國俗吉思擅權納賄自宰輔以下稍忤於心或杖
 或囚一國之人無不行賂後元以吉思不能和
 罷人民罷行者乎章○二十七年併省內外官
 其官名有同上國者悉改之又以芝黃代赭袍紅傘代黃傘除舞蹈
 警蹕之禮○慶尚道按察使朱印遠貢二十升黃麻布王令左右
 爭取為戲宰相言於王曰印遠歛於諂事左右又惡聞烏鵲聲常
 令人嚇以弓矢一聞其聲即徵銀瓶民甚苦請罷之王欲以金貂代
 之宰相曰是以暴易暴也王不聽以貂為按廉使印遠仍舊時有

忠烈王

一內僚白王曰聞諸道路宰相朱悅無子天道不知王曰不有印遠
子對曰悅清直絕倫印遠貪邪無比故曰無子王笑○僉議致仕
薛公儉卒公儉性廉謹好禮朝官有喪不論否知必往吊有造謁
者無貴賤倒徒出迎嘗臥疾蔡洪哲入臥內問疾布被莞席蕭
然若僧居出而歎曰自吾輩而望公所謂壞蟲之與黃鵠○二十
九年元遣斷事官帖木兒不花翰林李學士來命崔有滄韓希
愈執石曹及其子天補等赴京時吳祁以讒倖得幸於王洪子潘元冲
甲等率三軍圍王宮執吳祁送元語在子潘傳○王聽采璘之謀請
入朝欲沮前王忠還又國請以公主改嫁瑞興侯瑛欲為後瑛神宗子襄陽公怒之會
孫也至西京帝不許八朝乃還

史氏曰忠烈信用檢小膚慙離間之計既沮忠宣還國又欲改
嫁公主凡所以傷骨肉之恩滅父子之親者肆行而莫之恤傳曰
君不君則臣不臣父不父則子不子忠烈之不君不父若是何暇責
忠宣之不臣不子乎

元遣刑部尚書塔察兒翰林直學士王約來謂王約曰天地間至親
者父子至重者君臣彼小人知自利寧肯為王國家地也王泣謝曰臣

老老聽信儼邪以致此今聞命願奉表白且請前王還國其小人黨與

悉聽使臣治於是執宋璘囚征東省數其罪因謂王曰人有疾得醫

必愈今我之來誠王之藥也○遣齊安公淑上表請還前王表略曰辛

緣早歲之忠勤獲衣先朝之整隆降方初得子雖憐災止於階珠及至成人割愛令改於

沃闕既累生孫於帝側又曾尚主於日邊喜極事乖情疎奸人以此從於膚受江

忍有池如能辨其面欺王何為石不明由已可責在臣况小邪又

懷穰李之險能保苞桑之業歎昔人之難復思佳婦之足憑○囚內僚宋均

于巡軍已而王釋之初王以洪子潘言表請前王前密直宋邦英前承亡日

宋璘等悉前王說王作良吾字書獻于帝沮之遂以金寶印白紙十二

幅授均入京師凡可以沮毀前者隨宜作書獻于帝會帝不久入朝之請

均不得施其詐藏其紙于宦者福壽家乃還後郎將李承兩賈其紙東還塔

察紀敏遇諸道取見還付承兩二幅曰汝敢示介國宰相以其餘幅上中

書省承兩還國告宰樞白王囚均王命釋之宰樞不肯使衛士召均

至宮門釋之已而元遣兵部尚書伯伯劉學士來以帝旨問王曰

有以良吾文字請沮前王子曰不知宋邦英宋璘等入說王使承旨金

子興持良吾文字草本以示使臣曰我倉卒承問輒以不知對既還

得此書於箱篋但忘之耳伯伯怒辭王聽乃與王鞠邦英等于行省

忠烈王

王出言若將救之者伯伯曰有臣如此不治其奸後將益甚邦英被

縛乃服於是押送邦英等于元時帝寢疾政在中宮邦英宋璘
等黃緣左右圖免而還王各賜衣○贊成事安珣建議置國學

贍學戲語在珣傳初王聽元耶律希逆之勸重新文廟至是告成王詣

國學謁先聖七管諸生迎謁於道獻歌謠命王密直使李混作八學

頌林元作愛日箴以示諸生○元杖流吳祁石天補兄弟于安西○

三十一年召僧紹瓊于宮中

紹瓊上年自江南來遣承旨安于器郊迎

王與淑昌院妃受普

薩戒中贊韓希愈承旨崔崇曰秘記云國君敬南僧必致覆山之

禍願殿下慎之不聽○王如元韓希愈王惟紹等二十九人從行

宋邦英宋璘異

路行前王恐王宋之徒從至京師恣具兇謀乃請於丞相荅剌罕使洪

子潘崔有滄柳庇金深金延壽等五人亦從行○三十二年僉議中

贊致仕安珣卒○王在前王邸左右聲言王欲與前王俱東還王

惟紹宋邦英韓慎宋璘等與其黨宋均謀因王仆地折齒勸王徙

舍於寶塔公主之所自幸計得因乳母及寵宦者譖前王於皇后

又譖於左丞相阿忽台平章八都馬辛曰前王素失子道不諧公主故

我王疾之欲以瑞興侯璉為後者非一日矣為前王計誠宜改過自

新以供子職而我王舍其邸又不謹侍奉至使仆地折齒我王雖欲

勿怒得乎前王夙願為僧而省官不聽今若使之祝髮令瑛繼尚公
主則前王之願遂而我王之志得矣阿忽台八都馬辛皆許之公主
素不謹行見瑛貌美遂屬意於瑛惟紹等見右丞相答剌罕又
譖前王如告阿忽台答剌罕曰益知禮普化王世祖之甥也寶塔公
主亦宗室之女也改嫁廢嫡於理安乎惟紹等謀既洩洪子潘等
五人詣中書省言惟紹等離間王父子逆理亂常罪甚焉省官
遂囚惟紹等四人繼而從臣高世金文衍等七十人上書中書省極
論惟紹等罪狀且請奉王而還省官奏之以促行王無以為計乃飲
藥發痢疾自夏至秋不起公主聞惟紹被訴怒甚杖文衍使人守
戶禁其出入王所於是諸從臣皆離散惟秘書丞李兆年內豎崔
晉侍○三十三年元成宗崩前王與皇姪愛育黎拔力八達及
右丞相答剌罕定策迎立懷寧王海山為帝奉太子海山即位立弟
入達為太子愛育黎拔力捕王惟紹及黨惡者遷王於慶壽寺王所任使者悉罷之即
以從臣權漢功主選法除拜所親信者王拱手行印而已國政盡啟
於前王逮捕惟紹之黨及有宿憾者中贊宋瑒等三十六人籍其
家而流之乃誅瑞興侯瑛王惟紹宋邦英韓慎宋璘宋義崔涓等

忠烈王

父子兄弟皆沒為奴以韓希愈生時略無規諫竄其子儉于嘉州
復其吏役希愈嘉州吏善騎射有膽力從金方慶討珍島有戰功
遂至宰輔性樸素家無蓄積從王入朝卒于元

史氏曰王惟紹等離間王父子之罪固所當誅然讒人之離間父
子者豈無自而然耶忠宣流父王近臣殺父王嬖妾傷父王
之心失子道既多至是王之父子俱在上都各樹黨援自相傾
軋至於逼遷父子之變於斯極矣忠宣不能改行自新積怒
於父王左右之臣而盡誅之是可忍乎哉

元遣王還國○國學大司成致仕尹諧卒諧初調尚州司錄人
有私其妹者時久旱諧曰殺此人天乃雨長官不聽諧乘馬立
道上出其人數罪乃以石壓首即死天雨三日後八內侍從王入
元掌行李無所私人桶其廉性抗直不畏豪勢臨事果斷人
不敢欺家貧饘粥不繼煎豆充飢而已○以前王命遣直史館
尹頌奉先代實錄一百八十五冊如元人皆不可口祖宗實錄

豈宜出之他國子○三十四年元武宗至大元年秋七月王薨於神孝寺

遺教機務委付瀋陽王王嘗與金壇李松縉等唱和有龍樓集○八月壬子前王

自元奔喪詣殯殿八哭百官以玄冠素服侍立甲寅即位于壽

寧宮及群臣賀禮未畢天大雷雷雨雹○戊寅幸神考寺遂幸
王輪寺住持仁照進茶繼以肉膳○幸龍化池中護金深享王○
樂浪公金暉享王于男山書齋於是宰樞日進膳爭極豪侈○
冬十月葬慶陵王哀麻經至山陵葬訖乃還釋服

史氏曰八月壬子王來奔喪十月丁酉釋服其間喪葬之事一
不書策或食肉或受享窮極奢侈之事情書再書不一書
而止其於古先聖王制喪之禮何如哉王之於大行生不能
事之以禮死不能盡其誠生死之間俱失子道於忠宣何足
責哉

王幸許瑒家納故平陽公暎妻許氏又幸金文行家孫淑昌院妃
監察糾正高倬持芥束蒿上書敢諫語在倬傳○元遣使冊
王○命傳八關會王自移御金文行家淑妃日夜嫵媚百態王
感之不親政有是命○王如元

忠宣王

諱璋字仲昂古諱源
母齊國大長公主

○元年己酉

元至大二年

○立權鹽法王欲備

忠烈王
忠宣王
二碩令用鹽者皆赴義倉和買嚴禁私鹽益及私貿易者又

發民為鹽戶民甚苦之歲八諸道鹽價布四萬匹○元遣遼陽首宣使劉顯等來造船百艘皇太后欲營佛寺洪福源孫重喜奏白頭山多美材若發潘陽軍二千伐之流下鴨綠江使高麗舟載以輸便於是遣使造船輸米三千碩弊不可言西海交卅楊廣民尤受害○二年王在元欲傳位世子鑑密令人撰表尋為從臣所沮未幾殺世子及從者金重義等

史代曰忠宣之殺世子前史不言其實今不可考但初欲傳位則世子之無罪也明矣今日不憖大寶視之如脫屣明日推刃愛子斬父如刈菅豈無自而然歟忠宣自八元朝信讒近佞父子之間護隙已成心置之死地而後已嗚呼孝慈天性也非由外鑠我也忠宣獨奈何語為子則不孝於父語為父則不慈於子悖德悖道至此極矣

以柳清臣為僉議政丞判三司事改諸司及卅郡號○以八元宦者李大順等十六人同日封君初安平公主嘗薦數宦於世祖頗得親寵至有奉使來復其家官其族於是殘忍之徒轉相歆慕父官其子兄官其弟又有強暴自割者不數年刀鋸之輩甚多

成宗皇帝以來閣人用事有官至大司徒王在京數出八三宮因
狎此輩並封君由是選法大壞熏腐未燥者亦輕視本國○僉
議中贊金之淑卒性廉潔剛正三別批之叛陷賊不污密以賊狀
達于官軍後賞以官閣里吉思為行省凡奴婢其父母一良者欲聽
為良宰相莫有止之之淑獨引世祖從本國舊俗之詔曰此例具
在不可變更閣里吉思不復言○三年僉議贊成事致仕權坦
卒坦性耿介不苟合嘗有遁世之志父題強畱之仕為禮昂猛价四
卅副使皆以廉明稱嘗按三道行文書俱用鈔板未嘗發一使令行
禁止酷信浮屠斷薰肉四十年自號夢庵居士既老一夕遁入禪興
杜剃髮子溥馳往大哭坦曰將復鬚髮我耶此予素志也○元降
制罷行省○僉議政丞致仕李混卒性寬厚且不廉其家稍富
務為疎散喜賓客好琴棋嘗貶寧海得海浮查製為舞鼓至今
傳于樂府○五年元仁宗皇
慶二年密直司事李思溫化平君金深等議以
王久留京師歲輸本國米布不可勝記實由權漢功崔誠之掌選
法利其賂遺朴景亮為王腹心營置產業王之不改實由三人具
罪狀呈徽政使失列門矯太后制下漢功等獄王怒因侍婢白太后釋

忠宣王

之仍杖流金深患温等于臨洮後帝皆召還○元欲王改國王無以

為辭請于帝遜位于江陵大君燾又以姪延安君高為世子欲仍雷朝

廷不聽遂與公主還桶上王嘗封藩王王自元侍上王偕還六月甲申

即位于慶延宮王五日一朝上王○上王飯僧二千燃燈二千于延慶宮

五日上王嘗願飯百八萬僧點百八萬燈至是日飯二千僧點二千燈

五日可滿僧一萬燈一萬謂之萬僧會施佛銀瓶一百手擎香爐伶

官奏樂僧冲坦存楨說法各施銀一介餘僧二千二十介其費不可

勝記

〔忠肅王〕諱熹字宜孝忠宣王第
二子母蒙古女也速真○元年甲寅元延祐
元年上王流石獻納李

朝隱左遷右思補禹偁左思補尹頎時僧景麟景聰俱有寵授大禪

師諫官不署告身上王怒召讓朝隱等猶不署欲杖之備廷辨慷

慨王悟怒稍解然以朝隱主僧批流之餘左遷○以洪奎為南陽府

院君白頭正僉議評理時程朱之學始行中國未及東方頭正在元

得而學之東還李齊賢朴忠佐首先師受○上王自記其功德十

餘條密下武目令上箋陳欲以聞於上國也

史氏曰古之人君德修於己功加於人自卑而人益尊自晦而道益

光今忠宣以聰明疆記之才用之於不善處身接物一無可補乃
欲求譽於上國自頌其德不知何德邪靈殿之營先揚父惡
轉輸燕京財殫力痛失父子親殺無罪之子常在元朝不親國
政重營二宮私占食邑飯僧點燈殆無虛日萬僧之會糜費
鉅萬朝野怨毒而故德於己取笑當時貽譏來世後之人君不可
監哉

上王如元王賤于金郊奉觴而進上王流涕元命上王留京師上王構

萬卷堂于燕邸召李齊賢充府中迎致文儒閣復姚燧趙孟頫虞

集等與之從遊以考究書自娛元以上王為相固辭○遣博士柳行

等詣江南購書籍並敗行等赤身登岸判典校洪濬以太子府從

軍在南京以寶鈔一百五十錠遺行購經籍一萬八百卷而還濬又

奏元賜王書籍四十七冊皆宋祕閣所藏也○三年上王奏于帝

傳潘王位于世子高自稱太尉王高尚梁王女○罷密直副使兼大司憲安

于器以元尹趙珙代之珙方寵於上王而于器有公望無內援識者惜之

○南陽府院君洪奎卒奎恬淡寡欲僮不羈○四年王微行幸

妓萬年歡家二月改于西海道自是遊獵無時○僉議政丞閔漬撰進本朝

忠肅王

編年綱目上起國初下訖高宗書凡四十二卷漬稍有文藻而心術
不正不知性理之學其論昭穆以朱子議為非○設九齋朔試時監
試廢已久始以朔試代之○五年春王及公主宴于延慶宮還路馬
上記姚安道所賦玄宗打毬圖詩金殿十門白晝開三郎沉醉打
毬回九齡已老韓休死明日應無諫疏來吟咏者久之翌日召權
漢功尹莘傑賦詩歡甚又久吟打毬圖詩

史臣張沆曰王之再吟此詩何意也以為戒也則其荒淫與玄
宗無異噫以宰相與是宴者聞九齡韓休之名能不泚頰乎

罷州郡事審官事審官之設本為均平賦役表正風俗而今
反廣占公田又匿民戶擅作福威有害無補令盡革罷未幾權豪
復自為之害甚於前置辨偽都監大索豪勢所占田民還其主
中外大悅獨豪勢患之訴上王罷之後有三百人伺王出幸訴駕
前復設尋復罷之○權漢功崔誠之等四五輩侍上王在元用事不
問賢否遙傳王旨濫受朱紫營私病民王思欲釐正分遣執義
金千鎰持平張元組于兩南及西北面問民疾苦嚴行點破千鎰
懷私誣妄王杖于內庭元組亦才劣獨舉金廷羨橫歛皮幣上

王聞之以廷美方色從流元組于島○六年上王請于帝降御香

南遊江浙至寶陀山而還○七年塑文宣王像王出銀瓶三十以助果費寧樞皆出幣助之

○李齊賢朴存修掌試取崔龍甲等三十三人王嘉孝修清白賜銀

瓶五十米百石令辦學士宴國俗掌試者謂之學士學士有父母若座主在殿放榜必具公服往謁而門生綴行隨之拜於庭眾賓雖尊長皆下堂庭立侯禮畢

捐讓而升以次拜賀於是邀至其第奉觴稱壽○上王知時事將變

欲避患時仁宗崩復請帝降香江南行至金山寺在潤州帝遣使急召令

騎士擁逼以北侍從臣僚恐王不免皆奔竄或有御葉者上王還大都

帝命護送本國安置王遲留不即發帝命祝髮以學佛經為名流

吐蕃撒思結之地去京師萬五千里朴仁幹等八人從官者伯顏禿古思本國朱冕家奴也八元事仁宗傍

險多不法上王深嫉之自太后制所奪人田口改本主又以無禮杖之禿古思患欲

中傷之而不得發及仁宗崩太后亦退居別宮禿古思無所畏忌百計誣譖禍

歲不測賴丞相任營救得免○八年元英宗至治元年下權漢功金延美蔡洪哲于獄命鞠之

漢功自側竄逃還捕之籍漢功洪哲家杖流遠島時臨海君李瑱餞

于郊漢功曰天地雖廣大一身藏處難填曰側竄好漢功大慚上王之

雷元也漢功等招權納賂專擅國事王頗懷不平自上王西遷以後

宦官左右謀改上王之政放逐舊臣無虛日○王被詔八元柳清臣具

忠肅王

潛元忠韓渥等從行寓伯顏禿古思家帝命收國王印章時內豎

朴仁平以女巧得幸與曹頤及頤養子而在帝側用事官者楊安吉
潛結互為唇齒誘引群小陰附潘王遂訴以國家陰事轉譖于帝收
國王印王之侍從皆離畔時人曰仁平人猫誤王者必此人也

史氏許應麟曰忠宣嫉惡如讎而閹人伯顏禿古思以其姦險見惡於
王誣譖於英宗竄王吐蕃在忠肅義不共戴天也其八朝也既不能
白於天子正其吠主之罪乃反寓其家良其賤族獨何心哉

同知密直司事李伯謙卒風彩滿灑王立朝端嘗為公主副使又牧濟
海二冊畱守南京皆以政最聞濟州叛賊曰若李伯謙宋英來撫吾豈

敢反乎○蔡河中洪哲子偕元使來談言帝赦權漢功蔡洪哲而召之又

言帝以潘王高為國王百官賀高母安妃謂辨違都監官曰汝從惡王命奪

我父田民斷與人耶○九年潘王高遣其臣朴龜壽寄書宰相列

數國王過失謀奪王位曹頤蔡河中四五輩從諛而織成之於是問

事使臣絡繹往來○權沃功蔡洪哲李光逢等怨王之杖流乃邀閔

漬等請立潘王曾百官上書省執義尹宣佐曰臣而訴君狗彘

不為唾之而去閔宗儒金倫亦以為非臺諫史翰皆不署名是日

署書未半天忽大雨雹已而漢功等又招百官署名忽又雷雹使

民部議郎趙湜齎書如元呈中書省不受呈翰林院不受○十年
二月元量移上王于宋思麻之地以李齊賢崔誠之等上書元郎中及
丞相拜住也至九月元御史職失秩英宗皇叔晉王即帝位呂還上王
于大都○十二年甲子元養
皇帝元年元初王還國復賜印章○曹頤察河中筭又
令雷元無賴子第二十餘人連名呈省誅王不已○十二年化平府使李
晟卒晟弱冠登第窮討墳典若將終身年五十九拜左思補稟官
啟田上王在燕邸聞其名拜內書舍人累遷成均祭酒所至學者如
雲人謂之五經筭○夏五月王至自元○上王薨于元王煦李凌幹
等奉梓宮還百官玄冠素服郊迎○蠻人王三錫見寵於王稱爲師
傳賣官鬻獄其妻兄張世奪人馬憲府捕繫詣闕請罪三錫從中
不違以杖擊持平至開物擅釋世開物與掌令金元軌等復詣闕
請罪王怒歐啟事者憲司開門不視事累日○十五年元文宗天
曆元年
柳清臣吳潛等詣中書省誣訴王旨龍身暗啞不親政事帝遣平
章事買驢等來質問王對辯有叙禮容嚴肅買驢乃曰帝所
以命臣來者察王疾也以今所見向者之訴皆誣也前到淹雷使
臣並督還故王魏金銀段布皆不受○十六年柳清臣死于元初

忠肅王

臣吳潛從王八元背王附潘詭謀黨端及起
王復位二人懼罪不敢還清臣雷燕九年而死
○元遣舍人完者頌即位詔曠王

病不出迎憂懼密直金之鏡曰完者似欲官其族人之在本國者王乃

命之鏡及大司成高用賢掌銓注內臣申時用至政房罵之鏡曰

今日除授為使臣也乃輩奚獨帶官而不官吾子孫耶又顧在庭

喪職者曰若等無錢又誰怨也求官者雲集之鏡等夜匿材舍注

擬批既成密直李仁吉擅改于其第及批日下用事者爭相塗抹

竄定朱墨不可辨時人謂之墨冊政事○十七年元至順元年元冊世

子楨為國王上年王請傳位世子遂遣七十堅來取國王印王王即忠惠時在元委機務

於嬖臣裴佺等日與內豎為角力戲起居注李湛白王曰君舉不

可不慎左右書之王曰書者誰歟湛曰史臣之職也王曰書我過失者皆

書生也由是益惡儒○置知印房以右尹尹之賢起居注李湛正郎李

君俊典籤金漢龍充之○王尚關西王焦八女是謂德寧公主○上王將如元

至黃州王道上胡跪迎謁白元上王曰汝之父母皆高麗也何見我行

胡禮訓戒嚴厲涕泣而出○秋八月王至自元即位○始令舉子誦律

詩四韻一百首通小學五聲字韻乃許赴試

忠惠王諱複忠甫長子母明德太后洪氏○元年辛未元至順二年王改于江陰又改于海州自

是每月遊略觀水戲擊球

〔忠肅王〕後元年壬申至順二年春正月上王在元○上王復位元遣郎中將伯

祥等來傳帝命已於正月三日命上王復位王及左右皆色伯祥收國璽

封諸庫王遂如元○王遣閔祥正趙炎輝下政丞尹碩宰相孫琦金之鏡

上護軍裴佺等十三人于獄伯祥又囚權適尹佺等十五人杖流金天柘

李君佺等十餘人于海島已而元遣太史都赤來囚竊伯祥閔祥正

趙炎輝于行省釋尹碩等召還孫琦等二十餘人時伯祥多作威福黷

于賄賂國人怨之百官以書訴伯祥于都赤都赤執伯祥以故○行邸用

不足料歛文武官布貨抽索富人財○二年元順帝元統元年元丞相燕帖木兒

秦皇太后督王還國王與公主東還是為慶華公主○四年王屢幸海州○命佑

文君梁將前郎將曹莘卿掌銓注以姜融僉議左政丞蔡河中僉議

贊成事崔老星為懷義君申將用為大匡元尹尹賢為持平將燕南人初從

王三錫未受錄用事又與將伯祥構免諫不克遂請事王左右得幸封君更各載竊弄

政柄賄賂公行士大夫多出其門草卿嘗為僧相屋水囚載以違同掌驗達老星色目富商

亦因載揚封君賢起於典法祿為時用家臣賣獄受人布百五十匹事覽憲司方刻

賢與宦官謀侵其初收八已下批目抹持平李孫寶名改注己名納賄得官者幾至百
餘王不之覺始官甲君平皆不署告身見罷大護
軍至直躬嘗以私罵融曰汝是官奴何驕乃爾
○五年王如元明年十一月○七年

忠惠王

忠肅王

贊成事姜融訪孝子黃守以聞黃守世居平壤時為本府署丞父母年俱七十餘有弟妹五人同饗食具日皆先奉父

母日三二十餘年子孫服習無小
急辭親訪以聞里閭尊觀

○八年春三月王薨

史臣曰烈宣肅惠世歷四代父子相夷至與訟于天子之朝貽笑天下

後世他無足觀者忠肅晚年遺棄國事出舍外郊信任朴青等三

豎威福下移若子若孫皆離凶天可勝嘆哉

朴青印青李青時號三青

前王淫其舅洪戎繼室黃氏又燕庶母壽妃強烝慶華公主

王若聞人妻妾

有妾色則使廢幸奪小往奪之

○曹頤反舉兵圍王宮兵敗伏誅頤與洪彬及省官等聲言逐去群小而陰為瀆王地取國印置永安宮乃曰我為政坐見王荒

淫無道若不聞于朝廷罪在我身遂與洪彬印伯等十餘人點軍十

餘剪紅綃貼衣為識夜五鼓龍衣王宮射王中臂頤兵為王先鋒所

敗追射頤殺之尸于巡軍南橋下其黨巡軍一府皆欲嚴治金倫

獨曰此輩註誤於頤指喉何足責哉乃弛其刑諸囚感悅首罪無隱

○元遣斷事官頭麟授國王印俄而執王及洪彬等十二人以故蓋

因頤黨之訴也

東史纂要卷之八

高麗記

忠惠王後元年庚辰

元至元六年

元因王于刑部又繫金倫韓宗愈等十

餘人于獄使五府官

中書樞密御史翰林宗王

雜問之脫脫奏帝釋王復位還國○政堂

文學崑山君李兆年見王失德屢切不聽諫即謝病乞退匹馬還鄉

終身不出○四年

元至正三年

罷習射場屬東西大悲院僧嵩勸王創院城

外聚城中病人救策膳衣食王問嵩仙長生設對曰人有定分無過分之

理但不可為惡以促之○初徵職稅王聽嬖人竊夫金之言以為有職居

外者退閑病民徵識稅利國用代言閔渙贊成之分遣人諸道徵布

六品以上百五十五品以下百正散職十五正

人間令下或挈家登山或乘舟遠遁焚山澤而索之禍及

於族慶尚道有一散員同正者貪甚賣盡家產其女痛父被辱斷

髮質納不充其額父及女縊死又徵般稅無舟者亦被其害王雖淫

縱無道至於商賈計利析絲毫奪人田民盡屬寶興庫舉國

騷擾○起新宮于三峴王躬督其役謂近臣曰今宮闕將成欲實以

奴婢佛等各獻有姿色一兩婢如何皆曰唯命責監役官營構不

亟若不斷手於十月必置重刑又懸榜曰宰相以下輸材不及期

者徵布五百匹分配海島於是晝夜董役輦材絡繹殿宇門戶皆

飾鍮銅又斂諸道銅鐵鑄鼎鑊錡釜納之新宮民間農器括盡無

餘○評理致仕尹宣佐卒

增七世孫

生而穎異七歲能屬文忠烈朝擢魁

忠惠王

科初授正言忠肅入元權漢功請立藩王之曰一言折之終始不貳年
七十九卒平生不治產不飲酒慎交遊重然諾閑居常若對賓唯
以經史自娛詞翰清便學者多效之○冬十一月元遣乃任宋赤等
詐索鞞轎且頒敕詔王率百官郊迎聽詔乃任等跪王縛之使者皆
拔劍執侍從羣小百官皆走匿郎中金永照等中朝亦有被殺者
辛裔伏兵禦外以助之宋赤等即掖王載一馬馳去王問甚索酒有
甫廿索袞於卅守安鈞鈞不納許于宋赤宋赤曰汝王
怕寒索袞汝不與於人臣之義何乃以鐵尺擊鈞垂死元以檻車流王于
揭陽縣去燕京二萬餘里無一人從行

史臣元松壽曰王雖凶虐乃其主也龍普小人既不足論辛裔儒
者何至此耶

史氏曰胡元有天下高麗故附降公主作甥舅國患宜若少紓
矣自立東省事皆關彼國君尸厥位擁虛器而已當時此亂
臣賊子之懷二心者盤結東省指喉都堂為本國生事於是
臣誅其君子誅其父烈宣肅惠之間其禍尤甚忠惠雖失道
麗之臣子北面事之是吾君父也同室有鬪尚纓冠而救之
安有坐視君父之難而不救乎去年元使執王今年元使縛王

無一忠臣義士捐生以赴救者及出境又無一介奔問起居者論以春秋之法麗之擧國臣子可坐以無君之罪矣昔邾人直造鄆之國都戕其君聖人特書于冊罪臣子不能救君難麗之臣子其亦似鄆之臣子乎

五年春正月王薨于岳陽縣國人聞之莫有悲之者初宮中及道路歌曰阿也麻古之邾從今去何時來至是解之曰岳陽止改之難今日去何時還○二月元命元子昕嗣位明年甫八歲時在元

帝問曰汝學父子學母子對曰願學母帝嘆其聰慧以祭河中為右政丞

韓宗愈左政丞李齊賢判三司事金倫權謙朴忠佐為贊成事○西

月至自元○改定科舉法初場純六經義四書疑中場古賦終場策問○僉議參理羅益禧卒

性耿介慕節義其母分財別遺臧獲四十口辭曰以一男居五女間為忍苟得贏餘以累鴟鴞之仁母義而許之○罷政房改之典理軍簿忠穆元年復置

房政

(忠穆王)諱昕忠惠長子母德寧公主○元年乙酉元至正五年潘王高卒○罷王煦以金永

煦為右政丞煦為貪姦所惡而罷時人鼓望○二年王以閔漬所撰編

年綱目多闕漏命李齊賢安軸李毅安震李仁復等更撰進○

參理安子由損事于太廟憫牛之死不殺牲監察司請免其官王不

忠穆王

聽○四年十二月王薨時辛裔田淑蒙相繼用事親姻故舊布列卿
相代言鄭思度依阿進用久在政房中外輻輳時人目裔曰辛王且母
妃盛年居中康允忠襄佺出入得幸秉政權作威福王煦金永晔
奉帝命欲整理舊弊卒為允忠等所陷

(忠定王)

諱昭忠惠王
庶子母禧妃

○元年己丑

元至正九年

春二月元命忠惠王子子晔入朝

君盧頤判三司孫守卿贊成
事李君佖及崔濡等從行

夏五月元命晔嗣王位王命鐵城君李君佖

聽斷國務○流前密直金敬直貶前密直李承老為宣州勾當前代

言尹澤為光陽監務○秋七月王至自元即位大風雨屋瓦盡飛儀

鳳樓頽松岳龍首兩山松盡拔○咸陽府院君朴忠佐卒性溫厚儉

約雖為卿相居室衣服如布衣時好讀易老而不輟○二年倭寇圍城

竹林巨濟等處合浦十戶崔禪等擊却之倭寇之興始此○崔濡與其

弟崔源等判奔北元○三年冬十月元以江陵大君棋為王

江陵時遣使
在元

封倉庫收國璽以故王遜于江華○德興君塔思帖木兒奔于元

忠宣王子
嘗為僧者

○王命李齊賢攝政丞權斷征東省事齊賢貶黜權

宰襄佺朴守明盧英瑞尹時遇鄭天起等措置得宜人賴以安○

十二月王至自元即位

恭愍王

諱顯古諱祺 忠惠王母弟

○元年壬辰

元至正十二年

賜金羅道萬戶柳濯教書衣

酒勞之濯持軍嚴整不擾卅縣與士卒同甘苦倭寇萬德社濯以

輕騎追捕終濯在鎮寇不復犯○王辨髮監察大夫李衍宗諫曰辨

髮胡服非先王之制願勿效王悅即解辨賜衍宗衣褥衍宗賢臣也

彰善瘴惡威武不能屈時號鐵石肝腸○罷政房啟銓注於典

理軍簿○宥裴佺

史臣河寬曰元惡大愆當置於法佺用事於明陵以紊刑政王於

發政之初由貸其法何以懲後

召典法摠郎鄭云敬佐郎徐浩于內殿賜酒尚書玄慶進諫曰寢

殿至嚴今外人出入無制且掌刑之官不可昵近今云敬浩賜酒寢

殿皆有違法王然之

云敬嘗為福州判官 後收全卅能斷疑獄

○前王遇鳩夢于江華王之遜江華

也典校令申德麟等四五人從行追繫巡軍唯朴思慎韓偕從之供膳

不充憂愁涕泣及訃至都人莫不流涕○內府少尹金暉南禦倭

于宥梁獲倭船一艘倭船大至暉南兵少不能敵退次西江告急調

發諸領兵婦女攔街痛哭倭焚喬桐甲山倉○罷執義金玗持平

郭忠孝掌令慶于興初監察大夫李衍宗姦巧善揣摩屢言時

忠定王

恭愍王

事趙日新情功專恣行宗置不効至是玠等以行宗附日新不與
議而劾日新日新請與臺官廷辨王命行宗與李公遂聽兩造行
宗手執彈章條問之玠曰公長憲司既不彈舉罪人反問我輩耶
行宗慙恚玠忠考又囚日新家奴日新破獄出之反詆臺官命玠
等勿仕行宗承命坐臺遂劾玠等王嘗夜召李齊賢咨訪國事
因語曰行宗多詐人也○李行宗棄官改初行宗附日新得是職
及日新見劾恐禍及己潛改田里

史臣曰甚矣小人之難知也苟非至明何以照其在彼哉行宗之諫王
辨髮也史稱之曰賢臣也威武不能屈其劾玠等也史目之曰老
而姦詐夫威武不能屈豈姦詐者所可爲也之二吏皆一時目
擊其人而書之毀譽若此之不同豈私於行宗苟焉以毀譽之
也蓋行宗善於揣摩而飾詐以釣名者此事以觀可以想其爲
人也益清允藏均爲隨從而氣炎熾赫然其固寵而凶狠非日
新之比故首論之以示不憚威勢知王之脫志于治而可以納諫也
故辨髮非大過而獨諫之以示敢言不諱奇轅譏其不言則以齊
賢日新並稱而托以王無可與議事也見日新之愆及於敗則

先裁引退而規以遠禍也非揣摩之工巧於飾詐者能若是哉
獨恨其王已知其詐而不能去使盜其自去之名由是懷詐取
寵欺君誤國有如眈者無復憚焉卒陷於昏暗而不寤後之
馭小人者可不監諸

罷右副代言金得培左副代言柳淑先是元丞相脫脫遣使以書

戒王勿用儉人趙日新崔德林要其使者云淑與得培居中用事

使者白王罷之○王呂僧普虛入內問法虛後改名普愚封為玉師
平府置官屬出入內佛堂其

儀衛擬鹵簿多占田園牧
馬滿廬除僧職僧徒競趨○吉昌府院君權準卒忠肅與潘王相

持羣不逞身附潘王準守義不變曹頤之亂閉門不出性純重寡言

笑儀表秀偉然倚勢致富識者譏之○印承且八侍書遂請罷辨正

都監王不應但曰穿窬夜行惡月之明他日金永煦又請罷王曰予

欲聞嘉言設書筵卿等所言實班予心遂稱疾入內承且身占公田都
監收田進租故請

罷○趙日新作亂犯行宮殺宿衛臣僚王命金添壽誅討之○以李齊

賢為右政丞曹益清左政丞○流金鑪于海島日新之亂衛士多中傷

歸直宿于內獨免又不捍禦物議紛紜王亦疑之○三年夏倭掠全

羅道漕船四十餘艘○元丞相脫脫以帝命遣使來呂柳濯廉師臣

恭愍王

權謙金鏞鄭世雲李權黃裳崔瑩李芳實安祐等四十餘人
及西京水軍三百期以八月十五日集燕京討張士誠秋七月柳濯等
領兵二十赴征王親點送之是役也脫脫攻高郵城柳濯等赴征將士
及國人在燕京者總二萬三千人為前鋒城將陷韃靼知院老長忌我
國人專功令曰今日暮明日乃取魔軍而退是夜賊堅壁設備明日攻
之不克會脫脫被譖流淮安自後南賊日盛我軍陷六合城又移防
淮安路李權等六人戰死崔瑩力戰身被數槍○四年全羅道按廉
鄭之祥囚元御者使楚思不花于全卅王命下之祥獄不花本國人也八
元有寵兄弟臣桂應呂皆撫任擅威福國人畏之至是不花降香諸
道所至縱暴之祥迎候恭謹不花聽接伴使洪元哲譖縛辱之祥即
憤恚大叫邑吏呼噪而入解縛扶出之祥即率眾執不花元哲等囚
之馳還京道過公卅執其弟應呂以鐵椎過之數日而死之祥來白
王王驚愕下巡軍命捕全卅牧使崔瑩起及邑吏等元遣買徃來鞫
之祥降全卅為部曲○夏倭掠全羅道漕船二百艘○五年三月日
無光中有黑子者連日○奇轍權謙盧頤謀叛伏誅○罷征東行
省理問所復舊官制○命印璫姜仲卿崔瑩柳仁雨等討鴨江

以西雙城以北初龍津人趙勝以雙城等叛八雙城人趙步生十戶卓都御等召

趙瞰小注及攀兵為拒守計仁雨乃以蠟書遺瞰瞰誇小生謀主都趙希都

遂來附於是仁雨與我桓祖攻破雙城收復和查定長顏高文

宜卅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鎮小生逃入伊板嶺北立石之

地仁雨貪財嗜殺王見都赤采為千戶仁雨忌而殺之北人故附之

心遂沮○停至正年號○都堂令百司議幣諫官請廢銀瓶用

銀錢議略曰銀瓶重一斤直布百疋價重買寡銀一兩其直八疋宜令購為錢隨

銀錢其兩數准帛穀多寡比之銀瓶鑄造易比銅錢取利多布用五升則公

便○六年下蔡河中微自殺初河中流順天僧達禪來自河中訪金賢

曰蔡相欲與公謀大事語泄繫禪心軍贊逃逮捕河中命李仁復鞫

之拷掠累旬河中誣服自縊斬于市○司天少監于必與上書言王

龍記云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其勢水根本幹之地以黑為父母

以青為身若風俗順土則昌逆土則災風俗者君臣百姓衣服冠蓋

樂調禮器什用是也今後文武百官黑衣青笠僧服黑巾大冠女

服黑羅又於諸山栽松茂密凡器用鑰銅瓦器順風土從之○復故

銓選於吏兵部○七年元至正十八年以大將軍崔瑩為楊廣全羅道體覆

使仍命不能御倭者悉以軍法論時倭寇無處不發○方國珍遣

恭愍王

人來獻方物

時國珍據台州後又遣使來

○倭焚喬桐京城戒嚴發丁坊里為軍○

秋七月江浙行省丞相張士誠遣使致書來獻沉香山水精山玉帶

彩段等物

時士誠據杭州太尉後又遣使來

○八年東北面兵馬使鄭暉獻海青王

曰今軍務方興宜崇儉約安用珍禽放之○遼瀋流民二十三

餘戶來投分處西北郡縣官給資糧先是本國人亦有渡江居者兵

乱皆自還○十二月紅頭賊魁偽平章毛居敬等眾號四萬冰

渡鴨綠江陷義州殺副使朱永世州民十餘人連陷靜州麟州

劉福

通於辛卯年起

以李岫為西北面都元帥慶十與副元帥金得培都指揮

使以禦之以李岫懦不能御軍遣平章事李承慶代之○九年三月慶

十與等諸將破賊班帥○紅賊七十艘泊西海道豐州又百餘艘入安岳郡掠

錢穀燒廬舍又侵黃州安州遣李芳實擊賊于豐州賊乘舟遁者

去王賜芳實玉帶玉纓以褒之大饗北征將士○是年自二月至四月

旱甚王為之日一食○五月倭寇金羅道會尾汰滿又寇楊廣道平

澤牙卅新平龍城等十餘城京城戒嚴以柳濯為京畿兵馬都統使

李春富及我 桓祖分為東西江兵馬使發丁坊里為軍又命百官

助戰諫官詣宮門拜辭參政鄭世雲曰諫官從軍古所未聞如國

體何王特免之國學博士等上言臣等侍於天子廟庭與子官從軍古無
其例侍中廉悌臣李岳皆曰爾雖不侍孔子孔子焉逃簽書金布祖弟之
不得彥陽伯金敬直詣闕聞宰相博奕戲謔還家太息曰國家其將以字
宰相雖在太平之世尚不可耽戲况今干戈搶攘飢饉荐臻不此之恤而耽
樂若是欲不亡滑乎○閏月倭寇江華殺三百餘人掠米四萬石○京城饑
大布一匹直米五升王發廩二十碩令民納大布一匹受米一斗○秋七月
王辛白岳相遷都之地白岳在臨津縣北五里即舊燕○遣益山君李公遂戶部尚書朱思
忠如元至湯站道梗渡鴨江王大怒固遣之至瀋陽數月竟不達○
冬十一月移御白岳新宮雷四箇月而還○十年王邀僧普印于內殿日
講佛燈錄○冬十月紅頭賊偽平章潘誠沙劉關先生朱元帥等十餘
萬衆渡鴨綠江寇朔州以李芳實為西北面都指揮使遣李餘慶柵
岳嶺以安祐為上元帥金得培都共馬使鄭暉都持揮使鄭世雲西
北面軍容體覆使是役也我太祖斬賊王元帥以下百餘級擒一人以
獻十月賊攻破岳嶺柵我軍大潰賊乘勝先鋒至興義驛王知事
急奉太后南幸語在鄭世雲及三元帥傳王渡臨津駐駕江岸顧瞻
山河謂元松壽李禧曰如此風景卿等正宜聯句十二月壬辰至福州

恭愍王

○王幸暎湖榜乘舟遊賞觀者如堵有反袂興嗟者○鹽州人中郎

將金長壽倡率卅人殺兵殺賊遊騎百四十餘人○賊三百餘騎陷原

卅牧使宋光彥死之○江華府詎降饗賊伏兵盡殺賊不鼓入境○

十一年春正月總兵官鄭世雲都元帥安祐元帥金湯培李芳實等

大破紅賊復京城○金驪矯旨令安祐殺鄭世雲○王自福卅章尚卅金

鏞殺元帥安祐李芳實金湯培○陞福卅牧為安東大都護府安城

縣為郡降水原府為郡王之駐福也福人盡心供頓徵兵諸道收復京城紅

賊之招降楊廣也水府最先下卅郡莫敢挫其鋒安城獨以小邑設計

殲賊賊不敢南下割水原四部曲以隸之○秋七月趙小生誘引納哈出

入寇三撒等地勝元亂納哈出據有瀋陽地以我 太祖為東北面兵馬使

以禦之遇賊德山洞擊走之又戰於鞬鞞洞大敗之○八月乙酉王發尚

卅壬辰至清卅○置祿轉色播遷以來祿轉出納不任倉官別立一所謂之祿轉色

之○冬十月地震者再監察大夫金續命獻納黃瑾等上書曰地者臣

道也今賞罰不明大小之臣怠弛曠官又因軍功白丁驟拜卿相包隸

濫處朝班臣道淆亂以致地震請自今信賞必罰重惜名器殿下日

與刊除陰類相狎樂聞鄙俚無稽之言夜分不寢踈遠大臣嘉謀

讜議無自而入。今三殿宦者各留十餘人，悉汰去。治國之道專在經史，未聞以佛書致治者也。殿下過信佛法，群髡練此干謁，濟私自今。願斷緇流出，八禁闔復開。經筵日訪，治道女謁為政之大害也。今針線娘子亦有封翁主宅主者，僭擬踰分，除宗室勲舊外，勿許封爵。守令保舉皆徇面情，其所薦舉至有不識字者。今臨軒引見，核其名實，舉非其人，舉主必罰。王召臺諫詰之，臺諫面爭，益切。王怒甚，柳淑進曰：「既求直言而怒言者，可乎？」王怒小解。○十二年二月乙亥，王發清州。癸未，次興王寺。○金鏞反，遣其黨犯行宮，王命流金鏞，已而鏞伏誅。王尚未忘鏞為之泣下。○夏四月，倭船二百十三艘泊喬桐京城，戒嚴以安。遇慶為防禦使。○廉悌臣罷，以柳濯為右政丞，李公遂為左丞政。紅賊亂臣駭妻奪財，賄車馬，戚棄母而去。臺諫論是，以不孝拜相，逾月不署，告身會金鏞誅以姻好罷。○太白晝見，經天二日。○王聞崔濡奉德興君發遼陽省兵以來，與宰相議防禦之策，以慶十與為西北面都元帥，與安遇慶率龜壽李珣及兵馬使巡撫使等分屯諸州，皆受都元帥節度以禦之。○元遣孛家奴詔收王印章，時有宰相勸王南巡，避德興之難。王然之，兵仁澤曰：「德興非紅賊比，大駕一南，都城以北誰從？」殿下者今日之策，親征為上。議遂寢。○十三年，崔瑩等諸將擊敗崔濡軍，渡江而走。

恭愍王

還燕京者纔十七騎時赴征軍卒經年暴露糧餉又絕凍餒顯仆斗米換

馬道殫相繼及罷兵生還者百才一二而用事之臣墜蔽不聞軍中虛實

王竟莫知之○女真三善三介等入寇陷咸州和州北人金方卦擊我度

真濟勿過人善騎射二人誘致女真寇忽面三撒王命交州道兵馬使成士達東

北面指揮使韓方信等往擊之皆潰和州以北皆沒焉時 太祖往擊崔

濡自西北面引軍至鐵關與韓方信等三面進攻大敗之悉復和咸等州三

善三介奔女真終不返○冬十月元遣翰林學士奇出奇田龍詔王復位執

送崔濡誅之○十四年公主難產薨王慟甚手寫真日夜對食悲泣三

年不御肉膳○倭寇喬桐江華八昌陵取世祖真以故○以杖僧遍照為師

傳是為辛晒貶崔瑩流李龜壽等十餘人罷柳淑李達東皆晒譖也

李存吾鄭樞上疏論辛晒皆貶黜語在存吾傳○廢知榮州事鄭習

仁為庶人初習仁視事吏以故事請詣消災圖焚香習仁曰人臣不蹈

非義定何由生若其無妄順受而已命吏撤去州有佛塔名無信習

仁曰異哉惡木不息盜泉不乾惡其名也烏有巍然具刑為一邑

所瞻視而以無信表之者乎乃命州吏刻日夷之晒聞而怒令繫羅

林府獄移繫典獄必欲置死地廷臣言為王白者乃得免廢為庶

人令就卅復構其塔○大起魯國公主影殿于王輪寺東○民有

兄弟偕行弟得黃金二錠以其一與兄至陽川江同舟而濟弟忽投金

於水兄怪問之曰吾平日愛兄甚篤今而分金勿忘明忌兄之心此乃不

祥之物也不若投諸江而忘之兄曰汝言誠是亦投金於水時同舟者皆

愚民無問其姓名○僧千禧為國師禪顯為王師二僧皆陝州善者王九孫

班班獨飛眼立殿上顧諸史官尹○十六年知都僉議兵仁澤與前侍中慶千

興等八九人密議曰辛旽和佞陰狡亦逐勳舊殺戮無辜黨與日盛道說

記有非僧非俗亂政亡國之語必是此人宜白王早除之判書辛貴聞以告旽

旽入告于王捕繫仁澤等並杖流沒官為奴籍其家○雞林府院君李

齊賢卒○十七年戊申元至元二十八年○大春正月日本國遣梵溫等來王憲

倭寇侵擾遣金瑛請禁故報聘辛旽不為禮館待甚薄倭使怒而去○夏

六月移營影殿于馬巖王輪影殿佛宇狹小無侍中柳濯與密直鄭思道極

諫馬巖之役王大怒下濯思道獄語在李構傳○冬十月遣文天武如元天武

至遼陽道榷而還杖復遣之○十八年夏四月大明 太祖高皇帝遣符

寶郎檄斯賜王爾玉書報定天下王率百官出迎于崇仁門外其書曰大明

皇帝致書高麗國王自有宋失取天絕其祀元非我類天命八至中國百

恭愍王

有餘年天厭其昏淫亦用隕絕其命華夷擾亂十有八年當群雄初起時朕為淮
右布衣忽暴兵疾至誤入其中見其無成憂懼不寧荷天之靈授以文武東
渡江左習養民之道十有四年西平漢王陳友諒東縛吳王於姑蘇南平
閩越戡之八蕃北逐胡君肅清華夏復我中國之舊疆今年正月臣民推戴
即皇帝位定有天下號曰大明建元洪武惟四夷未報故修書遣使涉海洋入
高麗報王知之俛斯以二羊享王及斯還王餽鞍馬衣服不受○傳至正年
號○遣禮部尚書洪尚載上護軍李夏生奉表如大明賀登極○改官制○

十九年復修玉輪影殿○成准得還自京師 帝賜墨書訓誡為國保邦

之道賜王冠服樂器書籍王妃冠服及陪臣冠服大統曆又遣使頒科舉詔

○秋七月始行洪武年號○帝遣中書省宣史孟原哲來詔曰朕本農
家業生於有元之世何庚申之君荒淫昏弱紀綱大壞由是豪傑並起海
內瓜分雖元兵轉戰華夏終不能治此天意也然倡亂之徒首禍天下謀奪
疆土欲為王霸規其所行未合於禮故皆泯亡此亦天意也朕當是時年
二十有四擾攘之秋盤桓避難終不寧居遂乃托身行伍驅馳三年觀羣
雄無成徒擾生民朕乃率衆渡江訓將鍊兵奉天征討于今十有六年

削平強暴混一天下大統既正民庶皆安今年六月十日左副將軍李

文忠副將軍趙庸等遣使來奏五月十六日率兵北至沙漠於應昌府獲元君之孫買的里八剌及其后妃并寶冊等物知庚申之君已於四月二十八日因痢疾歿於應昌大軍耶至俘獲無遺中書上言宜務其孫及其后妃并寶冊獻俘于太廟朕心思之深有不忍其君之凶係于天運所遺幼孫若行獻俘加歿其身朕所不為也况朕本元民天下之亂實非朕始今定四海休息吾民於田里非朕所能亦天運所致也尚慮臣民未知朕意是用播告天下○八月司憲有請易服色從之○命我太祖及西北面上元帥池龍壽副元帥楊伯淵等

往擊東寧府拔之初奇賽因帖木兒仕元為平章元亡與分司遼瀋金伯顏等招集亡元遺眾割據東寧憾其父轍之誅寇我北鄙王命擊之奇賽虜

金伯顏以故誅之○以元樞密副使拜住判司農寺賜姓名韓復初我太祖之毀垣中有哭声使人就視有一人裸立掩泣執以問乃曰我元朝狀元拜住也降弓羅也聞貴國李仁復吾同年也太祖即解衣衣之與馬乘之俱未王厚如接過○二十年倭入海州

火官解寇禮城江焚兵船四十艘○辛屯謀反伏誅○殺前侍中柳濯太后請宥不從國人有涕泣者濯高與人清臣之孫有膽氣善武藝早以門蔭拜監門衛大護

軍不數年劫君拜相至是憲府論罪奏劾乞置典刑王遂命縊殺之時議以為王嘗憾濯諫止影殿之役也○二十一年倭寇白州連寇順天長興耽津道康江陵

孟德德原等卅餘○改官制

恭愍王

史代曰太祖開國立三省六尚書九寺六衛略倣唐制成宗稍加增損累代遵守不失忠烈忠宣服事胡元凡官爵之倂擬上國者悉改之互相紛更官爵太紊
恭愍嗣位二十年之間改官制者四遂不勝其數矣蓋高麗立法之始宰相
統六部六部統寺監省不過五樞不過七宰相之職舉而庶司百寮各供其
職及其弊也省宰增至七八事元以來事多倉卒會議密直每於都評議
使司會議而高議之名又起與國政者至六七十人於是六部徒為虛設百
司渙散無統而政事不復修舉國隨以亡矣

倭寇安邊咸廿北青卅萬戶趙仁壁伏兵大破之斬首七十餘級○倭船二十七
艘入陽川諸將頗兵出戰大敗王以各司成衆愛馬及五部坊里人分隸五軍
親率出昇平遂次龍泉寺閱兵中郎將李禧鄭准提上平寇策王大悅以禧
為楊廣道安撫使准提為全羅道安撫使兼捕倭萬戶時准提與禧再三
上疏凡數十條其略以為濠陸之民不聞舟楫難以禦倭倭但簽生長海島及
自募水戰者令臣等將之期以五年可清海道若都巡問使則徒費軍餉
擾民生乞罷之准提改名地○二十二年改年尼奴名曰禍封江寧府院大
君政堂文學自文寶傳之○洪師範鄭夢周還自京師至海中船敗師範
溺死上年賀平蜀請
子第八學如京帝命本國三年一聘或欲世見亦可○遣周英贊

高仁烈如京師賀正金潛宋文中曹信應舉至慈隱島船敗英贊潛信溺死仁

烈文中湯還○二十三年遣崔瑩討濟州平之先是韓邦彥至濟州哈赤

石迭里等曰吾等何敢以元世祖放畜之馬獻諸大明只送馬三百匹明

使林密等白王曰濟州馬不滿二千數則 帝必戮吾輩於是命瑩以戰

艦三百十四艘銳卒二萬五千六百往討平之○追贈故宮人韓代祖考以王稱

也出○秋九月宦者崔萬生幸臣洪倫等弑王禡立年十崔萬生洪倫等伏誅○

追謚韓代為順靖王后○遣密直使張子溫典工判書閔伯萱如京師告訃

請謚承龍衣○遣判密直金潛如北元告喪○同知密直事金義殺

大明使蔡斌于開州站執林密以馬二百匹奔北元初 帝遣禮部主

事林密孛收使蔡斌令進耽羅馬二十五匹只得三百匹王命金義護

送遼東密等所至渥雷斌酗酒每欲殺義義殺斌執密以馬奔元子溫

伯萱逃還義本胡人也

辛禍元年乙卯大明洪武八年 春正月遣判宗簿事崔源如京師告喪請謚及承襲

自亥陵被弑金義殺使國人恟懼未敢通使大明大成鄭夢周典校令朴尚

衷等陳大義以謂通來變故當早詳奏於是遣崔源○侍中李仁任

辛禍

與百官連名為書將呈北元中書省左代言林樸典校令朴尚衷典儀

副令鄭道傳以先王沒策事南今不當事北不署名○擢判安東府使李

賢林為大司憲賢林嘗宰京山府閨婦人哭聲不衰若有善者執訊之果與奸夫謀殺夫

者也有人訟隣人割我牛古隣人不取賢林渴其牛會里人和嚮于水令曰

以次飲牛牛欲飲即止之里人知令至所訟人則牛駭走訊之果服牛食我禾故斷其舌又人馬

逸食人麥苗始盡主辨訴之馬主曰我有麥田稔與汝勿訴主許之及夏麥再苗猶可收馬主

曰汝麥亦稔不與麥主訴賢林命馬主坐麥主立曰俱走不及者罰馬主不及語之曰彼立北

生其能及于賢林曰麥亦然牧而後苗其及稔于汝逸馬食麥罪一也已令不告罪二也違約

不與罪三也遂杖之以麥改告者為政嚴明類此以治最

擢拜是職後阿仁任意勅林樸為世所少

○北元遣使來李仁任池沔

等欲迎之金九容李崇仁鄭道傳權近等上書都堂曰若迎元使一國臣民

皆陷於亂賊之罪他日何面目見玄陵於地下仁任慶復興不受其書令道傳

迎元使道傳詣復興第曰我當斬使首而來不爾則縛送于明辭類不

遜仁任等怒乃流道傳于會津繼而鄭夢周朴尚衷等上疏極論獻納

李詹正言金伯英等亦上疏皆流貶語在尚衷夢周傳○以河允源為大司憲

允源書知非誤斷皇天降罰八字於柱每赴垣必先掛壁○改定都城五部戶

數凡屋間架二十以上為一戶出軍一丁間架小則或併四五家為一戶

史氏曰太祖始置六衛衛有三十八願領各千人上下體統相為維持有

唐府衛之遺意肅宗志吞女真日事鍊兵置別武班吏胥商賈僕

隸髡緇亦皆隸焉雖得一騎之小效已不合於古制矣毅明以後軍政一敗

於權姦國無一旅伍一之卒將皆私家之將兵皆私家之兵及至封疆

夏事蒼黃調發括中外文武散職白丁雜色賤隸家僮無問勇怯皆編行伍或以屋架多少出丁有差軍政之不修一至於此雖欲禦外侮保邦豈

得乎

二年倭寇公卅古阜恭山興德保安仁義金堤長城等縣又陷全卅○以池齋為門下贊成事尹邦彥密直提學鄭良生大司憲是日除官宰樞至五十九自仁仕蒞而下各植其黨臺諫將帥守令皆出其門市井工匠黃緣除拜時人謂之烟戶政○流三司右使金續命于文義縣續命清直敢言人皆畏憚嘗移病在弟慶復興李仁仕池齋問疾續命曰古制兩府省五樞七令一日所除宰樞至五十人如物議何今之宰樞竊祿尸位而心不正無我若也仁仕曰公心不正誰為正予續命曰予伴食都堂凡署事心非口是心不正孰有如我乎復興等皆默然池李深嗜之陰謀傾軋至是喉司議許時等劾曰近集議興固寺續命發口不可道之言不敬孰甚請鞠治再疏流之○倭焚合浦營屠燒梁蔚義昌會原咸安鎮海固城東平班城東萊棧張等卅縣先是元帥金縝大集一道倡妓有姿色者與麾下晝夜酣飲軍中號曰燒酒徒以緝嗜燒酒也卒伍褊裨有

辛禍

犯必箠一軍憤怨及寇至軍士却立不戰曰元帥使燒酒徒擊賊我輩何為以故大敗廢績為民流嘉德島○三年北元遣翰林承旨字羅

的丹禡○始行北元宣光年歸○李仁任白禡誅池禡金允升等禡

與仁任有隙積不平會大淵客金允升華之元李悅金承湯結朋黨自

謂池門四傑議仁任厚接北使停洪武年歸之北仁任聞之以為誹謗朝政

鞫流悅之元承湯又喉臺諫劾允升於是允升陰與禡謀去仁任仁任知

其狀與慶復興白禡誅禡及允升益諫禡遣人斬之元悅承湯于配

貯禡起行臣至宰輔通禡乳媪黃綠有寵貪淫誦詐賣官鬻獄

及誅人皆快之○倭夜入震梁焚戰艦五十餘艘死者十餘人萬戶

孫光裕中流矢京城大震倭又寇江華○慶尚道倭寇大熾元帥禹仁烈

飛報踵至我太祖承命往擊并日而行與賊戰于智異山下相去二

百餘步有一賊背立俯身手扣其臀視無畏太祖用片箭射之一矢

而倒賊驚懼氣棄即大破之餘賊狼狽登山臨絕崖露刃垂槊軍不得

上太祖策馬先登軍士隨之賊墜崖死者大半遂奮擊殲焉○倭自江華

攻陷楊廣道充斥內地卅郡蕭然無復人烟禍欲遷都鐵原以避之崔瑩

以為不可遂寢○倭寇西海道信卅文化安岳鳳卅海卅我太祖與諸

元帥擊賊于海州大破之○遣鄭夢周報聘于日本且請禁賊○始置火備

都監從判事崔茂宣之言○四年○洪武十一年鄭夢周還自日本○復行洪武年號○五年殺贊

成事楊伯淵洪仲宣于流所又殺前提學金滿等七人杖流成石璘柳曼殊

等四人仲宣與李仁任林堅味等同在政房有隙諫官徐鈞衡等希仁任

意劾奏仲宣在先王朝潛懷異志罷故宜寧伯淵恃戰功頗自驕矜仁

任堅味等嗽憲府劾伯淵通妻弟削職流陝州崔瑩白禍伯淵謀害兩

侍中欲自為相請治其黨禍命瑩治之辭連仲宣遂殺伯淵仲宣于流所

仲宣臨死仰天誓曰予若無罪天心動威及死果大雷電以風伯淵

之獄滿連繫拷掠絕復籛誣服殺之梟首臨死對獄官曰我死不足

惜殺一無辜反受其殃獄官皆惕然濤門生十餘人護屍有李惊者

抱屍八川流血解衣衣之裹以葦網其頭而懸之再拜而去時人

義之○禡出遊里街荒于畝淫于色日以為常○六年以崔瑩兼海

道都統使以我太祖為楊廣全羅慶尚道都巡察使得安烈副

之倭自鎮浦之敗攻陷郡縣三道沿海之地蕩然一空自有倭患未

有如此元帥裴克廉鄭地等擊倭于沙斤驛敗績倭焚雲峯縣

屯引丹驛聲言將殺馬北上中外大震太祖與安烈等引兵

辛禡

南下踰雲峰至荒山西北登鼎山峯距賊數十里 太祖見道右險徑身先

入險遇賊射箭五十餘發皆中其面應弦而斃有一賊將年纔十五六驍勇無

此舞掣馳突所向披靡楯阿只拔都身被堅甲又帶銅面無隙可射 太祖

謂偏將李豆蘭曰我射堦牟頂子落汝便射之遂躍馬射中頂堦子牟纓絕

而側急整之 太祖即射之又中頂子堦牟遂落豆蘭便射殺之於是賊挫氣

因奮擊大破之川流盡赤獲馬一千六百餘匹兵仗無算零賊七十餘人奔智

異山凱還崔瑩率百官班迎天壽寺門前福賜 太祖及安烈金各五十兩諸將

銀各五十兩○八年 胡拔都嘗虜掠東北面至是寇端卅我 太祖以都持揮

使帶李豆蘭往擊大敗之胡拔都僅以身遁去○十年 代言尹就掌成均誥皆

取勢家乳臭之童時人議之以為紅粉榜兒童好著粉紅衣故云○雞林君李達哀卒

達衷剛直不撓有監識嘗為東北面都巡問使識 太祖於 桓祖旣行之

日因以子孫屬之恭愍朝擢為密直提學字忤辛牒罷○十一年△洪武十八年

帝遣國子監學錄張濟行人段祐賜恭愍謚又遣周倬錐英冊福倬還

禍贖以白金苧布衣服鞍馬不受但受朝臣贈行詩覽而歎曰東方有人

禍遣曹敏修河崙禹玄寶等如京師謝恩○恭愍原院君尹桓卒恭愍

人家鉅富嘗乞告故鄉歲大饑人相食乃散家財以賑之又取貧民稱貸

契卷燒之時方久旱忽水湧桓田浸及人田大熟南民稱之不已○十三年定

百官冠服 一品至九品皆服絛帽團頤其品帶有差主是講者鄭夢周 ○十四年△洪
河嘗廉廷考姜淮伯李崇仁也禍與宦者幸臣獨不眠 ○武二十一年

誅廉興邦林堅味都吉敦李成林王福海並其族黨先是前密直副使趙

胖斬興邦豪奴李光于白卅興邦聞之大怒誣胖謀叛收其妻及母鞠胖于

巡軍胖曰六七貪婪宰相縱奴四方集人田民戕虐百姓是大賊也今斬

李光者為國家除民賊耳何云謀叛時興邦為巡軍上萬戶必欲誣服

治極慘酷胖竟不服後數日禍如崔瑩第議獄命釋胖遂誅興邦等並

族黨五十餘人其子孫在襁褓者皆殺之江於是辨覈林廉等奪占田民

遣使各道捕誅家臣悉奴凡十餘人獨救李仁任安置京山府○禍納崔

瑩女為寧妃○帝以鐵嶺迤北本屬于元並令收之遼東命立鐵嶺衛

遣遼東百戶來告禍稱疾不出迎○崔瑩勸禍攻遼東遂徵八兵道四

月乙巳朔禍與瑩如西海道至鳳卅呂 太祖始言攻遼之意 太祖條

陳四不可禍不納次平壤以瑩為八道都統使曹敏傷為左軍都統使

太祖為右軍都統使諸將分屬 共三萬八千八百三十名 傳洪武年號令國人復胡服

○五月庚辰左右軍渡鴨綠江屯威化島左右都統使再請班師禍與

瑩不聽我 太祖乃諭諸將以逆順禍福遂回軍還渡鴨綠江禍聞之

平禍

與瑩馳還京都六月癸卯朔諸軍來屯近郊為書請去瑩禍不從欲拒戰

乙巳 太祖由崇仁門入與左軍犄角而進時禍與瑩在八角殿諸軍毀

垣闌入郭忠輔等直入索瑩而出遂流瑩

太祖回軍時與校副令尹紹宗詣軍前懷懼光傳以獻○丙午

復行洪武年号禁胡服時大明聞禍舉兵銜征之及聞還軍即止○庚戌

枚禍于江華辛亥曹敏修以定妃教立禍子昌年九歲○朴宜中還

自京師 帝引見厚待遂寢鐵嶺立衛之議○倭寇光卅以三道都體察

使皇甫琳及副元帥等往擊之判典校事康好文妻文化陷賊不污墜

千仞石崖為藤蘿障蔽得不死潛還鄉里驚嘆○遣贊成事禹仁

烈政堂文學似長壽以禍遜位表如京師○沅曹敏修于昌寧○八

月以李穡為門下侍中我 太祖守侍中閔書造鄭夢周權近鄭道傳

並充書造官○鄭地擊倭于南原大敗之時寇倭慶尚全羅楊廣自秋

及夏屠燒卅郡地為三道都指揮使擊倭大捷人謂非此戰三道民幾盡

矣○九月遷禍于驪興

辛巳○春二月慶尚道元帥朴歲以兵船擊對馬島燒倭船三百艘

及盧舍殆盡元帥金宗衍崔七夕朴子安繼至投擄民百餘以還昌

賜歲衣服鞍馬銀錠獎諭之○姜淮伯等還自京師

上年十一月遣淮伯等如京師請朝

見至是禮部奉 聖旨問咨曰高麗限山員海風殊俗異雖與中國相通雜合不常年
臣子逐其父立其子請欲未朝蓋為韓倫大毀君道甯無不臣之逆大彰詢使者改童子
不必未朝立亦在彼廢
亦在彼中國不與相干 ○六月以沈德符判三司事安宗源門下贊成事鄭愛周

藝文館大提學 ○七月禍生日我 太祖與判三司沈德符判開城府裴克

廉門下評理鄭地等享禍于黃驪府 ○琉球國中山王察度遣王之奉表稱

臣故我被倭虜掠人口獻方物使到順天府都堂以前代所不來難其接待

昌曰遠人來貢待之薄則無乃不可乎使之入京慰送可也遣迎接使以待

之又遣典客令金允厚等齎答書及禮物報聘于琉球國 ○命李樞李琳

及我 太祖鈔發上殿贊拜不名各賜教書銀五十兩彩段十匹馬二匹

從鄭愛周之請也 ○冬十月丙申霧丁酉大雨震電丙午霧癸丑霧三日

○十一月己巳霧甲戌地震乙亥雷 ○放昌于江華 前大護軍金仔崔瑩甥也前副令鄭得厚亦瑩

強黨潛往黃驪 謁禍禍泣謂曰不堪盤討二居此殿手就死仍投一劄使遺所善郭忠輔令入關日可舉事圖 李侍中忠輔陽諾奪信 太祖得厚被執自刎囚行巡

軍鞠之辭連前判書趙方興及邊安烈李琳禹玄寶禹仁烈王 我 太祖與沈德

安德禹洪壽於是遷于江福陵放昌于江華廢為庶人 符 德符池湧奇鄭愛周使長壽成石 符 璘趙浚朴歲鄭道傳桶九功臣 等定策立定昌君瑤為王 ○李樞自

長湍入賀樞前月辭職飯長湍別業

辛昌

諱瑤神宗七代孫 初封定昌府院君 ○元年 洪武二 十二月臺諫交章司宰副令尹會

恭讓王

宗亦上疏極論於是誅禠昌 禠妻崔氏大罵曰妾之至此吾父之過也不食十餘日晝夜哭泣衣必北冕而宿糧粒輒精春供奠時人憐之

○二年殺前原川府院君判三司事邊安烈于流初所金行獄起辭連安烈問何不服刀裂足掌屣以火隨問皆服遂成獄詞郎舍尹紹宗李詹吳思忠等疏論安烈之罪請正典刑王不允流漢陽時有強盜劫人於城門外紹宗等引吳元濟遣人殺武元衡之事以為劫盜之發實由安烈輩既面啓退又上疏請明正其罪王下其疏憲司就貶所勿更鞠誅之憲司核帶漢陽府尹金伯興誅安烈於是紹宗等又論伯興不問而誅請懲黨惡掩覆之罪乃遣台官分鞠安烈黨與李乙珍李琳貴生李康道鄭地元庠等于京外拷掠甚酷伯興死獄中○以我 太祖頌八道軍馬置軍營分番宿廩以軍資負○王御經造謂侍講官曰予年齒已暮雖讀聖經恐無益也朴宜中曰昔晉平公謂師曠曰五年已七十七欲學恐年耄矣師曠曰何不炳燭乎平公曰為人臣而戲其君乎師曠曰盲臣安敢戲君吾聞之少而好學如日出之陽壯而好學如日中之光老而好學如炳燭之明孰如昧行乎公然之今殿下春秋尚富學未晚也王嘉納○左司議吳思忠門下舍人趙璞等上疏請治李穡

曹敏傷議立昌迎禍之罪始諫繼論請置極刑王遣兵思忠鞠穡于長

穡穡供辭略曰去年朝京師禮部尚書李原明日汝國逐父立子天下安有是理王與崔瑩皆被拘囚是何義義也云云及還謂侍中 李曰原明之言耳

恭讓王

可得聞口不可道驪輿地遠近地可免放君之名但
此語而已固無立之議始諫交章復論遂移檣于咸昌 ○始諫請鞫彝初之
黨遂下馬玄寶等子巡軍逮擊李檣等子清卅獄王昉趙胖還自京
師啓禮部呂臣等曰企國人有坡平君尹彝中郎將李初者來訴于
帝言高麗 李侍中立其姻親王瑤謀動兵將犯上固宰相李檣等
以爲不可即將李檣曹敏修李琳遵安烈權仲祀張夏李崇仁權述
李種學李貴生等十人殺害將馬玄寶馬仁烈鄭地金宗行尹有麟
洪仁桂陳乙瑞慶補李仁敏等九人遠流其在敗宰相潛遣我來告
天子仍請親王動兵來討乃出彝初所記檣等姓名於是始諫請鞫
彝初之黨留中不下會宗行逃遂下玄寶有麟于巡軍大獄遽起先
鞫有麟峻急辭連崔公哲等十餘人並下獄有麟憂憤不食死梟市
籍家逮繫檣琳仁烈仁敏地景仁近種學貴生等子清卅獄遣尹虎等
鞫之會以清卅水災王命釋之 ○禮成江水亦沸三日 ○三年省五軍爲
三軍都摠制府以 太祖爲都摠制使裴克廉爲中軍摠制使趙浚爲
左軍摠制使鄭道傳爲右軍摠制使 ○鄭道傳上書都堂請誅李檣馬
玄寶始諫亦交章請治檣玄寶種學等罪乃流檣于咸昌玄寶于鐵
原種學于遠地 ○冬省憲刑曹上疏曰道傳濫居功臣之列內懷奸惡

外示忠直洩汚國政請加其罪王旻其故鄉奉化縣○判開城府事鄭地

卒謚景烈○召還李穡李崇仁○四年士甲洪武二十五年四月諫官金震陽李擴

李來李鼓權弘等上疏曰道傳起身賤地初為玄寶族人金戰嘗為僧私其奴妻生一女密加愛護以嫁士

人高廷庄女適鄭云敬生道傳竊位堂司欲掩賤根謀去本主織成萋斐之罪連坐衆多之

人趙浚於一二卿相偶起嫌讎與道傳同心賣弄權勢誘質諸人閭在

等為扇亂之羽翼紹宗璞等為造言之喉舌唱和而起廣張罪網衆心危懼

咸怨嗟請鞠問浚閻在紹宗璞等之罪明正典刑道傳仍於賤所正刑疏

上留中不下明日震陽等伏閣更請王召侍中沈德符鄭夢周議遂流

浚閻在紹宗璞遠地又與憲符姜淮伯鄭熙金畝徐甄李作李申連

日交章請誅浚道傳等並劾吳思忠王命先鞠閻等諸人而已夢周

遇害籍其家流震陽李擴李來李鼓權弘鄭熙金畝徐甄李作李申

于遠地放櫓于韓卅尋徒驪與又廢宗仁趙瑚種學種善震陽擴為庶

人五月憲符又上疏贊浚忠功極陳夢周之罪曰夢周貪黷復富貴招

納貨賂專權自恣植黨謀亂萬一得成其計專擅國柄則不唯濁亂

朝廷將心傾危社稷餘黨俱長壽李彬李彬金履安魯生崔關

金瞻請並罷遠流從之○召還趙浚鄭道傳南閻○都評議使

司執宗親南平君和等六人及禹玄寶五父子安翊金南得崔乙義
王承貴都興安瑗柳廷顯許應朴興澤安俊申元弼崔咸流于遠
地使經歷張志和啓王曰玄寶等屢于罪紀更欲謀亂禍機甚迫未
及啓聞已務分配于外○以趙浚判三司事京畿左右道節制使南
慶尚道節制使各道皆如之使掌其道戎馬鄭道傳奉化郡忠義
君趙胖知密直司事權仲和商議贊成事尹虎成石璘贊成事李仁
敏判開城府事慶儀鄭熙啓門下評理金士衡三司左使尹師德判
密直事金用超金乙貴李凝金綢並為密直副使李行藝文提學
○王召司藝趙庸曰予將與 李侍中同盟卿聽 侍中言草盟
書來庸言烈國同盟則古有之矣君臣同盟則無經籍可據王曰第
草之庸言於我 太祖退草以進○秋七月王遜于原卅身移杆城
郡封恭讓君高麗亡

右高麗太祖以後梁末帝貞明四年戊寅即位至恭讓王四年
壬申大明 太祖高皇帝洪武二十五年亡合三十三王共四百七十

五年

恭讓王

史代按太祖以神武英雄之資懷濟世安民之略天與人故遂即大位

攬結豪傑開拓邊疆威德廣被遐通故心賊壹屈膝而來朝金傅東
手而納上平羅定濟以一三韓何功烈之盛也雖干戈草創未遑作制而
規模則宏遠矣(憲定)相繼(光宗)聰明聽斷始可與有為而猜慢
日深邪佞得志誅夷骨肉屠害將相衆心離解斷喪邦本雖有文
雅之美不足稱也(景宗)初政鑑前王之失焚讒書雲電獄遽厥萬
幾沉溺聲色享年不永(成宗)勵精兢惕立宗社耕籍田設學校勵
賢才崇尚節義矜恤民隱制作日新可謂守成之良主(穆宗)昏
弱不能防閑其母下不能威制兇奸釀成蒲塔之禍藩臣乘釁而
動稱兵向闕乘輿奔竄終不自保然於大漸之際付托得人神器不
搖是足可稱(顯宗)又勞于外備嘗艱險作其即位厭亂息治偃武修
文任良務制初啟封疆無事中外又安雖謂之中興可也(德靖)遵而
勿失(文宗)恭儉寬仁任賢能惜名器愛民恤刑信賞必罰國富
給民安物阜東倭北貊獻琛扣關時誦治平獨其佛宇之侈侈於
蒲梁塔廟之盛擬諸新羅斯為盛德之累(順宣)又獻享年不長
(肅宗)由藩邸紹大統維持鞏固(睿宗)宵旰憂勤銳意圖治敦尚
儒雅講劇治道興學育才養老恤孤其為治有足可觀但志

存恢拓構興強虜封域多事至如好詞藻喜慢遊流連玩暢頗傷
國君之體(仁宗)親經李拓之難可以少省矣而墮於賊髡之手屢幸
西都構成逆謀其得免栢人之禍幸矣所可稱者慈仁恭儉而已毅
宗驕奢汰侈盤樂怠忽惑聲色嗜詞賦狎昵羣小疎棄忠直詞
臣獻佞癰疽內結於心腹武士積憤鋒刃潛伏於肘腋元夫叛將
奮臂一呼衣冠縉紳雍獮殆盡身且不保自是鹿醜悍老兵相繼專
權終高麗之世不可復振(明宗)庸暗為仲夫所立忠獻所廢其立
其廢皆在賊臣加以愛溺牀第德慙閨門何足取哉(神熙)及(康)
受制權奸徒擁虛器而(熙宗)輕慮淺謀欲除元賊反見放出悲
夫(高宗)外為強敵所逼內為權臣所脅政前定後動必掣肘棄
宗廟捐城郭寓居海島操縱進退不出於強敵則必出於權臣真
所謂寄生之君耳然循默端拱以正自處享國垂五十年豈非處
運未窮天之眷顧未怠而默有所相歟胡元威制天下(元宗)親朝
款附得結姻好摧伏權奸宜可以少紓國患而反見侵擾國家
亦豈故矣(烈宣)肅惠相繼尚主憑仗甥舅之親在元日夏在國
日少自置東省政教號令皆出於元羣不逞之徒因緣盤結徃

復猜譖子詐其父臣誅其君子立則父廢父立則子廢圖新君者
吠舊主背本國者喜生事無復有君臣父子之分夷考其行忠烈
忠肅之驕溢荒怠莫能尚忠宣忠惠之淫縱穢褻瀆亂天常吐
蓄之流揭陽之窟皆自取也尚誰咎哉(忠穆)短祚(忠定)不終(恭愍)
初雖有令聞性本猜戾踈忘世族向用寒士賊睦用事擁蔽聰明
魯國薨逝心志尤感喜怒不中賞罰無章信用讒邪誅戮
將相設子弟衛汚穢宮掖假偽姓為己子促滅宗祀其及也
宜矣遂使禍昌父子盜竊神器十五六年人徒知高麗之亡亡於
恭讓而不知己亡於恭愍矣(恭讓)為將相推戴得承大統雖勵
精兢業猶懼不能圖存而智識淺短闇於治體刑政日紊國步斯
蹙天命已絕人心已離層數竟改於

真主斯實天也非人也

成義歲豈猶人焉物亦賦也水本活

敬之明山則厚重故有草木之生尚

斯矧大德之博施維我

唐虞之淳質下無周文之郁繼位

此民安寧四方補平南海云揚之禋沒

可老之士相其時也天瑞屢下祥歎神

元何彼嘉禾獨入詠歌我求其源厚究

氏則天食君以民天若極其辯良

而君民非食則殄天之報償莫此

皇阜德報可其長有惠三友尚

實之可以

有不待隆

之末者知

峯鞍出峯

書余之汲

毋論古今人

可者不取正

則軻傳至左

笑也及諷

有是哉判即

古
951

v.2

古

951

6328c

v. 2